

환원 운동사

번역과 저술 : 조 동 호



그리스도교회연구소

RESTORATION MOVEMENT HISTORY

Translated and Written by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7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본서는 필자가 이미 번역했거나 저술한 자료들을 모아 강의 교재로 엮는 자료집이다. 이는 학생들의 편의와 교재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써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읽고 공부하기에 적절한 분량이다. 보충 학습이나 연구는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에 담긴 자료들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본서가 환원운동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수고한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2017년 8월 1일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차례

머리말	3
차례	5
미국 환원운동사 연표(Chronology)	9

제1부 환원 운동사 13강

서문	19
제1강 오순절에서 순례자까지	21
제2강 신대륙의 기독교	33
제3강 미국의 교파	43
제4강 초기 탐색	55
제5강 발톤 왈렌 스톤	65
제6강 토마스 캠벨	75
제7강 알렉산더 캠벨	85
제8강 지도력의 확대	95
제9강 진보와 퇴보	109
제10강 그리스도의 교회들	119
제11강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131
제12강 그리스도의 제자들	141
제13강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151
역자후기	161

제2부 보충 자료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	165
선언과 제언	179
율법에 관한 설교	221
루넨버그 서신	229
스톤-캠벨운동의 분열사	255
발튼 워렌 스톤(1772-1844)	281
1. 서론	283
2. 장로교 목사 되기	287
3. 대부흥회	301
4. 그리스도인의 교회	308
5. 알렉산더 캠벨의 추종자들과 연대	321
6. 교회와 사회	330
7. 스톤-캠벨 운동과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후기 성찰	338
8. 죽음과 장사	341
9. 스톤-캠벨 운동에 관한 스톤의 영향	342
알렉산더 캠벨의 업적	345
1. 새 출발(Beginnings)	346
2. 떠오르는 지도자로서(As Emerging Leader)	349
3. 교회 개혁가로서(As Church Reformer)	351
4. 인습타파자로서(As Iconoclast)	353
5. 토론가로서(As Debater)	353
6. 정치가로서(As Politician)	355
7. 편집자와 출판가로서(As Editor and Publisher)	356
8. 설교가로서(As Preacher)	359
9. 교육가로서(As Educator)	361
10. 성경학자로서(As Biblical Scholar)	363

11. 대중연설가로서(As Public Speaker)	363
12. 조직가로서(As Organizer)	364
13. 사회개혁가로서(As Social Reformer)	365
14. 신학자로서(As Theologian)	368
15. 나오는 말(A Final Word)	368

제3부 한국 그리스도 교회

한국 환원운동사 연표	375
A. 한국에서의 자생적인 환원운동들	375
B.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준비기	379
1. '동경사곡선교회'(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380
성낙소 목사 약력 및 업적: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	380
2. '기독교회'(마이클 쉘리 선교사)	385
3. '기독교회'(존 채이스 선교사)	385
4.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동석기 전도자)	387
C.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착기	390
D.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기	395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 선교	403
존 채이스의 한국선교	42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유약기)	44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재건(1945-60)	461
김은석 목사의 부흥운동	47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성장(1945-60)	487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의 사역	499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1960년 이후 복음전도/교회개혁)	52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육사업	53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복지사업	555

미국 환원운동사 연표(Chronology)

스톤(Stone)

1772년 12월 24일,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출생.

1796년 봄, 설교자격증 취득,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

1798년 봄, 케인 릿지와 콘코드(Cane Ridge & Concord)에 부임. 10월 4일, 트란실바니아 장로회(Presbytery of Transylvania)에서 목사 안수 받음.

1801년 케인 릿지(Cane Ridge) 대부흥회.

1803년 9월 10일, 켄터키 노회(Synod of Kentucky)에서 다섯 명 탈퇴.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 조직.

1804년 1월, 「변증서」(*Apology*) 인쇄. 6월 28일,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발표.

캠벨(Campbell)

1763년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탄생.

1788년 9월 12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탄생.

1796년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탄생.

1807년 5월 13일, 토마스 캠벨 필라델피아에 도착.

1809년 9월 29일, 알렉산더 캠벨 뉴욕에 상륙. 「선언과 제안」(*Declaration & Address*) 출판.

1811년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 조직. 6월 12일 캠벨 가족 침수세례 받음

1813년 가을, 브러시 런 교회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

1816년 9월 1일 “율법에 관한 설교”(The Sermon on the

- 1823년 알렉산더 캠벨
「그리스도인 침례자」
(*Christian Baptist*) 발간 시작.
- 1824년 스톤(Stone)과
캠벨(Campbell)의 회동.
- 1824년 조지타운(Georgetown)
에서 알렉산더 캠벨과 스톤의
회동.
- 1824(-1829) 알렉산더 캠벨
'일들의 옛 질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기사 연재
시작.
- 1826년 스톤의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
창간.
- 1827년 월터 스코트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 소속
복음전도자가 되다.
- 1829년 캠벨과 오웬의 토론
(Campbell-Owen Debate).
- 1830년 12월 25일,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 해체되다.
- 1830년 알렉산더 캠벨
「천년왕국의 선구자」
(*Millennial Harbinger*) 발간
시작.

연합운동(The United Movement)

- 1831년 12월 렉싱턴(Lexington)에서 스톤의 "그리스도인들"
("Christians")과 캠벨의 "개혁가들"("Reformers")이 연합 회동.
1832년 1월 1일 연합.
- 1836년 영국 노팅햄(Nottingham)에 제임스 윌리스(James Wallis)가
그리스도의 교회(a Church of Christ) 설립. 베이컨대학(Bacon
College) 설립.
- 1837년 1월 13-17일, 캠벨과 퍼셀의 토론(Campbell-Purcell Debate).
- 1840년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 설립.
- 1841년 베다니대학 개교.
- 1843년 캠벨과 라이스 토론(Campbell-Rice Debate).

- 1844년 11월 9일, 미주리 주 하니발(Hannibal, Missouri)에서 스톤 사망
- 184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Cincinnati, Ohio)에서 제1회 전국 대회 개최.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캠벨이 회장에 피선.
- 1851년 최초의 선교사 제임스 T. 바클레이(Dr. James T. Barclay) 박사 예루살렘에 도착.
- 1854년 토마스 캠벨 베다니에서 사망.
- 1855년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 출판 시작.
- 1856년 「미국크리스천리뷰」(*American Christian Review*) 시작.
- 1863년 「복음 반향」(*Gospel Echo*) 시작. (후에 「그리스도인 전도자」(*Christian Evangelist*)로 개명.)
- 1866년 알렉산더 캠벨 베다니에서 사망.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 시작.
-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 조직.
-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조직.
- 1884년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 텍사스 주 오스틴(Texas Austin)에서 「확고한 터전」(*Firm Foundation*) 발간 시작.
- 1889년 샌드 크리크(Sand Creek)의 "제언과 선언"("Address and Declaration").
- 1891년 J. M. 매케일렙(J. M. McCaleb) 선교사 일본에서 장기 사역 시작.
- 1891년 내슈빌 성서 신학교(Nashville Bible School) 설립. 후에 데이비드 립스콤대학교(David Lipscomb University)로 개명.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es/
Dis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 1902년 조지 필립 바우저
(George Phillip Bowser)
「그리스도인 공명」(*Christian
Echo*) 시작.
- 1906년 1906년 종교통계조사
(Religious Census)에서 개별
- 1907년 제자들은 연방 교회

- 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창립 멤버가 되다. 후에 전국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로 개명.
- 1909년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백주년 대회 개최.
- 1910년 그리스도인 연합 위원회(Commission on Christian Union) 창립. 후에 그리스도인 일치 협의회(Council on Christian Unity)로 개명.
- 1917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Disciples of Christ) 및 전국 그리스도인 선교 대회(National Christian Missionary Convention) 조직.
- 1919년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사협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회들 통합.
- 1920년 열린 회원제 논쟁(open membership controversy) 시작.
- 1921년 전(全) 캐나다 위원회(All-Canada Committee) 형성.
- 1925년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창립.
- 1927년 제1회 북미 그리스도인 대회(First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개최.
- 종교 단체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인정. 차일더즈 고전학교 (Childers Classical Institute) 설립. 후에 에빌린기독교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로 개명.
- 1916년 R. H. 볼(Boll) 「말씀과 사역」(*Word and Work*) 편집 시작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대변하던 정기 간행물).

1930년 그리스도의 교회들 세계
대회(World Convention of
Churches of Christ) 조직.
1934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재연구 위원회 (Commission
on Restudy of the Disciples
of Christ). 1949년 종결.

1938 제임스 드포레스트
머치(James DeForest
Murch)와 클라우드
위티(Claude F. Witty)에
의해서 조직된 일치 모임
시작. 1947년까지 지속됨.

1941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
학회(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설립.

1941 내슈빌 그리스도인 학교
(Nashville Christian
Institute) 운영시작.

1943 올랜 히스(Olan Hicks)
「그리스도인 연대기」
(*Christian Chronicle*) 출간
시작.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
(*Churches of
Christ*)

1947년 버리스
버틀러(Burris
Butler)가
편집자로 있던
「그리스도인 표준」
(*Christian*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선교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
교회 설립
후원을 위해서
재원 조정을
허락(sponsoring
church plan

<p><i>Standard</i>이 “신실한 자들의 명예 명부”(Honor Roll of the Faithful,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주의 제자들 교회들의 명부) 작성 시작.</p>	<p>allows coordination of resources).</p>
<p>1955년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한 개별 목회 주소록 발행.</p>	<p>1949년 로이 코딜 (Roy E. Cogdill) 비제도 운동(noninstitutio- nal movement)을 불러일으킨 「복음 수호자」 (<i>Gospel Guardian</i>) 출간 시작.</p>
<p>1959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ns on Internal Unity) 시작. 1966년까지 지속됨.</p>	<p>1950년 텍사스 주 터렐(Terrell, Texas)에 흑인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사우스웨스턴기 독대학(Southwest ern Christian College) 설립. 1952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전국 라디오 방송, ‘진리의 전달자’(Herald of Truth) 시작.</p>
<p>1959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 ns on Internal Unity) 시작. 1966년까지 지속됨.</p>	<p>1960년 칼 스페인(Carl Spain)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p>

- 1960년 교단 재구성 위원회 공인(Authorization of Commission on Brotherhood Restructure). 운영되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정죄하는 연설함.
- 1962년 교회 일치 협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입(Entrance of Disciples into Consultation on Church Unity/COCU).
- 1963년 학자들 패널 보고서 발간(Publication of the Panel of Scholars Reports). 1963년 최초의 “엑서더스”(Exodus) 교회가 뉴욕 주 웨스트 이스립(West Islip, New York)에 세워짐.
- 1964-65년 그리스도의 교회들 ‘뉴욕 세계 박람회’(New York World’s Fair)에서 홍보 활동.
- 1967년 「선교」(Mission) 출간 시작.
- 1968년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Provisional Design) 채택.
- 1971년 「미국 교회 연감」(Yearbook of American Churches)에 하나의 종교단체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로 개별 목록 등록.

1984년 제1회 환원
포럼을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
Missouri)에서
개최.

1984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간에
'환원 수뇌 회의'
(Restoration
Summit)로써
환원 포럼
(Restoration
Forums) 시작.

1992년 「가죽부대」
(*Wineskins*) 출판
시작.

1996년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동
글로벌 교역
위원회(Common
Global Ministries
Board) 결성.

1999년 스톤-캠벨
대화(Stone-Camp
bell dialogue)
시작.

1999년 스톤-캠벨
대화(Stone-Camp
bell dialogue)
시작.

1999년 스톤-캠벨
대화(Stone-Camp
bell dialogue)
시작.

제1부
환원 운동사 13강

모리스 M. 워맥 저, 조동호 역

서문

이들 13개의 강의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한 전통유산을 살펴 보려는 노력을 대표한다. 환원운동은 필자가 어른이 된 이후 내내 관심분야였고, 수많은 설교와 성경학교 강의주제였다.

이 일련의 강의들은 1960년대 초에 필자에 의해 처음 책으로 출판되었고, 나중에 R. B. 스위트 출판사(R. B. Sweet Publishing Co., Austin, Texas)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 출판사가 “생명의 말씀” 강의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을 때, 저작권 승인이 필자에게 주어졌다.

칼리지 출판사(College Press)는 매우 고맙게도 많은 강의들이 추가로 첨가된 이들 13개의 강의들을 다시 책으로 출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전 판에는 환원운동에 관한 강의가 단지 세 개만 있었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우리의 역사인 환원운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특정한 준거의 틀에서 명백하게 나온다. 필자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 40년 이상 설교하였다.¹⁾ 그러나 필자는 버틀러 대학교 신학대학(Butler University School of Religion)을 다녔고,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또한 매우 친숙하다.

이들 강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이 글들을 기도으로써 읽게 될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독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읽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오직 따라야 할 것이다.

1) 역자 주: Churches of Christ는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식 명칭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얼 웨스트(Earl West)는 필자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수년간 줄곧 필자를 격려했다. 그의 『사도전승 탐구』(Search for the Ancient Order)에 관한 발전 가능한 업적들은 필자의 지속적인 벗이었다. 필자는 그의 우정과 격려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한다.

필자는 특별히 필자의 딸인 리앤 위맥(Leanne Womack)에게 필사본의 최종 사본을 편집하는데 많은 제안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물론 모든 오류들은 필자의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래리 킨(Larry Keene) 박사는 몇 개의 장들을 읽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간 제안들을 해주었는데 도움이 매우 컸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책을 축복해주시기를 필자는 간절하게 빈다.

모리스 M. 위맥(Morris M. Womack)

1988년 3월 25일

제1강

오순절에서 순례자까지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독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발전하였으며, 세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네 가지 분명하고 두드러진 물음에 답을 얻어야 하는데, 첫째, 어떻게 교회는 막강한 지구촌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는가; 둘째, 어떻게 초대교회는 본래의 패턴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셋째, 어떻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어 발전하였는가; 넷째, 어떻게 가톨릭교회는 반-종교개혁으로 대응하였는가를 포함한다.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래도록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보여준다. 그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랬고, 사사 시대와 열왕기시대에도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한 세대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대비해야 할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구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교회와 교회의 영구성에 관한 몇 개의 진술들을 구약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사에 있어서 오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교회의 영원성에 관한 가르침들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의 약속들

구약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성구들이나 예언들이 많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길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급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데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¹⁾

상기한 말씀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의 집과의 새로운 계약”을 예언하였다(렘 31:31-34). 이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왕국”을 예언하였다(단 2:44이하). 이들 성구들의 하나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을 새로운 통치의 출현을 예언한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신약성경 속에 교회가 예언되어 있다.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약속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교회의 영구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는 중요치 않다. 예수께서는 음부의 권세

1) 고딕체 강조는 필자의 것임.

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흔들 수 없는 왕국”이다(히 12:28을 보시오).

우리들은 예수의 왕국인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예수 자신의 예언과 약속을 모두 갖고 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신약성경교회의 환원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 패턴을 갖고만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오순절의 충격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요 축제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날은 유월절 후²⁾ 50일 혹은 일곱 주에 발생하였으며, 종종 “칠칠절”(Feast of Weeks)로 언급된다. “이 날은 첫 열매들의 처음 익은 단을 흔들어 바치는 때에 시작되었고(레 23:11), 이스라엘이 지킨 두 번의 토지 축제들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기술되며, 보리추수의 종결을 의미하였다(레 23:15-16, 신 16:9-10).”³⁾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뒤따라 일어난 유월절 축제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고, 이 무리가 오순절 축제 때까지 남아있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선택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따라서 오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그 날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셨던 약속의 응답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날은 “성령시대”(Spirit Age)가 시작된 날이었다(요 14:26; 행 1:4-8; 2:1이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그 날에 발생하였다.

예수께서 사망하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하게 세상에 처음 주어진 것은 오순절 날이었다. 이 일이 발생하

2) 역자 주: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날(레 23:15-16: (레 23:15-18: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3) Henry E. Dosker, "Pentecost,"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ed James Orr(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5), IV, p. 2318.

기까지는 복음이 온전할 수 없었다(고전 15:1이하 비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처음 선포되었던 날은 오순절 날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날에 실제로 출범하였다.

교회의 영원성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분별 있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것이 진실할 수 있는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약성경은 이 진리를 단언하는 진술들로 가득하다.

당신의 아들의 강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폭넓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위대한 서신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4-10).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 1:22-23)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어서 진술한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바울은 또 예수께서 “때가 차서” 역사 속으로 정확한 시기에 오셨다고 말한다(갈 4:4). 다른 어떤 시간도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적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억측하는 것처럼, 재고(再考)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교회는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일부분이다. 몇몇 전 천년설 주창자들은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으나, 유대나라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은 왕국대신에 교회를 남겼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교회”와 “왕국”은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동일한 것으로 언급한다.

예수께서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설(will stand)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8-11)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것은 커다란 위로의 원천이다. 남겨진 것은 “노획물을 청구하는 것”이다. 계시록을 읽어 보라. 비록 우리가 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의 의미에 철저히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승리”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왕국인 교회에 접근한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왕국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한 “흔들 수 없는 왕국”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

4) 역자 주: 정확히는 시대구분론 주창자들을 말함.

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히 12:22-23)....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 12:28).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개념들, 즉 순례자들 대(對) 시민들, 역사상의 “환원”의 표식들 그리고 환원 개념을 주목하기 바란다.

순례자들 대(對) 시민들

먼 옛날, 북아프리카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세속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를 비교하였다. 그의 주장을 크게 압축하여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한 왕국, 즉 교회로 상징되는 영원한 도시인 반면, 세속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임시적이며 미완성의 세상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시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순례자들 일뿐이다. 우리는 여기에 지속적인 거처를 갖고 있지 않다. 이 개념에 대한 성구들은 신약성경에 얼마든지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적고 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후 5:1-2)고 적고 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19-20).

앞에서 인용한 몇 개의 성구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는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기까지 종종 우리들은 이 진리의 충격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이 임시적이라는 인식으로 지상의 “업무”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셋째, 이 삶은 단지 “실험장”이다. 이 삶 속에서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선물을 청구할 수 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다.

역사상의 환원의 표식들

교회는 예수께서 주셨던 원래의 모습에서 곧 떠났고, 조직과 삶과 교리에서 왜곡된 많은 모습들이 교회에 스며들었다. 한 몸으로써 가톨릭교회와 자치적인 많은 개교회들 모두가 개혁을 시도하였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되었고,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뱅, 츠빙글리는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자체의 반-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스며든 잘못들을 고치려 하였다. 사제들 사이에서의 도덕성은 때때로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교리들이 장려되었다. 복잡한 모습의 조직은 중세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교회를 특징지었다.

종교개혁(reformation)과 환원(restoration). 본서는 “개혁”과 구별해서 “환원” 운동으로 알려져 온 것을 조사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수많은 개혁활동들을 시동시켜왔었지만, 일반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운동(the Reformation Movement)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비록 캠벨과 스톤은 그들이 몸담았던 운동을 “개혁”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역사가들에 의해서 “환원운동”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뱅 그리고 다른 개혁가들은 그들의 개혁을 기존교회를 “고치고 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강의들을 통해서 연구하려는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초대교회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전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복귀하는데서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았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⁵⁾가 그들의 의도들을 기술하는 자주 반복되는 슬로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강의들에서 “환원운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분의 길을 찾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복귀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캠벨과 스톤 그리고 다른 개혁가들이 착수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어왔다. 몬타누스주의(Montanists)⁶⁾는 교회를 정화하려고 착수하였다. 알비파(Albigenses)⁷⁾와 발덴스파(Waldenses)⁸⁾ 그리고 재침례파(Anabaptists)⁹⁾들은 기존

5) 역자 주: 이 슬로건이 개혁주의 전통, 특히, 칼뱅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으며, 주로 “진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에서 즐겨 쓰고 있다.

6) 역자 주: 몬타누스주의는 2세기경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서 번성했던 개혁운동으로써 히에라폴리스에서 몬타누스가 일으킨 운동이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그들의 예언들이 사도들이 선포한 교리들을 대신하고 이행한다고 믿었고, 무아지경 상태에서의 예언을 권장하였으며, 은혜에서 떨어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재차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죄의 회피와 교회의 징계 및 재혼금지와 정절을 강조하였다.

7) 역자 주: 알비파는 9세기경 발칸반도와 그 주변 섬에서 형성되었고,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흥하다가 14~15세기경 소멸된 카타리파로 불리기도 한다. 카타리파는 자신들을 ‘순결한 사람’(Katharoi)으로 불렀다. 알비파는 12세기경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종파로써 그들이 남긴 자료들이 드문데다가 내용이 부실하고 반대파들의 자료들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가톨릭교회와 대립하여 반(反)성직자파를 결성하고 당시 성직자들의 부패를 끊임없이 비판했다는 점이다.

8) 역자 주: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청빈을 실천하였으며,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

교회들을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진 본래의 순결성으로 돌아가는데 전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면관계상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시키려했던 모든 운동들을 낱알이 기술할 수는 없지만,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토론들에서 여러 세기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패턴을 따르려고 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환원”의 개념

그러므로 환원운동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얼마나 커질지 그 범위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 본래의 활동들이 갖게 될 영향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19-20세기 기독교 연구에 의하면, 환원운동은 이 운동의 모든 분파들(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토착적인 종교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그룹들에는 중앙 교회본부들이나 중앙 “홍보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운동의 수적 크기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는 하나 이 모든 그룹들에 속한 교인들의 수가 3~4백만 명을 넘는 것이 분명하다.

과거 한 세기 반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관해서 듣고 수용했던 추종자들이 초창기에 쇄도하였다. 이미 주목했듯이, 그것은 19-20세기에 가장 빠른 성장운동이었다. 둘째, 그 운동은 초기에 기세를 장악하였지만 분열로 인해서 그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운동의 세 분파 모두에서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그 운동을 특징짓게 되었다. 셋째, 초기에 성장이 쇄도한 후 그 운동의 신약성경 기독교 정신의 환원이 종종 “교리의 순결”을 위해서 희생되었기

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한 개혁과였다.

9) 역자 주: 재침례자들은 유아세례,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 박해 때 배교했던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 등을 부정하였고, 스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believer's baptism)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성서의 권위회복을 강조하였고, 신약성서 교회로의 환원을 역설하였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교리 그 자체의 분야에서보다는 종종 견해의 분야에서 더욱 심했다. 성만찬 때 한 컵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컵들을 사용한다거나 신학대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고용하는 문제들이 문자적으로 그 운동을 분열시켰다. 과거 수년 동안 분열들은 매우 극화되어서 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과 종종 “말하지” 않게도 되었다. 이것은 그 그룹들의 실제적 성장을 종종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신약성경 기독교의 원칙들에 우리의 삶을 바쳤던 우리 모두는 환원운동 내의 “유감스런 상태의 일들” 때문에 비탄에 잠기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환원운동을 택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계속해서 다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최근에 필자의 절친한 친구가 “우리들의 운동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말에 대답하기를, “만약 우리가 환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에게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일찍 주목하였다(이사야 55장 8-11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에 고무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들 강의들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그들 자신들을 헌신하기를 바란다.

결론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침묵하셨던 수세기 동안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교회는 영원하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성취를 위해서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 기독교의 환원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개혁과 환원의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개혁가들은 기존의 교회를 “고치거나” 정화하려고 하였고, 환원운동은 모든 기독교 세기들 배후에 있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한 세대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개념들 위로 일어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은 왕국 즉 교회의 도래를 준비하셨는가?
2. 오순절 날은 오늘날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의 충격을 논하시오.
4. “세상의 시민들” 대(對) “왕국의 시민들”을 논하시오.
5. “환원”과 “개혁”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 “환원”의 개념을 논하고, 어떻게 이 개념이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논하시오.

제2강 신대륙의 기독교

신대륙의 발견과 정착으로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adaptations)이 있었다. 정착자들은 그들이 이민해 올 때,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를 가져왔다. 모든 분야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들은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대륙의 기독교는 네다섯 가지 중요한 사건들 또는 운동들에 의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았다. 첫째, 유럽에서 자각되고 발생한 인문주의는 기독교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준 중요한 공헌자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기존 교회들의 차이와 분열의 출발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개신교 개혁은 유럽과 미국 모두의 기독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유럽개신교주의에는 크게 세 “분파”, 즉 루터의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비록 이들 세 개신교주의 “분파들” 모두가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된 성경 원칙들을 크고 작게 나누고 있었다. 이들 세 커다란 원칙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성경말씀의 전적인 충분성들이었다. 개신교주의의 이들 세 분파들과 기독교의 원칙들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교회사 전반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가 언급한 다른 “사건들”이나 “운동들”은 그것들 모두가 어느 정도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열할 것이다. 우리들은 발견과 민족주의와 산업화의 거센 물결을 언급한다. 이들 세 가지 발달은 신대륙이 갖게 될 특성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인문주의의 발생은 새로운 세계들을 찾아 나서려는 당대의 많은 야심가들에

게 고무적이었다. 도시들의 발생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것은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냈다. 이것과 더불어 인류의 사고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 산업혁명이 왔다. 이들 영향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들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비록 미국의 교회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교파들로 갈라졌지만, 기독교 안에서 “사도들의 전통”(ancient order of things)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신대륙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이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시작에 공헌했고, 원인이었던 몇 가지 미국 교파주의의 발달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종교적인 자각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에 시작된 미 대륙의 발견은 모든 미래의 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있었다. 쿠알벤(Qualben)은 이들 발견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나열하였다.

첫째, 인간의 지리적 지식의 확장이 있었다. 다음, 일반적인 면에서 인류와 특별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신대륙의 발견과 정착의 중요성이 있었다.¹⁾

두 번째 결과는 우리들의 연구에 대한 좀더 독특한 흥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주요 교파들이 유럽에 그들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대륙에 옮겨왔을 때, 그것들은 독특한 “미국식 취향들”을 따랐다. 워커(Walker)는 “미국 기독교는 일차적으로 유럽대륙에서 수입한 것이다”²⁾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주요한 유럽교회의 몇몇 교파들이 독특한 미국식 교회로 변모한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음 강

1) Lars P. Qualbe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Thomas Nelson and Sons, 1958), p. 413.

2)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2d ed*(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p. 430.

의에서는 미국교회의 몇몇 교파들 또는 미대륙에서 그들의 역사를 시작한 교파들에서 발견되는 기본원칙들 몇 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주의 식민지화는 교회에 지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제안한대로 종교는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의 “취향”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보인다. 미주 대륙이 정착되었을 때, 신대륙 전체에 고루 퍼진 자유에 대한 커다란 느낌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자유가 종교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대륙의 백성과 설교에 스며들 것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 위대한 자유는 그 위대한 개인주의의 발달을 위해 허락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점들이 극대화되면서 더 많은 분열들이 발생하였다.

대각성운동은 미국의 사회, 정치, 종교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대각성운동의 많은 요소들이 미국인들과 그들의 신앙에 충격을 주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거슬려 실제로 반항하였다. 많은 “불경스런 클럽들”이 이러한 반항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깨어져 나갔다. 신앙인들이 격감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둘째, 대각성운동은 대부흥운동들을 야기했다. 천막집회들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관한 설교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었고, 대단한 감정주의가 설교의 상당부분을 특징지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더불어 많은 수의 교육기관들이 시작되었는데, 그것들 가운데 일부는 상위권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들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초기 대학교들은 종교적인 필요들에서 시작되었고, 크게는 복음을 전파할 젊은이들을 키울 사명을 갖고 있었다.

대각성운동은 결과적으로 그것에서 환원운동이 일어난 대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이 둘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은 확실히 있었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

다.

종종 “제2의 각성”이라 불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몇몇 사람들이 환원운동의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환원운동의 주요 추진력의 영예를 스톤에게 돌리려는 그들의 충정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환원운동의 시작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운동은 환원운동의 특징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도적인 환원운동가들에게 어떤 생각의 반응들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부흥운동은 환원운동의 진보를 크게 촉진시킨 기독교 신앙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다.³⁾

따라서 독자는 당대의 종교사회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기독교는 다양한 개척자들을 따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신대륙에 들어왔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 국가들에 의해서 옮겨왔고, 개신교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개척지로 옮겨왔다.

미국에서의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 유럽에서 상당히 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비록 완벽한 미국 가톨릭교회 역사를 약속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간략한 논의만으로도 가톨릭교회가 가졌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리라 본다.

초기 가톨릭교 이민들로 인해서 가톨릭 선교본부들이 산재된 스페인 정착지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에 관한 한 예로,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모든 곳에 가톨릭교 사제들이 세운 다양한 “선교 본부들”이 흩어져 있었다. 좀더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몇 곳만 언급한다면, 산타 카타리나, 산타 발바라, 산타 로사들이 있다. 그 도

3)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1962), pp. 30-31.

시들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모든 곳에 하루길 거리마다 세워져 있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페르디난드(Ferdinand) 왕은 식민지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 후 1513년, 폰스 드 레온(Ponce De Leon)이 플로리다를 발견하였고, 1565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성 어거스틴(플로리다)의 토대들이 놓이게 되었다.”⁴⁾ 스페인 선교 본부들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주에 세워졌다.

불란서 정착지들 또한 일부 가톨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의 결과였다. 불란서 가톨릭 교인들은 북에서 내려와 1608년에 퀴백(Quebec)을 세웠다. 불란서인들은 “캐나다, 루이지애나, 뉴욕의 절반, 매인의 절반, 버몬트의 절반 등을 포함하여... ‘북미주에서 소유권 청구’를 하였다. 북미주는 균일한 가톨릭교회 인구를 갖도록 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⁵⁾ 라르즈 쿠알벤(Lars Qualben)은 매우 훌륭하면서도 간략한, 독자가 보고 싶어 할, 그 이후의 발전들에 대해서 약술하고 있다.

미국의 가톨릭교회가 누렸던 성장은 다음의 수치를 보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89년, 가톨릭 교인의 수는 19,000명에서 24,000명 정도였으나, 1808년에는 대략 150,000명으로 늘었고, 1850년에는 1,726,000명으로, 1870년에는 10,626,000명으로, 1958년에는 35,846,000명으로 성장하였다. 1986년 세계연감에 의하면, 1985년 미국의 가톨릭 교인들의 수는 52,392,000명 이상이었다.

미국 가톨릭교의 이런 놀라운 성장은 두 가지 주요 원인들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많은 수의 가톨릭 교인들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을 해왔고, 그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그들의 가톨릭교 신앙도 함께 가져왔다. 둘째, 높은 출생률 덕분에, 가톨릭교인 가족들의 수가 거의 줄지 않았고, 교회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교파들에서 가톨릭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

4) Qualben, p. 416.

5) *Ibid*, pp. 416-417.

실을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가톨릭교회는 복음전도에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특히 핵심적인 선교사 단체였던 예수회 소속 신부들이 그러했다. 가톨릭교회는 목적을 이룰 매우 성공적인 수단들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것들 가운데는 복지사업, 사립 교구학교들, 문서사업, 그리고 미사 축제로 모아지는 구심성이 포함된다. 비록 가톨릭교회가 가장 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파들의 전면들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불만을 품은 분열된 그룹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적인 전통신학과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려는 (사제들은 물론 평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가톨릭 교인들의 시도들에서 발생하는 차이점들에서 유래한다.

미국 가톨릭교의 “인격”에 관련된 다른 두 가지 단면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교구학교들은 더 나아가 가톨릭교의 가르침들과 원칙들에 이용되었고,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늘어나는 비용으로 인해서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가톨릭교의 계층들이 “새나가는” 양을 줄이는데 공헌하였다. 둘째, 미국 가톨릭교 안에 좀 더 진보적인 요소가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민주적인” 삶의 양식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확실하게 교황 요한 23세와 같은 최근의 교황들을 특별히 상기시키는 것으로써 가톨릭교회 고위직이 실시한 좀더 진보적인 정책들의 영향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개신교. 개신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자유를 발견하였다. 미국 정착 아주 초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몇몇 종파들은 종교의 자유를 다른 종파들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과 미국 식민지화의 시작은 동시 발생적인 사건들이었다.”⁶⁾고 쿠알벤이 관찰한 미국의 종교적 풍토는 건강하였다.

미국에서 누린 자유는 새로운 교파들의 출범을 더 수월케 하였으나, 대부분의 가장 오랜 미국의 교파들은 유럽의 교파들의 단지 미

6) *Ibid.*, p. 413.

국식 변형들이었을 뿐이다. 로날드 오스본은 그의 저술, 『미국 기독교의 정신』⁷⁾에서 이 현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미국에 있는 유럽교파주의의 중요성에 관련된 몇몇 중요한 사실들에 관해 한 간략한 조사에 돌릴 것이다.

영국 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월터 래라이 경(Sir Walter Raleigh)이 버지니아 주를 식민지화 한 직후, 미국에 세워졌다. 여왕에 대한 세금지원이나 충성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민자들 위에 군림했던 영국 교회는 혁명을 불러오게 되었고, 결국 영국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식민지들이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에, 모든 실제적 목적들을 위한 영국 교회는 미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1789년 설립된 개신교 감독 교회(Protestant Episcopal Church)가 영국 교회를 승계 하였다. “이 교단은 모교회의 신앙과 예전과 영적 전통들을 영속시켰으나, 조직만큼은 미국인들의 필요에 따라 조심스럽게 맞춰나갔다.”⁸⁾

회중 교회(The Congregational Church)는 1609년 존 로빈슨(John Robinson)에 의해서 영국 게인즈보로우(Gainsborough)에서 세워졌다. 쿠알벤은 세 가지 기본 원칙들, 이를테면, 전국 규모를 가진 교회의 위상, 외부 권위로부터의 자유, 자체 조직의 창설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⁹⁾ 미드(Mead)에 의하면, 회중 교회의 일부 전통유산은 단 일신론자들(Unitarians)의 진보적인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¹⁰⁾ 그러나 더 초기의 회중 교회는 유럽에서 유래하였다. 1620년 11월 9일, “청교도들”(Pilgrim Fathers)이 상륙하자, 그들은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그리고 뉴 헤이븐에 이주지들을 세웠고, 법으로 회중 교회를 세웠으며, 하버드와 예일대학을 1636년과 1701년에 각각 세웠다.

7) Ronald O. Osborne, *The Spirit of American Christianity*(New York: Harpers, 1958).

8) Qualben, p. 503.

9) *Ibid*, p. 419.

10) Frank S. Mead, *Handbook of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8th ed*, revised by Samuel S. Hill(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p. 240.

루터 교회(The Lutheran Church)는, 물론, 독일 종교개혁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후에 그들은 한 그룹으로써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1623-1624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들은 후에 뉴욕으로 알려진 뉴 암스테르담에 정착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드는 열 개의 다른 분파들을 가진 루터교의 대략적인 교인 수를 거의 9,000,000명으로 추산하였다.¹¹⁾ 가장 큰 두 개의 루터 교회 분파들은 2,500,000명 교인을 가진 미주리 총회(Missouri Synod)와 3,000,0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미주 루터교(American Lutheran)이다. 이들 두 그룹들은 교리적인 차이로 갈라졌는데, 미주리 총회는 보수적이고, 미주 루터교는 매우 진보적이다. 루터교의 여러 다른 분파들을 하나의 커다란 교파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신학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침례교회(The Baptist Church)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프로비덴스(Providence) 시에 로저 윌리엄즈(Roger Williams)에 의해서 1639년 미국에 세워졌다. 침례교회의 성장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할 만큼 빠르고 지속적이었다. “침례교인들은 미국에서 주요 개신교 세력들 가운데 하나를 구성한다. 27개 침례교 교파들은 1983년 대략적인 교인 수를 29,000,000명으로 보고하였다. 약 95,000개의 교회들이 있고, 개교회 중심이다.”¹²⁾고 미드는 기록한다. 미드가 기술하는 대로, 상당한 분열이 침례교회들 안에 존재한다. 1845년 북침례교와 남침례교가 노예문제로 갈라졌다. 그 때 이후로, 다른 분파들이 발생하였다. 침례교인들은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텍사스로부터 동해안과 플로리다로부터 걸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남동부에서 더 강성하다. 침례교회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 근본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가장 큰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는 1611년 버지니아에 정착한 알렉산더 휘테이커(Alexander Whitaker)의 노력들 덕분에 미국 기원

11) *Ibid*, pp. 142-153.

12) *Ibid*, p. 34이하.

을 갖고 있다. 유럽대륙의 장로교회는 모든 교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칼뱅주의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였으며, 상당부분 칼뱅과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롱아일랜드에서 1640년에 시작되었다. 장로교회에는 대략 12개 정도의 다른 분파들이 있다. 가장 큰 그룹이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U.S.A.)이다. 1958년 그들의 수는 6,933,189명이었다. 장로교는 그들의 모든 분파들과 더불어 확실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퀘이커교도들(The Quakers) 혹은 **프렌드들(Friends)**은 165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앞서 우리는 유럽에서의 그들의 시작을 논하였다. 그들은 처음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20년 동안 “주류” 교회들로부터 크게 탄압을 받았다.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퀘이커교도 운동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그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펜은 탄압 받는 퀘이커교도들을 위해서 1681년 피난처를 세웠다. 프렌드들의 수는 100,000명을 넘는다. 그들은 예배의 내적 영적 측면들을 깊게 강조하는 일단의 정적주의자(quietist)들이다.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 역시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1958년 그들의 수는 11,917,286명이었고, 최근 그들은 15-16개의 분파에 총 13,000,000명의 교인 수를 주장한다. 감리교인들은 독특한 감리교인 그룹으로 미국에 처음 오지 않고, 기존 영국교회의 교인들로 웨슬리의 추종자들로서 왔다. 미국 감리교회를 이끈 몇몇 인물들은 토마스 코크(Thomas Coke)와 프란시스 애즈버리(Francis Asbury)였다. 1784년 12월 24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회의의 때에 “방법론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란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선택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프란시스 애즈버리가 그들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¹³⁾

결론

13) 통계는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에서 인용하였다.

이 간략한 조사는 신대륙에 가한 기독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와 주요 개신교 교단들 모두가 유럽에서 시작하였고, 미주로 건너와 성장하였다. 이들 기독교 교단들에 관한 좀더 상세한 자료는 미국의 종교발전들을 다룬 역사 서적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본 모든 교단들은 유럽에서 시작하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몇몇 독특한 미국의 교파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공부할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어떻게 개신교 종교개혁이 기독교가 미주대륙에 이식되는데 영향을 끼쳤는가?
2. “기독교 정신”이란 말을 토의하십시오. 무슨 영향을 이 정신이 미주 기독교에 끼쳤는가?
3. “대각성”이란 말과 그것이 미국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을 토의하십시오.
4. 무슨 영향을 미주 기독교가 초기 미주 교육에 끼쳤는가?
5. 미주에서의 가톨릭교회 운동과 개신교회 운동 모두를 토의하십시오. 어떻게 그것들이 전도 형태들에서 달랐는가?
6. 이 강의에서 논의된 각개의 기독교 교파들의 특성을 토의하십시오. 어떻게 그것들이 새로운 미주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십시오. 각 교파들에 기여한 중요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3강 미국의 교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만큼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했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들 또한 심각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근대 미국 시대 때까지의 교회에 다소 닮았다. 분열은 기독교의 선교 노력들의 효과를 위협하고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본대로, 미국의 자유는 기독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를 찾는데 공헌하였다.

종교는 식민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사실 많은 초기 정착자들은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정치적 억압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도망하여 왔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다수가 정치 사회적인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종교에 부여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화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느꼈다. 하버드, 예일, 윌리엄과 메리, 프린스턴, 심지어 미시간 대학교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초창기 일류대학들은 강력한 종교적 토대들 위에 세워졌다. 예를 들면, 미시간 대학의 교정에는 대학의 종교적 토대를 존경하는 기념패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 교과들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장(章)이다. 이것은 적어도 독자에게 흥미로운 세 가지 입장들에서 사실이다. 첫째, 현존하는 유럽의 교과들이 초기 정착자들과 함께 신대륙으로 옮겨왔다. 둘째, 많은 수의 교과들이 미국에서 시작하였다(이 부분이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각 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환원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이다. 그리고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들,

즉 반전과 부흥, 미국 교파들의 발생, 그리고 미국 교파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쇠퇴와 부흥

18세기 미국 기독교는 쇠퇴하였다. 많은 이유들이 이 쇠퇴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 중요한 충격을 가했던 것은 확실히 “이성시대”였다. 이 시대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교회는 이 “조사”를 피하지 않았다. 독일과 기타 유럽 신학의 자유주의는 미국에 유입되어 퍼져나갔다. 교회들은 영향력과 교인등록 모두에서 쇠퇴를 경험하였다.

불신과 무신론이 미국에서 대중화하였다. 이것이 “이성시대”의 영향의 결과이었던지 혹은 공존이었던지는 이 순간 우리들에게 중요치 않다. 매우 저명한 몇몇 작가들,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볼테르(Voltaire)가 무신론 주장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들도 역시 예전처럼 신앙학습의 센터들이 되기보다는 불신의 센터들이 되었다. 이 모든 영향들은 미국 기독교의 특징에 중요한 충격을 가하였다.

19세기가 열리면서 미국 기독교 분야들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 부흥”을 상세하게 논할 시간도 공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더 깊게 연구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확실히 미국 역사에 주요 운동들 가운데 하나이며, 확실히 전체 교회사의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가 이 책의 나머지 강의들에서 공부하게 될 대부분은 “대 부흥”이 미국 기독교에 중요하게 끼친 영향이다.

이 시점부터 미국 기독교는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훨씬 더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다양한 교회들은 커다란 부흥을 즐겼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만들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권을 권장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성격”의 결과로써 미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증

하는 분열로 인해서 서글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들이 새로운 성격과 미국 기독교에서 경험한 점증하는 분열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부정할 수 없다.

미국 교파들의 발생

미국 기독교의 새로운 성격 또는 특성은 적어도 두 가지 거의 상반된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다. 둘째로 대부분 그것들은 이 땅에 그것들을 존재케 한 어떤 급진적 접근을 갖고 있다.

다음의 몇몇 단락들에서 우리들은 19-20세기 미국의 주요 교파들 가운데서 몇 개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지면관계상 개개그룹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부 본질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m).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다. 미국에 몇 개의 재림교회 교파들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크다.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제칠일 안식일 예배를 강조하는데 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뉴욕주 로우 햄프턴(Low Hampton)의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밀러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니엘서와 다른 예언들의 새로운 해석들을 알아냈다고 주장하였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3년 3월 22일과 1844년 3월 22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팔았다. 이 사건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밀러는 날짜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정확한 날짜는 1844년 10월 22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프랭크 S. 미드(Frank S. Mead)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1844까지 북미주에 50,000에서 100,000명 정도의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었다. 기대했던 날짜가 다가오자, 일부 예수 재림교인들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살림도구들을 주어버렸으며, 모든 그들의 대금들을 결재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다. 10월이 다 지나도록 재림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고, 일부는 그들이 이전에 소속했던 교회로 되돌아갔으며, 다른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5년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였다. 1855년 본부가 미시간 주 배틀 크릭(Battle Creek)에 세워졌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Ellen White)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동의어로 쓰이는 이름들이며, 그들은 이 교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두 가지 법칙, 즉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다. 2)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법은 도덕법이며, 따라서 아직도 유효하다. 3)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믿음의 규칙이다. 그리고 4)사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 부활이 그 영혼을 다시 살릴 때까지 영원토록 잠든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 수는 대략 400만 정도이다.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북미주에 10개의 인문대학과 3개의 종합대학교, 1개의 신학대학원 그리고 의과, 치과, 물리치료과 대학들이 있다. 미국과 해외에 있는 교회는 442개 의료센터들과 51개의 간호사 양성소들과 926개의 대학과 중등학교들 그리고 4,105개의 초등학교들을 후원하고 있다.)

1) Frank S. Mead, *Handbook of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8th ed.*, Rev. by Samuel S. Hill(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p. 20.

2)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운동을 가장 잘 다룬 것들 가운데 하나는 캔라이트(D. N. Canright)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신앙을 버리다』라는 책이다. 캔라이트는 한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였던 자로써, 안식일교회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논쟁들에 해답을 주고 있다.

3) Mead, p. 24.

예수 재림교인들은 문서선교는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교에서도 매우 활동적이다.

성결교회들(Holiness Churches). "성결" 교회들로 종종 간주되는 교회들이 많다. 비록 그들을 같은 교파로 간주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공통적인 많은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결과 오순절 그리고 비슷한 교파들과 같은 교파들을 살피고 있다.

성결 또는 오순절 운동은 1880과 1890사이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독교 운동에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드는 "오순절 운동이 다수의 부흥운동 성격을 띤 미국의 교파들과 성회들과 교회들에 사용된 포괄적인 말이다."라고 제안한다.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 교회들은 교인의 자격으로 극단적 보수주의 삶을 요구하고, 성령의 "제2 은혜사역"과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과 대부분의 근본주의자 교파들에 공통적인 다른 교리들을 믿는다. 성경은 그들 신앙에 중심이다. 모든 "성결" 혹은 "오순절" 교파들은 그 수가 도합 대략 150만 명 정도이다. 비록 하나님의 성회들이 미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미드는 그들을 오순절 교회들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The Assemblies of God)은 1914년 아칸소주 핫스프링즈(Hot Springs)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회는 가장 큰 오순절 교파들 가운데 하나이며, 한 몸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양한 교파들에서 왔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회는 근본주의자에 속한다. 그들은 거룩한 말씀들의 무오류와 영감을 강하게 믿으며,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과 반전(反戰)과 영원한 보상과 형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의 교인자격 역시 다른 오순절 교파들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미드는 말한다.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 일반적으로 나사렛사람의 교회로 알려진 나사렛교회는 1890년경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감리교회에서 파생하였고, 그들은 상당부분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랐

4) *Ibid*, p. 194.

다. 그들도 또한 앞서 언급한 오순절교회들이 권장하는 가르침의 일부를 지킨다.

많은 근본주의교파들처럼, 나사렛교인들은 흡연과 음주에 눈살을 찌푸릴 만큼 매우 엄격한 도덕법을 장려하며, 두 가지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을 믿는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매우 활동적인 사역을 벌이는 선교사들과 더불어 미국에 50만이 넘는 교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들(Churches of God). 독자는 우리가 복수로 "교회들"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미국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꽤 많은 분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의상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려 하지만, 다양한 분파들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점들이 있다. 미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 있는 적어도 200개의 독립교단들이 1900년을 전후한 수년 동안에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동부 테네시 주에서 뿌리를 내린다. 특히, 톰린슨(Tomlinson) 가족과, 테네시 주 남동부의 마을, 클리버랜드(Cleveland)는 이들 몇몇 하나님의 교회 분파들이 역사적으로 관련된 중심부이다.⁵⁾

주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테네시 주 클리버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성령의 세례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적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특성상 근본주의자들이며 “성결”파이다. 원래 톰린슨(A. J. Tomlinson)은, 그들이 몇 개의 분파로 쪼개진 다음, 1903년부터 1923년까지 감독회장이었다. 그들은 교인 수가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50개 이상 분파들이 원래의 클리버랜드 교파에서 쪼개져 나왔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분파는 인디애나주 앤더슨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분파는 1880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우 느슨한 회중교회 조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세족을 실행하고, 성찬식을 준수하며, 침수세례를 베푼다. 그들은 매우 보수적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고된 교인 수가 대략 20만 명 정도이다.

5) *Ibid*, p. 83.

말일성도(Latter-Day Saints). “말일성도”란 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줄여 쓴 말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들에게 “몰몬교도”로 알려져 있다. 몰몬교는 1820년 일련의 연속적인 환상들을 보았다고 주장한 뉴욕 출신의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윌리엄 워렌 스위트(William Warren Sweet)은 몰몬교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에 같이 적었다.

천사 모로니(Moroni)가 조셉 스미스에게 신세계의 성경이 가까운 언덕에 묻혀있다는 것과 천사가 허락할 때까지는 그 책을 캐내지 말아야 한다고 계시하였다. 7년 후 허가가 떨어졌고, 1827년 9월 22일 조셉 스미스는, 나중에 자신이 개량된 이집트 방언이었다고 밝힌 글자들이 새겨진 조금 얇은 금판들을 캐냈다.⁶⁾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금판들을 번역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몰몬경이다.

신세계의 예언역사로 주장되는 몰몬경은 말일성도들에 의해서 성경과 동일한 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말일성도들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1831년에 뉴욕을 떠났고, 오하이오 주 커클랜드(Kirkland)에서 잠시 동안 거주하다가 미주리 주로 이주하였고,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주 노부(Nauvoo)로 이주하였는데, 그곳에서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과 히럼(Hyrum) 스미스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브리그햄 영(Brigham Young)이 뒤를 이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영은 서쪽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정착하였다. 그들의 핵심본부도 줄곧 그곳에 있어왔다. 그들은 일부다처제를 신봉하지만, 1890년부터 국가법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그들은 사례비를 주는 목회사역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개개인 몰몬교도가 나가 사역한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나가서 몰몬교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삶의 일정기간을 바친다. 몰몬교

6) William Warren Sweet,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pp. 286-287.

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종교집단들 가운데 속하며, 교인의 개인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요구한다. 몰몬교는 분열되었고, 초기 몰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네다섯 개의 분파들이 있다.

여호와 증인(The Jehovah's Witnesses). 여호와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Charles T. Russell)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1870년 목시적인 공론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914년 재림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여호와 의 증인은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러셀은 1916년에 죽었다. 1931년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채택하였고, 판사 루더포드(J. F. Rutherford)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굉장히 활발한 문서선교를 하고 있다. 미드는 "공식적인 저널인 『파수꾼』(Watchtower)이 10,050,000부수를 발행하고 있고, 10억 이상의 성경책과 책과 전도지들이 1920년 이후 배포되었고, 적어도 176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 2,477,000명 이상의 여호와 증인들이 세계 전역에서 이 사역에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한다.⁷⁾ 그들은 투표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전천년설 교리를 믿으며, 지옥의 교리를 부인하고, 천국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성경 공동체 교회들(Bible Community Churches). 성경 공동체 교회들의 엄청난 증가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0세기 미국 기독교의 이 중요한 현상을 논의할 것이다.

비록 공동체 교회들이 1세기 이상 오랫동안 존재했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운동은 좀더 최근에 발달된 것이다. 공동체 교회들은 먼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좀더 작은 지역사회들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작아서 그들이 실제로 유익하게 섬길 수 없었던 작은 교파들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욱 적절하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신앙적인 요구들을 자주 더 폭넓게 섬겼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파가 갖는 교리 때문에 다투지 않

7) Mead, p. 126.

고 특정 공동체들의 독특한 요구들에 맞춰갈 수 있었다. 공동체 교회들은 또 많은 수의 “경쟁”적인 교파들에 자주 있는 당파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들 안에서 더 큰 일치감을 제공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또는 “성경”교회들은 좀더 최근에 발달된 것이다. 전 국가에 걸친 수많은 지역사회들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더 강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교리적인 생각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현 미국기독교계의 큰 교단이 좀더 전통적인 “조직” 교회들에 가입하기보다는 비전통적인 타입의 교회 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추게 한 원인이 되었다.

비록 “공동체 교회들의 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⁸⁾로 알려진 조직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가입 교회들이며, 기껏해야 비공식적인 토대 위에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다수의 분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 교회들은 많은 이슈들, 즉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성경,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성육신, 예수를 통해서 오는 구원, 예수의 역사적 부활, 기타 많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강력한 일치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독특한 차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카리스마, 즉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들이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카리스마”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해석에서조차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의 꽤 큰 수가 카리스마와는 무관할 것이다. 예배의 표준들과 실천들에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서 독자는 예배에서 강한 강조를 찾게 될 것이다. 예배경험에서 교인의 참여는 분파마다 강렬함에서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어떻게 교인자격이 획득되는가에서 차이들이 존재한다. 비록 세례가 본질로써 그들 대부분에 의해서 교육되지만,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도나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다.

이들 다양한 교회들에 적용된 이름들은 무수히 많다. 독자는 교회들의 목록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참고할 수 있

8) *Ibid*

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도시마다 다양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성경 공동체 교회들을 다루고 있는 목적은 독자에게 성경중심의 가르침주변으로 집중하는 운동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위 있는 자료로써 성경에 놓고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강조를 보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신약성경 기독교어로 환원을 향한 미국 기독교계의 좀더 열린 마음의 조짐일지도 모른다.

미국 교파들의 특징

비록 우리들이 중요한 미국기독교계의 많은 운동들을 보았지만, 그것들 모두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교파들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많은 미국의 운동들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십중팔구 미국 “방식”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반작용하려는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들 작은 운동들은 그들의 대단한 열정과 열광으로 잘 알려져 왔다. 그들은 선교 지향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운동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성경과 또는 공동체 교회들의 분파들에서 사실이었다. 이들 보수적인 운동들의 상당수는 좀더 전통적이고 조직화된 교회들을 거부하는 반응들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미국 교파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교리들에서 어떤 급진적인 성향이나 접근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앞 단락에서 말한 것과 반드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이들 많은 운동들을 볼 수 있고, 역사적인 기독교로부터 철저한 이탈들, 즉 제칠일에 관한 교리들, 천년설에 관한 가르침들(비록 이것이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유사한 차이들을 볼 수 있다.

결론

미국 교파들은 교회사의 매우 중요한 장(章)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정된 연구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으로 알려진 독특한 운동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미국 교파들이 환원운동의 발생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에서 만족하려한다. 그리고 이 운동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미국 교파들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그것의 원인이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유럽 교파들과 달랐는가?
2.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해서 토의하십시오. 그것의 독특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3. 어떤 식으로 당대의 종교는 무신론과 근대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4. 어떤 독특한 생각들을 “성결” 분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는가?
5. “하나님의 교회” 분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분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토의하십시오. [백과사전들이나 다른 참고자료들을 이용하여 보충자료를 모아 수업시간에 발표하게 한다].
6. 몰몬교회 또는 말일성도들은 이 강의에서 배운 다른 그룹들과 다르다. 몰몬교회의 독특한 특색들을 토의하십시오.

7. 여호와의 증인을 토의하시오. 그들의 전도방법들을 설명하시오.

8.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여 독자의 도시에 있는 “성경 공동체 교회들”이나 교파에 속하지 아니한 “독립교회”의 명단을 작성하시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들의 독특한 교리들을 찾아내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수업시간에 토의하시오.

제4강 초기 탐색

17세기 말엽에 미국의 종교는 매우 극심한 쇠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대 부흥을 위한 필요를 언급하였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이 두 개의 간략한 단락들에서 기독교의 조건들을 기술한다.

18세기가 미국에 도래하자, 하나님의 신의 엄청난 운행의 표시들이 돌체스터(Dorchester)가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기간”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나타났다.

이 비극적인 쇠퇴는 안정되고 책임 있는 정부의 붕괴, 유동적인 경제,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사상의 침투와 같은 많은 원인들 때문이었다.¹⁾

쇠퇴기에 불신과 무신론, 당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신앙 비난, 그리고 무관심의 팽배함이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멀치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더 진술하고 있다.

교회들은 무기력하였다. 장황하고 신학적으로 난해한 신조들은 엄격한 친교의 시금석으로 사용되었다. 성직자는 성경해석을 남용하였고, 사제기능들을 행사하였다. 성경은 대중들에게 사실상 닫힌 책이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²⁾

1)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62), p. 19.

2) *Ibid*, p. 21.

우리가 진술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1700년대 말까지 미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찰들이 적어도 크게 세 가지이다. (1)교파들은 점점 더 배타적이 되고 있었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확신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2)미국인은 그들이 처음 맛보는 자유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더 많이 구속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3)좀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에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이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되었다.

자연의 대 원칙

자연의 법칙들 속에는, 자연의 영역 속에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한 원칙이 있다. 이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영적인 것이든, 뿌려진 씨는 성장하게 될 식물과 열매 혹은 후대의 타입을 결정한다. 예수는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자주 이 원칙을 활용하셨다. 그분은 왕국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약 다른 어떤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의 결실을 해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이 원칙은 자연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적용을 그곳에서 자주 잇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왕국의 씨가 심어질 때, 그것이 1세기에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결실을 생산해 낼 것이다. 수세기를 거쳐 신앙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그 씨를 뿌리는데 있어서 좀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실행된 많은 것들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래 모습의 기독교가 아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18세기 마지막 십 년에 다가서면서 지리적으로 넓게 격리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분열의 문제들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서 논의한 이 생산의 원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분열의 열매들을 보았고, 인류의 마음 밭에 뿌려졌어야 할 씨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

이 특별한 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달성해야 할 주요한 목적들을 갖고 있다. 우리들은 첫째로 신약성경 기독교의 환원을 위한 가장 초기 몇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 운동의 가장 초기 지도자들을 몇 분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들 두 가지 목적들은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함께 연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환원운동과 같은 현상을 위해서 역사가 어떻게 무르익었는가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

때가 참

많은 책들이 환원운동의 시작과 발전에 관하여 저술되었고, 우리는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 가운데 몇 권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비록 부분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졌지만 상당한 분열이 또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비통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운동이 서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좀더 완전한 길"에 탐색이 시작되었다. 얼 웨스트(Earl I. West)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사도전승의 탐색』(*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19세기로 접어들자마자, 다양한 세력들이 사도적 기독교에 환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종교 집단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³⁾

우리는 개혁운동이 원했던 결과들을 가져오지 못했고, 또한 신약성경 교회로 환원하는 일에도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살

3)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이 책은 네 권을 한 질로 엮은 환원운동사 가운데 첫 권이다. 이 책들은 환원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펴보았다. 개혁가들은 성경말씀들을 재검토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았다. 개신교 개혁은 세 가지 큰 원칙들을 고무시켰고, 이 모든 원칙들은 개혁의 모든 “분파들”에 배어들었다. (1)성경은 수세기 동안 성직자의 수중에 있다가 사람들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2)만인 제사장직은 사제만의 특별한 제사장직의 타당성을 깎아 내리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3)만약 실제로 그것이 또한 믿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의 중심성이 실천된 중세의 “행위 구원”을 대신하였다.

개혁가들은 교회를 “환원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개혁 선도자들은 기존의 갈라진 자신들의 교파들을 개혁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앙종파들의 시작이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설정하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마 9:14-17)는 또 다른 원칙의 진리를 보았다. 사실 대부분의 핵심 개혁가들은 새로운 교파를 시작할 계획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활동들이 가져준 결과는 자신들을 개혁하거나 연합하기보다는 분열과 교파들의 확산이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운동은 그것의 목표가 기존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이름, 교리, 실천에 있어서 신약성경 교회로 돌아감 또는 환원이었다. 그 운동은 진실로 “사도전승의 탐색(옛 질서의 탐색)”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17세기 말과 18세기의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이 요소들 가운데 단지 몇 개만 거론하자면, 미주 식민지들의 독립선언과 시대의 종교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서부 정착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의 전쟁에 이어 서명되었다. 이 시대에 앞서(대략 18세기 중엽에) 주요한 신앙부흥이 있었는데 종종 대각성이라고 불리었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와 조지 횃필드(George Whitefield)와 같은 사람들은 이 운동에서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⁴⁾ 그러나 독립선언은 미국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4)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1), p. 61이하. 가렛트(Garrett)는 이 운동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제공한다.

유럽에서 피신하였던 해방감을 진정 제공하였다. 이 자유는 그들의 신앙의 삶 중에서 분명하게 강한 영향력이었다.

당대의 종교 사회적 분위기는 이전 단락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각성이후 신앙적인 열정이 냉각되었다는 점을 부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냉각기는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1700년대 마지막 십 년 동안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흥은 사람들이 환원제로의 부름에 준비를 갖추게 한 한 정신을 사로잡았다.

세 번째 영향력은 서부정착이었다. 1800대 초기부터 서부⁵⁾로 향하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개척정신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신앙교육에 원숙한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척지에 사는 사람 90퍼센트 이상이 어떤 종교에도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부로 길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부 여러 주들에서 떠나고 싶었을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유럽과 그곳의 종교적인 횡포로부터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⁶⁾

그래서 성장하는 국가는 미개한 청중에게 종교사상에서 더 큰 자유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환원이 시작되었다.

탐색의 시작

환원운동이 시작된 분명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환원운동은 19세기가 출발하기직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작고 때로

5) 역자 주: 여기서 말하는 서부는 미국 동부 오하이오 강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역들을 말한다. 오하이오 주와 그 주변지역들은 “서부”나 서부 보류지(개척지)로 생각되었거나 그렇게 불리었다.

6) *Ibid*, p. 62.

는 미미한 운동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술했듯이, 수많은 영향들이 그 운동의 시작과 성공에 공이 컸다. 개혁사를 통해서 "오직 성경만"을 부르짖는 전체적인 태도는 이 슬로건을 수용하는 방향의 인간교육을 통해서 그 운동의 성공에 확실하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이 분명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자, 다양한 지도자들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그룹에서 일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형태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켈리 운동(O'Kelley Movement). 첫 번째 주된 시도들 가운데 하나는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의 개혁들이었다. 오켈리의 배경에 대해서 얼 웨스트(Earl West)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켈리의 출생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735년에서 1757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1735년 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이유는 오켈리가 1826년 10월 16일 사망할 당시, 그의 나이가 92살이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오켈리의 출생 기록들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비록 그가 웨이크(Wake) 군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켈리는 버지니아 주 맥클렌버그(Mecklenburg) 군에서 출생한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맥클렌니(MacClenny)는 이 두 가지 설 모두를 부정하면서 오켈리의 출신지가 아일랜드라고 말한다.⁷⁾

오켈리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다.

오켈리는 존 웨슬리(John Wesley)를 대단히 존경하였고, 그의 나이 대략 50세쯤에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 설교가로 안수를 받았다. 그는 안수 받기 이전에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다. 오켈리는 안수를 토마스 코크(Thomas Coke)에게 받았다. 감리교는 1784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성탄절 회의 때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지적되

7) West, p. 7. 웨스트의 설명이외에도 레로이 가렛트는 오켈리 운동(pp. 70-83)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고, 맥클레니(W. E. MacClenny) 또한 『제임스 오켈리 목사의 생애』 *The Life of Rev. James O'Kelly*(Indianapolis: Religious Book Service, 1950)라는 중요한 저술을 남겼다.

어야 한다. 오켈리는 1785년과 1787년 사이에 안수를 받았다. 그는 매우 인기 있고, 매우 권세 있는 설교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1784년 성탄절 회의 때에, 프랜시스 애즈버리(Francis Asbury)는 새로 조직된 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감리교회 목사들을 여러 교회들에 임명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회조직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애즈버리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던 설교가들을 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힘든 순회구역들에” 파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교권에 반대하였다.⁸⁾ 1792년 11월 1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총회 때, 제임스 오켈리는, 만약 목사들이 임명받은 목회지에 가기를 원치 않으면, 총회에 어필할 권리를 목사들에게 줘야 한다는 탄원을 냈다. 애즈버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탄원을 거절함으로써, 오켈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감리교를 탈퇴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총회를 탈퇴한 다음, 1794년 8월에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를 세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본 원칙들”을 채택하였고, 그때부터는 이들 원칙들에 따랐다. 이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2. 모든 교파와 분파적인 이름을 버리고 “크리스천”(Christian)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3. 성경 또는 신구약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신조이며 충분한 규율이다.
4. 그리스도인의 특성 또는 필수적인 경건만이 교회의 친교와 교인 자격의 유일한 시금석이다.
5. 사적인 판단과 양심의 자유의 권리는 모두의 특권과 의무이다.⁹⁾

8) Earl West, "Republican Methodists," *Gospel Advocate* XC 38(Sept. 16, 1940), p. 891.

9) W. E. MacClenny, *The Life of Rev. James O'Kelly*(Indianapolis: Religious Book Service, 1950), pp. 121-122. 이 책은 초기본의 재판이다.

오켈리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와 연합하였다. 해가드는 이 운동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나중에(1804년) 후진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더 큰 환원 탄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강하게 영향을 끼친 31쪽 분량의 소책자를 썼다.¹⁰⁾

오켈리-해가드 운동(The O'Kelley-Haggard Movement)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운동은 스톤-캠벨 운동보다 수년 먼저 일어났다. 둘째, 이 운동의 기본 철학과 사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나중에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된 길이었다.

뉴잉글랜드 운동(The New England Movement). 웨스트는 “환원의 누룩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감리교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동안에,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는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가 바로 이 지역의 두 지도자들이었다.”¹¹⁾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코네티컷 주 림(Lyme)에서 1769년 6월 17일 태어났다. 그는 1789년 11월에 설교가로서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1801까지, 그는 그가 설교했던 침례교회의 칼뱅주의 교리들의 몇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와 다른 네 명은 1802년 12월에 모임을 시작하였다.

아브너 존스는 매사추세츠 주 로얄톤(Royalton)에서 1772년 4월 28일에 태어났다. 그의 초기 생애는 신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793년 봄에 “그는 회심하였고, 침례교 설교가인 장로 엘리사 랜섬(Elisha Ransom)에게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¹²⁾ 존스는 얼마동안 의학을 연구하였고, 의사로서 일하였다. 그는 1801년에 설교가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버몬트 주 린돈(Lyndon)에 “자유 교회”를 설립하였다.

10)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의 *An Address to the Different Religious Societies on the Sacred Import of the Christian Name*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렛트(Garrett)의 책 85쪽을 보시오.

11) West, "New England Movement," *Gospel Advocate*, XC, 40(Sept. 30, 1940), p. 943.

12) *Ibid*

1803년에 스미스는 존스와 만났고, “그리스도인 총회”(Christian Conference) 때 그들은 교회법을 함께 작성하였다. 1885년 그들은 무익하다는 생각에 총회와 교회법을 함께 버렸다. 1803년 9월 1일 스미스는 274명의 구독자들을 모아 『복음 자유 헤럴드』(*Herald of Gospel Liberty*)지를 발행하였다. 그는 그것을 세계 최초의 신앙지라고 주장하였다. 웨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뉴잉글랜드 운동은 모든 남녀가 신약성경의 전통을 회복하고 교파주의를 떨리하고자 했던 사실에서 그것의 일차적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먼 지역에게까지 충분히 활동범위를 넓히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지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이 운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외에 다른 이름의 사용을 거부했고,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권위 있는 책으로 힘써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스미스와 존스 모두는 그 운동을 시작한 이후 열심히 설교하였으나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스톤과 캠벨부자의 때 이전에 있었던 몇몇 주요 운동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혹 있었을지도 모를 다른 운동들과 함께 이들 운동들은 그들이 그 당시 종교적인 분열에 불만을 품었던 개개인 사상가들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요 17:20-221) 해달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기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들의 양심들을 그들은 오로지 따르고 있었다.

이들 운동들은 다른 훌륭한 지도자들의 더 크고 확대된 활동들의 도래를 위해서 세계를 확실히 준비하였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13) West,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p. 17.

토론을 위한 주제들

1.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라고 하신 성경 말씀의 의미와 내포된 뜻을 토의하시오.
2. “대각성”은 무엇이었는가? 환원운동을 위한 내포된 뜻들은 무엇이었는가?
3. 제임스 오켈리는 누구이며, 환원운동에 공헌한 중요성들은 무엇이었는가?
4. “오켈리-해가드” 운동을 “뉴잉글랜드 운동”과 비교하시오.

제5강 발톤 왈렌 스톤

환원운동의 시작과 초기성공을 가져다 준 주요 원동력은 발톤 왈렌 스톤(Barton Warren Stone)과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에서 일반적으로 기인된다. 확실히 이들 개혁가들은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도 기여하였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환원운동의 탄생과 걸음마 단계에서 중요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환원운동사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다른 걸출한 남녀들 또한 환원운동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강의에서,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대하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았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들은 많았다. 그리고 스톤은, 이 자생 종교 개혁운동, 즉 짧은 미국역사 속에서 발생한 최초의 종교개혁운동에 기여한 위대한 공적들 때문에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

탄생과 초기 생애

발톤 왈렌 스톤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들 중에서 태어났다. 다니엘 샐츠(Daniel Schantz)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대의 활기를 기술하였다.

발톤 W. 스톤이 세 살이었을 때, 미국이 탄생하였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고, 다니엘 분(Daniel Boone)은 거친 켄터키 주를 길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연안에 정착하고 있었다.¹⁾

국토는 대부분 황야였고, 오하이오 주와 그 주변지역들은 “서부”나 서부 보류지(개척지)로 생각되었거나 그렇게 불리었다.

스톤은 메릴랜드 주 포트 토바코(Port Tobacco)에서 존 스톤(John Stone)과 메리 왈렌 무스그레이브(Mary Warren Musgrave)의 아들로 1772년 12월 24일에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외할아버지를 기념하여 발톤 왈렌(Barton Warren)으로 지어졌다. 삶은 발톤에게 쉽지 않았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 형들이 독립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세살 때 죽었다.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는 그와는 거리가 먼 축복이었고, 가난은 그의 젊은 시절 내내 따라다녔다. 그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재산은 이내 고갈되었고, 그는 마치 학교를 그만둬야만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줄곧 지켜본 교장이 그의 등록금납부를 연기해 주었다.²⁾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스톤의 어머니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포트 토바코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발톤은 “성장기”를 보냈다.

스톤의 회심

발톤의 초기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고, 후에는 아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독서를 즐겼다. 그리고 18세 때인 1790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에 관여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였다.

우리가 그의 회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발톤 왈렌 스톤의 청

1) Daniel Schantz, *Barton W. Stone: A Bright Star*(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84), p. 3.

2) Garrett, p. 100.

년기와 초기성년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 가운데 첫째가 위대한 미국의 개척지였다. 미국개척지의 정착과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사는 것은 스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어려운 삶이었다. 육지의 변하기 쉬운 자연뿐만 아니라 대륙의 원주민들로부터 오는 위협들이 있었다. 성공한 자들은 보통 위대한 추진력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스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오로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현상은 당대의 영적 기근이었다. 무신론이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목했던 대로 무신론의 전파와 선전에 헌신한 조직들이 있었다. 극소수 사람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설사 성경이 있다하더라도, 독서능력이 부족하였다. 몇 년 후 이런 현상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발톤의 초기생애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신앙운동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이것들 중 몇몇은 생명력이 없었다.

스톤이 직면한 세 번째 현상은 칼뱅주의의 존재였다. 미국에서 지배적인 기독교신학은 그것의 배경에서 볼 때 칼뱅주의였다. 칼뱅주의 신학은 예정과 인류의 완전타락과 같은 교리들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황불 붙는 지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종교적인 생각의 상당부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에서보다는 두려움의 정신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스톤이 신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였다. 그는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웨스트는 스톤의 초기 기독교와의 갈등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룸메이트, 벤 맥레이놀즈(Ben McReynolds)가 자기와 함께 맥그리디(James McGready)의 집회에 참석하자고 하였다. 스톤은 함께 갔다. 메시지는 열정적이었고 강력하였다. 스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일 년간 그는 갈등하였다. 그러

고 나서 그는 다시 맥그리디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를 집에 오게 하였고, 감리교회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스톤은 1791년 봄, 알라망스(Alamance)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호필즈(Hawfields)의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장로교회에 합류하였다.³⁾

스톤의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회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회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삼위일체”를 주제로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에서 설교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스톤에게 설교자격이 주어진 것은 1796년 이후였다.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스톤이 켄터키로 이사하기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1798년 목사시험에서, 스톤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신앙고백서⁴⁾를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으며 채택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톤은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스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써 성경의 무오설을 믿고 있었다.

개인 릿지 집회

스톤의 목회사역의 초기 몇 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다. 처음에 그는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쁘자 낙담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뀌었다. 안수를 받은 해에,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테네시 주를 향해 서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를 경험할 켄터키 주로 옮겨갔다. 스톤은

3)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p. 20.>

4) 역자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한 안수를 아직 받지 못했고, 1792년에 설교자격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스톤은 안수를 받을 당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1796년 트랜실바니아 장로회(Transylvania Presbytery)의 모임에서 결국 안수를 받았다. 장로회는 켄터키 주 캐인 릿지에서 모였다.

스톤은 두 번 결혼하였다. 가렛트는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과의 첫 번째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1801년 스톤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캐인 릿지 부흥이었다면, 분명히 두 번째 큰 사건은 엘리자베스 캠벨과의 결혼이었다. 그는 이제 28세였고,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맞본 첫 번째 로맨스가 틀림없다. 그는 강도들, 인디언들, 가난, 그리고 칼뱅주의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바빠서 그의 생애에서 젊은 여성들을 만나 사귄만한 시간이 없었다.⁵⁾

엘리자베스는 9년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발톤 W. 스톤 2세도 마찬가지로였다. 스톤은 나중에 쉐리아 윌슨 보웬(Celia Wilson Bowen)과 재혼하였다. 그들은 6명의 자녀들과 49명의 손자손녀들을 보았다. 스톤의 손자손녀들 가운데 두 명은 “미주리 주 한니발의 거리에서 마크 트윈과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었다”고 가렛트는 또한 진술한다.⁶⁾

환원운동사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와 더불어 스톤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캐인 릿지 집회였다. 1801년 8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켄터키 주 캐인 릿지에 모였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부흥집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미국은 큰 신앙부흥을 보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 부흥의 큰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틀림없이 간주되고 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다. 그러나 20,000명에서 30,000명이었다는 추정이 가장 믿을만한 숫자이

5) Garrett, p. 103.

6) *Ibid*

며, 참석자들은 포장마차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집회에 참석하였다.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군데군데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 앞에서 동시에 설교를 하였다. 스톤은 복음은 보편적이며,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설교는 장로교회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하였고, 자기변호를 위해서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 기간 동안에 회심하였다. 이 부흥집회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면, 이 강의에 소개되고 있는 참고서적들이나 다른 관련서적들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워싱턴 군(郡) 장로회(Washington Presbytery)는 스톤을 소환하였고, 그의 변호를 청문한 후에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 결과로 스톤과 다른 네 명, 즉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네마크(Richard M'Nemar), 존 톰슨(John Thompson)은 워싱턴 장로회를 탈퇴하여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설립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들 다섯 명은 장로교회를 떠날 의도를 마음에 전혀 품지 않았다. 느슨하게 조직되고 비공식적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임원들이나 심지어 “회원” 교회들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그 목적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믿었던 장로교회의 일부 요소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목회자들의 단체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칼뱅주의 신학과 사람들에게 부과된 획일적인 신조의 형태를 공격하고 있었다.

일 년도 채 안돼서 그들은 또 다른 장로회를 조직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하고 말았다. 그리고 1804년 6월 28일, 그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를 발표하였다.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와 더불어 이미 언급한 다섯 명이 1804년 6월 28일에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⁷⁾ 이것이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최후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해체 후에 그 사람들은 장로교회를 영원히 떠났다. 그것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가 모든 분파나 교파의 이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에게 제안한지 10년만이였다. 그들이 교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개 교회가 독립적일 것을 고집하였다. 그들은 얼마동안 성경적인 침례의 형식과 목적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1807년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이 성경적인 침례의 방법이 침수였다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그는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고, 그들은 1807년 6월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침례의 형식을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았다.

캠벨과 통합

우리가 다음의 두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캠벨 부자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스톤의 운동과 캠벨의 운동은 수년간 서로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24년 켄터키 주 조지타운에서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웨스트는 말한다.

그 두 운동은 여러 도시들에서, 특히 켄터키 주에서, 나란히 활동하

7)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전문은 웨스트(West)의 『사도전승의 탐색』(*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pp. 26-28에 실려 있다. 역자 주: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의 한글 번역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동호 목사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에 실려 있다.

면서, 두 그룹 사이에 서서히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케인 릿지에서 가까운 켄터키 주 밀러즈버그(Millersburg)에는 두 그룹이 모두 있었는데, 이따금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1831년 4월 24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그 통합은 곧바로 더 큰 규모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⁸⁾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운동이 좀더 분명하고 크게 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스톤은 알렉산더 캠벨보다 몇 살 손위였지만, 지속해서 환원 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 스톤은 캠벨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들을 보았고, 캠벨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양보하였다. 스톤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수년 동안 출판하였던 잡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를 통해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발톤 W. 스톤은 미주리 주 한니발에서 그의 사위, 캡틴 사무엘 보웬(Captain Samuel Bowen)의 집에서 1844년 11월 9일에 소천 하였다. 그의 시신은 처음 한니발에 묻혔지만, 나중에 켄터키 주 케인 릿지로 이장하였다. 그곳에서 스톤의 위대한 부흥이 진정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에 큰 기념비가 스톤을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그는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신약성경 기독교 환원운동의 탐색에 공헌한 대가로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들은 환원운동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인 발톤 W. 스톤을 공부하였다. 많은 책들이 그와 또 그가 도움을 줘서 시작했던 운동에 대해서 쓰였다. 우리는 스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인물들보다 먼저 그를

8) West, I, p. 32.

살펴보게 되었다.

스톤은 케인 릿지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설교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였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시작 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는 캠벨의 운동과 자신의 노력들을 합병하였다. 그들과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의 운동들이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때에, 국가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순결성과 단순성을 회복하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토의 주제들

1. 발톤 스톤의 초기 신앙 갈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다.
2. 발톤 스톤이 환원운동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들은 무엇인가?
3. 칼뱅주의의 핵심교리들은 무엇인가?
4. 어떻게 칼뱅주의가 발톤 스톤의 생애와 가르침에 영향을 미쳤는가?
5. 안수이전에 주어지는 설교자격과 목사안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교단들이나 교회들에 알아보고 발표한다.
6. 어떤 사건들이 스톤과 캠벨의 운동들에 통합을 가져다주었는가?

제6강 토마스 캠벨

우리는 환원운동이 한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원의 원리들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속해 있던 여러 개신교 교파들의 속박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환원운동을 잘못 알고 왔던 사람들은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가 환원운동을 시작하였고, 이끌고 왔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임스 오켈리, 라이스 해가드, 아브너 존스, 엘리야스 스미스, 발톤 스톤이 이 운동에 기여했던 공헌들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높은 학식과 깊은 영성 그리고 특출한 지도력 때문에 환원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을 그들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의 두드러진 지도력 때문이다.

이 엄청난 임무를 위한 그들의 준비는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중요한 훈련(공식교육과 “입학이 힘든 학교” 모두에서)의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지금의 이 강의에서는 아버지 토마스 캠벨을 다룰 것이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뛰어난 아들 알렉산더의 생애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토마스 캠벨: 탄생과 초기 생애

토마스 캠벨은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장남이었고, 아래로 제임스(James), 아키발드(Archibald), 그리고 에노스(Enos) 세 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토마스 캠벨 장로의 회고록』(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에서 그의 아버지의 뿌리를 스코틀랜드 아르가일(Argyle)로 추적해 올라간다.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 아키발드 캠벨은 다이얼레이크 (Dyerlake) 숲 가까운 아일랜드 다운(Down) 군에서 태어난 제임즈 캠벨의 아들이었다. 그는 105살까지 장수하였다.¹⁾

알렉산더는 그의 할아버지가 병역을 마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²⁾고 부연하고 있다. 따라서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다운즈(Downs) 군에서 1763년 2월 1일 다운(Down) 군에 태어났다. 그는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로서 묘사되었다.³⁾ 알렉산더는 그의 훈련과 개인적인 영적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가족 훈련과 규율은 특별히 교훈적이었고, 성경적이었으며, 엄격하였다. 브라운의 교리문답(Brown’s Catechism)과 함께 성경은 줄곧 몇 명뿐인 그의 가족의 매일의 공부와 매일의 암송 교재였다.⁴⁾

토마스의 첫 번째 소망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의 목표는 바뀌었고, 목회자가 되는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캠벨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를 믿게 하는 습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웨스트는 진술한다.⁵⁾

1)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H. S. Bosworth, 1861), p. 7.

2) *Ibid*

3)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40.

4) Campbell, p. 9.

토마스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캠벨은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대학교를 3년 간 다녔고, 영국교회에서 성장한 후에 가입했던,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 휘트번(Witburn) 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공부하였다.”고 가렛트는 기술하였다.⁶⁾ 캠벨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캠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토마스는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의 소속이었다고 기술된다. 이 독특한 종교적 변종이 어떻게 유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꽤 복잡하다. 그러나 얼 웨스트(Earl West)가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우리는 그가 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마스 캠벨이 그 특이한 장로교회 분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종교적인 분열들에 대한 염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웨스트는 그 분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파에 소속하였다. 그러나 교회내의 지도층은 온건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분열이 조장되고 있었고, 연방의회가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설교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성직임명권을 되찾아갔던 1712년에 고조되었다. 같은 이슈에 관해서, 총회는 빈자리가 장로로 채워져야 했을 때, 선출은 “개신교도 장로들인 후계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한 결정으로 1731년에 행동을 취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권리들을 사실상 양도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제르 에르스킨(Ebenezer Erskine)과 다른 세 사람의 지도아래 강하게 반대하였다. 에르스킨은 즉시 목회사역에서 쫓겨났다. 다음 해에 그와 다른 사람들은 준 장로회(Associate Presbytery)를 구성하였고, 분열이 태동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에 뒤떨어져 있었다. 총회는 분리주의자 교회가 120개 교회당들과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기성교회에 소속했던 10만 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다고 1765년에 선언하였다. 1800까지 스코틀랜드

5) West, I, p. 39.

6) Garrett, p. 132.

드에는 200개의 분리주의자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의 행운은 오랫동안 길게 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분열은 그들의 특색이었기 때문이다. 1789년에 분리주의자들은 맹세를 하는 시민들의 문제에 관해서 공민파와 반공민파로 나뉘었다. 도시들의 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종교를 지지하도록 사람들을 묶는 맹세를 요구하였다. 맹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반공민파들이었다. 분리주의자 교회의 양 분파들은 1799년에 다시 신성연맹과 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이 친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새 빛(New Lights)파와 옛 빛(Old Lights)파로 나뉘었다. 토마스 캠벨은 옛 빛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에 소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분열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⁷⁾

토마스가 분열된 장로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겪게 되었을 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으로의 이주

토마스 캠벨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에게 항해 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의 권유에 못 이겨 미국으로 건너갔다. 처음에 그는 잠시만 미국에 머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일랜드로 돌아오세요.” 라고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⁸⁾ 만약 그의 건강이 호전된다면, 가족도 미국에 건너가 살 것을 기대하였다.

토마스는 44세 때인 1807년 봄에 펜실베이니아 주에 도착하였고, 도착 즉시 그 특유의 소속 장로교 교단의 북미주 노회(Synod of North America)를 찾아갔다. 알렉산더는 “토마스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도착했을 때, 노회는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였고, 그에게 찰티엘즈 장로회(Presbytery of Chartiers)에 추천하였다.”⁹⁾고 적고 있다. 토마

7) West, I, p. 43.

8) *Ibid* I, p. 44.

스는 북미주 노회에 설교자격을 신청하였다. 그는 그의 설교자격증을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 찰티엘즈 장로회로부터 받고 설교를 시작하였다. 웨스트는 토마스의 초기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마스 캠벨의 그 다음 2년간의 삶은 찰티엘즈 장로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꽤 쉽게 추적될 수 있다. 의사록들에 캠벨의 이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1807년 5월 16일 토요일의 의사록은 캠벨이 처음으로 찰티엘즈 장로회에 가입되었다고 적고 있다. 1807년 6월 30일과 7월 1일 회의에서, 토마스 캠벨은 7월 둘째와 셋째 주일에 버팔로(Buffalo), 넷째 주일에 마운트 프레전트(Mount Pleasant), 그리고 8월 첫 주일에는 피츠버그(Pittsburg)에 설교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캠벨은 일요일마다 설교하느라 바빴다.¹⁰⁾

토마스는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의 특정 교리들을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1808년 9월 13일 장로회로부터 해임되었다. 한편,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들은 다음 강의에서 알렉산더와 나머지 가족들이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서는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다.

“선언과 제언”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문서였다. 토마스가 장로회와 겪는 갈등은 짧은 글로 다 설명될 수

9)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B. S. Bosworth, 1861), p. 10.

10) *Ibid.*, p. 8.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스트의 책에 설명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¹¹⁾ 1807년 10월 27일, 토마스는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은 단지 인위적인 권위일 뿐이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 비난들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고소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1808년 2월 9일, 그는 회의석상에 나타났다. 웨스트는 그의 해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선별된 자료를 제공한다.

믿음에 관해서 본인은 사람의 영혼이 그것의 주제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의 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규칙과 근거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것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용서, 수용과 도움, 또는 현재의 은혜와 차후의 영광은 그것의 직접적이고 적절하고 공식적인 목적이다.

신앙고백서와 증언들에 관해서 본인은 교회가 진리를 그와 같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을 모두 받으며,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증언은 그러한 목적을 인증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들의 증언이 요구하는 한 그것들을 친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고 보장받을 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결코 그들을 반대해 오지 않았다.¹²⁾

논쟁은 겨울과 여름 내내 지속되었다. 토마스는 1808년 9월 18일에 찰티엘즈 장로회를 정식으로 탈퇴하였다. 토마스는 그 상황을 놓고 고민하였다. 특히 신앙의 차이가 그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괴로워했다. 캠벨과 그의 활동에 동조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에서 가까운 아브라함 알터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만났고, 토마스는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는 유명한 말로 그의

11) *Ibid* I, p. 44ff. 웨스트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서면서 누적되는 수개월간의 사건들을 매우 간결한 방법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 인용된 그의 글들은 허락을 받고 옮긴 것들임을 밝힌다.

12) *Ibid*, I, pp. 45-46.

연설을 마쳤다. 이것은 미래의 환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이들 사건들의 결과로써 토마스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의 분열과 연합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려는 일종의 시도로써 “선언과 제언”을 썼다. 이 중요한 문서는 너무 길어서 우리가 여기에 인용할 수 없지만, 알렉산더 캠벨이 그의 아버지를 회고한 글들 가운데 하나만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¹³⁾ 아무도 이 문서가 환원운동의 미래에 줄 충격을 알지 못했다. 또 그것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들만큼은 성경만이 그들의 신앙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안내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 결정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다툼과 마음의 갈등을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다.

레로이 가렛트(Leroy Garrett)는 “선언과 제언”의 주요 원리들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의 요약은 우리가 그 문서의 뜻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가렛트가 요약한 10가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1. 분열은 무서운 죄악이며, 교회의 임무를 방해한다.
2. 교회내의 분열에 좀더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과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일이 극복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3. 분열들은, 대부분, 본질들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4. 그리스도는 연합의 유일한 근원이며, 그분의 말씀은 유일한 시금석(terms)이다.
5. 교회연합에 대한 소명은 비합리적이지 않고, 그 시기 또한 나쁘지 않다.
6. 예수께서 교회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13) Alexander Campbell, pp. 25-109.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7.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8. 우리는 피차 교제를 시작해야 하며, 우리자신의 당파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한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9. 전쟁으로 국가들이 황폐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쪼개진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10. 연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한다. 전체 교회의 집단적인 후원들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증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비록 이 요약문들이 “선언과 제언”에 대한 가렛트의 해석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 문서의 정신과 의도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환원운동의 태동

비록 토마스 캠벨이 이 시점에서 환원운동을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들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일어날 사건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환원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캠벨은 눈여겨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십 년에 걸쳐 많은 다른 사람들도 환원운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운동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야 참으로 옳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은 장수하였고, 환원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매우 긴밀하게 일하였다. 토마스 캠벨은, 88세 때인 1851년 6월 1일, 베다니 예배당에서 고별설교를 전하였다. 그때 그는 눈이 멀었는데, 펜들톤(W. K. Pendleton)이 그의 설교를 글로 받아 적었다. 본문말씀은 마태복

14) Garrett, pp. 146-150.

음 23장 37절이었다.

토마스 캠벨은, 그의 91세 생일을 단 한 달 남겨놓은 채, 1854년 1월 4일 수요일에 죽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그렇게 그분은 평범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자기 위치에서 자주 더 커지는 것처럼, 그분이 공경했고 찬양 받아 마땅하신 구세주의 품안에 영혼을 부드럽게 내어 맡길 때까지, 그렇게 그분은 믿음과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¹⁵⁾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를 마감한다. 그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분열된 종교적 상황에 처한 설교자 신분에서 사람들이 성경말씀의 유일한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청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이 사람의 공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대변자였을 뿐 아니라, 환원운동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인품에서 초창기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생산해 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사람 알렉산더와 환원운동사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의 주제들

1. 토마스 캠벨의 초기 생애가 그에게 그와 다른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수행하게 될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게 한 방법들을 논의하시오.

15) Alexander Campbell, pp. 232-233.

2. 토마스 캠벨이 장로교회와 무슨 관계를 가졌으며, 어떻게 장로 교회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3. 찰티엘즈 장로회는 무엇이며, 토마스 캠벨과 무슨 관계에 있었는가?
4. “선언과 제언”은 무엇이며, 그것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가?
5. 토마스 캠벨의 생애가 환원운동의 시작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제7강

알렉산더 캠벨

앞에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얼마간 공부를 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만큼,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환원운동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인물이었다.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준비 단계

알렉산더 캠벨은 북아일랜드 출생이었다. 그는 토마스 캠벨과 그의 아내, 제인 콜네이글(Jane Corneigle)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토마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제인은 프랑스 위그노(French Huguenots)의 후손이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토마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골수 칼뱅주의자들이었다. 가족들이 미국에 건너간 토마스와의 합류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때에 배가 파선되어 캠벨 가족의 기록들이 상당수 분실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가족사항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출생한 것은 1786년에서 1788년쯤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웨스트(West)는 “연도가 결코 확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동안에도 알렉산더 캠벨이 1786년 6월에 태어났다는 사실 쪽에 더 큰 증거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¹⁾고 적고 있다.

알렉산더는 심신이 탁월하게 단련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통찰력이 날카로운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며, 우리들의 비할 데 없는

1) West, I, p. 39.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 알렉산더와 같이 명석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의 모두를 학업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은 그가 읽고 공부하고픈 욕망을 실제로 발현하기까지 수년이 흘렀다. 데이비드 샐츠(David Schantz)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알렉산더는 책이나 학교에 별 관심이 없었다. 시골의 암소는 그가 나무 아래서 즐기고 있는 동안 그의 프랑스어 책을 먹어 치어 버렸다. 오히려 그는 낚시와 수영과 새 사냥과 같은 야외활동을 좋아했다...

알렉산더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책과 사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좋은 책들을 읽고 깨우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노트에 옮겨 적곤 했다. 그는 일분에 한 구절의 비율로 시들과 성경말씀들을 암송하였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는 학교수업에서 그의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풀이 무성한 들판을 걷기도 하고, 명상도 하며, 영적인 경험을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 시작하였다.²⁾

알렉산더의 부모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그에게 시켰다. “알렉산더 캠벨의 위대함은 결코 적지 아니한 부분이 그의 훌륭한 부모에게서 찾아질 수 있다. 토마스 캠벨은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였다.”³⁾고 웨스트는 적고 있다. 알렉산더가 그와 같이 예리한 지력을 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비범한 암기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해가 거듭되는 동안 엄청난 보상을 주었다. 그는 성경구절과 문학작품의 훌륭한 문구들을 암기하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습득한 엄청나게 폭넓은 지식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알렉산더의 사상에 적지 아니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는 할테인

2) Daniel Schantz, *Alexander Campbell: Restoration Nobleman*(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1984), pp. 4-5.

3) West, I, p. 40.

들(Haldanes)과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이 있었다. 우리는 이들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들은 이들 초기 환원가들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렛트와 웨스트 및 다른 많은 환원운동사의 저자들은 이들과 당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국교회를 떠났고, 교파적 배타주의의 흐름과 그들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새롭게 헌신하였다. 제임스와 로버트 할데인(James and Robert Haldane) 그리고 존 그라스(John Glas)와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은 알렉산더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가렛트는 이것이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준 많은 분야들을 열거한다.

매주 성만찬에 대한 강조 외에, 캠벨에게 준 어빙의 영향은 이들 개혁의 요소들, 즉 그들의 시대에는 참으로 흔치 않았던 다음과 같은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사제들의 신경강조보다는 성경말씀 그 자체에 대한 헌신; (2)교회정치적 독립적이거나 회중적인 형태; (3)사제들의 특권들과 위엄들의 거절과 더불어 평신도 목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강조; (4)개교회의 복수 장로제; (5)상호 나눔과 덕세움의 실천(어빙의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매주일 모임을 가졌다); (6)믿음이 초자연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견해,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그의 지성에 있는 호소⁴⁾

따라서 캠벨은 일찍이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합류하기 전에 그의 사상의 상당부분이 “성경에의 복귀”로 귀착될 그와 같은 운동을 향해서 이미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사실상 장로교회를 떠났다.

미국에로의 이주

우리가 앞 강의에서 지적한대로, 토마스 캠벨이 미국에 먼저 오긴

4) Garrett, p. 169.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그의 아버지에게 그 당시 미국으로 이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라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토마스는 건강이 나빴고, 그런 이유로, 의사들은 그에게 항해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도 강권함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만일이 여행이 그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면, 되돌아 올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만약 건강상태가 호전된다면, 그는 가족들이 차후에 미국에 건너오기를 원했다.

앞 강의에서 설명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후,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상태들이 그의 가족들의 항해를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천연두가 번졌다.

1808년 9월 28일, 그들은 배를 탔지만, 큰 폭풍으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드디어 그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는 파선으로 고통을 겪었다. 알렉산더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미국으로 건너갈 다른 기회들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알렉산더는 글라스고우(Glasgow)대학교에 입학하여 헬라어와 논리학 그리고 다른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였다. 이 시기는 그에게 매우 유익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애의 이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서 그의 사상이 진일보하였기 때문이다.

웨스트는 “1809년 7월 31일 캠벨은 글라스고우를 떠나 그린노크(Greenock)로 갔다. 4일 후 그와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는 라토니아(Latonia)호에 승선하였다. 이때의 여행은 순조로웠고, 배는 9월 29일 금요일에 뉴욕에 도착했다.”⁵⁾고 적고 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뉴욕 구경을 하면서 머물다가 토마스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필라델피아를 지나 그들이 살게 될 워싱턴 군을 향해서 갔다. “토마스 캠벨은 그들의 목적지에서 대략 3일 정도 걸리는 곳에서 가족들이 탈 말들을 준비해 가지고 2년 만에 그의 가족을 만났다.”⁶⁾

5) West, I, p. 52.

방향을 위한 갈등

토마스 와 알렉산더는 그들이 다시 만난 후에 많은 것을 논의하였다. 두 사람 모두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들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고 지냈다.

알렉산더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워싱턴 군(郡) 그리스도인 협회회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해 놓고 있었다. 교정본들이 인쇄소에서 막 찍혀 나왔고, 토마스는 그것들을 알렉산더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다다랐던 것과 동일한 결론들의 많은 부분에 도달하였었다.

토마스의 “선언과 제언”을 읽고 난 후 알렉산더는 평생을 설교가로 살겠다는 그의 결심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1809년까지 캠벨 부자는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계단들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언과 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토마스가 알게 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알렉산더는 브러쉬런 교회(Brush Run Church)가 들어설 자리에서 1810년 9월 16일 첫 설교를 하였다. 1811년 3월 12일 알렉산더는 꽤 유복한 사람의 딸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첫 딸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알렉산더의 장인 존 브라운(John Brown)은 알렉산더와 마가렛에게 그들의 집으로 저택을 물려주었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버팔로 신학원”(Buffalo Seminary)이 개교되었고, 폐교되었다가 나중에 베다니 대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딸 제인(Jane)의 출생은 알렉산더에게 유아세례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곧 유아세례의 비성경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1812년 6월 12일 알렉산더와 다른 여섯 사람들은 침례교 설

6) Garrett, p. 174.

교가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죄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이미 브러쉬 런 교회를 언급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1810년 9월 16일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통나무로 교회당을 지었고, 그곳은 환원운동의 시작을 위한 집회소가 되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캠벨 부자와 그들과 뜻을 같이했던 동지들이 1813년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이 협의회와의 관계는 몇 년 지속되지 못했다. 1816년 알렉산더는 친구약 두 전서의 관계를 상당히 연구한 끝에 그의 유명한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를 발표하였다. 이 설교는 성장하는 환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웨스트는 “그 설교의 영향을 침례교 주둔지에 떨어진 포탄”⁷⁾에 비교하였다.

1823년 여름에, 그들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1820년 8월 30일 마호닝 침례교회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가 태동했다. 알렉산더 캠벨이 새로운 교파의 시작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벨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1830년 어느 시점에까지 이 협의회에 회원들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로 환원을 촉구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탈퇴가 되었다. 이들 20년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의 환원운동은 상당히 성숙하여졌다. 그러나 이후의 운동은 훨씬 더 성숙해 지도록 되어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

이 기간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캠벨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유능한 작가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왔다. 우리는 다만 19세기 초기 절반 동안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7) West, I, p. 63.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캠벨의 주요 공헌들을 요약하고자 하며,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렉산더가 공헌한 특별한 업적들과 특징들에 관해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으로써의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뛰어난 학자요, 저술가요, 사상가였다. 그는 근면하게 일하였고, “매일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꾸준하게 일하였다.”⁸⁾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은 한결같이 교수로서 설교가로서 그의 명석한 지력과 그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토론가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능숙하고 성공적인 토론가였다. 환원운동의 초기 성공의 상당부분이 그가 주관했던 대 토론들 덕분이었다. 다섯 번의 대 토론들은 그의 공적이었다. 1820년 6월 19-20일, 캠벨은 장로교 목사인 존 워커(John Walker)와 침례를 주제로 토론대회를 열었다. 이 토론은 침례의 주제에 관한 가르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1823년 그는 침례를 주제로 유아세례의 비적절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장로교인 맥칼라(M. L. McCalla)와 만났다. 세 번째 토론은 명석한 무신론자, 존 오웬(John Owen)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은 1828년 2월에 열렸다. 네 번째 토론은 가톨릭교회의 주교 퍼셀(Purcell)과 있었다. 그들은 캠벨이 가톨릭교회의 기초와 그것의 성직위계제정치와 교리들을 공격했던 총 7가지 명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1843년 캠벨은 장로교 목사, 라이스(N. L. Rice)와의 또 다른 토론을 주관하였다.

저자와 편집자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다작한 저술가요 유명한 편집인이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의 책들을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들은 아마도 그가 1820대 초부터 편집도 하고 대단히 많은 글을 쓰기도 했던 신앙지들이었을 것이다. 1823-1829년, 그는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었으나, 사람들은 그가 탈퇴한 교파의 침례교인들과 그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8) *Ibid.*, I. p. 57.

있었으므로, 『크리스천 뱀티스트』지는 폐간되었다. 1830년부터 1866년까지 그는 그 자체로 놀라운 저널리즘의 시도인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환원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캠벨은 이 월간지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

교육가로서의 알렉산더. 우리는 이미 알렉산더 캠벨이 1818년 1월에 그의 저택에서 버팔로 신학원을 개교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중에 1841년에 그는 베다니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베다니 대학 또한 그의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였다. 지금도 이 대학은 존재하며, 제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자회는 이 운동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단이다.

알렉산더 캠벨의 노년기

알렉산더 캠벨이 한만큼 중요하게 환원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시작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부분은 다음의 두 강의에서 좀더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는 교회를 세우며, 이 위대한 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였다.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훈련시켜 그가 자신의 생애를 바쳐 헌신한 임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종파들의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로 부터 높이 추앙 받았고, 폭넓고 다양한 사회, 정치, 종교 문제들에 관해서 연설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들과 공헌들 가운데 한 가지는 캠벨 부자와 발톤 스톤이, 그들 모두가 누렸던 성장을 크게 강화시켰던, 그들의 위대한 운동들을 통합했을 때 인식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1866년 3월 4일 일요일에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죽었다. 그의 서거는 그가 발전을 위해서 도왔던 전역의 형제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비록 그가 설교가로서 그

의 사역의 대가로 결코 어떠한 사례금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놓고 죽었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혼신의 힘을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는 교회운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다 썼다. 그는 위대한 인간이었으며, 그가 믿었던 것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이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기를 원했던 헌신한 다른 지도자들과 합류하였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그의 영향력을 영원토록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할데인에 관해서 읽고,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유들을 수업시간에 발표한다.
2. 알렉산더가 미국으로 항해를 시도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변 사건들을 논의하시오.
3.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토마스가 피차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도달했던 종교사상의 변화들은 무엇인가?
4.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는 무엇이며, 왜 그것은 캠벨 부자에게 중요하였는가?

5.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 기여했던 주요 공헌들을 논의하시오.

제8강 지도력의 확대

앞의 세 강의들에서는 환원운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집중 조명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지도력의 배턴을 이어받았고, 환원운동 초창기에 그것의 나아 갈 길을 지시하였다.

환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야 했으며, 돕도록 장려되었다. 사람들은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 환원운동의 이념들과 활동들을 다듬어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다수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만이 위대한 활동가들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W. K. 펜들톤(W. K. Pendleton), 모세 라드(Moses E. Lard), J. W. 맥가비(J. W. McGarvey), “래쿰”(Racoon) 존 스미스(John Smith)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이다. 그들은 전임자들이 시작해 놓은 환원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월터 스코트, “금언”

1818년 7월 7일 월터 스코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국가가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다. 미시시피 강까지만 답사가 된 상태였고, 서부(또는 서부 보류지)는 오하이오 주에 편입된 영토를 포함하였다. “월터 스코트의 사역이 없었다면, 캠벨

부자의 업적은 곧 잊혔을지도 모른다.”¹⁾고 말한다.

훌륭한 작가였던 윌터 스코트 경과는 구별되는 윌터 스코트는 1796년 10월 31일 스코틀랜드 덤후라이셔어(Dumfriesshire)에서 태어났다. 그는 10명의 아이들 중의 하나이었다. 맥스 워드 랜달(Max Ward Randa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윌터는 5남5녀 중의 한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교사였고, 그의 부모들은 장로교인들이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교육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감성을 지닌 영적인 여성이었다.

대학교 교육은 종종 부자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그들의 재산을 털어 그에게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장로교 목회를 준비하였다.²⁾

앞에서 언급한대로, 윌터는 1818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삼촌의 후원을 받았다. 그의 양친 부모들은 한 달 간격으로 1821년 죽었다. 윌터는 일 년 정도를 뉴욕에 머물다가 나중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로 이사하였다. 거기서 그는 조지 포레스터(George Forrester)를 만났는데, 그는 스코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포레스터는 그라스(Glas)와 샌더만(Sandeman)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스코트는 그라스와 샌더만의 가르침들에 영향을 받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수용하였다.

스코트는 피차 친구였던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을 통해서 알렉산더 캠벨을 만났다. 이들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동시적이었다. 스코트는 곧 (아마 캠벨이 사는 곳에 가까운) 오하이오 주 스투벤빌(Steubenville)로 이주하였다. 그는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와 교류하였고, 한 동안 협의회회 전도자로 섬겼다. 스코트는 명석한 연설가였으나,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다. 환원운동

1)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72), p. 97.

2) Max Ward Randall, *The Great Awakenings and the Restoration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p. 225.

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스코트는 신앙지,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Christian Evangelist*)를 창간하였고, 수년간 편집도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도와 이름을 붙인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에 기고하였다. 캠벨은 그것을 크리스천(*Christian*)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으나, 스코트가 캠벨을 설득하여 그것에 “뱍티스트”(Baptist)를 덧붙이도록 하였다. 침례교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스코트는 “필립”(Phillip)이란 필명으로 『크리스천 뱍티스트』지에 글을 실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캠벨과의 관계가 필립 멜란히톤(Phillip Melancthon)이 마르틴 루터와 사귀었던 관계와 비슷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캠벨과 스코트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다. 로버트 리차드슨은 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이 뛰어난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들은, 말하자면, 상호 보완적인 것이었고, 그것들의 조화로운 혼합으로 그들의 사회에 서로 독특한 기쁨을 선사하는 완전함과 명석함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캠벨이 겁이 없고, 자립적이고, 확고한 성격의 소유자인 반면에, 스코트는 본래 겁이 많고, 숙기가 없었으며, 유연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캠벨이 차분하고, 꾸준하고, 신중하였던 반면, 스코트는 흥분을 잘하고, 번덕스럽고, 허둥대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른 특성들의 혼합은 그들을 훌륭한 사역 팀을 만들었다. 앞에서 스코트를 “금언”(Golden Oracle)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별명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스코트가 기독교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라고 강하게 믿었고, 또 그는 그것을 “금언”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이다.

스코트는 능력 있는 부흥강사였다. 알렉산더 캠벨이 더 크고 더 넓은 그림을 보았다면, 스코트는 복음의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코트는 매우 일찍이 다섯 부분들의 구원의 계획

3)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1897), I. p. 510.

들을 동일시 할 수 있었다. 그는 집회에서 사용할 “다섯 손가락” 훈련을 개발하였다. 그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믿음, 회개, 침례, 구원, 그리고 성령이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청중에게 파고들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집에 가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것을 외워 보였다.

스코트는 세 차례 결혼하였다. 그는 처음 두 아내와 사별하였다. 그는 1823년 피츠버그 가까운 곳 출신의 사라 휘셋(Sarah Whitsett)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1849년에 죽었다. 약 일 년 후에 그는 켄터키 출신의 애니 앨렌(Annie B. Allen)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1854년에 죽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부유한 과부, 엘리자 샌디지(Eliza Sandige)와 세 번째 결혼을 하였다.

스코트는 저자이기보다는 설교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권의 유익한 책들을 썼다. 그는 자신이 『에반젤리스트』(The Evangelist)라고 부른 신앙지를 편집하였다. 스코트는 65세 가까이 살았고, 독립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는 1861년 4월 23일 화요일에 죽었다. 캠벨은 그의 죽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죽음도 우리가 깊이 사랑했고 높이 평가했던 형제, 월터 스코트의 이것보다 더 갑작스럽고 더 허망하게 꺾전을 때린 일은 없다. 또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부드러운 동정심과 유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⁴⁾

W. K. 펜들톤(W. K. Pendleton). 환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한 사람의 지도자는 윌리엄 김브루 펜들톤(William Kimbrough Pendleton)이었다. 줄여서 W. K. 펜들톤이라 부른다. 웨스트는 그를 “남북전쟁이전의 설교가들과 개척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⁵⁾ 지적한다. 그리고 “확실히 그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⁶⁾고 부언 한다.

4) Alexander Campbell, "Elder Walter Scott's Demis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V, Vol. IV, No. 5(May, 1861), p. 296.

5) West, I, p. 89.

제임스 디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에 의하면, “윌리엄 김브루 펜들톤은 1817년 9월 1일, 버지니아 주 루이사(Louisa) 군에서 태어났다.”⁷⁾ 펜들톤은 그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가족들 품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훌륭한 고전교육을 받았고, 학문들 가운데 특히 수학을 강조하였으나, 그는 또 언어학분야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다. 멀치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언어학자였고, 최고기량의 문학자질들을 소유하였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였고, 그림과 조각 그리고 자연미를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평가였다.”⁸⁾ 그에 대한 이들 평가들로 보아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펜들톤은 『밀렌니얼 하빈저』를 통해서 환원운동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하빈저』의 구독을 시작하던 때에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그는 법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렉산더 캠벨을 만난 후, 1840년 6월에 캠벨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의 관심들은 곧이어 환원운동의 발전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펜들톤은 상당히 특별한 방법으로 캠벨을 알게 되었다. 캠벨은 그가 『밀렌니얼 하빈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행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그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곤 했다. 그가 그의 딸, 라빈나(Lavina)와 동행했던 것은 버지니아 주 여러 곳을 순회하던 한 여행에서였다. 웨스트는 이 여행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평을 하고 있다.

캠벨의 딸 라빈나는 매우 아름답고 쾌활한 성격의 젊은 숙녀였다... 캠벨과 그의 딸이 마을에 와서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 펜들톤은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 대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캠벨의 딸을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펜들톤은 농담으로 받았다. 그가 완쾌되면, 라빈나를 만날 것이고, 또 머지않

6) *Ibid*

7) Murch, p. 156.

8) *Ibid*

아 그들 모두를 물리치고 그녀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⁹⁾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후에 그는 라빈나를 만났고, 그들은 1840년 가을에 결혼하였다. 이것은 매우 행복한 결혼이었으나, 1846년에 라빈나는 죽었고, 때 이른 사별로 펜들톤은 몹시 상심해 하였다. 1841년 9월 2일, 펜들톤과 라빈나 사이에 딸이 태어났고, 그들은 그녀에게 캠벨리나(Campbellina)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2년 후, 펜들톤은 또 다른 캠벨의 딸, 클라린다(Clarinda)와 결혼하였다. 1848년의 이 결혼 역시 그녀가 1850년에 죽음으로써 비극적으로 너무 일찍 끝났다. 그는 5년 뒤인 1855년에 세 번째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그와 여생을 함께 보냈다.

환원운동에서 펜들톤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1845년 베다니 대학의 부학장으로 뽑혔다. 후에는 『밀렌니얼 하빈저』의 부편집자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편집자로 임명되었고, 1870년 폐간될 때까지 『밀렌니얼 하빈저』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캠벨이 더 이상 베다니 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펜들톤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역할을 1884년까지 수행하였다. 웨스트는 그의 노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비록 펜들톤이 계속해서 베다니를 왕래하기는 했어도, 그는 노년기를 플로리다에서 보냈다. 1886년 3월에 그는 더랜드(Deland)로 이사하였다. 이사한 직후, 그는 유스티스(Eustis)에 가까운 곳에 오렌지 과수원과 작은 농장을 구입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책들과 찾아오는 친구들의 방문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은 것은 그가 베다니로 돌아가는 여행에서였다. 그때가 1899년 9월 1일이었다.¹⁰⁾

모세 라드(Moses E. Lard). 모세 라드의 생애를 공부할 때는 기꺼

9) West, I, p. 91.

10) *Ibid* I, p. 95.

이 그 사람의 양면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는 그가 이해한 성경말씀을 저술하고 표현하는 능력 모두에 있어서 분명 큰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때로는 극도로 신랄한 것이었다. 그는 환원교회들이 예배 때에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열렬히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그는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교회들과 친교를 끊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떤 설교자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은 불변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간의 서신 왕래가 있는 어떤 누구도 오르간을 사용하는 교회와는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소굴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교회와 교제를 끊고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셋째, 오르간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도입이 될 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저항이 무시된다면, 그들이 서신들을 보내서 여기저기에 묻거나 상담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하며, 오르간이 없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한다.¹¹⁾

멀치(Murch) 역시 그에 관해서 동일하고도 보편적인 평가를 내린다. “모세 E. 라드는 ‘사도전승’(apostolic practice)의 어떤 변질도 위험하고 불충한 ‘쇄신’(innovation)이란 견해를 가졌던 학파의 사람이었다.”¹²⁾

모세 E. 라드는 1818년 10월 29일 테네시 주 셸비빌(Shelbyville)에서 스코틀랜드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17세 때까지 읽고 쓰지를 못했다. 그는 읽기를 “독학”으로 배웠고, 진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웨스트는 라드에 관해서 말하기를, “모세 E. 라드에 관한 충분한 이야기가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¹³⁾ 1987년 모세 E. 라드에 관한 첫 전기가 켄넛 밴듀센(Kenneth VanDeusen)에 의해서 쓰였고, 칼리지 프레스

11) Garrett, p. 467.

12) Murch, p. 159.

13) West, I, p. 287.

(College Press)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라드는 매우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도 이내 심연으로 가라앉곤 할 때가 있었다. 한 작가로서 그는 매우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었고, 만일 그가 세속적인 글을 쓰는데 전념했다면, 대단한 돈을 손에 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큰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웨스트(West)는 다음과 같이 부연 한다.

라드가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 설교가로서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환원운동사 전체에서 배출된 가장 유창한 연설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드는 기대치만큼 평가받지를 못할 때가 있었다.... 라드는, 언급한바와 같이, 대단한 감정의 소유자였다. 그 감정의 분수가 솟구쳐 오를 때면, 그는 청중을 휩쓸어버릴 것 같은 웅변의 강물을 흘러내리곤 하였다....¹⁴⁾

라드는 1841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제리 P. 란캐스터(Jerry P. Lancaster)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1845년에 모세 E. 라드는 베다니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한 투쟁이었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었고, 그는 4년의 교육과정을 단지 3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라드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기억되고 있다. 그는, 언급한바와 같이, 매우 능력 있는 설교가였다. 그는 성경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성경에 충실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악기음악이 신약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불일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선교사 공회들(missionary societies)에 관해서, 그는 이것을 사적인 편리성의 한 문제(a matter of personal expediency)라고 믿었다. 그의 저술 능력들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매우 세심한 로마서 연구서이다. 그는 『라드 계간』(Lard's Quarterly)지를 만

14) *Ibid*, I, p. 289.

들었고, 대략 3년 정도 출판하였는데, 유명한 글 몇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 E. 라드는 1880년에 죽었다. 비록 그가 평생을 성경문제들에 관한 그의 관점들을 견지했다하더라도, 그가 그의 저술에서 묘사했던 태도들의 일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가 죽을 무렵, 그는 정신적으로 점점 더 풀이 죽어있었고, 그의 죽음은 진실로 그에게는 구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환원운동에 끼친 그의 공헌들은 무시될 수 없다.

J. W. 맥가비(J. W. McGarvey). 환원운동의 “지도력의 확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도 존 윌리엄 맥가비(John William McGarvey)였을 것이다. 애정을 듬뿍 담고 널리 쓰인 그의 이니셜이 J. W.이다. 필자는 T. Q. 마르틴(Martin)이 J. W. 맥가비 밑에서 공부한 기쁨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청소년기에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와 같이 맥가비의 영향력이 환원운동 전체에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하였다.

맥가비는 1829년 3월 1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J. W.가 단지 네 살 때에 죽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그 집에서 살았던 열 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였다. 맥가비는 베다니 대학에 들어갔고, 그 학창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W. K. 펜들톤에게 베다니 가까운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환원운동 내에서 강한 평화주의 감정을 쏟아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강렬하게 반대하였고, 전쟁에서 어느 쪽이든 편드는 것을 거절하였다.”¹⁵⁾

맥가비에 관해서 기록할 것은 많다. 그러나 지면이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적어도 세 가지 탁월한 방법으로 환원운동에 공헌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열렬하고 신실한 설교가였다. 그는 탁월한 교육가였다. 그의 저술들은

15) Murch, p. 153.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리면서 읽히고 있다. 비록 맥가비가 스코트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뛰어난 연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능력을 갖춘 설교가였다. 캠벨이 죽고 난 다음, 맥가비는 환원운동사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저술가와 학자로서, 맥가비는 아마도 그의 세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주석』(*Commentary on Acts*)을 썼고, 그의 책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는 환원운동사에서 성지를 여행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땅』(*Land of the Bible*)을 썼다. 이 책은 지금도 자료집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는 정규적으로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에 기고하였고, “기독교의 증거들”(Christian Evidences)에 관한 그의 저술들은 아직도 역사의 기념비적인 자료들이다.

교수직은 맥가비에게 아마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는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에 있는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에서 수년간 교수로서 봉직하였다. 그는 수학과 영문학 과목들을 가르치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그는 이것들을 거절하였다. 그는 성경교사로서 가장 자질을 갖췄고, 또 가장 요구되었던 것이라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 일들을 해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유명해진 많은 사람들이 J. W. 맥가비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악기음악에 반대하였고, 악기가 사용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하였다.¹⁶⁾ 그러나 그는 선교사 공회(Missionary Society)의 확고 부동한 지지자였다. 맥가비는 1912년 9월 12일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

“래쿰”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 환원운동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래쿰” 존 스미스였다. “래쿰” 존 스미스의 이야기는 비통함과 유머, 깊은 영성, 슬픔과 행복에 관

16) 역자 주: 맥가비는 유악기 예배를 반대하였으면서도 유악기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삶은 그의 생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였다.

존 스미스는, 1784년 10월 15일, 테네시 주 동부지역에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13명의 아이들 가운데 9번째였다. 그의 아버지는 몇 번의 이사 끝에 결국 켄터키에 정착하였다. 스미스는 너구리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래쿰”(너구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평생 동안 그 이름이 따라다녔다.

그의 부모인 조지 스미스(George Smith)와 리베카 “보웬” 스미스(Rebecca “Bowen” Smith)는 확고부동한 칼뱅주의자들이었고, 칼뱅주의 신학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굳힌 사람들이었다. 존은 침례교회의 교리들만을 알고 자랐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는 칼뱅주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지시하는 “표적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가 해석한 한 사건을 그의 “소명”과 동일시하였다. 그는 그의 “경험”을 고백하였고, 침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침례를 받았다. 그는 설교가가 되기를 심히도 원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설교할 소명”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는 어느 날 방울뱀을 피하였다. 그는 그것을 그의 소명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한 황소와의 싸움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였고, 그것을 그의 설교에 대한 소명으로 제시하였다. 교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안수를 받았다.

1806년 12월 9일, 존은 안나 타운센드(Anna Townsend)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네 자녀를 두었다. 스미스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앨라배마 주로 이사하였고, 1814년에는 그의 생애를 덮친 몇 번의 비극들 가운데 첫 번째를 겪어야 했다. 웨스트는 다음과 같이 그 비극을 요약하였다.

불행이 자주 스미스를 덮쳤고, 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만났다.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었다. 그의 아내는 병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오두막을 떠났고, 아이들은 스미스 부인의 형제, 히람 타운센드(Hiram Townsend)와 함께 집에 있었다. 갑자기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였고, 빠르게 바닥까지 태워버렸다. 자녀들 가운데 두 명은 화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스미스 부인을 덮친 공포와 무서움은 다만 아련히 상상되어질 뿐이다. 그 슬픈 소식이 스미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라헬(Rachel)처럼, 그의 부인은 위로 받기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여러 날들이 흘러갔지만, 그녀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결국 먼저 간 두 자녀들 곁에 묻히고 말았다. 스미스 자신도 병이 들었다. 그는 열병에 걸렸고, 수일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회복되었다.¹⁷⁾

평상시로 되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 설교를 시작하였고, 예전의 자신을 회복하였다.

스미스는 칼뱅주의의 예정교리와 싸웠다. 한번은 설교 도중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논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가 없어서, 그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설교를 끝냈다. “형제자매들이여,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해낼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어떻게 찾아낼지, 저는 모릅니다.”¹⁸⁾ 그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 와중에도 낸시 헐트(Nancy Hurt)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 문제를 그녀와 논의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구독함으로써 알렉산더 캠벨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스미스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환원운동에서 중요하며, 그의 독특한 성격이 환원운동사에 추가하였던 특색이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는 대단한 열정으로 그의 청중들을 움직였던 힘 있고 성경에 기초한 설교자였다. 그는 1830년대 초 스톤과 캠벨 운동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주님께 헌신

17) West, I, p. 245.

18) John A. Williams, *Life of Elder John Smith*(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04), pp. 115, 116. 가스펠 애드보케이트사(Gospel Advocate Company)에서 1956년에 이 책을 재 출판하였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하였고, 그의 설교는 수백 혹은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존 A. 윌리엄즈(John A. Williams)에 의해서 쓰였고, 그의 삶의 큰 줄거리들은 웨스트(West)와 가렛트(Garrett)의 저술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사에 위대한 인물들은 매우 많아서, 우리는,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 존 T. 존슨(John T. Johnson), P. S. 폴(P. S. Fall), 탈버트 팬닝(Tolbert Fanning) 등 수많은 다른 이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이들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부해 주기를 바란다.

결론

이 강의의 목적은, 환원운동이 자체의 특성을 발전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그것의 “제2의 물결”에서 탁월하게 활동한 지도자들의 일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우리는 일부 중요한 인물들의 삶들을 개괄하였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들은 환원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였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들을 다 얻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들은 해답들을 얻으려고 찾고 있었고, 이들 불일치들의 몇 가지 결과들은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해답들에 항상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또 이들 불일치들의 몇 가지 결과들은 이 책의 나머지 강의들을 공부하면서 찾게 될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월터 스코트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술하십시오.
2. 왜 월터 스코트는 “금언”이라고 불리었는가?

3. 무엇이 스코트가 환원운동에 끼친 주요 공헌들이었는가?
4. 무엇이 W. K. 펜들톤이 환원운동에 끼친 독특한 공헌들이었는가?
5.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코트, 알렉산더 캠벨과 W. K. 펜들톤과의 특별한 관계를 논의하십시오.
6. 무슨 방법들에서 모세 E. 라드는 환원운동에 그렇게 독특하였는가?
7. 왜 J. W. 맥가비는 환원운동에서 그렇게 우뚝 솟은 인물이었는가?
8. “래쿰” 존 스미스의 다채로운 삶을 논의하십시오.

제9강 진보와 퇴보

앞에서 다룬 글들에서, 우리는 “환원 이상”(Restoration Ideal)의 발생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살펴보았다. 많은 지도적인 사상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종교역사의 흐름을 바꿀 한 운동이 발생하였다. 환원운동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종교운동들 가운데 하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환원운동은 동부 여러 주들로 번져나갔고, 서부 개척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의 동부 지역들에 퍼져나갔다. 또 어떤 활동은 심지어 이들 경계들 너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는 구역질나는 분열증상들의 몇 가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은 환원운동의 계층들에서 나타났고, 결국에는 형제들을 쪼개놓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분열은 기독교에 독약이란 사실을 더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더 신속하게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환원운동의 성장

우리가 환원운동의 성공에 대한 모든 원인들과 공적들을 약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1)“사도전통”(Ancient Order of things)을 회복할 시기가 성숙되었다. 당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고 있었던 분열과 불화에 염증을 내고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탐험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들의 확신들을 조사해보게 하였고, 기꺼이 개인들로서 일어서게 하였다. (2)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한 목적에 헌신하였다. 어떤 위대한 운동도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토마스와 알렉산더 캠벨, 스톤, 스코트, 기타 덕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반대에 맞서려고 하였다. (3)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수용한 것이 그 운동의 발전을 도왔다. 남녀 성도들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로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감행하려하였다. 이들 세 가지가 환원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이들 요소들은 확실히 성공을 위한 위대한 목적들에 해당된다.

많은 도구들이 환원운동의 성장에서 탁월한 역할을 맡았다. 확실히, 설교는 탁월한 역할을 하였다. 환원운동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배출하였다. 모든 설교자들이 동등하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헌신하였다. 출판은 신앙지들의 인쇄와 책들과 전도지들의 출판 모두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많은 수의 훌륭한 잡지들이 그 시기로부터 계수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토론들과 직접대면은 메시지를 나누고 생각을 고취하는데 사용되었다. 캠벨 자신은 많은 수의 성공적인 토론들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람들 또한 곳곳에서 토론대회들을 열었다. 면밀한 강의 프로그램들이 가정들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학교들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환원운동은 성숙하였고, 사람의 생각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든 성장요소들에는 또한 실망스런 결과들도 있었다. 지금의 환원운동의 성장과 성공에 공헌했던 동일한 도구들의 몇 가지는 몇몇 나쁜 결과들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계층들 속에서 심각한 분열을 야기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요소들이 환원운동이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글들에서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세 가지, 즉 (1)남북문제들, (2)선교사 공회, 그리고 (3)악기음악에 대해서 제안을 내고 논의할 것이다.

남북문제들

남북문제를 거론할 때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과 태도들 그리고 행동들을 다루는 것이다. 거기에는 노예제도 문제뿐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한 급진적이고 지역적인 선입견들도 있었다. 노예제도는 단지 불일치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터지자, 상황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남쪽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순수한 논리적 관점에서도 빈곤하게 되었다. 남북 모두에서 훌륭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였거나 부상을 입었다. 도시들은 불탔고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의 재산손실은 막대하였다. 이들 빈곤해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들을 가지고 응전하였다. 종종 가족의 일부가 남군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남은 다른 가족은 북군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가족들이 둘로 찢어졌을 때,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들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들 개인의 감정들은 형제애의 의식에서 머뭇거렸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많은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북부에서는 더 좋은 경제적 안정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북쪽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남부 그리스도인들은 북부지역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결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심한 불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는 반대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es/Disciples of Christ)이 되게 하였는가에 대한 지리적 형성을 조사할 때, 발전된

하나의 중요한 영토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비노예제도 문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자들은 물론 (베다니, 신시내티 성서학교, 버틀러대학교, 기타 그와 같은) 학교들의 영향을 좀더 크게 받았던 북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부 그리스도인들이 환원운동의 “보수적인” 요소로 좀더 밀접하게 뭉치려 하는 동안, “자유주의자들”로서 간주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적이었다기보다는 이념적이었던 한 가지 다른 요소는 평화주의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리적 경계선들에 어떤 제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들은 높이 솟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맥가비는 평화주의자 입장에 매우 깊이 관여하였다.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수년 후, 민간정부 참여를 반대하는 챔피언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 환원운동가들이 개신교 분열정신을 피할 방도를 구하고 있었을 때, 과거와 같은 상당히 동일한 방법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신교사 공회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의 사역을 추적하여 그가 토론대회들을 열고, 책들을 저술하면서, 성장하는 환원운동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2차 10년 동안과 1830년대를 개괄하였다. 스톤과 캠벨의 무리들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한 가지 목표로 연합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이 보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목적을 진척시킬 더 나은 방법들을 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환원운동 초기에, 교회들 사이에 더 큰 조직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다. 캠벨은, 만일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만 있다면, 형제들에게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종의 “성급한” 주(州)별 모임들이 이미 1836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839년 25개 교회들의 협동모임이 인디애나 주 리치몬드(Richmond)에서 개최되었다. 인디애나 주는 첫 모임을 1839년에 가졌고, 켄터키 주 남부에서는 1842년에 유사한 모임을 가졌고, 그렇게 계속되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신약성경에로의 환원은 단순한 개별교회 조직방법(simple congregational method of organization)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시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교단(the Church)의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들을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모아 부어준” “대형조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849년 10월 23-26,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월넛(Walnut) 8번가 코너에 있었던 크리스천 채플(Christian Chapel)에서 최초로 선교사 공회를 조직할 총회가 소집되었다. 그 모임은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라 불리게 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병들어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대표해서 W. K. 펜들톤을 참석시켰다. 캠벨은 불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명의 부회장들이 선출되었다.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 이외에도 1845년 1월 27일 신시내티에서 D. S. 버넷(Burnet)이 미주 크리스천 성경 공회(American Christian Bible Society)를 설립하였다. 상당한 반발이 이들 두 공회들의 조직에 수반되었고,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룹 내의 심각한 부식과 분열을 초래한 이슈들이 되었다.

악기음악

처음 선교사 공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또 다른 중대한 이슈가 고개를 쳐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0년이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사용하지 말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멀치(Murch)는 환원운동보다도 더 광범위한 문제의 논쟁적인 성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오르간 논쟁은 제자들(Disciples)¹⁾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은 그것 때문에 찢어졌다. 유럽에서의 종교개혁 초창기에 갈뱅과 츠빙글리는 예배 중에 오르간 사용에 반대하였다. 감리

1) 역자 주: 그리스도의 교회들.

교회는 자유 감리교회(Free Methodists)로 알려진 작은 분파를 잃었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연합 장로교회(the Reformed and United Presbyterians)²⁾와 같은 반 오르간 분파들을 잃었다. 이들은 또한 시편만을 노래하되, 단지 박자(metric version)만 넣어서 할 것을 고집한다. 침례교회는 초대교회 침례교회(the Primitive Baptists)를 잃었고, 다른 많은 교단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³⁾

물론 강한 차이점들을 초래한 다른 많은 견해의 차이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개를 다음 강의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악기음악은 이미 1851년에 지면들을 통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악기음악을 환원운동의 예배에 처음 도입한 곳을 꼭 짚어서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치는 “교회예배에 보조수단으로써 오르간들의 도입은 형제들을 괴롭힌 가장 심각한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를 배출했다.”⁴⁾고 진술한다.

1860년 켄터키 주 미드웨이(Midway)의 L. L. 핀커톤(Pinkerton)은 『미주 크리스천 리뷰』(*American Christian Review*)의 편집자 벤 프랭클린(Ben Franklin)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에게 그가(핀커톤) 악기음악을 주창하였고, 미드웨이가 그 당시 그것을 사용하는 유일한 교회였다고 말하였다.

많은 기사들이 쓰였고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예배에 이들 보조수단들을 도입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의 상세한 사항들의 소개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좀더 상세한 작업들을 독자에게 언급한다. 처음에 그 이슈는, 남북전쟁 후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팽팽하지는 않았다. 웨스트는 “악기음악은 그것이 나중에 심히 악화되었던 것만큼, 당대의 사상에서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 후, 악기음악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슈는

2) 역자 주: 정확한 교단 명칭은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임.

3)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72), p. 160.

4) *Ibid.*, p. 157.

좀더 뜨겁게 달아올랐다.”⁵⁾고 보았다. 웨스트는 “예배에 그것이 도입된 거의 모든 경우에서 심각한 분출이 야기되었다.”⁶⁾고 부언한다.

분열이 현실이 되다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실제로 환원운동은 오늘날 적어도 세 가지 주요 그룹들이나 분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 각각의 그룹은 또한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분열이 현실이 된 때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된 지역들의 상황들은 그들이 다른 지역들에서 행하였던 것보다 더 빨리 친교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1906년까지 분열작업은 완료되었다. ‘그리스도인 교회들’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불리기를 원했던 대로 그들의 악기들과 선교사 공회들을 수용하였고 새로운 길을 갔다.”⁷⁾ 그리스도인 교회(Christian Church)와 좀더 밀접하게 손잡고 있었던 멀치(Murch)는 분열로 들어섰던, 개방 또는 폐쇄 성만찬, “기독교 교리 속에 자유주의 등장,” 그리고 그 밖의 일들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⁸⁾

미국 인구조사국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교회들(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분리된 조직들로 열거했던 것은 1906년이였다. 그때로부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유기적 일치도 없었다. 그러나 남은 세 강의들에서 우리는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차이점들과 유사점들에 주의를 조금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그룹들 사이에 놓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몇 가지 노력들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포함시킬 것이다.

악기음악과 공회들의 수용이든 또는 그것들의 거절이든 어느 쪽으

5) West, I, p. 317.

6) *Ibid*, II, p. 80.

7) *Ibid*

8) Murch, pp. 215-217.

로든 인도한 많은 이유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공부는 북부지역에서 악기음악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 더 강했던 반면에 남부지역에서는 좀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요인들이 확실히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분명히 남북문제들이었다. 또 다른 요인은 아마도 더 강한 기독교 학교들이 북부에 있었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남부에서는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와 『firm 파운데이션』(*Firm Foundation*)이 남부 사람들의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북부에서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아마도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 (그것이 계속해서 출판되어진 동안)가 영향력이 더 컸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필자의 생각이다. 남부의 잡지들은 좀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고, 악기들의 사용과 공회들을 반대했던 반면, 북부의 잡지들은 좀더 자유로운 경향을 띠었고, 그것들의 사용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확신들과 정직은 결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힘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 어떤 이들은 악기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선교사 공회는 반대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반대로 처신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인 법칙도 없었다. 이어질 강의들에서는 그 문제를 지탱시켜왔던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론

결론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의 연구는 별도의 분파들로 갈라놓았던 차이점들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두 가지 주요 교리적 이슈들은, 말하자면, 예배에서의 악기음악의 사용과 교단(the Church)의 선교 노력들을 진척시킬 목적의 선교사 공회들의 조직이었다.

우리는 또한 남북의 이슈가 감정들에 이롭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상당한 선입견이 있었고, 사랑의 수준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가 나뉘지는 것을 사람들이 용인해 버린 이들 차이점들은 그 폭이 매우 컸다.

토의 문제들

1. “하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암시하는 바들을 논의하십시오.
2. 무엇이 환원운동의 빠른 확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었는가?
3. 환원운동의 확산과 성장과정에서, 설교, 인쇄물, 토론의 역할을 논의하십시오.
4. 어떻게 남북전쟁과 다른 남북문제들은 환원운동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미쳤는가?
5. 무엇이 환원운동의 성장과 분열에서 고등교육이 암시하는 것들이었는가?
6. 선교사 공회와 악기음악이 분열을 키우는 데 미친 영향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십시오.
7. 무엇이 선교사 공회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태도였으며 반응이었는가?

제10강

그리스도의 교회들

앞에서 우리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견해차의 폭풍이 환원운동을 갈라놓은 분열로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배웠다. 먼저, 분열의 중심에 놓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다. 예배에서의 악기음악 사용과 교회들의 선교사역의 협력과 감독을 위한 선교사공회의 도입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분열이 결국 일어나고만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내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이 강의와 그 다음 두 강의들에서 우리는 “스톤-캠벨 운동”의 세 가지 주요 분파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 분파들은 “스톤-캠벨 운동” 또는 “환원운동”으로 알려진 개혁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환원운동의 이들 세 “분파들” 사이에서 어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배경을 말할 때에 “환원운동”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환원운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고, 대신에 “스톤-캠벨 운동”이란 말을 선호한다. 나중에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지적하겠지만, 필자는 이들 두 단어를 모두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비록 필자가 분명하게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운동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힘쓸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운동들이 연구되어질 순서는 보수적 경향에서 좀더 진보적 경향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먼저 공부할 것이며, 이어지는 강의들에서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차례대로 공부할 것이다.

역사적 교리적 개관

우리가 앞 강의들에서 살펴본 대로, 1906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분열의 위협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필연적인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감정적 교리적 긴장들이 그같이 최고조에 달해서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미국 인구조사 보고서에서 따로 열거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열이 굳어지게 되었다.

교리의 구별성은 우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구별의 힘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은 이슈들 주변에 집중되었다. 환원운동 초기에 스톤과 캠벨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는 슬로건을 채택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자들은 이 슬로건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만약 성경이 교리의 어떤 점에 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교리적 신념이나 실천이 관련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야할 충분한 이유였다.

성경말씀의 권위는 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 분파를 추종하는 자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들, 즉 우리가 배운 바,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은 충분히 명백하며, 침례를 받으라(마 28:18-20)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은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행 20:7)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기”(마

3:16) 때문에,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이들 세 가지 방법들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환원운동의 다른 분파들 간에 환원운동의 역사적 발전에서 일어난 주요 차이점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즉 예배에서 악기음악의 사용과 선교사공회를 통한 교회간의 협력의 실행들이다. 그 사이의 몇 해 동안에 일어난 다른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이슈들은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 최근의 차이점들에서는 각 분파가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비록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승인된 사도의 모범의 사용에는 대개의 경우에서 십중팔구 동의할지라도, 필요한 추론의 사용에는 십중팔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차이점들은 다음의 두 강의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성장과 힘. 한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운동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운동의 열정은 20세기 전반(前半)에 대단히 강하였다. 많은 수단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 시기의 전반(前半)에 심사숙고아래 신앙토론들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기존 교단들의 목회자들과 토론하였다. 성경말씀의 권위에 의존하는 특유함 때문에 이들 교회들의 많은 교인들을 인도하는데 성공하였고, 꽤 많은 수의 목회자들도 환원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신앙토론을 통한 교수방법의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종 “부흥집회들”로 언급된 “복음집회들” 또한 매우 성행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대다수가 두 번의 복음집회들을 일 년에 한번 또는 여러 번씩 정기적으로 열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들 집회

들 가운데 한번이상 관여하였고, 몇몇 유능하다고 알려진 부흥강사들은 이들 집회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 유명한 부흥강사들 가운데 몇 사람만 열거한다면, 윌러드 콜린스(Willard Collins), T. B. 래리모어(T. B. Larrimore), 가이 우즈(Guy N. Woods), G. C. 브류어(G. C. Brewer), 포이 월리스 주니어(Foy E. Wallace, Jr.), N. B. 하드만(N. B. Hardeman), 제임스 코프(James R. Cope), 호레이스 버즈비(Horace Busby), J. D. 탄트(J. D. Tant), 거스 니콜스(Gus Nichols), T. Q. 마르틴(T. Q. Martin), 마샬 키블(Marshall Keeble), R. N. 호건(R. N. Hogan), 에드워드 크래도크(Edward J. Craddock), E. W. 맥밀런(E. W. McMillan)이며, 이밖에도 수많은 부흥강사들이 있었다. 이들 복음집회들은 종종 새 신자들을 얻는 주된 원천이었다. 좀 작고 더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들 집회들을 연중 여는 행사의 중심으로 취급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설교자를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주일 예배들은 종종 개교회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필자가 유년시절 다녔던 교회에서도 분명 그랬다.

페퍼딘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의 교수이자 수년간 필자의 사적인 친구인 로렌스(래리) 킨<Laurence(Larry) Keene> 박사는 환원운동의 세 분파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필자가 조사에서 살펴본 바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평균크기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평균크기의 대략 절반 정도이며, 제자들의 교회들의 평균크기의 삼분의 일 정도이다.”¹⁾고 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상당 부분이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제자들의 교회들은 많은 수가 도회지와 대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써 필자의 테네시 주 월렌 군(Warren County)의 고향에는 한 때 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다. 크기가 다른 또 다른 이유는 교회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 1987년 9월 17일 페퍼딘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에서 이루어진 로렌스 킨 박사와의 개인 인터뷰 내용. 허락 받고 사용함.

무리 지어 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고, 더 슬픈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들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세한 지역들은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와 미시간 주에서 열거한 순서대로 더 강한 성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다른 주들에서의 선교사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안목을 넓히는 효과가 있었다. 세 분파들의 크기와 관련해서 킨(Kee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 가지 흥미로운 인구통계학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중팔구 세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크며, 교인이 대략 150만 명 정도이다.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100만 명 정도, 제자들은 대략 110만 명 정도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교인들이 줄고 있고,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현상유지를 해왔다. 지난 45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이 대략 40만 명 정도 십중팔구 줄어들었다.²⁾

교인수 감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이유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은 전보다 더 정확한 기록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수년 전, 노벌 영(M. Norval Young) 박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조사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는 조금 부풀려 추정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종교 단체들이 “유아 세례자들”까지 추정치에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비록 그들이 교인들은 아닐지라도, 그도 그들을 추정치에 포함시켰다고 말한다. 이것은 타종교 단체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며, 그들과 좀더 일치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Ibid*

인물들과 운동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복음집회”운동에서 두각을 보였던 주도적인 전도자들을 많이 열거하였는데, 몇몇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들 이름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하였고, 또 분명히 누락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특징지었던 몇몇 주도적인 인물들과 운동들과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좀더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서 독자에게 얼 웨스트(Earl West)의 『사도전통의 탐구』(*Search for the Ancient Order*) 3-4권을 읽도록 권한다. 4권은 매우 최근에 출판된 책이며, 좀더 최근의 일들을 담고 있다. 이들 네 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관점과 환원운동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해야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책들이다.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물들과 운동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우리는 분열의 요소를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부의 대역섯 가지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주목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몇 개의 조직들과 교육활동을 살펴 볼 것이며, 이들 몇몇 뛰어난 이름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주요 분열 문제들

많은 이슈들이 지난 50-75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괴롭혔다. 우리는 이들 몇몇 운동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덧붙이려고 한다.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직면해야할 첫 번째 주된 이슈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운동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기 전에 “천년동안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였다. R. H. 볼(Boll)은 1930년대에 시작해서 1940년대에 절정에 이른 이 운동의 선두주자였다. 이 운동

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끝났다.

한컵운동(One-Cup Movement)은 많은 교회들에서 일고 있었다. 이 관점을 취하고 있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오직 한 개의 성찬 컵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종종, “한 컵” 전통을 신봉한 교회들은 두 개나 그 이상의 컵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개인용 성찬 컵들의 도입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주일학교(Sunday School)**와 성경공부시간에 교재 사용(Literature)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교회들에서 있었고, 또한 반(反)대학(Anti-College)운동도 있었다. 비록 이들 세 가지 운동들이 실제로 다른 이슈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들 간에 얼마간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묶었다. 다니엘 쉘머(Daniel Sommer)는 이 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은사운동(Charismatic)은 많은 신앙운동들에 침투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한 방언 말함, 병 고침, 심지어 어떤 경우들에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추구하였다.

교차로운동(Crossroads Movement)은 복음전도에 대한 더 큰 열정과 교회발전과 성장을 위한 더 큰 동기를 키우기 위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에서 발전되었다. 생각 그 자체는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접근을 다소 “이교적인” 것으로 특징지었고, 그것이 도입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분열의 원천이 되었다. 보스턴에 집중된 “제자화 운동”은 교차로 운동의 가장 최근의 부산물이다.³⁾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몇 개의 주요 운동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은 건강하였다.

조직들과 교육

3) 한국에도 보스턴 운동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명을 붙인 그리스도의 교회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여러 조직들, 출판물들, 그리고 교육철학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중앙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모든 조직들은 교회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지배받지는 않는다.

양로원들, 고아원들, 그리고 보다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퇴직자숙소들은 지난 수년간 성장해왔다. 이들은 환원운동에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었다. “저주”의 측면은 교인들 상당수가 이들 자선 기관들에 교회차원에서 후원금 내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성도들이 후원에 우호적이었고, 그들은 꽤 많은 기관들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원에 신뢰를 주었다. 지면관계상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겠다.

출판물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에서 유명한 주요 출판물 여섯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지(誌)는 모든 신앙잡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가진 것들 중의 하나이고,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은 테네시 주 내쉬빌(Nashville)에서 발행되고 있다. 『firm 파운데이션』(*Firm Foundation*)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발행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계속 발행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가장 두드러진 신앙지들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좀더 전문성을 띤 출판물로는 『20세기 그리스도인』(*20th Century Christian*)이 있으며, 탈 이슈를 지향하는 잡지와 그것에 따라붙어 나오는 묵상지 『오늘의 능력』(*Power for Today*)이 있다. 『크리스천 크로니클』(*Christian Chronicle*)은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발행되는 뉴스잡지이다. 『환원 계간지』(*Restoration Quarterly*)와 『미션 매거진』(*Mission Magazine*)은 좀더 학문적인 성격의 것들이며,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토의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육은 그것의 전도와 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다.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다. 킨(Keene)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좀더 유사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일반대학(liberal arts) 교육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대개가 결코 일반대학(liberal arts)들

을 세우지 않았다.”⁴⁾고 지적한다. 몇몇 대학들을 누락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든 대학들의 이름을 신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더 오래되고 더 알려진 대학들로 는 테네시 주 내쉬빌에 있는 데이비드 립스콧(David Lipscomb) 대학(교), 테네시주 헨더슨(Henderson)에 있는 프리드-하더만(Freed-Hardeman) 대학(교), 오클라호마 주 시얼시(Searcy)에 있는 하딩(Harding) 대학교, 텍사스 주 애벌린(Abilene)에 있는 애벌린 기독교 대학(교),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호클라호마 기독교 대학(교), 텍사스 주 루복크(Lubbock)에 있는 루복크 기독교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Malibu)에 있는 페퍼딘(Pepperdine) 대학교, 그리고 오리건 주 포틀랜드(Portland)에 있는 콜롬비아 기독교 대학이 있다. 전문대학들의 이름은 전혀 신지 않았다. 설립된 초중고학교들도 또한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⁵⁾

다른 많은 수단들이 교회의 전도와 성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진리의 선포자』(*Herald of Truth*)는 텍사스 주 애벌린(Abilene)에서 전국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영향력 있는 보조수단이 되었다. 개 교회들이 후원하는 선교 사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매우 성공적인 운동들을 일으킨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되어질 세 그룹 모두를 포함시킨다면, 환원운동의 성공에 기여한 탁월한 남녀 주의 종들이 수십 명에 이르게 된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언급할 수가 없다. 언급한다 해도 분명히 몇 사람은 뜻하지 않게 누락이 될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10년에 접근하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세력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원운동의 한 분파(wing)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에 관해서 수많은 세미나 연구들이 이

4) *Ibid*

5) 역자 주: “(교)”자는 역자의 것으로 College에서 University로 교명이 바뀐 대학교들이다. 최근에는 독립(유약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소속 대학들에서도 대학에서 대학교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루어져 있다. 독자들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공부한 지식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알려진 환원운동의 더 보수적인 그룹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악기”(non-instrumental)파로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단지 그들이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무반주 노래(acapella)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처음으로 그들을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구별하여 목록에 올린 1906년부터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체제상 회중주의이며, 미국에만 일백만 이상의 성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교회간 활동적인 친교를 갖지 않는다.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20세기 말에는 성장 곡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사이를 분열시킨 두 가지 큰 이유들이었는가?
2.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진술의 함의(含意)를 논의하시오.
3.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해석에 따라서 논의하시오.

4. 다음의 문제들을 논의하시오: “전천년설,” “한 컵 문제,” “은사 운동.”

5. 누군가로 하여금 “교차로운동”이나 “보스틴운동”을 조사하여 발표토록 하시오.

6. 환원운동의 세 가지 분파들의 차이점과 고등교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논의하시오.

제11강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앞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을 분리시킨 사건들을 약술하였다. 우리는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들이 종종 환원운동의 “주제에서 이탈하기 쉬운” 구성원들이라고 말했던 자들로부터 탈퇴한 것을 보았다. 이 분리가, 그럴 것 같았던, 두 개의 잘 정의된 신앙운동들로 귀착되지 않았다.

환원운동의 나머지 부분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라고 말하게 될) 모든 신학적 문제들에서 그들 자신들 간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의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다른 분리로 결말났다.

철학적 관점

앞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유무악기 그룹들 간의 분열의 주된 배경들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성경해석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또 필자가 그렇게 믿는다면,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발전된 분열의 뿌리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는 “분파적 악의들의 칼날을 둔화시키고 교파적 전투장의 가장자리들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결합하였던”¹⁾ 두 가지 영향들을 말한다. 우리는 이들 영향들의 수행이 거꾸로 불화를 일으킨

1) Winfred Ernest Garrison and Alfred T. DeGroot, *The Disciples of Christ: A History*(St. Louis, Mo.: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1948), pp. 402-403.

영향들을 또한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 개리슨과 드그루트는 이들 두 가지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다음의 단락들에서 그것들을 논의한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후에 우리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는 교리적 정통에 관한 문제들이 미약해지고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적용된 기독교의 실천적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집중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것은 교리 식별을 덜 권위주의적이고, 덜 교조주의적인 생각으로 수행한 성경의 “새로운 견해”로 여전히 불리어질지 모를 것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었다.²⁾

이들 두 가지 영향들 가운데 첫 번째인 실천적 사회문제들에 대한 집중하는 압박은 19세기 말엽에 매우 두드러졌던 “사회복음”운동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의 기술이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음운동의 신학적 철학적 함의들에 더욱 깊게 관여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었던 두 그룹들은 그들이 사회적 의식에 동기를 부여받기보다는 교리적 충동에 더 좌우된다.

이들 영향들 가운데 두 번째는 “새로운 견해”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18세기에 독일 이성주의 운동의 발달은 많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순전히 인문주의와 이성주의 방식으로 성경연구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 고등비평이 발달하게 되었다. 고등비평은 성경본문들의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에 집중된 하등비평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성경말씀들의 권위와 확실성에 도전하였다.

“새로운 견해” 접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크게 다양한 접근으로 귀착되었다. 이 운동에서 자란 자유주의는 많은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좌경적인 신학해석들의 경향을 보였던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성경말씀의 더 전통적인 해석들에

2) *Ibid*, p. 403.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반규칙으로써, 그들의 신학에서 더 진보적이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발달에 필요한 하나의 패턴(pattern)으로 보지 않는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영향을 미친 또한 가지는 “해석학”에 접근하는 그들의 방식의 대조로 기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이란 단어는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말하고, 성경말씀들의 해석에 접근하는 법칙들과 지침을 기술한다. 앞 강의에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슬로건을 해석하는 차이점들을 주목하였다. 좀더 보수적인 해석학이나 해석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직접적인 명령과 승인된 사도의 모범이나 필요한 추론에 의해서 지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해석은 안 된다고 인도한다. “좀더 폭넓은 견해”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며, 분명하게 명령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해석할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래리 킨(Larry Keene) 박사는 인터뷰에서, 세 그룹들 간의 차이점들을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다음의 글은 킨 박사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독립 그리스도인들, 즉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룹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환원의 주요 강조들 가운데 한 가지를 십중팔구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교회의 원칙들을 회복한다는 사상이다. 환원운동의 다른 강조는, 역사적으로, 연합운동 즉 환원운동의 연합적인 면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난 20년 간 십중팔구 가장 강조했던 면이다. 그들은 일세기에 고정된 교회에 관한 교리와 개념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만큼의 신학적인 환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³⁾

상술한 논의에서 우리는 환원의 세 주요 그룹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 모두를 갖는다. 환원운동 또는 그

3) Keene.

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호하는 스톤-캠벨 운동의 여러 “그룹들”(wings)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의 이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것을 고집해야 한다.

운동의 진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간의 분열이 1906년에 표명되었을 때에, 분열이 생각만큼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았다. 문제 점들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실존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안에 분열과 불평의 요소들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분열이 유약기와 교회들의 계층들 속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필자는 버틀러(Butler) 대학교의 신학대학에 다니는 특권을 누렸는데, 그 시기가 대학교와 신학대학의 제휴 끝 무렵 즉 크리스천 신학대학원의 탄생 이전이었다. 그 당시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내에 세 가지 다른 이념적 그룹들의 존재를 느꼈다. 하나는 가끔씩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던 한 그룹이 있었고, 또는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느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그룹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독립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이 악기음악을 사용하였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설립되었던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에 협력했던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그룹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필자가 극단적인 그룹 또는 좌경적인 그룹으로 보았던, 독립 그리스도인 그룹도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한 그룹이 있었다. 그 세 그룹들이 실제로나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먼 신학적 거리들이 있었다.

진실로 이 분열이 기술된 대로 실재했었을 지라도, 그래도 분열

마지막 시기에는 다른 차원에서의 연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지 수년간, 마지막 두 그룹들은 어느 정도의 연합차원에서 함께 일하였다. 세기가 바뀔 즈음에 국제 컨벤션(International Convention) 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능을 계속하면서, 여러 개의 하부조직들이 만들어졌다. 킨은 “그 당시 몇 가지 제자들 운동의 진보적인 경향들 때문에, 1927년, 오하이오 주 캔톤(Canton)의 대형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목회자였던 P. H. 웰쉬머(Welshimer)가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조직을 도왔다.”⁴⁾고 말한다.

때문에, 비록 분열이 1906년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에 관련되었던 것처럼 명료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기독교 세계를 연합시킬 목적으로 출발했던 환원운동에 또 다른 분열이 생기고 말았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국제 컨벤션에 관해서 좀더 살펴볼 것이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에서 좌파들(Leftists), 중도파들(Centrists), 우파들(Rightists)이란 세 단어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 가지 그룹들을 구별하였다. 그는 이것들을 각각 그리스도의 제자들, 독립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멀치는 이 세 가지 그룹들을 각각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들 세 그룹에 대한 더 자세한 공부하는 멀치의 책을 통해서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⁵⁾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특성과 성장

4) *Ibid*

5) Murch, pp. 293-321.

리로이 가렛트(Leroy Garrett)는 “20세기 전반기에 분리된 환원운동의 한 그룹(fellowship)이 공개적으로 두 번째 분열을 알렸을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출현은 종종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뜻하였다.”⁶⁾고 진술하였다. 이 두 번째 분열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1927년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시발점이 될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950년대에 다양하게 그 연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구조를 개혁할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법적 소송들이 교회당 건물들의 소유권문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상당수가 그들의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정확한 때가 모호한 것처럼, 이 분열에 대한 시기 또한 모호하다.

많은 요인들이 이 분열의 주범이었다. 자유주의 신학, “개방 회원제”의 시행, 국제 컨벤션의 방향전환, 에큐메니즘(Ecumenism)에로의 경향은 확실하게 몇 가지 더 선동적인 이유들이었다. 자유신학은 많은 대학들과 교회들의 강단들에 슬며시 숨어들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보수적인 신앙을 위협하였다. 개방 회원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들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받지 아니한 회원제에 동의할 수 없었고, 침례는 반드시 신자의 침수세례를 의미하였다. 국제 컨벤션은 친교와 격려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점점 더 정책결정의 조직이 되어 갔다. 결국 1950년에 특별히 넓게 퍼지는 에큐메니즘을 지향한 강한 움직임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동기는 약한 채로 두고, 연합을 위한 연합 차원에서 다양한 교파들과 연대하였다. 이들 경향들은 매우 위험한 것들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에

6) Garrett, p. 615.

속한 더 진보적인 형제들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더욱 긴밀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멀치(Murch)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교리적 특징들의 몇 가지들을 기술한다.

그들은 거룩한 성경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유일하고 충분한 계시로써 수용한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 근본적인 패턴이 신약성경에 계시되어졌고, 그 패턴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고 믿는다. 분열된 기독교 세계의 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7)

혹자는 상기한 원칙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이들 믿음들의 진술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차이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나타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진술한대로, 해석학의 한 문제로 남아있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혹은, 멀치(Murch)가 그들을 말할 때 쓰기를 좋아하는, 중도파들은 성장해왔고, 미국 기독교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멀치는 기술한다.

....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은 지속적으로 전국적 수준의 친교를 위한 주요 포럼(forum)이 되고 있다. 그것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단의 공식적 기관이 아니며, 전국 교회들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매년 열리는 그 모임들은 매년 새로운 존속 위원회들에서 계획된다.8)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대략 100백만 성도에 5천 개 교회 정

7) Murch, p. 293.

8) *Ibid*, p. 307.

도가 된다.

조직들과 교육

그리스도의 교회들처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어떤 거대조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개 교회별로 운영된다. 개 교회들의 조직은 전형적으로 장로들과 집사들에 의해서 관리된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느 특정 교회, 즉 보통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크기에 비해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장로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200명 규모의 보통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2-3명의 장로들을 갖는 반면, 만약 동일 규모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십중팔구 45명의 장로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가하면, 동일 규모의 제자들의 교회는 8-10명의 장로들을 갖는다.⁹⁾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들은 모두 남성들뿐이지만, 제자들의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들 가운데는 대략 25퍼센트가 여성이다.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보통 한 여름에 개최되는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이라 불리는 기구를 갖고 있다. 이 기구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앞서 멀치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친교를 위한 포럼”형식으로 섬기는 조직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보다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의 수가 아마 더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그룹에도 교회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출판사들은 없고, 오히려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 가운데는 두 곳이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한 곳은 미주리 주 조플린

9) Keene.

(Joplin)에 있는 칼리지 출판사(College Press)이고, 다른 한 곳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Cincinnati)에 있는 스탠다드 출판사(Standard Publishing Co.)이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교육 철학은 환원운동의 다른 두 그룹들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우리가 앞 강의에서 살펴본 대로, 아주 많은 일반대학들(liberal arts colleges)을 세웠다.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밀리건 대학(Milligan College)과 아마 몇몇 다른 대학들 이외에는 일반대학들을 결코 세우지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에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다른 보수적인 배경들을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몇 개의 대학원대학들이 세워졌다. 그들이 세운 대부분의 학교들은 성서대학들(Bible Colleges)이었다. 멀치는 지난 세기에 독립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30개 이상의 성서대학들과 성서대학원대학들(Bible Seminaries)을 소개하고 있다.¹⁰⁾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못지않게 기독교 정기 간행물들의 출판이 풍성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개의 간행물은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환원 헤럴드』(*Restoration Herald*)로 불리는 또 다른 간행물이다.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 있는 칼리지 출판사에 의해서 발행되는 『한 몸』(*One Body*)은 최근 수년 동안에 나타났다. 다른 간행물들이 분명히 더 있지만, 이 간행물들이 가장 널리 공급되는 것들이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말씀을 교리를 위한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더 보수적인 그들의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필요한 추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인된 사도의 모범”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적인 해석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10) Murch, pp. 295-298.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주요 특성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사한 곳이나 차이가 나는 다른 많은 장소들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비슷해지려는 것보다 더 비슷해지려는 경향을 갖는다.

환원운동의 이 "그룹"(wing)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읽고 연구할 자료들은 많다. 각주에 소개된 자료들은 물론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려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책들도 아주 많이 있다.

토의 주제들

1.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가 언급한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를 분리시키려한 두 가지 철학적 차이점들을 논의하십시오.
2. 멀치가 사용한 “좌파들”(Leftists), “중도파들”(Centrists), “우파들”(Rightists)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3. 신학접근방식의 “새로운 견해”를 논의하십시오.
4.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분리시키려한 성경 해석의 “해석학적”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중도파들”(Centrists)과 “좌파들”(Leftists)간의 몇 가지 차이점들을 논의하십시오.
6.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은 무엇이며,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12강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의 두 강의들에서, 20세기 초기이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역사와 특징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우파들(Rightists), 중도파들(Centrists), 좌파들(Leftists)로 언급한,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20세기에 번영했던 환원운동에서 자란 세 가지 주요 그룹들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환원운동”으로부터 그들의 출발을 일관되게 말한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톤-캠벨 운동”이란 말을 선호한다. 로렌스 킨(Lawrence Keene) 박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두 그룹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의 원리로써 “환원”의 개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세기에 존재했던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반드시 환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연합운동으로 그들의 운동을 보려는데 훨씬 더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다른 견해를 취한다.¹⁾

철학적 관점

앞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17세기는 인문주의와 이성주의가 유럽신학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독일 학교들에서 “고등비평”으로 알려진

1) Keene.

성경연구방식이 발달하였는데, 유럽은 물론 미국 모두에서 기독교 학계에 깊은 영향을 갖게 되었다. 18세기에 유럽에서 번성한 운동이 19-20세기에는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고등비평”은 성경말씀의 확실성과 신뢰성에 도전했던 성경연구방식이었다. 다른 한편, “하등비평”은 성경말씀의 원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학자들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도였다. 그러므로 하등비평은 가능한 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원문의 발전으로 귀착되었고, 고등비평은 성경말씀의 저자와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종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환원운동이나 스톤-캠벨 운동과 연관된 대부분의 대학들과 대학교들은 이성주의 운동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고, 종종 “현대신학”(modernism)으로 언급된 영향력은 학교들에 슬며시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이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 매우 영향력이 컸던 몇몇 학교들로는 베다니(Bethany) 대학, 버틀러(Butler) 대학교, 유레카(Eureka) 대학, 드레이크(Drake) 대학교, 필립스(Phillips)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들이다. 이 모든 대학들과 다른 대학들도 이후 좌파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진보주의”대 “보수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이 고등비평의 분야에서의 논쟁은 일촉즉발의 이슈가 되었다. 켄터키 주 렉싱턴의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J. W. 맥가비(McGarvey)는 보수주의를 지키는 챔피언이 되었다. 그는 성경말씀의 영감성과 신뢰성을 지킨 많은 글들과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고등비평의 진보신학을 공격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흐름을 저지시켰다.

성경말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가 성경말씀에의 “새로운 견해”로 언급했던 것의 일부이다. 이 “새로운 견해”는 스톤-캠벨 운동 내의 다양한 개인들과 그룹들에 의해서 수용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썩기가 환원운동 내에서 분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도의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에서 분리된 것이 환원운동 내에서 생긴 최초의 보이는 분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했던 다른 문제들은 흥취한 머리를 키울 준비를 갖춘 잠재적 거인으로서 누워있었다.

커지는 분열

우리가 보았듯이, 1906년은 최초로 주요 분리가 일어난 해를 표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19세기에 시작된 진보주의의 썩기가 이미 시작된 틈을 더 벌려놓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시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에 아주 오랫동안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한 세대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만다.

“중도파들”과 “좌파들” 사이에 차이점들의 간격이 커지는 이 시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커지는 분열을 메워보려고 하였다. 국제 컨벤션은 20세기 초경에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친교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 컨벤션의 성격과 역할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하부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컨벤션은 점점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로 커지고 말았다. 킨은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 그 당시 제자들의 운동의 진보주의적인 (그들의 관점에서) 경향들 때문에, 1927년, 오하이오 주 캔톤(Canton)의 대형 그리스도인 교회의 목회자였던 P. H. 웰쉬머(Welshimer)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별도의 매년 열리는 집회인,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의 조직을 도왔다.²⁾

따라서 모든 실천적 목적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열이 환원운동 내

2) *Ibid*

에서 발전하였다. 분열시기를 1950년대로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시기는 마음이 불편해서 제자들의 운동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교회들을 위한 실제적인 주소록이 편찬되었을 때였다. 이때는 또 제자들이 교회들의 구조를 개혁하는데 관심을 기울리던 시기였으며, 많은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이 두 분파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소속할 것을 요구받던 시기였다. 또 많은 법적 소송들이 1950년대에 교회당 건물들의 지배권을 얻거나 건물들의 법적 통제를 유지할 법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되었다. 따라서 “중도파들”이 “좌파들”로부터 실제적인 분리를 표명하거나 공고히 한 시기으로써 1927년이나 1950년대 중의 한 가지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열에는 언제나 일정기간동안 그것이 발전되는 과정들이 실재하기 마련이어서 특정한 날짜를 언제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운동의 진보

1906년의 분열이후 처음 25년 또는 그 이상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좌파들”의 성장은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것과 결합되어있었다. 왜냐하면, 명백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열이후에도 양 그룹들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나 또는 어느 정도의 친교를 유지하려했던 교회들이 양 그룹 모두에 있었다.

제자들의 성장패턴은, 킨(Keene)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것에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것에 더 비슷하였다. 그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북부중앙 주(州)들에서 더 강한 반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부에서 가장 강하다”³⁾고 말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06년의 분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남부에서 더 강하였는데, 아마도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편,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심중팔구 『크리스천 스탠다드』

3) *Ibid*

(*Christian Standard*)의 영향력 때문에, 북부와 북부중앙 지역에서 더 강하였다.

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계들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큰 대략 150만 명 정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대략 110만 명 정도인 반면, 독립 그리스도인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이다.”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교인이 감소해왔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지난 45년 동안에 대략 4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몇 가지 측면들은 분명하게 되었다. “좌파들”이란 말치의 말은 더 진보적인 신학의 수용이라는 주요 측면들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다. 모든 제자들을 진보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지도층이나 목회자들에서 있어서 진보신학은 아주 분명하다. 제자들은 교인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말씀을 해석할 충분한 자유를 허락한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말씀의 무오설, 침례의 우선성, 성경말씀의 기적적인 측면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의문시되거나 부정된다.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킨은 그의 연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목사들의 10퍼센트 정도가 여성들이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대학원대학에서 그 비율은 대학원 대학에 따라서는 30-50퍼센트 정도로 높다.”⁵⁾고 평가한다. 침례의 성격이나 전에 다니던 교파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받아드리는 개방 회원제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시행된다. 성만찬은 제한 없이 주중의 아무 날에나 시행된다. 그러나 다른 두 그룹들은 주의 날, 즉 일요일을 성만찬을 시행할 적절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자들의 예배는 의식적인 면에서 매우 예전적이며, 감정적인 면에서는 차가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외이다. 그들은 훨씬 더 뜨겁고 감

4) *Ibid*

5) *Ibid*

정적인 경향이 있다.”⁶⁾ 많은 제자들의 교회들 사이에서 목사들은 규칙적으로 강단에서 예복들을 착용하며, 예배는 감정이나 느낌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조직들과 교육

앞에서 몇 번에 걸쳐 국제 컨벤션과 환원운동에 미친 그것의 충격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조직의 중앙집중화는 스톤-캠벨 운동이나 환원운동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1849년에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시작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대표자를 보냈다. 캠벨은 초대회장으로 뽑혔고, 공회 설립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나중에 그것은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되었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시에 위치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제 컨벤션은 거의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그것이 교회들 개개의 삶에 영향을 준 정책결정을 할 때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설교와 교육 학기에 더해서, 그것은 지난 20년 간 정책을 결정하는 컨벤션으로 등장하였다. 지금은 그것을 총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한해 결러 한 번씩 소집되어,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에 관한 결의안들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것들은 총대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매 교회는 두 명의 총대들을 참석시킬 권한이 있고, 큰 교회들은 교인수에 비례해서 더 많은 수의 총대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⁷⁾

이러한 결정들이 교회들을 반드시 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총대들의 진술된 의견을 가리킨다. 총회에 부가해서, 한해 결러 한 번씩 모이는 지방회들이 있다. 따라서 매년마다 어떤 형태로든

6) *Ibid*

7) *Ibid*

총회가 열린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통합을 목적으로 회중교회(Congregational)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와 대화를 해오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은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상기한 두 그룹들 가운데 어느 하나와 정말 통합한다면, 환원운동에의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진다는 것이 필자도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제자들은 이미 현재의 환원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현재 동의하는 환원운동의 유일한 주요 개념은 연합의 개념이며, 그들의 연합개념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사이에서 견지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제자들이 강조하는 교육의 두 가지 측면들은,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가 그들의 교인들을 위해서 일반 대학들(liberal arts colleges)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교육 철학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성주의와 현대주의가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환원운동의 주요 대학들과 대학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 앞 부분에서 몇 개의 주요 학교들을 열거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독서하는 사람들이다. 킨 박사의 연구는 그들의 독서가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주제들을 더 많이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들을 구독하는가를 물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다른 두 그룹들이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많이 구독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다른 두 그룹들은 비신앙 서적들을 더 많이 구독하였다. 물론 구독과 독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은 신앙 신앙자료들을 읽는 경향이 있다.⁸⁾

8) *Ibid*

제10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비록 그것들이 조직상으로 교회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신앙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우 많은 수의 신앙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좌파들” 사이에서 발행되는 주요 저널에는 『제자들』(*The Disciples*)이 있다. 『제자들』은 크리스천 출판위원회(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발행하는 완전 칼라판 전문 월간지이다.

오늘날의 많은 좀더 예전적인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우 선교지향적이지 않다. 그들 가운데는 선교위원회들이 있다. 그렇지만, 선교의 강조는 그들의 좀더 보수적인 환원운동 그룹들에서 갖고 있는 것만큼 열정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선교사역을,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로 일찍이 알려진, 선교위원회(Board of Missions)를 통해서 행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환원”에 헌신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환원운동을 말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을 “스톤-캠벨 운동”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제자들 내에도 여전히 환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 많은 상당수의 “평신도들”이 환원개념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직감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교회의 지성을 갖춘 지도자들은 그것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연합에 헌신한다. 그리고 지난 10-15년 간 그들이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연합 또는 통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체로 그들과 동일한 미국 내의 교단으로 본다.9)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다른 편에서는 독립 그리스도인

9) *Ibid*

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이들 침례한 다른 철학적 차이점들 때문에, 필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 자신들과 환원운동으로 언급해왔던 나머지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믿는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환원운동의 가장 진보적인 경향들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독일 진보신학의 유입은 제자들의 교회 학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진보적인 신학을 발전시켰고, 환원운동의 “좌파들”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자들은 신약성경기독교에로의 복귀나 환원보다는 연합이나 통합 쪽을 더 크게 선호하였다. 제자들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통합 운동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또는 이루어지는 때에는 스톤-캠벨 운동으로부터 발생한 다른 그룹들과의 정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환원운동을 향한 제자들 운동 내의 지도자들의 지배적인 태도인가?
2. 총체적으로 환원운동과 개별적으로 제자들에게 끼치는 국제 컨벤션의 중요성과 함의들을 논의하시오.
3. 무엇인 교육을 향한 제자들 운동의 지배적인 태도인가?
4. 어떤 요인들이 제자들과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간에 결정적인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5.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시오.

제13강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 강의를 끝으로 교회사를 통과하는 우리의 여행을 마치려한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과거를 복습하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강의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간 다루었던 일련의 강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뒤돌아볼 때, 아마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일세기 교회의 시작은 로마제국 내에서 성장하여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 교회는 박해의 불길과 교회내부의 이단들의 성행과 결국 가톨릭교회의 성직위계체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톨릭교의 발달. 이 발달 시기는 어떻게 교회가, 4세기까지,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인 4세기 초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유착들의 시작이었고, 나중에는 신성로마가톨릭교회(Holy Roman Catholic Church)로 발전되었고, 중세기의 상당한 세속적 정치적 권력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교회는 중세기에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 중세기 말까지 교리의 발달이 진척되었다. 배교가 가톨릭교회로 귀착되었고, 11세기에는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가 결국 분리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에서 떠난 배교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고, 시대사상과 혼합하는 교리들이 발전되었는가를 몇 가지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서방교회들의 분리는 기독교의 주요 분열이었으며, 이후 이들 기독교 “교단들”(wings)은 결코 통합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권좌를 두고 계속 지배하였고, 동방정교회는 중앙본부들을 갖지 아니한 개별 교단으로 남아있었다. 오히려 그리스정교회, 시리아정교회, 러시아정교회, 기타 많은 정교회들이 국가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간의 교리적 신념들은 동일하다. 다만 언어와 문화에서 다를 뿐이다.

종교개혁운동. 르네상스운동이후 교회 계층들 내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교회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살펴본 대로, “보상의”(work righteousness)가 발달되었고, 존 테젤(John Tetzel)이 독일에 들어가 그곳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절정에 도달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보상의에 대항하였고, 비텐부르크(Wittenburg) 성당출입문에 토론을 위한 그의 명제들을 공고하였으며, 토론을 요청하면서 교회에 도전하였다.

개신교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고, 세 가지 주요 원칙들이 모든 종교개혁의 그룹들에 흐르고 있었다. 그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salvation by faith), 성경말씀의 전적-충분성(all-sufficiency of the scriptures),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다. 이들 원칙들은 루터(Luther), 츠빙글리(Zwingli), 칼뱅(Calvin), 사보나롤라(Savonarola),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비록 종교개혁이 가톨릭교회와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분리로 귀착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가르침들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단으로 단죄되었고, 가톨릭교회로부터 출교 당하였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었는데, 그것들은 독일 중

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이다. 독일 종교개혁에서 주도적인 인물은 물론 마르틴 루터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합류하였지만, 루터가 그 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처음 존 칼뱅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합류하였다. 영국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헨리 8세 영국 왕이 이혼을 정당화하고, 재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티칸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 8세는 영국 주교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신세계는 유럽의 교파적인 경향들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정착자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들은 신세계의 자유와 문화와 혼합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지속시키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환원을 향한 노력들. 18세기 말까지, 쪼개진 기독교계에 불만스런 감정이 지리적으로 나누어진 미국의 많은 지역들, 즉 북서부지방, 남부지방, 중서부지방, 및 기타 지방들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까지 그 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와 발톤 왈렌 스톤과 같은 이들이었다. 다른 것들과 더불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기독교에 연합을 가져오려는 염원으로 신명이 난 사람들의 중요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전반은 성장과 발전의 세기였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을 열렬히 연구하던 시기로 특징지어졌다. 한 슬로건이 만들어졌고,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환원운동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였다. 이 슬로건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 19세기 전반기 동안에는 환원운동 전반에 걸쳐 연합이 이루어졌다.

세기 초까지, 많은 문제들이 "환원운동"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북부와 남부간의 긴장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

것들은 종종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철학적 갈등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보신학은 미국에 숨어들었고, 지금은 스톤-캠벨 운동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비록 19세기 후반기에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인 분열은 대단히 컸다.

20세기 초까지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와의 연계가 환원운동의 큰 그룹에 불만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에 반대하여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분리하였다. 마지막 세 강의들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들을 추적하였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일들이 발전되었다. 환원운동은 이제 세 가지 주요 그룹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연합시키려는 시도로써 시작되었던 운동이 그룹을 찢어놓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들은 조심스럽게 제시되었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들과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는 아마 우리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 책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환원운동에서 우리 모두,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필자의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답을 궁구(窮究)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1) 우리는 환원의 뿌리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2)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복귀해야 한다. (3) 우리는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4)

우리는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1. 우리는 환원의 뿌리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환원은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필자는 그것이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대학원 시절에 졸업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신약성경에 교회를 위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질문하신 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신약성경에 한 패턴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의 운동에 그것을 복귀시켜야 한다. 신약성경기독교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일단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작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God's mission)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할 누군가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방법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실 것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다.

2.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복귀해야 한다. 신약성경으로 복귀한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결정할 때, 성경말씀의 중요성을 재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는 쉽고, 우리들의 신앙원천을 살피는 것은 잊기가 쉽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신약성경에 뿌려진 씨가 그것을 따랐던 자들의 삶에서 일정한 특성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늘날 동일한 씨를 심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동일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사람들이 이집트의 투트(Tut) 왕의 무덤을 발견했

을 때, 여전히 “살아” 있고, 싹을 띄울 수 있는 밀알을 몇 개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가 그 씨들을 주어서 심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종류의 밀을 그 씨들이 생산하겠는가? 오늘날의 농장주들이 생산하는 최근 품종의 밀들을 일부 생산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투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씨앗들이 동일품종의 밀을 생산하겠는가? 대답은 분명하지 않는가? 동일한 원리가 “왕국의 씨”(Seed of the Kingdom)의 경우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그 씨가 오늘날 심겨진다면, 그것은 일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품종”의 그리스도인들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지속적으로 매 세대가 신약성경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3. 우리의 해석학을 재검토해야 한다. 앞 강의들에서 “해석학”이란 단어를 언급하였다. 웹스터 사전은 “해석학”을 “해석방법의 원리들의 연구”로 정의한다. 아마 우리는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원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원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규칙들 또는 사용해왔던 세 가지 해석의 원리들에 특별히 주의를 집중시켜왔다. 우리는 이것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환원운동역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이 제시되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 of God). 이 해석의 원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할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행 2:38)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날 구원을 얻고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들은 명령들이다.

환원운동에서 우리들 모두는 성경말씀의 이 해석의 원리에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는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 사도들이 남겨 놓았고, 우리들을 위한 모범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신약 성경에 있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이다. 이 성구는 우리들에게 초기 제자들이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을 지켰을 때의 모범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에는 일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지킨 때를 명확하게 밝히는 어떠한 직접적인 명령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인된 사도의 모범에 의존해야한다. 또 다른 예는 세족에 관한 것이다. 초기 제자들은 그들이 세족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승인된 사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환원운동 내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해석학적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모범이 승인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할 종류의 일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 우리는 모두 추론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결론이 무엇일지를 메시지의 두 개나 그 이상의 요소들로부터 추론한다. 환원운동 내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몇 가지 추론들이 있는가하면, 추론들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나오셨다고 우리는 읽는다. 만약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물로 내려가셨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추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원리는 환원운동의 보다 더 보수적인 그룹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고, 모든 이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해석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추론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를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설명한다.

따라서 독자는 우리가 해석학의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이해하는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할 때, 한 형제인 우리를 갈라놓는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초기의 슬로건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 슬로건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환원운동의 보수적인 두 그룹들 사이에서조차도 이 슬로건의 의미에 관한 견해를 달리한다. 슬로건의 앞부분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뒷부분,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의 해석에서는 견해의 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앞 강의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슬로건의 의미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외친 초기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지난 30-40년 동안, 서로간의 확신들을 검토하고, 간격을 좁히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초기 시도들 가운데 한 가지는 위티와 멀치 운동(Witty-Murch Movement)으로 언급되어져 왔다. 1940년대 초에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Detroit)의 클라우드 위티(Claude F. Witty)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가 두 그룹들 간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2-3년 간, 그들은 『연합 계간지』(The Unity Quarterly)를 출판하였다. 마스터헤드(masthead)에 밝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The unity of the people of God on the Word of God)을 위한 것이었다. 위티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이었고, 멀치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소속이었다. 비록 유익한 일들이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게 뒤따랐다. 그 운동은 그것의 지도자들이 바랐던 성공을 얻지 못했다.

과거 수년 동안 전체 일곱 번에 걸쳐 연합운동 집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두 형제지간에 다양한 장소들에서 소집되었다. 비록 필자는 이들 세미나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

스도의 교회들 모두로부터 그 모임들에 관해서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옵서버들 이외에 이들 모임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들 모임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분열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들과 확신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계획들과 예상들

필자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관해서 감지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이루어진 대화들이, 특히 우리들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있었을지도 모를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개선해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들과 감정들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운동이다.

필자는 두 그룹들, 즉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것처럼 완전하게 통합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더 더욱 아니다. 아마 그 두 그룹 사이에 더 큰 사랑의 감정과 계속된 연구와 검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들이 가까운 장래에 연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론

이제 결론으로 이 전체연구가 기초했던 원리들의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독자

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번 보았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겠다는 결단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본질이다.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과 실천을 위한 규범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불태웠던” 자들을 위해 큰 감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연구에 접근하도록 촉구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공부를 끝내면서,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관심을 기꺼이 바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대단히 큰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을 천거한다(엡 3:20-21 비교). 영원은 너무 길고, 천국은 너무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기독교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의 발달에 대한 주된 이유들이었는가?
2. 가까운 과거에 이루어졌던 “환원”시도들의 몇 가지를 논의하시오. 기독교 역사의 다른 시기들에 교회를 회복하려는 시도들의 몇 가지를 논의하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3. 무엇이 환원운동 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여 질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믿는가? 연합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가?

4.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원하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는 진술의 함의들을 논의하시오.

역자후기

본서는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Malibu)에 소재한 페퍼다인 대학교 (Pepperdine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모리스 워맥(Morris Womack)이 저술하고 칼리지 프레스에서 출판한 한 학기 강의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은 1988년에 출판된 이후 1992년 한 차례 더 인쇄 되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의 전도자인 모리스 워맥이 저술하고 칼리지 출판사(유)에서 펴낸 유무약기 합작품이란 점과 평신도 성인들이 수요일 예배 때나 주일학교성경클래스에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미국의 환원 운동사에 관한 저술들은 2004년에 출판된 『스톤캠벨운동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¹⁾을 비롯해서 역자가 번역한 “스톤캠벨운동의 300년사: 조사와 분석”(Stone-Campbell History Over Three Centuries: A Survey and Analysis)²⁾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가 본서를 택하여 번역한 이유는 평신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간결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본서가 우리 실정에 알맞을 것 같아서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의 유산과 전통을 이해하고 섬기

1) Douglas A. Foster, Paul M. Blowers, Anthony L. Dunnivant and D. Newell Williams, ed.,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2) 조동호 편저,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8)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http://kccs.info>).

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책 속에 인용된 성구는 거의 대부분 『한글개역개정판』임을 밝혀 둔다. 『한글개역판』 성구로써 완료했던 몇 년 전 번역을 이번에 『한글개역개정판』으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9년 전에 급히 번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 올린 내용을 다시 읽고 수정 보완하였다는 점도 밝혀 둔다.

2009년 4월 25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

제2부

보충 자료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³⁾

번역 및 해설: 조동호

봉분

유언(遺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 성서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매우 건설하고 강성하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온전히 건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표를 파송한 모든 교회들이(all delegated bodies) 단번에 죽기로 지정 받음을 알고, 또 그 같은 모든 교회들의 삶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부르본(Bourbon) 카운티(County) 캐인 리지(Caneridge)에 모여 아래와 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유언서를 만들어 제정한다.

먼저(imprimis),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will). 오직 한 몸과 한 성령

3)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이 있을 뿐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조항(item). 우리는 구별을 위한 명칭 레버렌드(Reverend)¹⁾란 호칭이 잊힐 것과 하나님의 유산(God's heritage)에는 오직 한 주(Lord) 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One)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교회 치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대표로 위임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은 영원히 멈출 것과 사람들은 성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서를 연구할 것과 철학의 혼합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유언한다(will).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항(item).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치(內治/internal government) 즉 교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가르칠 만한 체험적 신앙과 진지함과 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개개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개교회의 설교자를 선택하며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하며 서명요구나 승낙 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며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인 혹은 다수의 대표에게 교회의 처리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을 유언한다(will).

1) 역자 주: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존칭임.

조항(item). 지금부터 사람들은 성서를 천국에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안내자로 삼을 것과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책들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만큼,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을 유언한다(will). 한 책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조항(item).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임금 삼으려 했으며, 그것이 현재 되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형제들은 만세 반석에 게로 가야 할 것과 장래를 위해 예수를 따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켄터키 주 노회(Synod of Kentucky)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²⁾에서 떠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교인을 조사할 것과 의심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자를 즉각 정직(停職/suspend)시켜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행하며,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최근 렉싱턴(Lexington)에서 발행된 두 문서의 저자인 모씨(Ja--- ---)는 당파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열성 때문에 격려를 받기를 유언한다(will).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매 교단들은 그들이 성서를 조심스럽게 읽으며, 그들이 성서 안에 결정된 그들의 운명을 보게 되며,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준비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인장소(L. S.): 스프링필드 장로회

1804년 6월 28일

2) 역자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증인(Witnesses):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발톤 스톤(B. W. Stone),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

증인들의 해병서(The Witnesses' Address)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이 기구(that body)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 기구가 처음 조직되면서부터 사랑 안에서 피차 결합하였고, 화평과 화합 안에서 지냈으며, 자발적이며 행복한 죽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과 당파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이 장로회란 이름아래 연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배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극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역에서의 그들의 성공에 비례하여 증대되었다. 질투심들이 다른 교파 교단들의 마음속에서 불붙게 되었고, 유혹이 여러 당파들과 연결된 자들 앞에 놓여 동일한 빛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치리의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이란 글을 출판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인위적인 창안들과 군주적인 전통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곧 바로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교회조직들(confederacies), 즉 당회(Church

Sessions), 지방노회(Presbyteries), 주노회(Synods), 전국총회(General Assemblies)와 같은 사례나 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입한 조직(connection) 위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한 모퉁이 돌³⁾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교회치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인위적인 조직(a self-constituted body)의 이름과 승낙 아래서 벗어나 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당파의 존재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죽어 가는 죄인들, 예수가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친(the precious cause of Jesus)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from), 그들은 신선한 마음의 관점에서 멀어지는(sink) 소음과 격분의 당파싸움에서 후퇴하여 해체하여 죽기로 기꺼이 합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해체(death)가 세상에 큰 소득이 될 것을 믿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죽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의 범위들 안에 너무나 가깝게 붙잡아 둔 그들의 죽을 운명인 틀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고 또 말한다. 그들은 유빌레(jubilee)의 나팔을 불며, 강한 자들(the mighty)에 대항하여 주님의 도우에 자진해서 헌신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도울 것이며, 장로들과 혹은 목사들을 안수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신의 축복을 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며, 함께 교제(commune)하며, 주님의 사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역할(hands)을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속한 저들 기능들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을 계획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들에서는 실수도 범하게 될 것이란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3) 역자 주: 우리말 성경에는 corner stone를 '머릿돌'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머릿돌과 성경의 모퉁이 돌의 개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로 놓인 거대한 돌로서 사방 모서리에 놓이며 그 돌들을 중심으로 방향과 각도가 결정된다. 어떤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가 4m x 2m나 되는 돌도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황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며,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분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그분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을 온통 찬양의 도시로 만드시기까지 그분에게 쉬임을 드리지 말자. 우리가 바라기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연합함으로 종결될 우리의 서부 지역(Western country)에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런 사역 속에 그분의 선하심의 펼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연합한다.

해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는 미국 켄터키(Kentucky) 주(州) 부르본(Bourbon) 군(郡) 캐인 리지(Caneridge)에 위치한 발톤 스톤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1804년 6월 28일 지방노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유언서와 해명서를 완역한 것이다. 본 문서는 리차드 맥네마르의 협조아래 주로 발톤 스톤이 작성하였고, 여섯 명의 증인들이 서명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하는 최초의 문서이며,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이 초안하여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유언서 전반부는 12개 이상의 성구⁴⁾가 인용 또는 부분 사용되고 있어, 본 문서가 성서에 바탕을 둔 유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발톤 스톤은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를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분열과 파당을 멈추고 죽어 해체되어 더 큰 범위의 그

4) 히 9:16-17; 고전 15:36; 요 12:24; 히 12:26-27; 엡 4:4-6; 롬 8:2; 요 1:32; 히 5:4; 눅 10:2; 계 2:2; 눅 21:28. cf. 마 5: 29-30; 요 6:15.

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 조항에서는 존귀를 받아야 할 자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며,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막고, 성령의 법을 여기는 교회법과 교권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을 규범 짓는 유일한 책임을 선포하면서 세속학문이 성서보다 우위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훈련된 참 일군을 선별하여 파송할 자치권과 그 책임을 회복해야 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후반부 해명서에서는 유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본 문서의 탄생은 적어도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 제임스 오켈리는 발톤 스톤보다 앞서 이미 감리교단에서 교회치리와 목회자 임명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본 문서는 장로교단 안에서 벌어진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위한 선투(善鬪)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몇몇 사람들이 성서해석과 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울타리를 좁게 치는 파당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자유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 하였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인위적인 신조나 교리 혹은 교회법에 얽매임이 없이 성서로 돌아가 성서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성서가 금하는 것을 금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될 때에 교회법이나 교권에 지배됨이 없이 그리스도와 성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 것이요, 그의 피로 사신 바 그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소속은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된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본 문서를 작성한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은 1772년 12월 24일 미국 남부 머릴랜드 주 찰스 카운티 폴트 토바코에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세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홉 살 때에 독립전쟁이 있었다. 발톤 스톤은 재산 분배를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대학교육에 투자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에서 멀지 않은 유명한 다윗 콜드웰 아카데미(David Caldwell Academy)에 등록하여 다른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삼년간의 고전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된다. 그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주제로 한 설교보다는 잔잔하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에 감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작성한 유언서에서 품기는 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평화주의와 타고난 실천적 연합의 정신,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그의 깊은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스톤은 29세에 엘리자 캠벨(Eliza Campbell)과 결혼하였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자격증을 따기까지 일 년 동안 스톤은 조지아 주 워싱턴에 위치한 수콧트 아카데미(Succoth Academy)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이 학교 교장이었던 호프 홀(Hope Hull)은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의 운동을 지원하는 감리교인 이었다. 여기서 스톤은 홀과 오켈리 운동의 영향을 받고 교권 민주화의 필요성을 수련 받게 된다. 조지아 주에서 돌아와 설교 자격증을 받은 스톤은 목사안수를 받기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버지니아 주로 설교여행을 시작했고, 테네시 주를 거쳐 켄터키 주로 옮겨와 렉싱턴에서 가까운 케인 리지와 콘코드 두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supply minister)가 되어 불과 수개월 만에 각각 30명, 50명의 새

신자를 얻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톤은 그 다음 해인 1798년에 임직 목회자로 초대되었다. 이 후, 목사 안수식 때에,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서에서 가르친 체계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 드리고 채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전체 회중이 들을 수 있는 힘찬 목소리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에 반대가 없어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지 불과 5년 만에 스톤은 이 신앙고백서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성서로 돌아가기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1800년 통계에 의하면, 켄터키 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불과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연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였으며, 종교적인 무감정에 빠져 있었다. 독립전쟁직후 개척지였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육설, 무도회, 파티, 말 경주, 도박, 음주 등으로 대단히 문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와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켄터키 주 일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스톤 자신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비명, 경련, 입신과 같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특히 1801년 8월에 있었던 케인 리지 부흥회 때는 참석자가 무려 25,000여명에 이르렀고, 음식이 떨어져 기아상태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설교와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었다.

부흥회의 열이 가라앉자,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지방노회와 주노회의 권위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목사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기존 장로교 신학과 다른 입장을 보인 부흥회 그룹은 그들만의 친교모임을 만들고 강하게 결속하였다. 1810년에는 콤버랜드(Cumberland) 장로교단이 형성되었고, 뉴 라이트(New Lights)도 새로운 장로회들을 조직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톤은 신앙체험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통적인 신조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교회 분열의 죄악성을 보았고, 개척지역의 민주적 자유를 함께 나누며, 점차 교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는 비록 부흥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연대했다.

콘코드와 케인 리지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봉직한지 육년 만에 스톤은 성도들을 모아 놓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양심적으로 장로교회가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당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금전상의 모든 의무를 면하여 주었다. 그는 회중이 보는 앞에서 사례비 지불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찢어 버렸다. 이와 동시에 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스톤의 동료 목회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서명한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이 이들 가운데 일부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맥네마르의 견해가 워싱턴 장로회에서 문제가 되어나서였다. 그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에 위배되는 위험하고 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문제가 1803년 9월 7일 렉싱턴에서 열린 켄터키 주 노회에 상정되었고, 주노회는 워싱턴 장로회가 맥네마르의 문제에 엄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비난하였다. 투표에서 부흥회측은 반부흥회측의 수적 우세를 꺾지 못하고 지고 말았다. 그러자 부흥회측은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서에 서명한 마샬, 스톤, 둔라비, 맥네마르, 톰프슨은 그들의 글에서 충분하고, 최종적이며, 완결된 권위로서의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헌신과 신앙고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피력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있고 난 후에, 주노회는 1803년 9월 13일, 분리자들이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떠났으며, 교회의 교리와 규범에 환원하기를 거절하고 그들 자신의 장로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서명자들을 정직(停職)할 것을 투표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구성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된 일이다. 이들은 1804년 1월에 “켄터키 주 노회의 사법권을 포기한데 따른 변호”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마샬이 분

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 1부를 썼고, 스톤이 신앙고백서에 담긴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 2부를 썼고, 톰프슨이 인위적 신조의 권위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서를 변호하였다.

독립 기구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단지 9개월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장로교이면서도 기존 장로제도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기구였다. 회원 교회들은 모두가 15개의 장로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 교회 말고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교회들이나 부흥설교가들이 환영받는 비조직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질적으로 어떠한 교권에도 순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한 교회들도 구속(atonement)이나 다른 교리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일치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텅 비고 이름뿐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 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조직에서 오직 스톤만이 안정적이고 의존할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스톤은 이 유언서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과당적인 교회명을 버리고, 또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뿐(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라는 정신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s)의 이름아래 교회의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아브너 존스와 엘리아스 스미스(Abner Jones and Elias Smith), 그리고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운동에 함께 연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리교인(Methodist), 장로교인(Presbyterian), 침례교인(Baptist)과 같은 이름은 옳지 않다고 믿었고, 침수세례가 옳다고 믿는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톤과 함께 유언서에 서명했던 목사들 가운데 맥네 마르와 둔라비는 웨이커(Shakerism)에 넘어갔고, 마살과 톰프슨은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침수를 주장했던 펠비안스는 설교가이지만 본래가 정치가였다. 그는 주의원으로 활약했다.

이상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의 번역과 이 문서가 탄

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임스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쓴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이란 책에 실린 스톤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미 본 문서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스톤이 주장한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토양과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물어 보는 아픔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우리의 생존을 미국식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틀에 맡겨 버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교단의 것들을 따라 가서도 안 되겠다. 우리 식에 맞는 우리의 것들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자.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신이지,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리도 조직의 틀도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되며, 사랑과 관용의 정신만이 끈끈한 접합제가 된다는 진리이다. 이제로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의 것이니까 안 되고, 우리 것이니까 별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버려야 한다. 남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성서에 비추어 옳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이다. '본질에 일치할, 비본질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과 관용을!'

참고서적

-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Dickinson, Hoke S., ed. *The Cane Ridge Reader*. Cane Ridge, 1972. 이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다. 『발튼 스톤의 자서전』.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서부지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 Dunnivant, Anthony L.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92.
-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 Stone, Barton W.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선언과 제언¹⁾

번역 및 해설: 조동호

선언

과거 수년간 교계와 특히 이 미주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기독교 세계의 현 상황을 상식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안목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잣대(Divine Standard)로 직접 모든 것을 즉시 측량하며, 이 표준만이 우리 자신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정한 한도임을 인지하며, 이 표준에 의해서만 판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때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형제로부터 판단 받을 수 없고, 형제를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의무 지우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속박 받아야 할 동등한 의무아래 있다고 생각하며, 분명한 법 조문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와 같은 모든 판단은 그리스도의 법을 분명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그분의 특권을 찬탈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조심해야 하며, 이런 성격의 일들을 멀리해

1). Thomas Campbell and Thomas Acheson,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같은 잘못을 해서도 안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들로 더불어 기뻐해서도 안된다. 또한 우리는 비통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변진 신앙논쟁의 해독성과 해악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심한 파당분쟁과 다툼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이 싸움이 멈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교회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온 교회에 일치와 화목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법안들을 추천하여 채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파당분쟁들의 견해차이와 증오심, 인간 견해들의 변질되기 쉬운 불확실성과 잡음이 계속 일고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단순한 말씀에서가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 바람직한 안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과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희망은 어떠한 권위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위치를 점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견해와 사람의 창안을 배척하고, 더 이상의 투쟁이 없도록 영원히 싸움을 멈추며, 본래의 표준으로 돌아가 그것을 튼튼하게 잡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으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의 스승과 인도자로 삼으며,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한 사람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우리는 위싱턴군(郡) 그리스도인 협의회(Christian Association)란 명칭아래 신앙적인 협의회를 결성한다. 이 조직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한 복음적 기독교를 장려하고 인간의 견해와 사람의 창안으로 혼합되어 버린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있다.

II. 각 회원은 능력에 따라 즐겁고 자유롭게 순수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성경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에 일정액을 정하여 육개월마다 헌납해 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드러나고 분부된 교리와 예배와 징계와 처리의 모

든 형태대로 환원하여 실행해야 한다.

Ⅲ. 이 협의회(Society)는 유사한 형태의 다른 협의회들을 조직 하도록 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바람직하고 중요하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락을 취하여 모든 가능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Ⅳ. 이 협의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단(a Church)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협의회에 필요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행사해서는 안되며, 같은 맥락에서 회원들도 그들 스스로를 권한 있는 자로 혹은 교회 협의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대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결코 안되며, 단지 교회 개혁을 자진해서 주창하는 자들로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들의 시간과 자문과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어떤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한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Ⅴ. 단순한 복음적 기독교를 장려할 목적만으로 결성된 이 협의회는 대화와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열성과 근면에 있어서 본래의 표준에 명백히 부합하고, 성경대로 기독교 본래의 단순한 형태대로 실천하며, 인간의 권위와 사견, 혹은 사람의 창안,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의무의 문제 등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헌법이나 신앙고백서, 혹은 예배 어느 곳이라도 삼입하려 들지 않는 목회자들에 한해서 힘닿는 대로 장려하고 후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한 말로든지 승인된 전례(前例)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Ⅵ. 협의회는 이익을 감독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회계를 포함해서 도덕적 성품이 훌륭한 21명의 상임위원회가 매년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위원회는 협의회가 앞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든 지간에 협의회는 모든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돌발사태의 발생이나 협의회가 미처 결정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술한 위원회에게 특별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VII. 이 협의회는 적어도 일년에 두 차례 5월과 11월의 첫째 목요일에 모인다. 그리고 약정한 기부금의 육개월 치를 수령하도록 지명 받은 위원들은 약정 액을 수령해서 집회 때에나 그전에 회계에게 넘겨서 집회 때에 기금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기 집회는 오는 11월 첫째 목요일에 워싱턴군(郡)에서 개최될 것이다.

VIII. 협의회의 집회는 설교로서 개최되어야 하며, 규정(constitution)과 제안(address)을 낭독하고, 협의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은 작성되어 집회 때마다 낭독되어야 한다.

IX. 이 협의회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참 기독교의 신실한 동료들의 아낌없는 후원을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은혜롭게 도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협의회의 추천에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충분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 항구적인 복음을 단순하게 설교함으로써 순수한 복음적 개혁을 장려하고, 전술한대로, 하나님의 표준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예전(ordinances)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회의 동료들이 상당히 먼 곳에 파송 되어 목회 하는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을 후원하고자 기꺼이 무엇을 기부하든 지간에, 이것은 협의회의 기금으로 감사히 수용되어져야 하며, 사의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제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존경함으로 다음의 제언을 제출함.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며, 인간 상호간에 진실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거대한 계획이요 본래의 목적이라는 점을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탄생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²⁾라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외침으로 고지(告知)되었다. 은혜로운 선포들 속에 있는 강요(綱要)들, 훈계들, 예전들 그리고 신성한 표준들이 담지 된 성서의 전반적인 대의(大義)는 매우 분명하고 힘차게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일치와 합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취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촉진되고 보장된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의도를 매우 심각하게 방해했던 서글픈 분열들에 대해서 비난을 금치 못하며, 서로 물고 뜯으며 신앙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수술하고 제거하려는 우리의 신실하고 겸허한 노력들은 어느 일부분이라도 보류될 수 없고, 이를, 또한, 옳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저 비통한 분열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가! 혐오들, 비난들, 험담들, 악성 루머들, 분노에 찬 언쟁들, 증오들, 출교들,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일삼지 않는가! 이런 분열이 계속되는 한, 이런 악순환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질 것이 틀림없다. 성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³⁾고 말하지 않았는가. 저들 저주받을 분열들의 비참한 결과들이 단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통치자의 종교적 억압이 없는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조차도 회중들이 쪼개어지고, 먼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교파 싸움으로 혼돈

2). 역자주: 누가복음 2장 14절.

3). 역자주: 야고보서 3장 16절.

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적인 예전들까지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이 와중에서 미주의 넓은 거주지와 면적들은 오늘날까지도 복음사역의 불모지로 남아 있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이교국가보다 전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교회들은 분열로 인해서 매우 연약해져 저들에게 목회자들을 파송할 수가 없으며, 사람들은 피차 분열되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허락지 않아 감히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이교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축복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치와 사랑의 대성례인 주의 만찬을 거의 배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얼마나 비통하게 이 깨지고 혼돈된 상태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가. 영적인 교제는 악한 현세 속에서 서로 덕을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정이 나누이고, 거리를 두고 살고는 있지만, 같은 의견 혹은 교파의 소수가 편리하게 자주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고 목회적 관심에 따라 기한을 정해 놓고 자주 모일수도 있다. 그리고 정착된 교회들과 같이 여건이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곳에서도 과당심의 영향 때문에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지는가. 교단은 동역자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엄하게 징계도 못하고 있고, 동역자들의 일부는 그럴싸한 구실을 핑계로 다른 교파의 품속으로 보호처를 찾아 떠난다. 듣기는 거북스럽겠지만, 저들 저주스런 분열들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부패해졌고, 비열한 짓이라 생각해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의 위안과 영광과 유익함이 친교의 마땅한 보존에 의존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친교의 성서적 순결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분열로 야기된 무서운 결과를 종식시킬 매우 무섭고 비참한 일이 한가지 남아 있다. 평화의 복음에 대한 이 슬픈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쾌감은 당연히 자극되었고, 주님은 그분의 예전으로부터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임재를 보류하시며, 말썽 많은 자들

과 서글픈 추문에 연루되어 신앙적 불협화음을 선동하는 자들을 자주 포기하시며, 엘리의 집에 행하신 것처럼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그들의 힘은 점차 소모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희생물이 된다. 한편 진실한 신앙을 가진 모든 교파들은 이 점에 비탄을 금치 못하며, 연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불경한 자들은 굳어지며, 불신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모독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의 영적이고 항구적인 유익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는데 신적인 효능을 가진 하늘아래서는 유일무이한 일과 축복된 예수의 복음까지도 부득이 모멸을 당한다. 한편, 복음사역을 빼앗긴 대중은, 살피본 대로, 쉽게 유혹자들의 밥이 되고, 전대미문의 현혹들에 넘어지고 만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행복했을 이 나라에서 조차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분열들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아닌가. 자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성서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 악행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가 있는가? 또한 이 책임이 특별한 복음 사역자들의 위치에 서 있고, 이 칭송할 만한 과업의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의 성패는 여러분의 마음을 합한 협력과 열심 있는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이 행복한 나라에서 크고 유익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손에 맡겨 준 호기는 그 자체가 작지 아니한 독려이며,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기독교와 유사한 형태의 이단을 문민이 설립하는 유독(有毒)한 영향에서 다행히 벗어난 나라, 적그리스도의 교권과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나라, 또한 짐승에게 헌신적이어서 힘과 권세를 내어 준 나라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는 나라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들에게 쏟는 날까지 짐승이 활동하는 한 적절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실로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들은 복되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고 상당히 많이 주어진 또한 많은 것이 요구될 고귀

한 목적들을 위해서 저 큰 이점들을 바르게 평가하고 개선한다면, 우리는 더욱 복될 것이다. 주께서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재산과 자비함으로 풍성하게 공급한 사람들로부터 말씀에 따라 사회적이든 신앙적이든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개혁보다 작은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특권들을 증진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동일하게 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장려할 성질의 대립적인 논의들이 상서로운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의 의무요 경건한 노력들도 주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주님의 복수의 날 즉 시온의 언쟁에 대한 보상의 해가 아닌가? 그러므로 시온을 복되게 할 시기 즉 정한 시기가 확실히 오고 있다. 그리고 환난의 시기에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불란서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전파는 혁명이전의 수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노력들과 수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불란서 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싸움을 제거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인과 형제 상호간의 교제를 회복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의 증진을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이를 입증하는 글들이 많이 출판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온힘으로 협력하여 이 선한 일을 도와 진전시키려는 이들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다면, 해야 할 아직 남은 일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합 후에 이루어지는 선의의 노력들이 어떤 경우에는 모든 교파들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해서 시도조차도 포기해야만 하는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의 가능성도 희박하며, 많은 경우에 충실하고 성실한 노력들이 수반된다 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과 의무의 성스런 규범을 위해서 성실하게 싸우기를 멈추어야 한다면, 진리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의가 오래 전에 포기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악행들과도 싸워야 하겠

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골리앗 같은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선봉장이 추적을 멈추라고 나팔을 불었으며, 그분의 신비에 쌓인 몸을 산산조각 찢어 놓은 채 그분의 교회 깊숙이에서 칼을 거두고 있는 지옥에 떨어 져야 할 이 적과 휴전을 선포하셨는가? 내버려두라고 그분이 종 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시킬 노력을 중단해야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한편, 우리는 소망했던 성공을 방해했던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들, 곧 눈앞에서 전개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과오를 통해서 얻은 현명한 경험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지시 받지 않는가? 그러므로 경험으로 배우고, 선배들이 남긴 축적된 지식들로 기쁘게 무장하고,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평화의 복음을 예비함으로 신을 신으며, 불굴의 노력으로 이 중요한 의무수행을 위해서 확고히 서자. 시온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기를 잃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자. 왜냐하면, 그 중대한 목적이 우선은 능력 있는 자들이나 다수의 특별한 투표에 의해서 추천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저울질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이미 제안된 것과 관련해서 일의 성격을 의문시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온의 유익을 추구 하기 위해서 시온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누구도 그의 동료들보다 특이하고 배타적인 의무에 관해서 상위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권한에 관한 한 이 분야에서 설자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느 누구도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인가에 관해서 책임이 중한 이 과업으로 형제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 편에서는 그와 같은 오만한 생각을 즐겨 하지 않는다. 또한 형제들 중 누구에게도 이 선한 사업이 그들의 부름이나 선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시도를 지원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

지 않는다. 그것은 개방된 분야이며, 포괄적인 사업이며,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 목적의 중대함과 그것을 성취하는 길 위에 놓인 여러 겹의 난관들을 보면서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런 일들에 합당한가⁴⁾ 라고 사도 요한처럼 즉시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실망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그 일은 물론 우리의 충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 그와 함께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능력 있는 자들과 다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 주님과 진실로 그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우리편에 서 있다. 모든 교회들의 기도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기도들(요 17:20,23), 그리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올려 보내진 모든 기도들은 우리와 함께 한다. 시온으로부터의 축복은 우리의 과업 위에 선포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⁵⁾ 이와 같은 독려들로 볼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업을 포기시키며, 성취를 위한 시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교회들이 믿음과 실천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좌절시키겠는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자신이 효과적으로 해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본분이라고 판단하며,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힘닿는 대로 모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한 선의의 노력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창하는 대의는 우리가 가진 이상스런 목적이 아니며, 교파와 같이 무슨 과당을 만들자는 목적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편적 대의이며, 그리스도와 모든 교파교회 형제들의 대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라고 겸손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형제들과 관련해서 행하는 것

4). 역자주: 계시록 5장 2절.

5). 역자주: 시편 122편 6절.

이며, 이 축복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처럼 동등하게 속한 각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가 매우 하고 싶고, 것처럼 복된 결과들로 가득한 목적을 성취키 위해서 우리형제들의 의견의 일치에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것처럼 복된 사건 곧 우리의 불행한 분열들을 영구히 끝내고, 초대 교회 본래의 일치, 순수, 변영을 교회에 환원하는 사건, 그러나 진심으로 의무에 충실한 그들의 협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것처럼 복된 사건을 기대할 수 없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조차도, 교회의 조직에 속하고, 교회의 영광을 구성하는 본래의 일치, 평화, 그리고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망스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는, 모델에 잘 들어맞고 신약성서에 명백하게 제시된 초대교회의 실적을 채택할 무슨 대안이 있는가? 어느 한 교회나 혹은 모든 교회에서 이것이 무슨 변경들을 만들어 내든 지간에 수용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간주되어 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신성한 영감으로 된 법규를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변경은 확실히 더 나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가능한 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적 교회와 완전히 부합한 교회 조직과 관리 속에 있었는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수준만큼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그와 같이 서로를 상호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믿음과 성결과 같은 중요한 교리에 일치할 뿐 아니라, 복음적으로 제정된 적극적인 성례들에 관해서 유형적으로도 일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의 차이점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포함하지 않는 일들, 이를테면, 사적인 의견이나 인간의 창안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것뿐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와 같은 일로 나누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러면, 누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창안들을 포기하며, 사적인 견해들을 형제들에게 부과하는 일을 멈추며, 그래서 우리의 불화가 치유될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 복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신약성서에 계시된 본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모든 교회 교파들에 속한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서 멀리 해야 할 교육적 편견들과 독특한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선포한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말로든지 혹은 승인된 전례이든지,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믿음과 실천의 문제로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본래의 구조적 일치에로 환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된 일치 속에서 모든 우리 형제들과 화평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즐길 것이다. 의무에 충실한 겸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멸망해 가는 인류의 형제들에게 빛지고 있는 의무감으로 심하게 각인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히 기대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행한 제언에 대한 고무적인 이유들과 우리가 공언했던 모든 신성한 동기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교파 교회의 형제들을 부르고, 초청한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치 즉 그리스도는 홀로 머리이시며, 중심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법칙이란 점을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신앙하며, 그 말씀에 분명하게 순응하는 유대 속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이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진실로 우리는 누군가가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무슨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는 감히 계시된 진리와 의무의 문제들에서 본질들

과 비본질들 사이의 진부하고 한계 없는 구별을 생각지도 못하며, 제안하지도 못한다. 또한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무엇 이든 시간에 확고하게 인정되었으며, 그것들을 들어내거나 명령 하고 있는 신적 권위에 대한 높은 의무는, 우리가 아는 한, 우리 들에게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그것들을 믿고 이행하게 한다고 단 순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며, 우리의 특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친애 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어떤 이유도 가질 수 없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생 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간구한다. 그것 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초대라는 것을 알게 하자. 여러분의 승낙 으로 우리는 많은 수가될 것이며, 적은 수든지 많은 수든 시간에 먼저는 모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진실한 일치를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행사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엇이 이루어지든 시간에 정한 때와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디에서 모이든 시간에, 누구에 의해서 추진이 되든지 간에, 주 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분명히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매우 미약한 출발들을 심 지어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창대한 행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의무는 우리의 것이지만, 행사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왜 그것이 시기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져야 하는가? 일들이 현행대로 진행 되고 있는 동안,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시간이나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정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공개적인 선언과 관습의 유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교파들의 더욱 큰 근접 함에 가까운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집의 점진적인 퇴보 가 기대되어 지겠는가? 전자에 대해서는, 차이가 최소인 곳에서는 반대가 대의의 장점들에 반대로 균형 잡힌 열정의 정도에 따

라서 항상 처리되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몇까지 이유들과 입장들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는 기쁘지만, 또 우주적으로 아집이 쇠퇴하기를 바라지만,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런 가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수단에 의해서 그와 같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진실로,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항상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아집에 빠지기 쉽다. 이 뿐만 아니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들을 반드시 후원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는 사탄이 자기 왕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증진시키는데 나태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즉 우리의 세상적 관심들에 유사하게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종류의 시비에 우리 자신들이 결코 만족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시되도록 하자. 여기에 제안된 시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질의 것 이란 점과 그것이 질투를 유발하거나 특정 교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향을 전혀 지닐 수 없다는 점을 부언코자 한다. 그 반대로, 교회들 사이에 우주적으로 인정되고 스스로 입증된 진리들의 견고한 기초에 바탕을 둔 항구적인 성서적 일치에 향한 모든 노력은 인간대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계몽하고 화목할 가장 행복한 경향을 지녀야 한다. 성서는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⁶⁾ 진실로 만일에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그와 같은 적절한 근거도 공정하게 나타나질 수 없다면, 모든 올곧고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약자들을 위해서 채택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절차의 방법도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에 입각

6). 역자주: 요한 2서 1-2절.

한 이 거대한 목적의 성취는 영원토록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가정에 입각해서 오로지 자발적인 절충과 선한 본성의 타협 말고는 그것을 성취할 어떤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그럭저럭 성취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과 기도들이 무익하다는 것이 전혀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문제 제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법이 무엇이든 지간에, 신이 계시하신 진리의 확고한 근거에 입각에서이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은혜로운 겸손의 선한 본성의 원리이든 지간에, 그러면, 그것은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동일하게 실용가능하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의 그 기질과 분별, 즉 우리의 자비로운 구세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하며, 그분의 백성에게 내린 구세주의 명백한 명령인 그리스도인의 기질과 분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⁷⁾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적법한 만큼 실행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것을 시도해 보자. “군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⁸⁾

오로지 한 양떼가 있고, 오로지 한 분 목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복된 행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을! 우리가 한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다소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7). 역자주: 고린도전서 1장 10절.

8). 역자주: 학개 2장 4절.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⁹⁾ 예수의 사역자들에게 오로지 이 권고를 받아 들여, 그들의 손을 그 일에 대게 하며, 분명한 진리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도록 독려하며, 전체 그리스도인의 일치로 결속해서 연합하도록 하자. 누가 감히 그것이 곧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¹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각별하게 속한다. 언표 되고 인정된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이 선한 사역에서 그들의 앞장을 서며, 그 길에서 인간의 견해들과 사람의 창안들을 제거하며, 우선적이고 믿을 만한 계시의 순수한 알곡으로부터 이 쪽정이를 조심스럽게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가장(假裝)된 권위를 추방하고, 법률화시켜 포고하는 권세에 의해서 저 일들은 부여되고 세워졌다. 이 목회적 분야에까지, 그러면, 우리가 근심으로 바라보는가. 예수의 사역자들인 여러분은 교회의 분열과 부패를 모른 채 할 수 없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주신 명령들, 그의 신앙공동체의 보이는 일치를 위한 마지막 열정적인 기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관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개인적인 영광과 그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도 크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침묵은 승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팔처럼 소리를 높여 저들 부자 연스럽고 적그리스도적인 분열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찢어 놓고 망쳐 놓은 분열의 흉악한 성질과 무서운 결과를 폭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와 특성에서 정의와 주님의 명예를 걸고, 시온의 갈라진 틈들을 고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스런 노력들을 우리는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일치와 사랑 속에서 함께 살게 될

9). 역자주: 출애굽기 14장 15-16절.

10). 역자주: 이사야 62장 10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 . 우리는 참아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라기 2장 1-10절을 보라).

아! 목회자들과 사람들은 무덤 속에는 분열이 없고, 사후의 세계에서도 분열이 없다고 오로지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는 분열이 끝장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현세의 짧은 수명의 분열들에 종지부 찍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사후에 어떤 축복, 심지어 행복하고 연합된 교회까지도 남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바라는가. 한편, 우리의 분열들이 목회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무슨 만족이나 실용성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이 심판 때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것들이 죄인을 그의 잘못된 방법에서 개심 시켜 죽음으로부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는가?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몹시 불명예스럽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해로운 죄악의 가득함을 숨겨 줄 어떤 의향을 갖는가? 오히려 그것들은 죄악을 짜증스럽게 하고 생산해 내지 않는가? 그것들이 신자들과 불신자들 속에서 만들어 냈고, 현재까지도 만들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에게 간구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축복되고 책임 있는 시도에 일치하기를 간청한다. 무엇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와 같은 것이 광야에서의 회막에 관한 일이었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사람의 권위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일이다. 이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은 우리들 사이에서 쓰러진 다윗의 회막을 일으켜 세우며, 그것을 본래의 토대 위에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거나 자기 자신의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문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이 더불어 교제하고 자문하고 충고하며, 친절한 기독교인의 태도로 그 주제를 탐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마땅한 복종과 순종함으로 분명하고 중요한 교제의 의무에 우리

형제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단순하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공통된 대의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이런 영광스런 대의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연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연합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과 우주적인 일치와 평화와 순수함의 대의이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대의이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합하자.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앞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협력하자. 나른하고 성가신 거짓 선지자의 세이렌 요정의 노래소리에 취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잠들지 않게 하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의 집이 세워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를 믿지 말라. 여러분은 때의 징조들을 구별치 않는가? 두 증인이 그들의 정치적 죽음의 상태와 수대에 걸친 오랜 박해로부터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들 적들의 경악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뿔뿔하게 두발로 맞서지 않았는가? 그들의 부활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도시 십분의 일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이 나라들로 분노를 일게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분노, 그렇다, 대노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오 주님, 당신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¹¹⁾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이 엄청난 지진과 큰 우박과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듯 부수셨고, 부수고 계신¹²⁾ 이들 무서운 소란과 혁명에 대한 보도를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 이 무서운 충격의 진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주 먼 곳에 피난시켜 놓은 우리들에게까지도 느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주께서 말씀과 섭리로 회개와 개혁으로 우리를 매우 크고 분명하게 부르고

11). 역자주: 계시록 11장, 11장 18절.

12). 역자주: 계시록 2장 26-27절.

계신 때에, 우리가 부패와 분열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인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 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 지어다.”¹³⁾ 그 고귀하고 값비싸게 산 자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자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권위의 복종으로부터 자기 자신에로의 자유를 회복하라. 지상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로 또는 선생으로 부르지 말라. 한 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선생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그러므로 이 고귀한 자유 안에서 든든하게 서자.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 고귀한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주창자들임을 선포하였다. 이 상서롭고 의무에 찬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미력한 노력이나마 공헌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제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속하였다. 우리는, 이 축복된 목적을 위한 우리의 첫 열매로서, 형제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다음의 명제들을 겸허하게 발표한다. 우리는 형제들의 사랑과 솔직함을 의뢰하며, 그들이 우리의 보잘것없고 모험적인 시도를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만약에 그들이, 일종의 준비단계로서, 교계의 형제들과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항구적이고 성서적인 일치에의 길을 여는 데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면, 우리는 그 점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명령할 의사가 없으며, 증거적이고, 모순이 없고, 적절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대한 목적에 대한 그들의 경건하고 의무에 찬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수정 제의를 해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히 교회에 주어진 총체적인 은사들은, 만일에

13). 역자주: 이사야 52장 1-2절.

그것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에 합당하게 결합되고 집약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¹⁴⁾ 각각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¹⁵⁾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시들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충족함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들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높임을 받으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같이, 우리는 참 교인들의 일치에 정당하게 의심할 수 없으며, 협력하여 충실하게 행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사장되어 가고 있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명령과 기도를 신뢰한다면, 확실히 진리와 성결,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들이 맺은 보이는 일치는 이들 모두에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언급된 중요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파의 이름들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들의 도움의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 것이요,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진실로 자원하여 그들의 채무자가 된 것같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은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라,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가장 겸허하게 여러분에게 간구한다. 우리의 취약한 출발을 여러분의 빛으로 빛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교회의 일치와 순수성과 번영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 있는 협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을 증명하라.

추가된 명제들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신조나 혹은 표준을 향

14). 역자주: 고린도전서 12장 7-10절.

15). 역자주: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일종의 제안으로 혹은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결국 고안된 것이며,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도되었다고 아무도 생각지 말아 달라. 어느 것도 우리가 의도한바와는 다르다. 그것들은 단순히 길을 트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확고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전제들의 본래의 바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사도들이 그것들을 행한 것처럼 일들을 취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대 사이에 끼여드는 증가하는 당황함을 제거함으로써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섰던 같은 바탕 위에 증거를 가지고 설 것이다. 관심을 유도하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명제 1.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서대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며, 그들의 기질과 행동에서만큼은 같은 것을 표명하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다. 다른 누구도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 질 수 없다.

2.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별하고 구별된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 떨어져 위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분열이나 무자비한 분쟁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영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같은 법칙으로 보조를 맞추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

3.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믿음의 조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제의 시금석으로서 그것들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한다. 교회 헌법이나 관리규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서교회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만을 인정해야 한다.

4. 신구약성서의 말씀이 불가분리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의 덕과 구원을 위해서 둘이 하나님의 뜻이 담지 된 완전하고 통전적인 단 하나의 계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서가 신약성서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며,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서가 구약성서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서가 분명한 실행의 시간과 방법에 관해서 침묵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가정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례들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들 제도의 언포(言布)되고 분명한 목적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이들 명령과 예전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새로운 명령과 예전을 교회에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신약성서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의 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6. 성서적 전제(前提)로부터 공정하게 추론된 신학적인 해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리로 참으로 인정될지라도, 그것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 사용될 뿐이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얽어매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믿음은 인간의 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어떠한 해석도 교제의 시금석이 될 수 없고, 다만 교회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심의 함양에 진정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7.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크게 체계화시켜 보편적인 오류를 막고 변증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고,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더욱 충분하고 명확할수록 더욱 좋다할찌라도, 이것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임이 틀림없고, 또한 많은 추론적인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것 즉 아무도 교회의 교제에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매우 분명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소유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교리적인 지식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는 부형들은 물론이고 유년과 청소년들로 처음부터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8. 사람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독특한 지식이나 특출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지식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 되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이 본성과 행실로 상실되었고 죽어 가고 있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믿음과 순종의 신앙고백이 동반될 수 있는 정도의 성서적 자기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다.

9. 은혜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기질과 행실로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며, 형제로서, 같은 가족과 성부의 자녀들로서, 같은 성령의 성전들로서, 같은 몸의 구성원들로서, 같은 은혜의 실체들로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같은 피값에 구입되었고, 같은 기업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¹⁶⁾

16). 역자주: 마태복음 19장 6절.

10.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은 많은 악들로 가득한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보이는 일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나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추방시키고 파문시킨다. 분열은 주의 절대 권위로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비성서적이다. 그것은 주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분열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경멸하며, 미워하며, 반대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스런 의무로 결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분열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낸다.

11. (어떤 경우들에서는)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태만과 (다른 경우들에서는) 인위적인 견해들과 인위적인 창안들의 승인을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고, 그것들을 교회의 헌법, 믿음, 혹은 예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권위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례들, 즉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한 모든 부패와 분열의 사례들이며, 사례들이었다.

12. 지상의 교회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상기한바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성서적 자기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입교인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그들의 기질과 행실로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교인으로 남을 수 없다. 셋째, 성서적으로 마땅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믿음과 성결에 대한 조항들 이외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대로, 초대 교회의 전례(前例)대로, 인위적인 견해와 사람의 창안과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더하지 아니한 채, 모든 하나님의 예전들을 정확하게 지킨다.

13. 마지막으로, 만일에 하나님의 예전들을 준수하는데 필수적

인 정황적인 요소들이 계시의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방편이란 이름아래서 더욱 성서적이란 주장 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준행여부나 계속되는 변경 또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들 명제들은 우리 협의회가 선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것이 문장의 성격과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들 명제들은 전에 필요했던 의무, 즉 시온의 이익을 조성하려는 모든 사람의 손을 통해, 현존의 상황들 속에서, 큰 소리로 요구된 의무 이행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열되었다. 이 의무는 이사야 57장 14절에 이미 명시된 대로 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일로써 충실한 자취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¹⁷⁾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인 진리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들의 주의력을 최초의 원리들에 집중시키며, 길 위에 놓여 가로막는 거치는 것들 즉 시대적인 폐물을 제거하며, 그들 앞에 놓인 길을 정리하여,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실수나 부주의로 방향 전환을 잘못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항구적인 성서적 일치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적어도, 상기한 명제들의 신실한 의도이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 의도에 충실했는지는 우리 형제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것들이 성서와 올바른 이성의 빛에서 논증적으로 입증된 진리들을 드러내 보여 주고, 그것들의 어느 일부라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들이 상기한 목적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고려될 때, 그것들이 적절해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들이 틀림없이 원하는 결말로 이끄는

17). 역자주: 이사야 57장 13-14절.

가? 이들 세목의 어느 것에서든지 명백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이 충분히 증거적이고, 적절하여, 반대할 도리가 없을 때까지 그것들이 고쳐지고 수정되게 하자. 그러는 동안 그것들이 엄밀함으로 즉 정의와 솔질함과 사랑이 인정할 모든 엄밀함으로 검사되게 하자.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잘못되게 했다면, 우리는 기쁘게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동안, 우리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즉 만약 그것들이 채택되고 따라서 실행되었을 때, 틀림없이 원하는 일치에로 인도하며, 그것을 획득했을 때, 보장할 진리들을 제시하도록 기쁘게 인도되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총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심과 더불어 힘을 갖는 것, 이성적인 확신과 수용할 만한 순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목소리이다. 다수의 결정을 기다리는 양심, 다수가 투표로 결정하도록 미결로 남긴 양심은 죄인에게 어울리는 주제이다. 이것이 모든 교파교회의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는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와 같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면, 머지않아 시온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조용한 거주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의 바램이요 기도였고, 언제나 그래야 한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우리의 표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깃발을 펼친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서방에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¹⁸⁾ “대적이 홍수처럼 밀려 올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대항하여 깃발을 드실 것이다.”¹⁹⁾ 우리의 겸허한 바램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²⁰⁾ 요새들, 심지어 이 모든 분열의 요새들, 저들 분단의 경계벽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고, **그분의** 양떼를 나누어 놓으며, 적어도 그것이 이 세상을 중히 여기는 한,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18). 역자주: 이사야 59장 19절.

19). 역자주: 이사야 49장 22절 및 62장 10절 참고.

20). 역자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여리고 성 같은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분의** 깃발 아래서 **그분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그분의** 기수가 되는 것이다. 대적이 이것을 했지만, 그는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²¹⁾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그들은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²²⁾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깨지고 분열된 현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스로 분열된 왕국 혹은 집은 설 수 없으며,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다.”²³⁾ 이것이 교회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좃으리로다.”²⁴⁾ 그와 같은 모든 것과 오직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기대가 집중된다. 그러므로 오라, 주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다. 우리로 또한 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들 전제들 안에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며 초청한다. 가까이 계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자. 너무 멀리 계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달라. 할당된 교구 내에서 여러분의 수의 부족이 극복하기 어려운 실망을 가져오게 하지 말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²⁵⁾ 이와 같

21). 역자주: 시편 37편 11절.

22). 역자주: 다니엘 7장 18, 27절.

23). 역자주: 마태복음 12장 25절.

24). 역자주: 시편 94편 14-15절.

25). 역자주: 마태복음 18장 19-20절.

은 약속 위에 서서, 모든 가능하고 약속된 선에 도달키 위해서는 실망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오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²⁶⁾ 다음과 같이 명령한 예언자의 고결한 해결책을 따르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명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 모이기 위해서 편리한 지역에 따라서 연합하고, 주님께 우리의 비통한 분열들을 끝내 주시도록 간청하고,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연합하며, 주님의 교회가 본래의 구조적인 일치와 순수성을 회복하며, 그래서 교회의 약속된 번영의 기쁨을 누리며, 유대인들이 급히 개종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²⁸⁾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합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슬픈 분열들의 사악한 원인들을 조사하며, 그것들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심사숙고하여 몹시 슬퍼하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²⁹⁾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그것들 때문에 통곡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아!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혀 왔던 비통한 저들 불행들의 대물림에서, 즉 통곡하기보다는 당파심이 이들 파괴적인 악들의 비통한 원리를 모든 곳에서 정당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계시되거나 명령되지 않은 사건과 인위적인 추론의 문제에서 그들과 함께 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는, 저들을 배척할 권리를 고집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합리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연합하신다면, 화평의 친구들, 즉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주창하는 자들이 좀 더 작은 저들 몇 개의 협의회들과 편리한 중심지에서

26). 역자주: 이사야 62장 7절.

27). 역자주: 이사야 62장 1절.

28). 역자주: 로마서 11장 25-26절.

29). 역자주: 호세아 5장 15절.

반년에 한 번씩 모일 곳, 즉 보다 큰 규모의 협의회에 연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결합된 노력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사역하는 주의 목회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 봉사에 자원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주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요, 온몸으로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 끼고 어두운 날에 흩어져 버린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우리의 슬픈 분열들을 비통해하며 통곡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교리나 명령을 거절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법스러워야 하며, 말씀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해설이 우리의 법이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도 명백한 법의 조문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상태이거나 거절된 상태에 있지 않은 한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판단하고, 배척하고, 거절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일치와 사랑의 커다란 기본법이, 명백한 계시와 동등한 상태로 인위적인 견해들을 높이고, 믿음의 조항들과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예수의 진실하고 공평한 추종자들이요, 진리와 평화의 친구들인 여러분, 우리는 감히 여러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품에 위배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에 모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협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들, 즉 우리가 그들로부터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형제들 가운데 어느 분이라도, 연약함이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해 온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을 관대하게 바란다. 오직 그와 같은 것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말며, 한편,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비추일 때에 거절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가장 진지하고 정중하게 제출한 것을 오히려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한 기도로, 성령을 겸허하게 의지함으로써, 자기 만족감이나 당과심이 아닌, 성역의 균형에서 모든 정서의 무게를 달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화평을 확신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가 지적 수준에 있어서 형제들보다도 우월하다거나 실수가 적다고 오만을 떠다고 말하거나 상상치 말라. 지금까지 우리의 확신은 명백한 성서와 그것에 전거(典據)를 둔 일들의 사실적 증거에 따라서 전적으로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부주의와 편견 때문에 그들의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는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증거적인 진리였던 것들의 일부에 관해서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악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억측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가능한 악들에 대항하여 경고하는 것이 사랑을 쪼개어 놓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어떤 일들의 확실성을 확신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주제 넘는 논쟁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성스런 대의를 촉진키 위해서 제안한 어떤 것, 즉 그것이 그것과 더불어 그것 자체의 증거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것에 관해서, 결단코 우리 형제들의 시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서 공정하게 조사 해볼 것을 겸허하게 요구하며, 그래서 우리가 빈약하게 시도했던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이 도와 줄 것을 간청한다. 한편, 원했던 행사가 기쁘고 영광스러울 만큼 확실해서 어떤 논쟁도 인정치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장려할 적당한 방법에 관해서 주저하거나 의견이 다를지 모른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적절한 입장

을 취했다고 믿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을 단념한다. 왜냐하면,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표준에 명백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것은 무엇이든 지간에 단단히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된 영향아래서, 일치, 평화, 그리고 순수함을 장려하고 유지할, 적절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교파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저들 무가치한 특권들을 얻는 것을 전적으로 단념한다. 교파의 이익을 용인하면서 일치의 대의를 주창하는 것은 나라들에 대 소동을 일으켰고,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 무서운 싸움에서, 나라의 중립을 유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국들에 이 나라가 동참하는 것만큼 불합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어찌할 바 모르던 교회가 과거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여러 갈래로 찢고 나누었던 바로 그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첫째 되고 기초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며, 순서상으로 바로 그 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다.”³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³¹⁾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믿음의 영, 사랑의 영, 그리고 건전한 마음의 영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우리들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받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와 우리를 다같이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도 그와 계속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건대, 우리에게는 너무 깊은 신비이다.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

30). 역자주: 로마서 15장 7절.

31). 역자주: 요한일서 3장 23-24절.

께서 우리를 받았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법의 조항을 위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신자를 의도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든 지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으셨고, 혹은 그가 그리스도를 그의 교사와 주로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바로 그 제안된 목적을 분명하게 전복시키는 수단, 수대에 걸친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로, 기독교의 보이는 이익을 던져 버리는 일에만 단지 성공적인 수단, 가능하다면, 선포된 의도, 즉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방해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저들 악들을 제거하고 막는데 결코 빈틈없는 방책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치와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인위적인 조직들의 편찬자들과 선동자들의 그럴싸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들의 신실한 의도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그 목적에 해답을 주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실증적으로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아니, 심지어 그것들을 가장 엄격하게 채택했던 몇몇 교파들까지도 그렇지 못했다. 하물며 온 세상의 교회야 말할 필요가 있으랴. 교회의 우주적 구조적 일치와 순수함 대신에, 작금에, 교회는 교파와 교파조직들에 대한 안내서, 즉 세상 끝날 까지 그대로 변치 않겠다는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서약들에 의해서 각 교파를 묶어 주고 있는 안내서 이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적어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교파에 있어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일치와 사랑 대신에 이것들로 대치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다른 한편, 인간이 순복할 수 있는 어떤 인위적인 의무도 진리를 대항하는데 무가치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치유자이신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 오셔서, 그들이 어둡고 졸린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묶인 채로 고생했던 저들 인위적인 결합들의 성격과 경향을 그들에게 밝혀 주실 때에, 그들은 삼손을 묶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었던 놋쇠줄 이상으로, 적그리스도가 종교개혁가들을 포로로 묶었던 속박이상으로 교파적 속박의 상태에서 그것들을 유

지할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곧 그의 백성의 눈들을 열어 주셔서 그들의 참빛으로 사물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광야의 상태와 이 바벨의 혼란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독려하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서로 포용하며, 평화의 결합 속에서 성령의 일치를 튼튼하게 붙잡기를 기원한다. 이 은혜로운 일치와 예수 안에서 전원합의가 그와 더불어 그들의 연합의 가장 최고의 외적 증거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공동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³²⁾고 그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³³⁾ 그리고 또다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³⁴⁾ 심지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³⁵⁾ 주께서 그것을 그의 시간 안에서 서두르시기를 기원한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토마스 아체슨(Thomas Acheson).

32). 역자주: 요한복음 13장 35절.

33). 역자주: 요한복음 13장 34절.

34). 역자주: 요한복음 17장 11절.

35). 역자주: 요한복음 17장 20-23절.

해설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1763-1854)이 초안하여 재정부장이었던 토마스 아체슨과 공동명으로 1809년 9월 7일에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56쪽의 소책자이다.

이 책자에서 강조된 내용은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일치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치를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헌장이다. 여기에 번역된 ‘선언’과 ‘제언’은 전체 내용의 약 40퍼센트에 해당된다.

『선언과 제언』을 작성한 토마스 캠벨은 1763년 2월 1일 아일랜드 카운티 다운(County Down)에서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키발드는 울프 장군(General Wolfe) 휘하에서 퀘벡(Quebec)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 출신이었다. 그는 본래 가톨릭 신자였으나 후에 성공회로 개종하여 충실한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 캠벨은 아버지 아키발드에게서 성공회 분위기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도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성서를 즐겨 읽었다.³⁶⁾ 그가 받은 가정교육(training and discipline)은 매우 교훈적(didactic)이며, 성서적

36). William Herbert Hanna, *Biography of Thomas Campbell Advocate of Christian Union*, reprinted and distributed by College Press Publishing Co. Inc. in Joplin Missouri, pp. 23-24.

이고, 엄격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성서와 브라운의 교리문답서(Brown's Catechism)를 매일 읽고, 암송하였다.³⁷⁾ 이런 가정 교육의 영향으로 후에 토마스 캠벨은 "예리한 비평가, 엄격한 규율가, 헌신적인 신학자"³⁸⁾가 되었고, 알렉산더 캠벨을 같은 방법으로 교육시킨 훌륭한 아버지였다.

토마스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한동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였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토마스 캠벨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였다. 그는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Glasgow) 대학교에서 3년간 신학교육을 받았고, 반공민과 분리주의 장로교 소속인 휘트번(Witburn) 신학 대학원에서 일 년에 8주씩 5년간 목회자 수업을 받았다.³⁹⁾

목회와 교육에 전념하던 캠벨은 교회 분열의 뼈아픈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일찍부터 교회 연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798년 안수를 받은 직후, 캠벨은 이미 교파의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지방회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에 그의 교회는(his group of Prebyterians) 20년간 지속된 믿음의 본질에 대한 표독한 논쟁에 개입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논쟁에 활동적으로 개입하면서, 엄격한 교파주의를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⁴⁰⁾

1802년 캠벨은 두 분리주의 교파가 연합하기 위해서 조직한 첫 위원회에 반공민과 대표로 활동하였고, 1804년 벨헤스트(Belfast) 지방회 때와 1805년 룰간(Lurgan)에서 열린 연합 모임

37).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H.S. Bosworth, 1861), p. 9.

38). Morris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p. 68.

39). William Herbert Hanna, *op. cit.*, pp. 25-26.

40). Hiram J. Lester, ed., "Preface to Abridged Edition," *Declaration and Address*, 175th Anniversary Abridged Edition, written by Thomas Campbell in 1809.

때에도 연합에 대한 노력을 힘썼다. 그러나 캠벨의 형제들은 1806년 글라스고우(Glasgow) 총회 때에 그의 계획에 반대하였다.⁴¹⁾

토마스 캠벨이 목회 하던 당시 교계의 상황은 분열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토마스 캠벨이 아일랜드 아호리(Ahorey)에서 목회 하던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편협한 당파의식과 성서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1528년 2월 29일,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의 순교 후에 개혁교회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60년, 요한 낙스(John Knox)가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일련의 정치적 종교적 전쟁들을 치른 후에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로서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그 유명한 국민계약에서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배타적으로 칼뱅주의를 고수할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1643년 그 계약이 정치적으로 수정 해석되었고, 그것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자들(Covenanters) 혹은 개혁 장로교인들(Reformed Presbyterians)이라는 이름 하에 독립된 교회와 조직체(societies)를 구성하였다. 그 후에 국가가 교회의 동의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을 때, 알렉산더 에르스킨(Alexander Erskine)과 몇몇 목회자들이 1733년 국교와 분리하여 분리 장로교회(Seceder Presbyterian Church)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 교단은 시의원들에게 요구되고, “국가 안에서 현재 인정된 종교”(the religion presently professed within the realms)를 지원토록 그들을 제한하는 서약이 자신들이 대항하는 국교 내에서 악습을 허용하는가의 문제로 1747년 갈라졌다. 서약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공민파”(Anti-Burghers)가 되었고,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은 “공민파”(Burghers)가 되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179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3장과 본래의 국민 계약서에 주장된 시의 종교

41). *Ibid.*

문관들(civil magistrates in religion)의 권한 문제로 “공민파”는 “옛빛 공민파”(Old Light Burghers)와 “새빛 공민파”(New Light Burghers)로 나뉘었고, 반공민파는 “옛빛 반공민파”(Old Light Anti-Burghers)와 “새빛 반공민파”(New Light Anti-Burghers)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캠벨이 속해 있던 교회는 아이랜드의 옛빛 반공민파 분리 장로교회였다. 공민파의 서약은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논쟁들이었으며, 아이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구적으로 분리되기를 고집하였다.⁴²⁾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연합 운동으로 인해서 신경성 복통을 얻었던 토마스 캠벨은 의사로부터 목회를 잠시 쉬고 바다 여행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44살의 나이로, 1807년 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캠벨은 북아메리카 노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차르티에르 장로회(Charliers Presbytery)에 소속되어 7월 21일 북버팔로(North Buffalo)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⁴³⁾

그러나 그의 진보적인 생각과 설교로 인해서, 이단이란 소문이 8월 하순에 퍼지고 있었다. 9월경에는 이미 지도급 성직자들이 그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10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설교약속이 취소되었다. 다음해 1월초에 그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1808년 3월 8일에는 목회사역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았다.⁴⁴⁾ 그리고 1808년 9월 18일, 캠벨은 차르티에르 장로회로부터 탈퇴하였다. 이런 불이익의 원인이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활동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들의 분열현상은 미국 땅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토마스 캠벨은 미국에 와서도

42).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p. 37.

43). Alexander Campbell, *op cit.*, pp. 8-10; Morris Womack, *op cit.*, pp. 70-71.

44). Hiram J. Lester, *op cit.*

북 아일랜드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아픔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이 캠벨로 하여금 더욱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던 원인들이었다.

캠벨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 근처에 위치한 아브라함 알타르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캠벨은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축적되어서 결국 1809년 9월 7일에 『선언과 제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⁴⁵⁾ 토마스 캠벨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09년 8월 17일 버팔로에서 모였을 때에, 참석자들이 각기 다른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부분 확정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지명한 신앙 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에, 선포 이후의 목적들을 위해서, 심사숙고 후, 전원합의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복음사역자인 토마스 캠벨의 도움으로, 그들 협의회의 중대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21명을 지명하여 함께 모여 협의토록 하였다. 협의의 결과로 『선언과 제언』이 빛을 보게 되었고, 협의회의 비용으로 협의회를 위해서 1809년 9월 7일 출판하기로 하였다.”⁴⁶⁾

‘선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그리스도인 협의회’라 칭하였다.
2. 필요한 운영자금은 자율적인 기부금 납부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3. 다른 지역에서의 ‘협의회’ 조직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4. 협의회는 교회나 교단 혹은 통제기구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5. 성서에 입각한 단순한 복음만을 강조하였다.
6. 1년 임기의 간사, 회계, 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결의하였다.
7. 협의회 모임은 5월과 11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기로 하였다.
8. 협의회는 설교로 개회하고, 규정과 제안 및 회의록 낭독, 헌금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45). Morris Womack, *op. cit.*, p. 72.

46).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p. 90.

9. 협의회 운영기금과 선교후원기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기금이라도 협의회 차원에서 사의가 표명되도록 하였다.

성서를 헌법으로 하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된 ‘제언’에서는 13개 명제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교회는 하나이다.
2. 분열은 있을 수 없다.
3. 성서만이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4. 신약성서는 예배, 징계, 치리, 및 의무를 정한 헌법이며 규율이다.
5.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성서해석에 의한 결론은 신앙인의 양심을 제한할 수 없다.
7. 조직신학 체계를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8. 입교인의 자격이 성서 지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9. 기본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10. 분열은 죄악이며, 반기독교적이며, 비성서적이며, 비자연적이다.
11. 인간의 견해와 창안을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는 것은 부패와 분열의 원인이다.
12.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입교인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교인으로 남을 수 없으며, 성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로 남을 수 없다.
13.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예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유로 하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토마스 캠벨은 1854년 1월 4일 수요일, 한 달 부족한 91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그가 썼던 방과 침대는 베다니에 있는 알렉산더 캠벨의 집에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51년 6월 1일 88세 때에 베다니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 때 그는 이미 실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펜들톤

(W.K. Pendleton)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었다.⁴⁷⁾

그가 택한 마지막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사랑했다. 그는 성서의 권위회복과 교회연합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인물이며, 위대한 환원 사상가인 알렉산더 캠벨을 배출한 목사요, 교육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47). Morris Womack, *op. cit.*, p. 74.

참고서적

- Campbell, Alexander.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 Cincinnati: H.S. Bosworth, 1861.
- Campbell, Thomas and Acheson, Thomas.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Hanna, William Herbert. *Biography of Thomas Campbell Advocate of Christian Union*. Reprinted and distributed by College Press Publishing Co. Inc. in Joplin Missouri.
- Lester, Hiram J. ed. "Preface to Abridged Edition." *Declaration and Address*. 175th Anniversary Abridged Edition. Written by Thomas Campbell in 1809.
-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율법에 관한 설교

해설

이 유명한 설교는 1816년 9월 1일 캠벨이 27세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아닌 크로스 크릭(Cross Creek)에서 모인 레드스톤 침례교회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때에 행한 것이었다. 후에 캠벨은 자신을 “지금의 개혁운동”(the present reformation)에 뛰어들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이 설교에 관해서 일어난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실린 그의 설교는 크게 요약되기는 했으나 설교자의 핵심요점들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캠벨은 후에 이 설교를 팸플릿으로 출판하였고, 또 1846년 9월판 밀레니얼 하빙저<*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 September, 1846, 493쪽 이하>에도 실었다.)

율법에 관한 설교(The Sermon on the Law)

본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롬 8:3).

어휘들은 개념들과 사상들의 표식들입니다. 어휘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개념들이나 감정들은 전달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쉽게 되는 어휘들은 다른 연관된 상황들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 가운데 하나는 쉽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휘의 다양한 사용들과 형용어구들의 결과에서는 그 어휘에 따라 붙는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율법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성경말씀의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하면, 이런 종류의 모든 어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밝혀내고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1.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야 합니다.

3. 율법(*the law*)이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제들에서 분명하고 절실하게 또 전적으로 공평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와 같은 결론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포함된 교리를 의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로,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때까지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전체 계시를 랍비들 혹은 율법사들의 전통들과 계명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정관사를 붙이면 의미를 바꾸거나 혹은 적어도 그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the law*)이란 말들은 어느 정도 설명 없이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저술들을 “율법서”라고 불렀으나, 율법이란 말이 갖는 본래의 뜻으로 그 단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아비아의 통치 때(역대기

하 14:4)에 이르러서 비로소 율법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모든 법(the whole legal dispensation)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때까지는 율법이란 말이 어느 정도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를 입증할만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한정된 정의 없이 구약성경에서 약 30회 가량 사용되었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지시하는 형용어구들에 있어서조차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하늘 통치의 교리들이 전파되고 신약성경에서 모세가 제정한 법과 비교되기 시작할 때에 율법(the law)이란 말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어떤 구별된 형용어구나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될 때에는 그 말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율법(Mosaic dispensation)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통의 의미에서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대략 150회 정도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모든 법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세의 법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거나 구분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나누는 일은 사도시대에는 없었던 일이고,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결코 사용되지도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하여 사도들이 전한 정확한 교리지식을 얻는데 전혀 무가치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을 당황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게 한 것은 율법을 쇠신하려 한 오늘의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몇몇 십계명의 교훈들이 재천명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진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의 주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원리들 즉 모세의 율법에 관한 우리의 관찰 속에 결코 포함시키지 아니한 계명들(commandments)과 법들(laws)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것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는 성경 속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초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 속에서 이 교훈들은 모든 법과 예언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들 예수의 계명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때때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법(the legal dispensation)과 수정된 모든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의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의와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밝힌 사도의 이 증거들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의와 영생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의 악성과 결점을 들춰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것 아래 있는 것들 즉 어떤 행위들은 죄가 많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죄 많은 행위들에 율법은 해설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는 도둑질이라 불렀고, 둘째는 살인이라고 불렀으며, 셋째는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해롭고,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악성이 얼마나 넓고, 그것들의 결점이 얼마나 큰지를 율법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후대를 위해 남겨졌고, 다른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셋째로, 율법은 이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적절한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단지 일부분에게 주어졌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대나라에 주어졌고, 다른 아무 나라에도 주어

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에게조차도 율법은 생명을 주는 가장 적절한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법칙으로써 모범적 행동이 훈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주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은 완전한 산 모델이나 모범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아래서 가장 모범적인 특성들은 그것들의 뚜렷한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일부다처, 이혼, 노예, 보복 등이 그 율법아래서 눈감아지는 만큼 오랫동안 율법에 가장 잘 따르는 자들의 삶이 뻘한 불완전성들로 얼룩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 제안한 세 번째 주제로 바빠 옮기려합니다. 그것은 율법(the law)이 이들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율법이 이들 목적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율법의 결함들은 하나의 상관적 종류(a relative kind)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약하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기초적이고 그림자적인 다가올 선한 것들의 상징들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결점을 갖지 않았다면, 복음이 설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두에서 제안한 네 번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relative defects)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심으로 그 모든 결점들을 제거하시고, 죄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는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

들 곧 아브라함의 모든 신령한 씨가 의와 영생을 발견합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율법의 행위나 지킴에 의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남은 것은 ... 생명을 주기에 적절치 아니한 율법의 실패가 어떻게 구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범이 훈계보다 더 능력 있는 교사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까지 결코 목격되지 않았던 완전한 인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계에 그것들이 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형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솔직하고 반성하는 마음에 그들 자신들을 분명하고 절실하게 제시해야하는 것과 같은 결론들을 위의 전제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율법과 복음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이 뒤 따릅니다.

율법과 복음보다 서로의 의미에 있어서 더 별개인 두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하에 서로 상반되게 구별됩니다.

둘째, 둘째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도께서 이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들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진술한 것들과 같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사도는 그들이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에서 해방되었고,” “법에 대하여 죽었고,” “법에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셋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설교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위임과 그 위임에 따라

서 그들이 실천한 것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설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목회자들로 세워졌습니다.

...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설교준비나 혹은 복음을 영접케 할 목적으로 율법을 설교한 예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연역해낼 수 있는 네 번째 결론은 율법이나 구약성경에서 나온 모든 논쟁들이나 동기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권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사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한 준비로써 거룩한 날들이나 종교적인 금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 칠 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민법으로 어떤 종교형태를 세우기 위해서 -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관습들을 따르거나 모방하는 것에 신명나도록 유대법에서 빌려온 모든 이유들과 동기들이 기독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 반대되며, 근본에 무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결합되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것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경배하며, 그분을 위대한 예언자로 받아드리며, 율법에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을 우리들의 의의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분의 모든 훈계들과 그분이 제정하신 것들에 가장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그분에 합당하게 걷도록 합시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율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에게 책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여전히 반율법주의의 혼해빠진 권고를 해야 한다면, 혹은 은혜가 풍성키 위해서 우리가 죄에 살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선한 것이 찾아오도록 악을 행했다면, 혹은 믿음으로 율법을 무익하게 했다면,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존중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하게 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모든 길들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루넨버그 서신¹⁾

번역: 조동호

들어가는 말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은 링컨 신학 대학원이 교재로 쓰기 위해서 간편한 형태로 편집해 출판한 문서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신과 알렉산더 캠벨의 해설과 설명이 1837년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에 처음 실린 이후 환원운동권에 속했거나 속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루넨버그의 “양심적인 자매”에게 보낸 캠벨의 회신에서 비롯된 쟁점들의 토론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이 잡지를 통해서 계속되었다. 캠벨과 다른 저자들, 특히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와 토마스 헨리(Thomas M. Henley)의 기사들이 1837년부터 1840년까지 다음과 같이 『천년왕국 예고자』지에 실렸다.

1837년호: 411-414, 506-508, 561-567, 577-578쪽

1838년호: 348-349, 426-427, 520-521

1839년호: 43-45, 124-128, 168-179, 213-216, 292-294, 395-401, 475-476, 529-531, 547쪽

1840년호: 21-22, 106-109, 125-128, 162-165, 275-277쪽

루넨버그의 자매로 하여금 『천년왕국 예고자』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 캠벨의 글은 “영국에 보내는 서신들, 제 1 호”(Letters to England-No. 1)로 제목이 붙여진 기사(記事)였다. 이 기사는 1837년

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u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 1837, reprinted by the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6월호에 실렸다. 이 기사 전문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겠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신명 순명조체로 표기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몇 가지 질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본인은 우리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들이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회, 교육협회, 문서선교, 성서공회, 금주회, 반노예 연합단체를 만들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각 교회가 특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재물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a Christian)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 판단으로 기독교는 모든 불경과 불의, 부정, 억압 그리고 잔악한 행위를 세상에서 몰아내고, 인간 실존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자선과 자비와 구제의 일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한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는 그들을 후원해야 한다. 전 사회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훈련을 받고 유용하고,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성서는 언제나 발행되어야 하며, 때때로 신앙문서, 신문, 잡지 그리고 팜플렛들이 세상 곳곳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며, 특히 모든 알콜성 음료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렇다. 때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절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이슬람교도(Turks), 유대인, 무신론자와 같은 주의 적들과 비밀리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종이든지, 고용인이든지 간에 그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모든 책략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정당하고 동등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허용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모정(母情)과 부정(父情)의 품에서 유아들을 판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오래고, 존중할만하고, 성스런 결혼제도를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반하게 해서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그 밖의 다른 인위적이고 상황적인 구별이나 차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동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신앙으로 교육받고, 영생을 위해 훈련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훈계로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만드는 신념이요, 주장이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all Christians)이 협력하는 것과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판단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그들이 우리 형제 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든지 혹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그들과 협력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도 관련된 지식과 기회들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만큼이나 모범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무리와는 연합단체(confederacy)를 형성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대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종들을 후원(tax)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협의체들(associations)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관계없이 이들 결속된 연합체(union)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공동체(a community)를 형성하는 한, 그리고 그 단체들이 불경하고 불신양적인 사람들, 혹은 신조가 없거나 모든 것을 신조로 삼는 비기독교인들과 단지 일치(coincidence)라는 이유 때문에, 그 것이 무엇이든 기간에, 영적인 교섭을 갖는 한,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같은 한 깃발아래서 행진할 수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조직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회는 실패한 것이요, 하나님의 제도는 단지 사람의 손아귀와 제도들에 굴복 당하고 마는 것이 틀림없다(271-273쪽/볼드체는 캠벨의 것이며, 신명 순명조체와 영문 대문자체는 루넨버그의 자매가 지적한 내용이다).

1970년 3월

본문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루넨버그, 1837년 7월 8일

존경하는 캠벨 목사님께, 저는 오늘 목사님(brother)께서 개신교 교단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 『천년왕국 예고자』지에 실린 글을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셨더군요.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놀라움과 옳은 것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즉시

이 서신을 목사님께 띄웁니다. 알고자 하는 저의 미약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써 주실 것을 여성의 신분에 관한 목사님의 평가로 볼 때 매우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좀 알려주실겠습니까? 목사님의 무슨 행위가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때에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게 했습니까? 어떠한 때에 고넬료는 그리스도가 자신에 관해서 이름 불려지게 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이름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Christ) 혹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의 이름이 오로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장사된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심한 자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에 개신교 교단들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가톨릭교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없고,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말고는 혹은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와 같은 자들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없다. 그러므로 수 백년동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없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약속들도 실패했고, 지옥의 문들이 그의 교회 위에 군림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인,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혹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신약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 전자는 후자를 포함한다. 바울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라”(고후 3:11)¹⁾고 명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온전케 됨을 기원한다고 말

1). 역자주: 고린도후서 3장 11절은 13장 11절의 잘못된 인쇄로 생각된

한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인 너희를 위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²⁾ 바울은 다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고전 2:6)라고 말한다. 또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전 14:20)고 권한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거나 함축하고 있다. 뜻과 기질과 행위에 온전함이 있는가하면, 온전한 상태나 온전한 개성도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개성을 절대적으로 상실치 않고도 어느 정도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강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예수께서는 착하고 충실한 사람들이라도 단지 30배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인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지적(知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함(Pharisaism)이나 친박함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경솔한 판단 때문에 그들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이나 동의없이 유아 때에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없는 외인들이라고 마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었다”고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셨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외국인이요, 이스라엘의 복지와 관련이 없는 외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고⁵⁾ 말씀하셨다.

다.

2). 역자주: 고린도후서 13장 9절.

3). 강조는 역자의 것임.

4). 역자주: 마가복음 7장 24-30절; 마태복음 15장 22-28절.

5). 역자주: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하신 말씀이다.

만일에 유아세례자가 성서적으로 더 지적이고, 침례자나 혹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수세례를 받은 자보다 주께 더 은혜 지향적이고, 더 헌신적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내 마음의 편애함을 한 순간도 주저할 수 없다. 다르게 행동한다면, 본인은 골수 교파 교인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일 것이다. 아직도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외에 그가 나의 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대답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주의하기 바란다. 순종을 보편적이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순종을 위한 한 가지 명령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르친 대로 침수이론이나 실천을 후자보다는 전자를 의심 없이 정확하게 인정하는 자보다 교파교회의 세례자나 유아세례자가 더 은혜 지향적이고, 더 그리스도의 요구들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본다면, 본인은 충심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느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 항목들로 정확하게 구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려진 전체적인 진리에 전반적인 헌신으로 구성된다.

본인과 더불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과 고집 때문에 범하는 과오들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양극처럼 거리가 멀다. 천사도 명령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이해한 범위에서 그것을 순종할 것이다. 요한 번얀(John Bunyan)과 요한 뉴튼(John Newton)은 매우 다른 사람들 이었다. 그들은 세례와 다른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에까지 모든 일에서 주께 순종하였다.

타락한 실수가 있고, 타락하지 아니한 실수도 있다. 모든 세계가 저주하지 않으면 안될 고의적인 과오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실수들도 있다. 베드로도 주께서 요한에 관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⁶⁾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오해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⁷⁾

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거짓되게 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들은 명령된 내용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태만해서 발생되었을 때에만 부패된 심령에서 나온 책망할만한 것으로 또 단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무지는 그것이 자발적일 때 언제나 범죄이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무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제도들을 태만히 하고 있고 또 그것들 대신에 인위적인 권위의 다른 어떤 것들로 대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고, 또는, 모르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것을 자발적으로 태만히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실수들이 그들의 모든 공언들을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서에 있는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이며, 범죄이다. 정말 그렇다. 그러나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식과 경건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간주한 것들, 그들이 태어나서 교육받은 곳, 그들 자신의 굴뚝의 연기와 티끌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는 것들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상당한 결핍과 당혹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인들은 면제된다.

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 모두가 자주 과오를 범한다. 본질론자는 정신(the heart)을 알리지 모르며, 비본질론자는 제도를 경멸할는지 모른다. 후자는 천국의 제도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정신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제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 주신 분은 우리가 제도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6). 역자주: 요한복음 21장 22절.

7). 역자주: 요한복음 8장 51절.

계층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을, 그들 중 어느 것도, 또는 종합적으로 그들 모두도 삶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단언함으로써,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교체하기로 오히려 선택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두 눈 중에 하나를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의 진실 되고 성서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⁸⁾

제안된 모든 질문들이 한 가지 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점에만 이들 의견들을 집중시키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령(ordinance)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자진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리 없다는 생각을 주저 없이 발표한다. 그리고 만일에 제정(institution)의 의미를 실수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심령으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그가 영원히 멸망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친다면, 나 자신의 확신과는 반대로 나 또한 범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에 결론을 내리자면, 극복하기 어려운 무지와 비자발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태만히 하거나 범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요구하는 자, 혹은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일는지 모르

8). 강조는 역자의 것임.

기 때문에, 그의 수단과 기회들이 미치는 전체적인 범위에까지 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고, 주의 백성들 사이에 등록될 리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치를 따진다. 그리고 신구약성서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지지 받는 증명(reasoning)에 따라 생각한다.

알렉산더 캠벨(A. C.).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9월호에 실렸던 루넨버그 서신에 따른 기사 중에 어떤 문장들은 두 서너 분의 지식인들과 서신을 주신 훌륭한 많은 분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리는 개신교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의 견해로서 설명했다. 견해,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개진해 왔던 것이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사함에 관한 첫 번째 임시증간호에서 특별히 언명되어진다. 한편, 본인이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점을 양보했다 또는 본인이 이제 말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서의 일정한 부분을 잘못 적용했다고 이들 형제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언급된 기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고 말했다. 이 두 문장이 언급된 기사의 논쟁적인 부분의 관절과 골수 부분이며, 독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질의자의 질문들에 답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의자의 드러난 기분과 견해에 의존한다. 이 경우에도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전적으로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 또 심지어 물에 장사되기 전에 침례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침수세례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허용하지 않는 한, 이들 설명을 요구한 질의들의 제출자는 그리스도인 침례라는 주제에 관해서

극단론자였던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그녀의 서신에서 이것을 추측했고, 물론 전에 했던 만큼의 용기 있는 답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용기 있는 답변, 그러면서도 그 주제에 관한 한 우리의 이전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답변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고가들에 대한 본인의 높은 관심 때문에 문제된 그 문장들에 관해서 우리의 견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 침수자 신앙인들에게 주어졌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루넨버그의 자매는 물론 그들과도 기꺼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계 공용어에 있어서 다른 모든 말처럼, 바울이 때때로 그 말들의 부분적인 의미에서 성도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들을 사용할 때처럼, 이 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바울이 표현한대로 유대인에도 내적인(이면적) 유대인과 외적인(표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렇다면, 내적인 그리스도인과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없겠는가? 외적인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며, 기고가 중에 어떤 사람은 '내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될 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적이며 외적인 사람이 그 말의 온전한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는 것처럼, 우리도 침례에 대해서 이치를 따져 볼 것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⁹⁾라고 박식한 바울은 말한다. 즉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대로,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¹⁰⁾ 침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만이 아니오, 또한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9). 역자주: 로마서 2장 28절.

10). 역자주: 로마서 2장 29절.

을 다두고 있다. 외적인 것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인간을 위한 것이고, 내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칭찬을 위한 것이다.

몇 분의 형제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훌륭한 견해는 이렇다. 왜곡시키지 않은 채로 단순히 침례를 잘못 받은 사람이 내적인 침례를 가질 수 있는가? 의도적으로 혹은 태만하게 외적인 것을 왜곡시킨 사람은 내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에 의해서, 마음에 왜곡시킬 의사가 전혀 없이 외적인 침례를 오해한 자가, 침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그것에 순복했다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내적인 침례를 가질 수 있는가? 꼼꼼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상의 것은 단언하지 않는다.

이 견해에 대한 본인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는 이번에 제시할 시간과 공간뿐이다. 일곱 개의 난점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이 일곱 개 가운데 두 가지는 가설이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로 극복될 수 없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약속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지난 삼백년 동안 지상에 몇 개 안되는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사탄의 왕국의 신하들로서 간주되어야 했다는 것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침례를 단지 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 속에 몸을 외적으로 침수시킬 때에, 동시에 그리스도 속으로 정신과 마음이 내적으로 침수된다는 것을 모두 믿는다. 게다가 그들은 전자가 후자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 없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뜻에서 그것 없이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언해야 할뿐이다.

여전히 본인의 견해는 형제들의 행동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또 그것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침례를,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의 타고난 시민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성화와 위안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

든 사람에게 되풀이 가르치는 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적인 만족을 위한 것 말고는, 이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 관한 우리의 견해들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가 확실히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 자신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법령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신부터 칭찬을 받는다. 문제가 된 기사에서 인용된 성구들은, 기고자들 가운데 한 분이 잘 지적한대로,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설명이 이 문제에 관한 만족할만한 답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알렉산더 캠벨(A. C.).

오하이오 리버, 1837년 9월 28일.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무실에서 받은 많은 서신들로 판단해 보건대, 루넨버그 자매에게 회신한 본인의 글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었고, 교파교단의 친구들에게는 얼마간의 기쁨을 주었다. 교파들을 형성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만큼이나 안전하다” 또 “당신들은 이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이를테면, 침례가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건너오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해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중립화시켰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한 총체적인 주제에 관한 시대의 무지와 과오와 무관심에 대항하여 싸웠던 무기들의 상당수를 그들에게서 해제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론주의(opinionism)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본인에게 교리화시키는 것과 나 자신의 견해를 확립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의 수백 통의 서신들을 출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단 한가지 중요한 점만이 이 서신들을 출판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신들에 할애할 지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소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이 나라에 캠벨주의자들(Campbellites)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까지 지역사회의 눈들을 진실로 충분히 뜨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고자들이 나의 의견이 거짓되고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캠벨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내게 썼던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나의 견해를 교리화 시킬 의사가 전혀 없고, 그 의견 자체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지만, 아래의 세 가지 내용만큼은 꼭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의무.

둘째, 교파주의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견해를 방어해야 할 의무.

셋째,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개진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야 할 의무.

1.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일찍이 싸워왔던 어떤 것도 양보했거나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문제가 된 그 견해야말로 진실이든 거짓이든 본인이 언제나 공언해 왔던 것이란 점을 아주 신속하게 서둘러 입증해 보이겠다.¹¹⁾

(1) 우리가 사도적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해서 써왔던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연합했다고 우리가 가르쳤는가?

(2) 그리고 둘째로, 만일에 우리가 허약한 우리들의 친교집단 이외

11).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죄사함을 위한 침례만큼 오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s*)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 작품의 창간호와 두 번째 호를 읽어보시오.

에 주께서 더 이상의 백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했다면, 성령께서 바벨론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하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¹²⁾고 하신 말씀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인용했으며, 배교적인 기독교계에 적용했는가?

(3)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1825년 4월호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¹³⁾에 실린 다음의 글을 읽기 바란다. “교파들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로 연합하는 것을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와 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이성과 선행이 그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 사이에 흩어진 제자들뿐이다.” 이것은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입장인 현재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제2쇄, 『베다니』(Bethany), 85쪽.

(4)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언어구사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분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방침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어떻게 각파가 자신들을 유지해 갈지를 종종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편 그들의 가시적인 불일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1827년 3월호, 제4권.

(5) 기고자들이 보내준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많은 기사들과 서신들은 우리의 지지와 함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몸의 참 지체들이며,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12). 역자주: 계시록 18장 4절.

13). 역자주: 『그리스도인 침례자』는 알렉산더 캠벨이 1823년부터 1830년 5월까지 7년간 발행한 잡지이다. 1830년 1월부터 1866년까지는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지가 캠벨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1826년 10월호, 제4권, 53쪽.

(6) 1826년 8월 스펜서 클락(Spencer Clack)에게 보낸 서신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의 죄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것도 반대할 것이 없다. 본인은 모든 분열과 현존하는 모든 당파심을 진심으로 개탄한다. 그리고 만약에 본질적인 토대 위에서(constitutional grounds) 모든 분열들을 고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것 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이 대륙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도보로 수백 마일을 걸어서 그 분을 만나 뵙고, 나의 과오를 고백하겠다.” 제5권, 15쪽.

(7) 오웬과 토론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 저녁에, 1829년 4월 6일, 제6권, 239쪽, 그 위기를 암시하면서 본인은 말한다. “모든 교단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소원과 기도와 소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기뻐한다.” 그래서 수차례 『그리스도인 침례자』지에 언급하였다.¹⁴⁾

(8) 이 주제에 관한 『천년왕국 예고자』지의 견해들은 「회복된 기독교」(Christianity Restored)란 제하의 글들 속에 농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방침들에 관련된 견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할 기초에 관해서」(of the Foundation on which *all Christians may form one communion*)란 제하의 글들을 참고하시오.

(9)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한 기초에 관한 긴 기사가 실린 그 책에서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입증이 될 101쪽부터 128쪽까지의 내용 전체를 추천한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일컬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어느 날 한 곳으로 모을 중축(中軸)이라고 말하고 있다(102쪽). “교파들이 정말 그치겠는가? 한 주님아래, 한 믿음 안에, 한 침례 안에로 모든 제자들이 연합될 때가 정말 오겠는가? 분열들

14).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들께서는 『그리스도인 침례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독립 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에 회신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기 바란다.

이 정말 치유되겠는가? 지상의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 정말 그치겠는가?”

(10) 첫 중간호 혹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유아세례자들의 기독교의 허약함으로부터 “이 구원을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는 자들, 죄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거나 거절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정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복음에 관한 그들 자신의 정의에 따라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한다. 제1호, 『임시 중간호』, 제1쇄, 53쪽.

이와 같은 열 개의 증거들과 논박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이 입장을 바꿨다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들을 매우 확실하게 오해하지 않았는지를, 본인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열 개의 증거들을 우리들이 손쉽게 백 가지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2. 이제는 우리의 견해를 교과주의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변호 하겠다.

(1) 우리의 견해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위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해가 침례를 받지 아니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도 전혀 죄사함이나 구원의 확실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근거해서, 침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견해에 대해서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견해를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견해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완강하게 또 자발적으로 잘

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수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견해에 의해서, 그는 그것에 숨겨진 어떤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된다. 그의 기쁨은 진정으로 그를 반대하여 강하게 추정되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느낌들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올곧은 마음 즉 그 견해를 심사숙고해 볼만한 그런 마음은 적어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제에 관해서 자기 자신들과 어떤 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혀 사전지식 없이 자신들이 침례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만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일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뿌림을 받고, 부음을 받고, 물 속에 잠김을 받은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뿌림을 받거나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성(다른 모든 것들은 동등하다 할지라도)과 처음부터 믿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따라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동등한 것이 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인간의 부족한 추론과 견해를 가질 뿐이지만, 후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구세주와 재판장의 확실하고 무오한 약속을 갖고 있다.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싫어서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유아 혹은 성인 때의 뿌림이나 부음의 세례를 주께서 인정하실 것이라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는 문제가 된 그 견해를 심사숙고하는 마음의 상태가 옳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과 하나님의 뜻과 즐거움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임을 입증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호감 가는 견해도 가질 수 없다.

(2) 그러나 전술한 견해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지와 과오와 무시에 대항하여 벌리는 논쟁으로부터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그 사람이 그 주제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충분한 범위에까지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고, 또 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회들을 따라서 그가 태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견해의 말 때문에, 오로지 의심하는 자, 혹은 그의 침례가 사도적

이고 신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당화되지 못하며, 스스로 정죄된다.

(3) 신약성서의 모든 진보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유대인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제도의 최상의 가치와 우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향, 상태, 그리고 특성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지성적으로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만큼 칭의나 죄사함에 관한 확신을 완전하게 갖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은 침례 받은 사람들에 의한 것만큼, 다른 모든 것은 동등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히 결단코 즐겨질 수 없다.

(4) 또 모든 교파가 동의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기독교계의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침례의 방법으로서 어떤 다른 행동의 가능성을 인정할 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협동을 위해서, 신성한 제도를 존중하며, 길을 개방하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란 점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그 밖에도, 침수세례는 예수의 우주적인 왕국에서 타고난 시민의 권리를 수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과 함께, 그들 자신들이 재판장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세례”가 단지 그 왕국의 일부 지역들에서만 시민의 권리들을 수여한다. 침례에 관한 한, 동방교회(the Greek), 가톨릭교회(the Roman), 성공회(the English), 루터교회(the Lutheran), 칼뱅주의(the Calvinian), 아르미니안주의(the Arminian), 그리고 침례교(the Baptist) 공동체들이 침수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오직 일부분만이 뿌리거나 붓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도 침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단지 행하는 것으로 만

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향도 아니고, 특성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시킨 그 견해의 본질에서 개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어떤 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의 공언이 기독교 제도 속에 있는 침례의 가치에 관해서 지지 혹은 모독하기 위한 논쟁을, 혹은 예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중요성과 필요성의 논쟁을, 혹은 전능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한 유명한 선지자의 요구에 지체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치게 하는가?

3.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개진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신교 교단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문제에 관해서 이 글이 실린 최근호에서 인용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한 자매로부터 간청을 받았다. 그녀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거나 그 내용에 강하게 반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질문 목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이 그녀의 모든 질의에 무슨 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질의들에 대해서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본인 생각에 전술한 내용에서 그녀가 느꼈을 난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는 이 자매가 가진 난제들보다도 일부 형제들이 가진 편견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될 더 화급한 이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타교파를 비난하고, 그들을 통틀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외인들로서 또는 적그리스도적이며 부패한 집단으로 단정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자, 주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본인은 호기심이 강한 이 자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주 열렬한 이들 형제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중의 모든 사적이고 사회적인 덕행들을 알보면서, 우리가 침례를 구세주로 만든다든지 혹은 천국 가는 여권으로 만들고 있다는 교계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므로, 본인은 그들 자신의 것만큼 강하고 신랄한 말로 그들에게 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좌익에서 중도로 이끌고자 했다.

그 경우는 이렇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형제우애, 동정, 그리고 활동적인 자선행위는 그의 상황들 말고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집회 때마다 그의 자리는 결코 빈 자리로 남아 있지 않으며, 그의 내적 경건과 헌신은 알려진 모든 책임에 세심하게 복종함으로써 증명된다. 그의 가족은 주를 경외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고, 그의 항구적인 친구는 성경이다: 어떤 사람이 결코 문의는 하지 않았으나, 그가 성서적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덕행들이 크게 부족됨으로서, 그의 주된 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침수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복음에 관한 성서적인 이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간주했기 때문에, 이교인이나 세리로 분류된 그와 같은 사람을 본인이 볼 때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고픈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를 그의 잘못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명령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보는 교파교단의 가장 훌륭한 신자를 인도하는 대신에, 나의 침수세례 형제에게 바울이 그의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겠다. 그 유대인은 그가 만들지 않았던 한 체계를 찬양하였다: '선생님, 그의 무할레나 무침례가 그에게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신이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당신의 왕의 성문울을 범하거나 태만히 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3) 우리는 세 번째 이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과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왔다. 본인은 과거 일 이년간 이 인상을 지우려고 애썼다. 본인이 아는 것은, 백 명의 형제 중에 한 명 정도가 낚새를 채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 관해서 본인은 더욱 서슴없이 개신교주의를

방어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 진술하려는 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우리가 억지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려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것과 그들이 일컫는 대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컫는 대로, 그들이 이 커다란 “분열”의 원인이란 점을 개신교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자, 이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펼쳐 보였으니, 그가 양보라고 주장했던 것의 의미를 검토해 보자. 그리고 본인이 먼저 묻겠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위기의 때에 분열을 만들도록 야기시킬 수 있었는가? 혹은 매우 강하게 그것을 반복하자면, 본인은 좀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논쟁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게 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논쟁에서 잃은 것이 없다. 완벽한 자유의사에 따른 제시에 대해서는 “양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동의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위치를 부러워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들의 기반을 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처럼 단순히 우리를 새로운 교파로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래적인 복음적 제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개종자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랄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는다. 믿음,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양자 됨과 하늘의 부르심의 모든 약속들은 교파교회의 강단과 지푸라기 즉 통곡의 벤치, 근심의 자리, 그리고 회심을 이끌어내는 다른 모든 현대식 방법들(paraphernalia of modern proselytism)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그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또한 이론적이라는 점은 개신교 교단들의 가장 분별력 있고 믿음이 깊은 부분들에 앞서는 전례 없는 진보들의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매우 착실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신약성서 교회를 부르짖는 우리와 같은 교파는 이 땅이나 조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모든 주와 이 거대한 연방제 영토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조차도 매우 성공적으로 알려졌다.

모든 반대 조직들에 대항해서 총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부족한 모든 것은 충분한 수의 지적이며 일관된 주창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험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많은 체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위선 그리고 사악함 때문에, 그리고 일부 선한 형제들의 경솔함과 경거망동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이 매우 만족스럽게 증거 하는 바와 같이, 해마다 지탱해왔고 점증하는 부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고 배타적인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양보하는가? 우리가 그와 같이 육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다른 교파에도 구원의 가능성 있다고 양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견해의 신선한 이 모든 사실들과 논리적 근거들로서 본인은 묻는다. 그와 같은 양보가, 즉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 따른 제시가, 기독교계에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비방에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대답할 수 없는 논박이 아닌가? 몇몇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양보를 했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과당심이 강한 견해들과 감정들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비난과 질책에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에) 침묵을 지켜야 할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그와 같은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

동료 사역자들의 일부분은 친근책(approaches)이 질책(reproaches)보다 더 주님의 방식에 부합되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호의적인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화친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며,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게 입증했다. 많은 개신교 교사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들과 연합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성서 하나에만 이르게 되는 때는 언제든지 확실히 우리들에게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된다. 침례교인

들과 유아 세례자들도 개혁의 필요성을 날마다 점점 더 느끼고 있고, 우리의 견해가 해마다 대중의 마음을 점점 더 확실히 사로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버지니아주 동부에 사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견해의 매우 강한 표현을 적어도 이 때에 이끌어 내야할 호기를 맞았다. 그리고 전술한 견해에 관해서 우리는 현재 사분의 일 정도의 많은 서신들을 그 지방에서 받고 있다. 그들 중에 일부가 크고 불합리하게 교파들을 악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부 몇몇 다른 지역에서 몇몇 사람이 기독교를 보편적인 성결에 좌우되기보다 침례에 더 좌우되게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와 방법으로 루넨버그 자매에게 회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네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1. 신약시대 특히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 말의 본래적이고 성서적인 뜻을 엄격하게 배려한다면, 본인이 좋아하고 종종 언급했던 정의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다.¹⁵⁾

2. 그러나 그 말의 전국적이고 매우 인기 있는 의미는 다만 기독교의 신앙고백자(professor)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교나 이슬람교 국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 정치집단이나 철학의 학파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교파들이 있다.

3. 그러나 새롭고 특별한 혹은 적절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입는 방법과 수단에 관해서 혹은 그의 종교적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논쟁들이 발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 속에 장사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15). A Christian is one that habitually believes all that Christ says, and habitually does all that he bids him.

믿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그러나 본인이 사용했고, 루넨버그 자매가 처음 문제삼았던 문구 속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대로, 일부는 신앙고백을 바로 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잘못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Adam Clarke)는 어떤 시 구절을 인용한다.

모두가 선포하는 너 다른 교파들이여,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시다!
너의 강한 증거들이 신성하게 수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자, 이런 내용대로라면, 대개의 개신교 교단 속에는 내가 바라건대 주께서 용서하실 실수나 과오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지상 왕국의 모든 축복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할지라도, 본인은 그들이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즐거이 기대한다.

유대인, 이스라엘, 할례, 제자와 같은 말들은 성경 속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¹⁶.-“진실로 이스라엘인”-“참된 할례”-“이면적 또는 표면적 유대인”-“그러면 진실로 너희가 나의 제자이다,” 등.

우리의 형제들이 올바른 방법이라면 애써 지키려하고, 식별력 있고, 매우 독립적인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그들은 성서적인 이름들에 따라 성서적인 것들을 호칭하는 습관이 매우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그들은 그 말을 가장 엄격하게 성서적인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뜻에 따라서 그 말을 사용했던 본인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16). 역자주: 로마서 9장 6절.

본인은 마지막만큼 쉽게 처음에도 우리 자매의 질문에 이런 회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그 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요구됐던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본인은 잘못되지 않았다. 본인이 이 안에서 더 유용하고 유익한 과정을 추구했던 모두에게 그것이 아직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본인의 의견으로, 우리의 동부 형제들은, 그들이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거의 갖기도 전에, 그들 자신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성급하고 다급했다. 그들이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신속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인은 매우 자주 이름이 거명된 훌륭한 자매가 거론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은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고,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누가, 모두는 아니고, 이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해설을 수반하는 글들을 신기를 원한다면, 본인은 계획에 따라 그것들 중에 일부를 출판할 의무를 진다.

본인은 그들이 성급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진정으로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시간 너무 늦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한 시간 매우 빠르게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몇 가지 해결책들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미숙했다고 생각한다. 거룩한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며, 그들에게 모든 일에 깨우침을 주시기를!

알렉산더 캠벨(A. C.)

스톤-캠벨운동의 분열사

A History of Schisms among Christians(Disciples)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조동호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스톤-캠벨운동만으로 따진다면, 이 운동은 3세기 쯤에 들어서 있고, 오켈리와 라이스 해거드의 공화감리교회운동 등을 포함하면 4세기 쯤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햇수만으로 따진다면, 2백년이 조금 넘었다. 그 운동의 절반이자, 20세기가 되는 1900년에 스톤-캠벨운동은 미국인구 증가율의 두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여 한 해 동안 무려 1천 개 교회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교회가 한 주에 거의 20개씩 증가한 셈이다. 만일 뒤따른 분열이 없었다면, 50년 후인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미국에서의 교인수가 4천에서 6천만 명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900년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진 분수령(1906년)에 몇 걸음만 남긴 해였다.

조직은 뭉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뭉치면서 발전한다. 흥망성쇠에서 흥성(興盛)은 뭉칠 때이고, 망쇠(亡衰)는 흩어질 때이다. 그렇다고 조직의 분열이 반드시 망쇠의 길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열은 분가(分家)와 같아서 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통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분열이지만, 좋은 분열은 자식이 분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오늘날 교계에서 쓰는 '연합'이란 말은 교리와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교리와 신념들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연합이다. 일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합도 중요하다.

A. 1906년까지의 분열

1906년은 스톤-캠벨운동(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출범한지, 대략 100년 만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쪼개진 해이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이 '제자들'이란 말을 선호하고, 발톤 스톤(Barton W. Stone)과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애브너 존스(Abner Jones, 의사)와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는 '그리스도인'을 선호하였지만, 스톤-캠벨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줄여서 '제자들'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악관자료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종교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가필드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이란 뜻이 아니다. 그는 알렉산더 캠벨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개인적으로 "제자들"(Disciples)을 선호하였지만, 공식적인 호칭에서는 "그리스도인"(Christians)을 썼다. 예: 그리스도인 침례, 그리스도인 침례자, 그리스도인 체계 등.

1. 스톤-캠벨운동은 초기부터 분열 속에서 발전하였다.

첫째, 스톤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결성했다가 1804년 6월 28일 해체를 선언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of Springfield Presbytery)에 서명했던 5명 가운데 스톤만 남고 4명은 떠났다. 리처드 맥니마(Richard McNemar)와 존 던래비(John Dunlavy)는 1805년 봄에 서부에 파송된 셰이커교도(Shaker) 선교사들과 접촉한 후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셰이커 교도가 되었다. 이후 규정집의 채택을 요구한 존 톰슨(John Thompson)과 로버트 마셜(Robert Marshall)이 이를 반대한 스톤과 결별하여 1811년 3월 장로교회로 회귀함으로써 스톤만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둘째, 캠벨의 '제자들' 운동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보다 신약 교회로의 환원에 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부친 토마스가 1809년에 『선언과 제언』을 발표할 때만 해도 아들 알렉산더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부자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겼다. 1809년 8월 17일 창립된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는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교회나 교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1811년 5월 4일 브러쉬런에서 4명의 집사와 함께 토마스를 장로로, 알렉산더를 설교자로 선출함으로써 교회로 전환하였고, 1815년 가을에는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1823년에 알렉산더는 동 협의회에서 탈퇴하고 웰스버그 교회(Wellsburg Church)란 이름으로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여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를 발간하였다. 1812년에는 약식세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침례를 받았으며, 1816년 "율법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적은 토마스가 추구했던 연합에서는 멀어지고, 신약교회회복에는 다가서는 것이었다. 40대 말이었던 부친 토마스는 신약교회회복이라는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20대 초반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그의 뒤로 물러섰다. 교회연합을 추구했던 토마스는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인 브러쉬런 교회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알렉산더는 1830년에 침례교단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탈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끌었다. 침례교회로부터 밀려난 것은 알렉산더와 그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제자들'에게는 기회였다. 이처럼 두 개의 환원의 이상인 일치와 환원은 처음부터 갈등을 겪었다.

셋째, 시드니 리그돈(Sidney Rigdon)은 1825년 초에 캠벨의 「그리스도인 침례자」에 실린 32개의 시리즈 기사, "옛 질서[사도적 전통]에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영향을 받고 캠벨의 신약교회 운동에 합류하여 큰 힘을 보탠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지속성과 공산주의식 공동체를 주장함으로써 캠벨과 충돌하였다. 결국 그는 1830년 10월에 네 명의 모르몬교 선교사들을 만난 후, 1844년까지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의 가장 영향력 있는 측근이 되었고, 여러 회중들을 모르몬교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1844년 일리노이 주 카르타고에서 스미스가 군중들에게 살해된

후, 브리검 영(Brigham Young)과의 주도권 쟁탈에서 밀려나 생애 마지막 26년을 불행하게 보냈다.

넷째, '다섯 손가락 시연'의 복음전도자로 유명세를 탄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는 전천년설과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휴거설을 지지함으로써 캠벨과 갈등을 겪었다. 스코트는 스톤-캠벨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름을 쓸 것인지, "제자들"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코트는 캠벨이 자신을 환원운동권내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고 있으며, 옛 복음(사도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에 끼친 자신의 역할이 적절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스코트는 밀러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1842년 10월에 "그들이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다"며 꾸짖었다. 그러자 캠벨은 1843년 1월에 "지성과 영향력이 남다른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밀러의 사색에 빨려들었다"고 탄식하였다. 밀러의 휴거설에 대한 1차 예언(1843년 3월 21일)과 2차 예언(1844년 10월 22일)이 모두 빗나가자, 월터 스코트는 캠벨보다 한층 더 후천년설의 지지자가 되었다. 1830년에 시작한 「천년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보듯이, 캠벨은 스톤-캠벨운동이 새천년 왕국을 이 땅에 개방하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캠벨의 「천년왕국의 선구자」와 함께 스톤의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은 이들 초기 개혁가들의 후천년설적인 역사인식을 들여다보게 하는 제호들이다.

다섯째, 뉴잉글랜드 주에서 침례교인 애브너 존스와 엘리야스 스미스는 '그리스도인 연맹'(Christian Connection)을 설립하여 그리스도인들 운동을 펼쳤다. 특히 스미스는 자신이 1808년에 창간한 「복음 자유의 전령」(*Herald of Gospel Liberty*)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성서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에서 건너온 교단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년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제임스 오켈리의 '그리스도인들'(1794)과 발톤 스톤의 '그리스도인들'(1804)이었다. 오켈리와 라이스 해저드(Rice Haggard)는 감리교 목회자들로서 감독 애즈버리

(Asbury)의 독재에 반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매나킨타운(Manakin Town)에서 1793년 공화감리교회를 조직하였으나 새로운 교단이 교회분열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교단들에 또 하나의 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겨 1801년에 해체하였다. 그들은 신약성서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에 충분함으로 더 이상의 신조나 규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이외에 교회의 머리가 없으므로 회중정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뉴잉글랜드 주 버몬트에서는 1800-1803년에 침례교인 애브너 존스가 뉴햄프셔에서는 침례교인 엘리야스 스미스가 '그리스도인' 이외의 다른 이름과 성서이외의 어떤 법규도 부정하였고, 켄터키 주 버본 카운티 케인 릿지에서는 발톤 스톤이 1804년에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으며, 그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라 칭하였다. 1810년에 이들 그룹들은 자신들이 하나임을 선언하였고 지지자들이 2만 명에 달하였다. 그들 교회의 명칭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였다. 그러나 1817년에 엘리야스 스미스는 만인구원론자가 되어 떠났고, 애브너 존스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뉴잉글랜드 그리스도인 연맹'(New England Christian Connection)의 교회를 세웠다. 1832년 1월부터 스톤의 서부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오하이오 벨리의 캠벨-스코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시작하였을 때, 동부지역의 오켈리와 존스-스미스 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동부지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회심)체험, 연4회 주의 만찬 시행, 반(反)삼위일체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캠벨-스코트 운동과 갈등을 빚었다. 같은 이유로, 스톤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절반정도가 캠벨과의 합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연합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의 매튜 가드너(Matthew Gardner)였다. '그리스도인 연맹'은 1931년에 회중교회와 합병하여 '회중 그리스도인의 교회'(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가 되었고, 1957년에 '복음주의 개혁교회'(Evangelical and Reformed Church)와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가 되었다. 오늘날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합병을 전제로 많은 부

분에서 연합하고 있다.

2. 스톤-캠벨운동은 이탈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연합세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환원의 이상과 호소들은 일치 조건을 재고시켰다.

첫째, 스톤의 그리스도인들과 캠벨의 제자들이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만난 것은 1831년 12월 31일 힐 스트리트(Hill Street)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였다. 이 무렵 스톤의 운동은 '그리스도인 연합(union of the Christians)'이었고, 캠벨의 운동은 '개혁자들'(Reformers) 혹은 '제자들'(Disciples)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 인물은 존 로저스(John Rogers)였고, '제자들'을 대표한 자는 "라쿤(너구리)" 존 스미스(John Smith)였다. 이날 모임에서 연합을 강조한 스미스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는 후 스톤이 몇 가지 코멘트만을 한 다음, 양측의 대표들이 악수를 나눔으로써 역사적인 스톤-캠벨운동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이 두 진영의 교회들 사이의 연합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존 스미스와 존 로저스는 여러 해 동안 함께 교회들을 순회하였다.

둘째, 1830년에 캠벨의 제자들이 침례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1832년 1월 1일부터 스톤의 그리스도인들과 합류하기 시작한 스톤-캠벨운동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고, 선교증진을 위해서는 교회들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849년에 신시내티에서 창립된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ACMS)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선교를 위한 조직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선교회 조직은 강제성을 띤 조직이 아니었다. 편의성과 견해의 문제였고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었다. 개 교회가 선교회를 후원하고 안하고는 자유였다. 하지만, 선교회조직에 대한 반발이 이듬해인 1850년에 악기사용(예배 때)과 함께 터져 나왔고 논쟁으로 이어졌다. 논쟁은 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경계하는 보수주의와 지나친 개인주의와 파벌주의를 우려하는 진보주의로 갈라졌다. 진보주의자들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사역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보수

주의자들은 회중의 권위를 위협하는 비성서적 조직은 미국의 개척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은 지역교회 이외의 조직은 그 어떤 것도 성서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와중에 ACMS가 1863년에 연방군(북군)을 지지하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FCMS)가 조직되었다. 연이어 '교회 확장 위원회'(Board of Church Extension), '전국자선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목회 구제 위원회'(the Board of Ministerial Relief)와 같은 선교단체들(agency)과 선교회들(societies)도 설립되었고, 이로 인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불화는 1906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고 심화되었다.

셋째, 1892년 가을 예일대에서 수학하는 5명의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조직을 하나 만들자는 뜻을 모았고, 이들 대부분이 시카고대학으로 옮겨 학위과정을 밟고 있었다. 1894년에 시카고대학에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이 세워져 시카고대학 신학원에 재학하는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에게 숙식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단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1896년 10월 19일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14명의 창립회원들로 캠벨교육기관(Campbell Institute)을 세웠다. 이는 과거 25년간 큰 대학교들에서 진행된 신지식, 즉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산물인 성서비평과 재해석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톤-캠벨운동을 현대신학의 결과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캠벨교육기관이 설립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캠벨교육기관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톨버트 패닝, 데이비드 립스콤, 모세스 라드(Moses E. Lard), 다니엘 서머(Daniel Sommer) 등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분리시킬 명분을 제공한 셈이었다.

넷째, 불화의 중심에는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1850년에 접화된 이 불화는 190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끈 데

이비드 립스콧과 몇몇 지도자들이 미국 종교인구조사국에 무악기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들’(the Churches of Christ)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열의 방점을 찍었다. 동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몇몇 지도자들도 미국 종교인구조사국에 요청하여 남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the Disciples of Christ)이란 명칭아래 열거시킴으로써 스톤-캠벨 운동은 출발한지 1세기만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졌다. 그러나 처음 1세기 동안은 여러 쟁점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매력적인 환원의 이상과 호소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3. 스톤-캠벨운동권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들은 우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당파성(편가름)을 강화하여 분열을 낳았다. 우파 개혁가들이 촉발시킨 분리는 거짓 연합(평화)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신학적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성서가 침묵하는 것, 성서가 명령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을 신앙과 실천의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비 본질로 보아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여기서 데이비드 립스콧과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는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은 비 본질로 보아 허용(자유)을 주장하였으며, 에레트의 허용의 범위를 개리슨(J. H. Garrison)과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는 침례에까지 확대시켰다. 벤자민 프랭클린, 톨버트 패닝, 데이비드 립스콧, 모세스 라드, 다니엘 서머 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예배 시 악기 사용, 선교회, 주일학교 등을 본질로 보아 엄격하게 금지한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 본질로 보아 허용하였다. 여기에 노예제도문제와 남북의 문화사회적 갈등까지 더해져 1906년에 스톤-캠벨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졌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다. 1968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을 채택한 진보진영은 비 본질의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시켜 성서비평, 열린 회원제, 에큐메니즘, 교단재구성 등의 좌파적인 행보로 환원정신을 버리고 연합에 치중하였고, 1920년대 말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보적인 행보에 환멸을 느껴 그들로부터 독립한 보수주의 중도파들은 비 본질의 범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다.

둘째, 스톤-캠벨운동의 두 가지 이상은 환원과 일치 또는 연합과 환원이다.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렵듯이, 환원과 일치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는 과거 2천년 동안 진리의 내용을 공동체의 울타리의 폭과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도구(test of fellowship)로 삼아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진영은 연합이란 말보다 일치란 말을 선호해왔다. 연합이 자기 울타리 바깥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치하는 울타리 내부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의 일치를 의미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모세스 라드(Moses Lard)로서 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형제'를 침수세례자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연합보다는 환원을 통한 일치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근본주의에 가까우며,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는 환원보다는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즉 정의, 평화, 창조보존(PIC)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진보주의에 가깝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에 목표를 두고 있는 보수주의에 가깝다.

셋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일리노이즈 주, 셸비(Shelby) 카운티, 샌드 크리크에서 1889년 8월 18일 주일 오후에 선포된 "제언과 선언"(Sand Creek "Address and Declaration")이다. 이 성명서는 「옥토그래픽 리뷰」(*Octographic Review*)의 편집자이자 보수 중에 보수였던 다니엘 서머(Daniel Sommer)의 주도아래 샌드 크리크 교회 장로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신제도들의 도입을 지지하는 형제들로부터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신제도들에는 성가대, 선교회, 유급지역교회설교자, 주일헌금 이외의 기금모금 등이었다. 이날 주장사로 나선 다니엘 서머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인위적인 이름(조직)들을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신제도들의 수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간주할 수도 없고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연합을 주창한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에 상반된 선언이었다.

넷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또 다른 사례는 예배 때의 악기 사용에서 나타났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복음전도자이자 사업가였던 조셉 클라크(Joseph Addison Clark)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 애디슨(Addison)과 랜돌프(Randolph)가 있었다. 그들은 1871년에 쏘프 대학(Thorp College)을 매입하여 1873년에 ‘애드런 남녀공학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20년 후 이 대학은 학생수가 445명이었다. 이 무렵 텍사스의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 악기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불화가 심화된 때였다. 이 논쟁은 부자지간인 조셉과 애디슨까지 갈라놓았다. 부친 조셉은 무악기파로서 1893년 10월 26일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에 악기도입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그러나 아들 애디슨은 악기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1894년 2월 애드런 대학 전도 집회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오르간 사용을 허용하였다. 2월 20일 애디슨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 때 오르간 반주자가 반주를 하려고 오르간 앞에 앉아있었다. 이에 부친 조셉은 아들 애디슨에게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하였고, 아들은 거절하였다. 그러자 78세의 조셉 클라크는 140여명을 데리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한다. 결국 악기 사용을 찬성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아카펠라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 불화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하여 대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교리적인 면에서 보여준 사례로는 아이작 에레트와 모세스 라드에게서 나타났다. 1862년에 아이작 에레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개요”(A Synopsis of the Faith and Practice of

the Church of Christ)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1870년에는 “우리의 입장”(Our Position)으로 제목을 바꿔 출판하였다. 이것은 스톤-캠벨 운동의 주요 신앙들을 10개 항목으로 기술하고, 에레트가 당시 설교했던 디트로이트의 제퍼슨 애비뉴(Jefferson Avenue)와 보빈 스트리트(Beaubien Street) 교회의 회칙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부임한 회중에게 환원운동의 주요 교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성서의 권위; 신약성서 용어로 진술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사실들”은 진정한 기독교종교의 본질이 됨; 침례의 전제조건으로 믿음과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침수에 의한 세례,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요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에레트는 자신이 쓴 “믿음의 개요”가 신조가 아니며, 단지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우리의 신앙과 목적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조가 아니라는 분명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향력을 가진 편집인들은 에레트와 그의 “믿음의 개요”를 공격하였다. 1863년 9월, 모세스 라드(Moses Lard)는 “40년 동안 분열적이고 악한 신조들의 성향에 반대하여 일해 왔던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을 야기하는 에레트를 비난하면서 그의 「계간지」(*Quarterly*)에 그 논문 전체를 다시 실었다. 라드는 그것은 표지 없는 신조, 즉 “풀밭 속에 있는 진짜 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레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무시하였다.

여섯째, 남북전쟁은 스톤-캠벨운동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 총부리를 겨눠야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반전내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ACMS)가 1863년에 북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전후에 공화당원으로서 하원의원과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는 알렉산더 캠벨과 가까운 사이로써 북군으로 참전하여 소장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가 지휘한 연대에는 그가 모병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의 단점은 남부에 대한 강한 반감에 있었다. 마지막 통나무집 출신이었던 가필드는 대통령이 된지 200여일 만에 역시 통나무집 출신

이었던 링컨에 이어 두 번째 피살자가 되었다. 반면에 발톤 스톤의 아들, 발톤 스톤 2세는 남군으로 참전하여 대령에까지 올랐고, 복음 전도자 존 알렌 가노(John Allen Gano)의 아들 리차드 M. 가노는 1863년 말 준장으로 제대 후,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일곱째, 1830년 미국의 인구는 대략 1,28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노예가 2백만 명 정도였다. 스톤-캠벨운동권내에서 남북전쟁이나 노예제도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분열을 가속시킨 많은 요소들의 일부였던 것은 사실이다. 노예제도와 궁극적으로 남북전쟁 자체에 대한 논쟁은 악화되고 있는 이념적 문화적 요소들의 일부였으며, 그것들은 메이슨-딕슨 선(Mason-Dixon Line: 남북전쟁이 임박하면서 오하이오 강과 함께 남부의 노예주와 북부의 자유주를 나누는 경계선)의 전역에서 스톤-캠벨 교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분열을 한층 가속시켰다. 그만큼 노예제도를 놓고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것이다. 노예폐지론자들 중에는 버틀러 대학교의 설립 총장이었던 오비드 버틀러(Ovid Butler) 변호사와 토마스 캠벨(Thomas)의 넷째 딸 제인이 있었다. 버틀러는 알렉산더 캠벨과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가 스톤-캠벨운동권의 분열을 막으려고 노예제도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크게 반발하였다. 그는 1859년에 강경한 노예폐지론자였던 캔자스 주 선교사 파디 버틀러(Pardee Butler)를 지원하기 위해 「복음 발광체」(*Gospel Luminary*)의 편집인 존 보그스(John Boggs)와 연대하여 ‘노스웨스턴 그리스도인 대회’(Northwestern Christian Convention)를 소집하여 별도의 ‘그리스도인 선교회’(Christian Missionary Society, CMS)를 조직하였다. ACMS의 회장이었던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가 파디 버틀러에게, 만약 그가 노예철폐에 대한 설교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이에 버틀러는 ACMS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대항해서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섰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861년에 ACMS가 비공식적으로 연방군(북군)을 지지할 뿐 아니라, 1863년에 남부지역사람들을 무장한 배신자로 비난하는 강한 결의문을 통과시키자, CMS을 해산하고 ACMS와 통합하였다.

CMS의 짧은 생존은 노예제도와 남북전쟁이 스톤-캠벨운동에 끼친 악영향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인은 남편 매튜 맥키버(Jane Campbell and Matthew McKeever) 및 시대 식구들과 함께 노예탈출을 돕는 비밀조직(underground railroad)의 안전가옥(stations)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베이컨대학, 미주리대학교, 컬버-스톡튼 대학(Culver-Stockton College)에서 학장과 총장을 지낸 제임스 새넨(James Shannon)은 노예제도를 성서적이고 사도적이라고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4.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일치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비제도(noninstitutional) 교회들에 소속된 데이비드 에드윈 하렐 2세(David Edwin Harrell, Jr.)는 분열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취한 교리적 입장들은 신약교회 회복(환원)에 대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남부 시골 교회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상황과 남북전쟁 및 지역 파벌주의가 그들의 특질(ethos)을 형성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 빌 험블(Bill J. Humble)은 선교 회논쟁에서 이슈가 지역 당파성을 강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에 남북전쟁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파벌적 이슈들의 쟁점이 환원운동의 이상인 일치와 환원의 대립관계였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표는 일치보다는 사도적 교회의 복원이었다.

셋째,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마친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는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란 학명을 처음 자신의 책 제목(1981)에 사용한 인물로서 일치보다는 환원이 스톤-캠벨 운동의 최우선의 신학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반발하면서 캠벨의 강조가 일치의 끈으로써 사도전통의 본질들 위에 있었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비본질 항목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리로이 개리트, 리처드 휴즈(Richard Hughes), 게리 홀로웨이(Gary Holloway), 더글라스 포스터(Douglas A. Foster)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학자들은 점차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B. 1906년 이후의 분열

1906년에 스톤-캠벨운동(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진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 다시 1968년에 완전히 두 지류,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와 그리스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로 갈라졌다. 그밖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한 컵(One Cup)교회와 같은 그룹들이 새로 파생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펠로십(Christ's Church Fellowship)이 파생되었다.

1.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내부 분열

첫째,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만3천여 개이고, 교인들은 1백3십만 명 정도이다. 그 가운데 1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60개, 5백에서 1천명 사이의 교회가 250개이다. 교회들 가운데 주류에 속하는 그룹이 전체 교회 수의 75 퍼센트, 전체 교인 수의 87퍼센트를 차지한다. 나머지 교회들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실제적 관행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소그룹은 1960년대에 분리된 비제도(Noninstitutional) 교회들로서 2,055개의 교회들을 차지한다. 그들은 교회이외의 모든 선교단체들과 시설 및 특수 사역을 거부하는 극단에 빠짐으로써 주류 그리스도의 교회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주류 교회들과 비제도 교회들의 분열은 1950년대의 변화된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서 분파적이고 종파적인 기질을 보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양상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도시교회들은 상향지향의 중산층 대학졸업자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출

석하는 교회의 능률과 위상을 높이려고 힘썼다. 수백채의 예배당들이 신축됨으로써 확신에 찬 새 이미지와 자부심이 넘쳐났고, 신구제도들의 진흥, 선교후원, 미디어선교가 이뤄졌다. 반면에 비제도 교회들은 이 전환기에 스톤-캠벨운동에서 가장 갖지 못하고 가장 배우지 못한 계층에 주로 흥미를 끌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일어난 1963년의 분열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노선에 따라서 이뤄졌다. 두 번째 소그룹은 1,100개의 교회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예배 이외의 모든 분반활동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성인들과 함께 공동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세 번째 소그룹은 한 컵(One Cup) 교회로서 550개의 교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분잔에 반대한다. 또 일부 교회들은 분반활동에도 반대한다. 네 번째 소그룹에는 130개의 교회들이 속해 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대부분의 설교를 맡아하는 것에 반대하며, 교회 내 다양한 지도자들이 상호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네 개의 소그룹들은 규모면에서 작은 교회들이고, 대부분 다른 그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1993년에 갈라져 나온 피라미드식 위계체제 하에서 담당 훈련파트너에게 절대복종케 하여 제자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다.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430개의 교회들과 교인 수 135,000명을 갖고 있다. 플로리다 주 게인스빌(Gainesville)에 소재한 크로스로드즈(Crossroads) 그리스도의 교회의 척 루커스(Chuck Lucas)의 캠퍼스사역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의 제자 킵 맥킨(Kip McKean)이 1979년 매사추세츠 주 렉싱턴(Lexington)으로 옮겨가 시작한 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을 따서 '보스턴 운동'이라 불린다. 이 운동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침투해서 교회 내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스턴으로 가서 재침례를 포함한 '개조'(restructuring)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주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의 차이점들로는 피라미드식 위계구조, 훈련파트너에 대한 절대복종, 여성들을 섬기는 여성들의 사역, 예배 때 악기사용, 타 그룹 불인정 등이다.

셋째, 19세기말의 재침례 논쟁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부에서 있

있던 것이었지만, 1906년의 분열뿐만 아니라, 1993년의 내부 분열로 까지 이어졌다. 이 논쟁은 1890년대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의 「확고한 터전」과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의 「복음 주창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갈라서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스틴 맥게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침례를 받아야 옳은 침례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배푼 침례까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침례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립스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상관하지 않았고, 재침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침례교회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 교단에 가입하기위한 침례라면, 그것이 비록 침수세례일 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립스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스틴 맥게리를 비롯한 재침례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행하는 침례를 침례교회와 같은 타 교단에서 행하는 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싸잡아 비난하였다.

넷째, 이밖에도 세대주의 천년왕국설, 어린이집, 양로원, 캠퍼스사역, 체육관, 식당설비, 방송선교, 구제와 섬김 센터들에 대한 반대,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컨템퍼러리 예배, 성령의 은사 등으로 내부 몸살을 겪어왔다. 일찍이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코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령론에 동료 로버트 리처드슨(의사)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고, 그의 베다니대학의 제자 러셀(W. S. Russell)은 성령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캠벨을 비판하여 비난을 산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스톤-캠벨운동은 은사적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1960년대를 휩쓴 은사적 현상들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젊은이들은 내슈빌,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에빌린기독교대학(ACC), 네브래스카의 요크(York)대학, 아칸소 주 서시(Searcy)에 있는 하딩대학 등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였다. 1970년대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가수

팻 분(Pat Boone)은 은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돈 핀토(Don Finto)가 설교했던 내슈빌 소재 벨몬트(Belmont)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는 다양한 사람들도 팻 분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런 움직임들은, 비록 전체 성도들의 약 5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대학관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 대부분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은사주의자 교회로 떠나갔다. 일부 대학생들은 오랄 로버트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나 리전트대학교(Regent University)로 전학하였다.

2.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68년에 진보진영의 교회들이 가칭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이름으로 교단을 재구성하였고,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192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진보진영의 교회들에서 빠져나와 독립교회의 형태를 취하다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란 교명을 쓰지만, 더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교회란 교명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중도를 표방하며 독립파로 불린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갈라선 것은 신학적 이유보다는 도농(都農)간 격차, 노예제도문제, 남북전쟁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리적인 이유가 더 컸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즉 성서비평과 같은 진보신학, WCC의 전신이자 교단재구성의 과정으로 여겨진 연방교회협의회 조직 및 열린 회원제 때문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예일대, 시카고대, 하버드대와 같은 곳에서 신학을 전공한 제자들이 현대신학의 내용을 교회와 신학교들에 유입시켜 스톤-캠벨운동에 접목시킴으로써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 일에 크게 공헌한 초기 인물들이 허버트 록우드 윌렛(Herbert Lockwood Willett)과 에드워드 스크라이브너 에임즈(Edward Scribner Ames)이었고, 단체로는 캠벨교육기관과 선교회 조직들이었

다. 1907년 버지니아 주 노퍽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연방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를 본회의가 아닌 별도의 집회에서 변칙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연방교회협의회에 창립교단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는 교단조직도 없고, 보수주의자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부담금을 수년간 내지 못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성서신학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수학한 윌렛은 베다니대학을 나와 예일대에서 천재 구약학자 윌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 밑에서 공부하다가 하퍼가 1891년 시카고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어 전근하자 그도 시카고대학으로 옮겨가 1896년에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하퍼의 권유로 윌렛은 시카고대학교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학생들을 위해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이 설립되도록 하였다. 윌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역사적, 사회과학적 성서해석 방법론을 소개한 인물로서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에서 보수주의의 보류였던 J. W. 맥가비(McGarvey)와 악의에 찬 논쟁을 펼쳤다. 보수주의자들은 1909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제자들 100주년' 대회 프로그램에서 윌렛을 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오히려 대회기간에 일부 연사들이 대중연설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신화라고 주장하여 대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역할을 했던 에드워드 스크라이브너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목회자의 아들로써 드레이크대와 예일대를 거쳐 1895년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과 교수, 제자들교회신학원 원장, 유니버시티 제자들 교회를 섬겼다. 존 듀이에 영향을 받은 애임즈는 기독교 신앙에 성서고등비평 및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원리들을 적용시켰고, 열린 회원제 논쟁에 개입되었다.

셋째, 베다니대학의 출신들 가운데 로버트 밀리건(Robert Milligan)과 J. W. 맥가비는 성서의 무오설을 주장하였다. 맥가비는 「그리스도

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자신의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켄터키 주 렉싱턴에 소재한 성서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학장이었던 맥가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맥가비 세대가 모두 은퇴하자, 대를 이어 교수가 된 이들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맥가비의 후계자 칼훈 홀(Calhoun Hal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서고등비평에 동조하였다. 맥가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년 후인 1917년, 칼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성서대학에서 몰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에 그쳤고, 오히려 그 자신이 교수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그 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과 더불어,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부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오랜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후 칼훈이 겪어야했던 힘겨웠던 삶은 보수주의가 애써 키워온 대학들과 교회들에서 밀려난 긴 여정의 축소판이었다. 1921년 12월에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환원 대회”(Restoration Congress)를 소집하여 진보주의자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1922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성서대회에서 R. C. 포스터(Foster)가 스톤-캠벨 운동 계열의 대학교수들이 지역교회들을 기만해서라도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끔 만들라고 학생들을 부추겼다고 말함으로써 불화를 키웠고, 동년 4월에는 피츠버그 성서대회에서 칼훈이 성서고등비평을 “파괴적인 비평학”으로 비판함으로써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나뉘지게 만들었다.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제휴된 대학들, 즉 밀리건 대학(Milligan College)을 제외한 모든 인문대학들과 다수의 신학교들이 진보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은 현대신학에 편중된 이들 대학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대안으로 성서대학(Bible College)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스톤-캠벨 대사전에 성서대학으로 소개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2000년대에 이르러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목적으로 더 이상 성서대학이 아닌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 혹은 기독교대학교(Christian University)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넷째, 열린 회원제(Open Membership)란 약식세례를 받은 신자들

을 지역 교회에서 회원 자격으로 받아드리는 제도를 말한다. 스톤-캠벨운동에서 약식세례자의 그리스도인 지위는 잠정적이었거나 거부되었거나 수용되었다. 캠벨과 스톤과 에레트는 잠정적이었다. 캠벨은 약식세례자들에게 “경건한 미침수 그리스도인”이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1837) 논쟁을 촉발시켰고, 발톤 스톤은 침례를 수용할 때까지 포용하였으며, 에레트는 “오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노선에 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는 표어를 갖게 되었다. 한편 모세스 라드를 필두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양 지류들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열린 회원제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윌렛과 애임즈를 포함한 진보주의자들은 열린 회원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보수주의자들과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1870년대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승리주의적인 선교정책들을 써왔다. 그러나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CMS)가 설립된 이후로는 에큐메니컬운동에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이들 선교단체들의 열린 회원제 수용은 1909년에 개최된 100주년대회 때 진보와 보수가 분열된 양상을 표출하였다. 1920년에는 중국 체류 선교사들이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사 협회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UCMS)에 열린 회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원회가 비틀거렸다.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에 공개되자 심각한 갈등이 뒤따랐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문제와 연관된 선교사들의 소환을 1925년 오클라호마시티 대회와 1926년 테네시 주 멤피스 대회에서 연이어 요구했지만, 선교회의 임원들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집권적인 조직들은 그것들을 지탱시키는 구성원들의 조절기능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확신이 널리 확산되었고, 그것은 좌절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식 선교기관이자 1919년에 통합된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사 협회(UCMS)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UCMS로부터 독립교회들이 소송을 당하였지만, 대부분 승소하여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독립교회들은 UCMS를 대체할 선교방법을 찾다가, 이미 UCMS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UCMS에서 후원을 받던 일부 선교사들도 탈퇴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이런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특징짓는 “독립”(Independent)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다섯째, 열린 회원제의 수용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촉발시킨 또 다른 사례는 1939년에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제시 트라우트(Jessie Trout)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기사를 써서 UCMS에 보냈다. UCMS는 그 기사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인쇄하여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에 보내어 그들의 월 집회 때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녀가 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학식 있는 비평가들이 해외선교에 대해서 평가한 주된 비평의 한 가지가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의 종교들과 신앙들을 뭉개버린 것이다. 다행하게도 다수의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동양종교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들을 현재의 관점보다 우위에서 접근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심정으로 한다. ‘여러분이 놓은 우수한 토대에서 수행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의 종교를 건설하자고 그들은 말한다.’” 그녀는 또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분명코 이들 종교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었다. 오늘의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분명코, 동양인 선지자들의 평범한 진리들과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변화산체험이 동양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부처와 공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대선교들은 기독교가 비기독교 종교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고 또 맞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상황은 제시 트라우트가 1949년 10월에 UCMS의 부회장에 선출되는 데까지 발전되었다. 이 사실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

였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미스 제시 메이 트라우트(Miss Jessie Mae Trout)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총회에서 어제 UCMS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미스 트라우트가 뽑힌 직위는 제자들 단체에서 가장 높은 것들 중의 한 자리이다.”

여섯째, 보수주의자들은 UCMS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조직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교회나 개인이 원하는 선교사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직접 후원 선교’(Direct Support Missions)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W. K. 아즈빌(Azbill, 1892)과 W. C. 커닝햄(Cunningham, 1901)은 이 직접 후원 선교 방식으로 일본에서 독립선교사들로 활동하였다. 한편 신시내티의 사업가 시드니 클라크(Sidney Clarke)가 남긴 재산이 1919년부터 이들 독립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회 개척과 발전에 쓰이기 시작하였고, 1921년까지 30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었으며, 200여개의 기존 교회들이 강화되었다. 클라크의 유증은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1922년에 법인 ‘클라크 기금’이 되었다가 1925년에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CRA)로 발전되었다. 이때 이미 16개의 독립 선교회들이 가입되었다. 독립 선교사들이었던 필리핀의 레슬리 울프(Leslie Wolfe), 중국, 티베트, 미얀마 접경지의 러셀 모스(J. Russell Morse), 멕시코의 엔리케 웨스트럽(Enrique Westrup), 남아프리카의 C. B. 티투스(Titus), 일본 도쿄의 M. B. 매든(Madden)을 협력 지원하면서 해외 선교에 집중하였다. 신시내티기독대학교와 신학대학원도 1924년에 이 기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는 보수주의 교회들의 성장의 모판이 된 ‘그리스도인 봉사 캠프 운동’(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1927)을 지원하여 출범한지 2년 만에 14개 주에 14개의 캠프장이 들어서게 하여 매년 5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회사역자로 결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직접 후원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탈퇴하여 독립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결집하는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직접 후원

선교를 통해서 70개 이상의 나라에 1,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수많은 가정선교, 선교단체들, 교육기관들을 후원하고 있다.

일곱째, 보수주의자들은 1927년에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미 그리스도인 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NACC)를 개최하였고, 1945년에 '선교 봉사'(Mission Services), 1948년에 '전국 선교사 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이들 조직들에는 독립교회들을 통제할만한 그 어떤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으며, 대회형식으로 치러지는 총회모임에서는 그 어떤 결의안도 상정되거나 채택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의 경향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195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대회를 치르던 NACC를 자신들의 집결지로 삼았다. 독립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나와 36개의 성서대학을 세웠고, 5천 5백여 개의 교회에 출석교인 1백2십만 명을 상회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성장하였다.

여덟째, 보수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전 '연방 교회 협의회')의 창립회원교일뿐 아니라, 선도적인 교단이 되었다. 1959-66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ns on Internal Unity), 1960년 '교단 재구성 위원회'(Commission on Brotherhood Restructure), 1962년 '교회 일치 협의'(Consultation on Church Unity/COCU)에 가입, 1963년 '학자들의 패널' 보고서 발간(Publication of the Panel of Scholars Reports) 등을 통해서 꾸준히 교단화를 추진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68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Provisional Design)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과는 별도로 개 교회들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단이 되었다. 따라서 UCMS의 책임들은 1973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해외 사역 분과'(DOM)와 '국내 사역 분과'(DHM)로 재편되었고, 1981년에 "일반 정책과 원리들"(GPP)이 DOM의 재단에 의해 승인되었다. 1982년에 WCC산하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만든 교회일치문서인 「세례, 성찬, 사역」(BEM)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아세례

자나 약식세례자들에게 재침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부터는 DOM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의 '세계 사역 연합교회 이사회'(UCBWM)를 결합한 공동 글로벌 사역국(Common Global Ministries Board, CGMB)을 통하여 유아세례 전통을 고수하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 많은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주류 회중들은 여전히 침수세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침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파생된 그룹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다. 필자는 1980년대 전반기에 성령운동을 하는 펠로쉽 그리스도인의 교회(Fellowship Christian Churches)에 몇 차례 출석한 적이 있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달리 손을 높이 들고 통성기도를 하였고, 예배당 여러 곳에 상이 놓여있었으며, 그곳에 떡과 포도주가 담긴 잔이 한 개씩 놓여 있었다. 전체 교인이 한 컵을 쓴 것은 아니지만, 7-8명 정도가 한 컵으로 포도주를 돌려 마시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성도들은 상 주변에 둘러 앉아 각자 기도한 후에 참여하였다. 이들 교회들이 1988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조직된 '그리스도의 교회 친교회'(Christ's Church Fellowship, CCF)의 창립교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CCF의 창립 멤버 대부분이 스톤-캠벨운동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링컨기독교대학, 밀리건대학, 산호세기독교대학 (San Jose Christian)의 일부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본부는 신시내티에 있으며, 링컨기독교대학원(LCS)을 졸업한 톰 스미스(Tom Smith)가 이끌었다. CCF는 치유와 다른 은사들을 강조하며, 「보혜사」(Paraclete)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다.

둘째, CCF는 결신자들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침례를 시행하고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등 스톤-캠벨운동의 관행들과 신념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론적인

은사와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소위 성령의 제3의 물결에 속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CF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사도, 예언자, 전도자, 장로(목사), 교사의 다섯 가지 직분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원래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단의 행정은 모든 지 교회 대표들이 반년마다 모이는 장로 대회(General Presbytery)에서 선출된 지도부(leadership presbytery)에 의해 주도된다. 이 지도부는 사도들, 장로(목사)들, 예언자들, 장로들로 구성된다. 이 교단의 조직 체계에서는 사도가 특정 지역에서 회중들을 감독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적으로, 지도부는 회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고, 선출된 회장은 교단 전체의 행정과 연락 사무를 총괄한다. 미국과 해외에 CCF 교회가 약 100여개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오는 말

스톤-캠벨운동은 꾸준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집단이 되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스톤-캠벨운동은 20세기가 되는 1900년에 미국의 인구증가율의 두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여 한 해 동안 무려 1천 개 교회를 늘린 경험을 갖고 있다. 분열이 없었다면, 50년 후인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미국에서의 교인수가 4천에서 6천만 명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 20세기 초중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독립파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조직은 뭉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뭉치면서 발전한다. 흥망성쇠에서 흥성(興盛)은 뭉칠 때이고, 망쇠(亡衰)는 흩어질 때이다. 그렇다고 조직의 분열이 반드시 망쇠의 길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열은 분가(分家)와 같아서 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통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분열이지만, 좋은 분열은 자식이 분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따라서 스톤-캠벨운동의 세 주류들은 분가와 같은 좋은 분열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연합에 힘써왔

다. 1930년에 출범한 ‘그리스도의 교회들 세계대회’(The World Convention of Churches of Christ)와 1999년에 시작된 ‘스톤-캠벨 대화’(Stone-Campbell dialogue)가 대표적이다.

이 연합 모임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 지류가 일치를 이루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합하여 스톤-캠벨의 유산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며 격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비방을 멈추고 이해와 협력으로 일관해야 한다. 1999년에 출범한 스톤-캠벨 대화(Stone-Campbell Dialogue)에서 모임의 성격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스톤-캠벨 운동의 세 지류 간에 신뢰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세 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형제애를 키우려는 것이다. 한국교회들도 이런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다면 상호 신뢰와 관계 발전에 도움이 클 것이다.

참고서적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dited by Douglas A. Foster, Paul M. Blowers, Anthony L. Dunnivant, & D. Newell William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Bream, Harvey C.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Restoring New Testament Church.” 이 자료는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했던 하비 C. 브림 2세(Harvey C. Bream, Jr.)가 1989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위치한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행한 환원운동사 강연 내용. 음성파일과 녹취록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info>)에서 듣고 읽을 수 있음.

발톤 워렌 스톤(1772-1844)

D. 뉴웰 윌리엄스¹⁾

번역: 조동호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 1772-1844)의 가장 큰 공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es) 운동을 펼친 일이다. 그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호칭을 처음부터 채택하여 끝까지 고수하였고, 알렉산더 캠벨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쓰기를 선호한 '제자들'(Disciples)이란 호칭에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던 캠벨과의 개혁가들과 스톤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란 명칭아래서 대연합을 이루었다. 이 대연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공헌이 컸던 인물이 발톤 스톤이었다. 스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아래서 지속적으로 캠벨과의 개혁가들과 연합을 시도한 반면, 알렉산더 캠벨은 오히려 이 일에 소극적이었다. 캠벨은 그 성향이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보수적이었고 학구파여서 스톤-캠벨운동의 두 축이었던 진리와 연합(혹은 일치) 가운데 진리 추구의 성향이 더 강하였다. 이 진리 추구의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 '신약성서교회'(New Testament Church) 운동이다. 오늘날에 이 운동의 성향이 가장 뚜렷한 곳이 예배 중에서 무악기를 선호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다. 좀 더 최근에는 그들도 스톤의 전천년설, 평화주의, 반정부주의 자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알렉산더 캠벨의 제자들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제자

1) D. Newell Williams, "Stone, Barton Warren (1772-1844),"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들(Disciples of Christ)은 1930년대 이후 캠벨의 진리 추구 성향보다는 스톤의 연합 추구 성향을 대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란 단수 호칭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발톤 스톤은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이란 이름 아래 마지막 순간까지 만 40년간 연합운동을 쉬지 않았던 개척자였다. 이런 공적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캠벨에 비해서 연구가 미진하고 캠벨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강해서 스톤에 관한 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가 20여 년 전에 번역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최근에 번역을 완료한 "발톤 W. 스톤"[Stone, Barton Warren (1772-1844)]이란 제목의 논문을 약간의 화보와 함께 묶어서 단행본으로 역었다. 이 논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브라이트 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인 D. 뉴엘 윌리엄스(D. Newell Williams)가 쓰고 『스톤-캠벨운동의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에 실린 장문의 글이다.

스톤에 관한 두 개의 글만을 단행본으로 묶는 이유는 이 두 개의 글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읽히고 사용될 수 있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이 인용한 후에 각주와 참고도서목록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 글의 일부분이 오른 이후로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간단한 이 소책자가 발톤 스톤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2010년 7월 22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서부2)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의 지도자.

1832년 스톤은 서부에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을 인도하여 개혁가들(Reformers)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알려진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추종자들과 연합하여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을 일으켰다.

1. 서론

1803년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서부지역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는 1832년까지 성도의 수가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오하이오 주, 인디애나 주에 걸쳐 16,000명 이상이 되었다.³⁾ 더 젊고 더 성공적인 알렉산더 캠벨의 지도력은 1832년 연합으로 출범한 그 운동에서의 스톤의 리더십을 잠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당연한 개혁가였고, 스톤-캠벨운동에서의 영향력은 불변하였다.

1.1 성인 같은 성품

존 로저스(John Rogers)는 1847년 자신의 ‘부록과 회상’을 추가하여 스톤의 자서전을 출판하였는데, 그 이후로 스톤은 그의 성인 같은 성품으로 인해서 그 운동권 내에서 명성을 얻었다. 로저스는 이 테마를 여러 가지 표제로써 발전시켰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의 표제아래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약전(略傳)의 저자는 상당히 존경받는 스톤가(家)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가 그의 가족들 누구에게도 거칠거나 불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하였고, 25년간 알고 지내는

2) 역사 주: 서부(the West)라 함은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오하이오 강(Ohio River)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를 말함.

3) 역사 주: 1800년 통계에 따르면, 켄터키 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10,000명에 불과하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변방의 주들에서 16,000명 이상의 성도를 갖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동안 그가 화를 내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로저스는 스톤이 그의 그리스도인 정신 때문에 심지어 그의 종교적인 적대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의 훌륭한 도덕적 성품은 모두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리만 비쳐(Lyman Beecher)의 이단 심리에 대한 공표된 해설에서 장로교회의 조슈아 윌슨(Joshua L. Wilson)이 스톤의 훌륭한 도덕적 성품에 관해 언급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1843년 여성 그룹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를 보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교인들이었고, 수년 동안 스톤과 알고 지냈던 이들로서 그들이 스톤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가를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스톤과 잘 알고 지냈지만, 그의 견해들을 반대했던 한 장로교 노파는 불쑥 끼어들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스톤 씨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 나는 당신들 누구 못지않게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다. 그는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톤의 견해들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 “스톤(B. W. Stone)은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로 말미암아 보다는 그의 훌륭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위해를 끼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넘버원이라 생각하고, 속임수에 빠지고, 그래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또 스톤의 겸손을 크게 칭송하였다. “비록 그가 성서를 깊이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고, 그의 박식과 깊은 신앙심과 덕망 있는 태도의 결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자신의 장점을 알지 못하였고, 항상 물러나 있거나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같았다.” 로저스는 참된 위대함을 갈망할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서 스톤을 추천하였다.

스톤의 성품이 성인답다는 테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채택되었고, 스톤-캠벨운동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쉰다.

1.2 신학적 논쟁

로저스는 스톤의 또 다른 이미지, 즉 신학적 논객의 이미지를 되받아 치기 위해서 스톤의 성품이 성인답다는 것을 강조해왔을지 모른다. 스톤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전사(戰士)”였었다. 스톤은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신학적 논쟁들에 치중하였다. 그들 논쟁의 기원은 이성(理性)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의 빛 아래서 성서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려는 그의 여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여망이 스톤으로 하여금 예정론을 거부하고, 삼위일체론과 구속론에 관한 ‘진보’적인 견해들을 수용하게 하였다. 비록 스톤이 그의 진보적이고 ‘이단적인’ 신학견해들을 열정적으로 이슈화시키려했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마다 기꺼이 그것들을 변호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가 출판한 전집(全集)의 상당 부분은 신학적 논쟁서들로 구성된다.

1824년 스톤이 캠벨을 만날 때까지, 그는 ‘아리우스’ 기독교론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대한 ‘소치니파’(Socinian) 견해들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비록 스톤이 성서에 입각한 그의 견해들을 방어하면서 이들 비난들을 부인해 왔지만, 많은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은 그를 ‘서부지역 이단의 두령’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침례교인들과 그의 견해들을 읽거나 들었을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캠벨은, 스톤과 너무 가까이 지냄으로써 그와 동일시되어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그들 두 단체들의 연합을 위한 스톤의 제의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초지일관하였고, 캠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이뤄졌다. 후에 캠벨은 1843년 장로교인 나단 라이스(Nathan L. Rice)와의 토론에서 그가 스톤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들의 이단성에서 ‘구출했노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운동권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1.3 부와 접대

베다니 소재 캠벨의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렉산더 캠벨이 돈 버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스톤의 저택이란 것은 아예 없었다. 비록 스톤은 캠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회심이전에는 부와 신분의 성공을 꾀하였노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혔지만, 그의 경제사(經濟史)는 대체적으로 내리막길이었다. 중상류층의 남부 가정에서 태어난 스톤은 그를 성장시켰을 소양교육을 받는데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허비하였다. 그의 몇몇 급우들도 그렇게 해서 법계와 정치계에 성공적으로 입문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회심 후에 장로교에서 목회의 길에 입문하였다. 후에 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두 노예가 포함된 유산을 물려받았다. 스톤은 “노예제도가 시민자유는 물론이고, 기독교원칙에도 불일치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킨 후에 모두 해방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된 후에 그는 켄터키 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때, 그가 “나와 가족의 지원을 위한 풍성한 노예제도”라고 기술했던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농사를 지어야했다. 그리고 캠벨과는 달리 그는 그의 출판물에서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스톤의 줄어든 재산은 기독교 목사와 감독은 접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과 상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접대를 실천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그의 집과 식탁에 환영을 받았고, 그의 집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님의 친구들의 휴식장소”였다고 로저스는 소개한다. 비록 스톤이 설교가로서 그가 행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사례비가 작았고, 그가 원했던 만큼 그의 친구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투덜거리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로저스는 또한 적는다. 발톤과 셀리아(Celia) 스톤의 식탁은 스톤과 그의 부인이 원했던 만큼 항상 충분히 차릴 수가 없었고, 셀리아 스톤은 종종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곤 했다고 로저스는 말한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스톤은 그가 섬기려는 손님들에게 밝고 웃는 표정으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의 무엇으로 제가 손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묻곤 하였다. 주인으로서 스톤은 집이나 식탁에 채우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의 선량한 쾌활함과 개인적인 따뜻함으로 그 이상을 보충하였다고 로저스는 제안한다. 그가 수차례나 여행에 지쳐서 스톤의 집에 도착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로저스는 “그가, 그의 존경할만한 이마에 안경(spectacles)을 걸치고, 그의 움직임이 특징짓는 빠르고 품위 있는 발걸음으로, 그의 인정 많은 얼굴에 만들어내는 만족스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 길게 뻗은 그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올 때와 우리를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들일 때, 우리는 그를 상상 속에서 본다.”고 썼다.

그리고 로저스도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이 주창을 외인과 친구에게 길게 뻗어 내미는 손을 가지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였다.

2. 장로교 목사 되기

2.1 가족 배경

1722년 12월 24일, 메릴랜드 주 찰스 군(郡)의 군청 소재지였던 포트 토바코(Port Tobacco) 근처에서 출생한 스톤은 메릴랜드 주의 상류층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공직(公職)과 상당한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한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의 증, 증, 증조 할아버지, 캡틴 윌리엄 스톤(Captain William Stone, 1603-1695)은 메릴랜드 주의 첫 개신교인 주지사였다. 그의 둘째 사촌 토마스 스톤은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였고, 찰스 군(郡)에서 가장 큰 부동산들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였다. 발톤 스톤의 아버지 존 스톤(John Stone)은 1775년에 사망하였고, 토지와 16명의 노예들을 소유하였으며, 자신을 중상류층으로 분류하였다.

1779년 스톤의 어머니 메리 워렌 스톤은 네 자녀와 적어도 12명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계를 따라 버지니아 주 서쪽에 위치한 피츠실베니아(Pittsylvania) 군(郡)으로 이사하였다. 메리 스톤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발톤 스톤은 이 때 만 여섯 살이었다. 스톤의 아버지는 그의 토지를 이미 혼인한 나이든 두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증여하였으나 남편 사망 후에 메리는 합법적으로 포트 토바코에 있는 부동산의 삼분의 일을 소유하였다. 메리 스톤이 이성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남부 농장주들의 많은 수가 18세기 후반 들어 경제사정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서쪽으로 이주하였다.

2.2 교육

스톤은 그의 가족이 버지니아 주에 정착 후에 학교에 보내졌다. 1843년에 작성한 그의 자서전에서 스톤은 그의 첫 교사가 “폭군”이었으며, “모든 사소한 잘못에도 학생들을 매질하고 학대하였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고 전하였다. 스톤은 그 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며칠 후에 그는 “다른 기질”의 교사에게 보내졌다. 상류층에서는 “의지를 꺾는” 자녀양육철학에 동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온화”하거나(moderate) “우아한”(genteel) 방법을 주창하였다. 온화한 방법은 아이의 의지를 꺾으려 했고, 우아한 철학은 아이의 뜻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락하였다. 성인으로서 스톤은 온화한 접근을 주창하였고, 교사들이 가끔씩은 회초리를 사용하도록 권하였으며, 만약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학과들을 배우지 못하는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다”는 점을 충고하였다. 스톤의 두 번째 교사는 로버트 소멀헤이즈(Robert W. Somerhays)였다. 스톤은 그를 “영국인”으로 확인하였다. 스톤은 소멀헤이즈의 지도로 쉽게 배웠고, 읽기, 쓰기, 산수를 4-5년 공부한 후에 소멀헤이즈는

그를 “더할 나위 없는 학자”(a finished scholar)로 선언하였다고 기억하였다.

스톤은 그가 “15-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는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이 할당된 후에 그의 “마음은 그것을 불릴 방법을 찾느라 밤낮으로 빠져들었다”고 회상하였다. 드디어 그는 자기 유산을 그가 범조계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같은 교육에는 과학 과목들, 고대 언어 과목들, 철학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1790년 1월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길포드(Guilford) 군에 소재한 데이비드 콜드웰(David Caldwell) 아카데미에 입학하였다. 아카데미의 유일한 교사 콜드웰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펄로(Buffalo)와 앨라만스(Alamance)에 소재한 장로교회들을 담임한 65세 된 목사였다. 교육과 목회를 결합한 기존의 장로교회의 방식을 따라서 콜드웰은 자신의 집에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스톤은 콜드웰 아카데미에서 3년간 공부하였고, 1793년에 그의 소양교육을 마쳤다.

2.3 회심과 목회소명

스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을 때, 학생들 사이에 “대단한 신앙의 흥분”이 있었다. 아마도 50명이 넘지 않았을 등록된 학생들 가운데 30명쯤 되는 수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목회 아래서 최근 “신앙을 받아들였다.” 맥그레디는 콜드웰로부터 문법학교 교육을 받았고, 1789년 봄 길포드 군(郡)에 목사로 임직하기 전에 장로교의 설교가들인 존 맥밀란(John McMillan)과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와 함께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공부하였다.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깨우침”이 스톤의 기독교애로의 첫 노출은 아니었다. 스톤은 영국교회(성공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으로 이사한 후에도 스톤의 가족은 영국교회(once-established

church)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스톤은 또 독립전쟁 후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에 복음을 전한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의 설교에도 노출되었다.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신앙의 흥분에 대한 스톤의 첫 반응은 그것을 무시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스톤은 그의 학업에서 신앙부흥운동을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보았다. 길포드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들어간 주요 비용은 가까운 민박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신앙의 흥분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그는 초신자들이 수업시간(recitation) 전에 매일 아침 개인 방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적지 아니 놀랐다.” 게다가 스톤은 초신자들의 “매일의 신앙생활”(daily walk)을 주시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한 경건과 행복”을 보았다. 그 결과 스톤은 그의 룸메이트의 초청을 받아들여 맥그레디가 인도하는 설교집회에 참가하였다. 맥그레디의 설교는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맥그레디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은 육체의 쾌락에서나 부와 명예의 소유를 통해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칭송할만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과 즐거움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었다. 스톤은 맥그레디의 설교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기억하였다. “만일 내가 서있었다면, 필경 나는 감명을 받아 마룻바닥에 가라앉았을 것 같은 것이 나의 흥분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전하였다.

맥그레디의 설교 후에 스톤은 신앙을 추구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맥그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안(容顏)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회심시킨다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안(容顏)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신 자의 영광이었다. 맥그레디는 예수 그리스도

의 용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의 관찰은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단지 죄의 처벌뿐 아니라, 죄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같은 사랑과 그 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로써, 죄인은 죄의 처벌로부터의 용서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였다. 단지 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바람에서가 아닌 이 의지의 변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회심이었다.

스톤은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에서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에게 노출된 뒤로 그의 죄 사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에 “길고 고통스런 투쟁”을 예상하였다. 회심추구의 고통은 구도자가 점증하는 죄의 권세를 깨닫는 것과 짝을 맞춰 구도자의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잉태된 고뇌와 탄식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침례 교인들, 감리 교인들, 장로 교인들은 모두가 회심받기 전에 깨우친 죄인의 회심추구 즉 그들이 흔히 “고통”(distress)이라고 말한 기간이 전형적으로 몇 주에서부터 일 년까지 지속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스톤은 딱 찬 일 년 동안 “구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거의 단념하기도 하면서 불확실성의 파도에 들까불렀다”고 회상하였다. 결국 그는 콜드웰이 섬기는 교회들의 하나인 엘라만스(Alamance)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어느 주일 저녁, 스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인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가 회중에게 설교하였다. 스톤은 핫지의 본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였다는 것과, 핫지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동작과 많은 눈물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스톤은 “기슬된 그 사랑스런 성품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은 훈훈하였고, 내 마음은 그 교리에 빨려들었으며, 내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었다.”고 할 만큼 깊은 영향을 받았다. 장로 교인들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훈훈해진” 것을 발견하는 것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설교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회심의 표지(signs)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였다. 스톤은 그가 회심 받았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고, 또 동시에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억누르려하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햇지의 설교를 들은 후, 스톤은 성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나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였다.”고 나중에 적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와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에 대한 본문들에 대한 스톤의 증거(典據)로부터 판단하자면, 햇지가 “상한 심령”이나 “가망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초청함으로써 설교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난다. 햇지의 설교들은 결코 출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맥그레디의 설교들은 성서의 바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파멸했고 망쳤다”고 느낀 죄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이 호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없다고 느끼지만, 지금은 가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죄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스톤은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스톤은 그가 듣기만 했던 메시지에 대한 그의 마음의 반응에서 그가 그의 답을 찾았다는 것을 전하였다. “내가 듣기만 했던 진리,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지배하였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발적인* 주제에 그의 발 앞에 굴복하였고 가라앉았다.”

회심 후에 법조계에서 활동하려던 스톤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으로 바뀐다. 그는 콜드웰에게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알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고 전하였다. 스톤은 침례교와 감리교 설교자들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장로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콜드웰은 스톤이 설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확신시킬 기적을 기대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오히려 콜드웰은 만약 “스톤이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면, 또 만약 그의 “선배 목회자들이”(fathers in the ministry) 그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가 주저 말고 안수를 받도록 힘써야 된다고 충고하였다.

2.4 삼위일체론에 대한 초기 난관들

1793년 봄 20살이 된 콜드웰 아카데미 졸업생은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 소속 목회후보자가 되었다. 목회후보자들을 받고 교육하고 시험하는 것은 장로회의 책임이었다. 장로회는 스톤과 다른 후보자들에게 “심사의 과정으로써” 신학분야에서 독특한 주제들을 연구하도록 배정하였다. 그들은 가을 장로회 모임에서 그 주제들에 관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스톤과 이전 급우인 사무엘 홈즈(Samuel Holmes)에게 주어진 주제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비트시우스(Herman Witsius)의 책이 할당되었다. “단지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한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persons),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는 태어나신 적이 없고(unbegotten), 아들은 영원히 태어나셨으며(begotten),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발출(發出)하신다(proceeding)는 것, 하나님 한분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 그러면서도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비트시우

스는 먼저 입증했을 것이다.”고 스톤은 회상하였다. 이전에 스톤은 우상숭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혹은 그것들에 따라서 동등한 예배에 대한 걱정 없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기도를 드렸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트시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의 노력의 결과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가 회심이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곧 줄어들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은밀한 기도와 묵상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나의 하나님과 구세주께 다가가는 것은 지상에서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천상의 의식(儀式)은 저지되었다. 그리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나의 고통스런 마음에 찼다.”고 스톤은 기록하였다. 흠즈가 비트시우스에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밀스런 어둠”에 말려들게 하고, 그들 헌신의 “열정을 식게”하려고 “의도되었다”고 믿으면서 스톤과 흠즈는 “그 책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초기 미주 공화국의 다른 시민들처럼, 스톤은 영국 계몽주의의 넓은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는 우리의 명확하고 독특한 개념들과 “일치하지 않는” 곧 “이성에 상반된” 명제들을 확인하였다. 스톤에게는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러져야 한다는 비트시우스의 가르침에 내포된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명확하고 독특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비트시우스는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러져야 한다는 가르침에 내포된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개념을 반대하였다. 비트시우스가 성서이외의 것을 읽었던 최초의 신학서적이었다는 것을 주목한 스톤은 긴장 속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명제들을 유지함으로써 기독교 진리를 밝히는 신학하기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스톤에게는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의 논술이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톤과 홈즈가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의 논술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일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장로 교인들은 아니었다. 헨리 파틸로(Henry Patillo)는 오렌지 장로회의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교리에 대한 아이작 와츠(Isaac Watts)의 대안적 논술을 선호하였고 상당히 퍼뜨렸다. 비록 지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같은 찬송들로 우선 기억되지만, 아이작 와츠(1674-1748)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철학자와 신학자로 또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와츠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삼위일체론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한 성서의 교리가 이성에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든지, 세 인격이 한 인격이라”는 교리는 이성에 상반되었다. 그러나 와츠에 의하면, 성서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성서는 “동일한 참된 신성(Godhead, 神性)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속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persons)이라고 무리 없이 불려도 좋을, 세 독특한 대리인들(agents)이거나 행동의 원칙들(principles)이다.” 따라서 와츠에 의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제에 상반되지 않는다. 와츠에 따르면, 잘못된 계시된 교리의 “견해들”과 인위적인 해설들을 교리 그 자체와 혼동하는 것이다. “평이한 성서교리 그 자체와 그것의 독특한 해설 사이를 잘 구분하는” 신학자는 “몇 가지 해설의 인위적인 형태들이 공격을 받고 아마도 폐기되는 동안, 신성한 교리의 믿음을 확고히 동요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와츠는 약속하였다.

삼위일체론해설의 인위적인 형태들에 관해서, 그 교리의 대부분 해설들의 최우선적인 문제들은 신성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와츠는 주장하였다. 와츠에 따르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든가 세 인격이 한 인격이란 개념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이었다. 이 문제는

신성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human soul)으로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영혼으로서, 성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그는 제시하였다. 이 인간의 영혼은 그의 인간의 몸(human body)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신의 본질과 연합”되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이 한 신성에 속하는 독특한 대리인 혹은 행동의 원칙이라는 명제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 명제의 진실이나 개연성은 이성에서 기인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은 한분 하나님께 통합된 독특한 대리인이란 명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개념에 상반되지 않는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적절한 예배문제에 관해서 와츠는 적절한 믿음과 실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서가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와츠에게 있어서 삼위일체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즉 “그들의 신성(神性)내지는 신의 본성 속의 교제”가 성서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한 예배와 영예”를 바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거룩한 세 인격들 개개인에게 동일한 형식의 식사(武辭)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이 “성서가 그들에게 할당한 특별직위와 특성”에 맞게 삼위일체의 여러 인격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식사(武辭)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톤과 홈즈는 삼위일체에 관한 와츠의 “논문” 사본을 구했고, 와츠의 견해들을 채용하였다. 헨리 파틸로는 오렌지 장로회의 1793년 가을 모임에서 목회후보생들의 신학 시험을 관장하였다. “파틸로가 삼위일체론의 주제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작았고, 그 이론에 대한 그의 질문들은 유별나지 않았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스톤은 홈즈와 자신의 답변들이 “정직했고 만족

할만했다”고 기억하였다.

2.5 연이은 신학적 난관들과 또 다른 소명을 찾으려한 결심

오렌지 장로회의의 1794년 봄 집회 전, 스톤은 목사고시를 마치고 설교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었을 때, “상당히 우울” 해졌고, 설교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어떤 소명을 좇으려고 결심했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그의 우울의 주된 원인은 신학적인 것이었다. “내 마음은 사실로 받아드려야 할, 그렇지만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다른 것들과 만족스럽게 일치시킬 수 없는 많은 난해한 교리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웠다”고 그는 썼다. 스톤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한 교리들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과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에 관한 교리들이었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바와 같이 이들 교리들 모두는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라고 스톤이 본 것과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와 불일치한다는 암시들을 갖고 있다고 그에게 비친 또 다른 명제와 결합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의 교리에서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의 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자신의 의지(will), 구애받지 않는 불변의 운명(ordain)의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결정(counsel)에 의해서 행하셨다”고 또한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에서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 교리는 특정 개인들이 저주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또한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분이시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스톤이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혼

란을 겪었던 앞서와 마찬가지로 스톤의 지적인 혼란은 그의 기도생활(devotion)에 악영향을 미쳤다. “칼뱅주의 틀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조직신학연구에 종사했고 제한받았기 때문에 나의 열정, 평안 그리고 영적인 삶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스톤은 적었다.

설교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어떤 소명을 좇으려고 결심한 후에 스톤은 조지아 주 오글소르프(Oglethorpe) 군(郡)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 매튜 스톤(Matthew Stone)의 집으로 향하였다. 매튜와 또 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스톤의 사촌형제(half-brother) 토마스 스톤의 영향으로 스톤은 윌크즈(Wilkes) 군(郡)소재 워싱턴 가까운 곳에 최근 세워진 감리교 아카데미에서 언어 교수로 채용되었다. 1794년 봄에 스톤이 겪었던 우울함의 근원은 신학적 문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도 있었으므로 이 임직은 우연한 것이었다. 그의 기금은 고갈되었고, 그의 친척들 가운데 누구도 기꺼이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조지아 주에 머무는 동안 스톤은 존 스프링거(John Springer)의 설교 집회에 참석하였다. 스톤은 그를 “매우 열정적인 장로교인”으로 기술하였다. 델라웨어 주 윌밍턴(Wilmington) 근교에서 태어난 스프링거(1744-1798)는 오렌지 장로회의 주도적인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홀(James Hall)의 지도아래서 신학을 공부했던 프린스톤의 졸업생이었다. 그가 출판한 저술들은 제임스 맥그레디의 것들과 스타일과 내용 면에서 눈에 띄게 유사하다. 스프링거의 설교를 통해서 스톤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매우 강렬한 소망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들 “감명”을 “거부하고 억누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평안은 망가졌다.” 장로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같은 경험이 하나님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증거였다.

2.6 설교자격증과 안수

1796년 봄에 조지아 주에서 일 년 반을 가르친 후에 23살의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돌아왔다. 1796년 4월 6일 그는 성공적으로 그의 남은 목사고시를 마쳤고, 오렌지 장로회로부터, 오렌지 장로회의의 범위 내에서 혹은 그가 “절차를 따라 초빙”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목회가 가능한 “목사보(牧師輔)”로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초기에 느낀 칼뱅주의 신학의 당혹스러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목회 초기에 선택과 유기와 예정에 관한 칼뱅주의 교리들을 “진리이지만 가늠할 수 없는 신비들”로 보았고, 그의 설교를 “신앙의 실천분야”에 “국한하였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데이비드 콜드웰(David Caldwell)의 충고에 관한 이 입장을 채택했을지 모른다. 콜드웰은 동일한 질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학생들 가운데 다른 한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의 과정을 충고하였다.

스톤은 부적절한 초기의 느낌들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의 일 년 반 동안을 목사보로서 버지니아 주의 서부, 테네시 주, 켄터키 주를 목회하기 위해서 순회하였다고 전하였다. 1797년 겨울에 그는 켄터키 주 북부에 소재한 캐인 리지(Cane Ridge)와 콘코드(Concord) 지역의 장로교 회중들을 맡아 정착하였다. 자서전에서 스톤은 겨울이 찾아온 것 외에 캐인 리지와 콘코드에 그가 정착하게 된 그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이 지역이 그에게 특별히 매력적이었는지 두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캐인 리지와 콘코드 공동사회들의 거의 전체 인구의 종교적 배경이 장로교회였다. 이전에 영국교회에 다니다가 장로교회로 옮긴 자로서 스톤은 장로 교인들의 모임을 평가하였다. 둘째, 스톤이 그의 자서전에서 지적한 대로, 캐인 리지와 콘코드 공동사회들은 “부유한” 농장주들로 구성되었다. 비록 스톤이, 다른 장로교회 목사들처럼, 부(富)가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식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는 배경과 교육에 의해서 변방 사회의 중상류 계층과 연결되어 있었다.

1798년 봄에 스톤은 트랜실베이니아(Transylvania) 장로회를 통해서 캐인 리지와 콘코드의 연합 회중들의 목사로 부름을 받

았다. 스톤은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798년 10월 4일이 그의 안수식 날짜로 정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서에 가르친 교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진실하게 받아드리고 수용하라”는 요구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신앙고백서의 조심스런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이 내게는 거의 슬픔의 시작이었다. 나는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삼위일체론에 망설였다. 나는 그것을 믿어보려고 힘썼다. 그러나 그것에 양심적으로 서명할 수가 없었다.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친 선택과 유기와 예정에 대한 교리들에 관해서 의심들이 또한 내 마음에 일어났다.”

스톤의 안수식 날짜로 정해진 날 트랜실베이니아 장로회의 11명 위원들이 케인 리지에 모였다. 스톤이 시험을 치르고 안수를 받게 될 장로회의 회의 전에 그는 장로회의 두 위원들인 제임스 블리스(James Blythe)와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을 사적으로 만나 그들에게 그의 난제들을 고지(告知)하였고, 그가 그 때 안수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블리스와 마샬은 스톤의 “난제들과 이의들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스톤이 블리스와 마샬에게 드러낸 난제들의 크기는 후에 일부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1822년에 쓴 한 편지에서 제임스 블리스는 스톤이 그 때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특정 교리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의들을 제기하였으나 신앙고백서의 주된 교리들의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블리스의 편지에 대한 응답에서 스톤은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란 말에 반대하였다는 것과 삼위일체론에서 세 “인격들”(persons)이 세 “지적인 존재들”(intelligent beings) 혹은 세 “호칭들이나 관계들”(appellations or relations)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그는 선택과 유기와 예정 교리들에 관한 그의 “의심들”을 블리스와 마샬과 나누지 않았다. 1729년 장로교 총회(synod)가 승인한 수용 조례(Adopting Act)에 따르면, 만약 장로회의 관점에서 신앙고백서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들이 단지 “비본질”에 관한 것이

면, 신앙고백서에 오로지 부분적으로 서명할 목사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이 허용될만한 것이었다. 블리스와 마샬은 “얼마만큼까지”(how far) 신앙고백서를 기꺼이 수용할 것인지를 스톤에게 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신앙고백서를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분서명이 충분한 자격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스톤은 트랜실베이니아 장로회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다.

3. 개부총회

3.1 남부 켄터키 주 부흥회 방문

한편 켄터키 주 남부에서는 스톤의 신학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부흥회가 제임스 맥그레디와 몇몇 스톤의 이전 콜드웰 아카데미의 급우들의 리더십아래서 시작되었다. 1796년 제임스 맥그레디는 켄터키 주 남부의 강들, 즉 레드(Red), 머디(Muddy), 가스퍼(Gasper)를 따라 이름 붙여진 세 개의 회중들을 돌보는 목사가 되었다. 1797년 봄까지 가스퍼 강가에 짧은 기간의 각성운동(awakening)이 있었다. 1798년 여름과 가을에 이들 세 회중들이 각성되어진 것 같았다. 몇몇 젊은이들이 일련의 “성찬 집회들”(sacramental meetings)을 통해서 체험한 회심을 고백하였다. 성찬 집회는 스코틀랜드의 성만찬 전통(Scots communion tradition)이었다. 이 전통은 18세기 미주 장로교회들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비록 집회는 한 회중에 의해서 개최되지만, 전형적으로 여러 회중들과 설교가들이 이들 집회들에 동참하였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목사들은 회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주일날 동참한 교인들은 주의 만찬예배를 가졌다. 높아진 종교적 관심의 패턴과 성찬 집회들에 관련되고 보고된 회심들은 1799년 여름동안 반복되었다. 그래서 1800년 여름기간에 서부 대 부흥회(1797-1805,

the Great Revival in the West)로 알려진 것의 특징들, 즉 대단히 큰 규모의 군중들, 성찬 집회들을 위해서 땅바닥에 텐트를 치는 관행, “쓰러지는”⁴⁾ 사람들의 신체적 현상들이 처음 나타났다.

부흥회 소식을 접한 스톤은 1801년 이른 봄에 맥그레디와 다른 노스캐롤라이나 주 장로 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성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켄터키 주 남부로 여행하였다. 자서전에서 스톤은 그가 처음 보았을 때의 쓰러짐의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사자들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때로는 잠깐 동안 소생하기, 깊은 신음, 혹은 공기를 가르며 비명, 혹은 격렬하게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의해서 삶의 증상들을 들어내 보이기를 여러 시간 연속적으로 계속하였다.” 점진적으로 그들은 깨어나곤 하였다. “그들의 안면을 덮고 있던 우울한 구름”이 처음에는 소망의 미소들에, 그리고 나서 기쁨의 미소들에 물러나곤 하였다. 종국에 그들은 “구원을 외치면서” 일어서곤 하였다. 그리고서는 둘러선 군중에게 “진실로 유창하고 감동적인 언어”로 설교하곤 하였다. “놀라서” 스톤은 “내가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복음의 영광스런 신비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않았는가.”라고 외쳤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그들의 호소가 엄숙하고, 심장을 꿰뚫으며, 용감하고, 자유로운“ 것이었다고 그는 전하였다. 그들이 행한 설교에서 “전개된 복음진리에 관한 지식에”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연사들이 막 전달받았던 동일한 상태로” 사람들이 쓰러지는가를 스톤은 관찰하였다.

3.2 믿음에 대한 새 빛

4) 역자 주: 입신과 비슷한 현상.

안수를 받은 다음 스톤은 선택, 유기, 예정에 관한 칼뱅주의 교리들과 계속해서 씨름하였다. 그들 교리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으나 버림받은(유기)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스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가르침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었다.

스톤이 1805년에 출판한 그의 신학적인 발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그는 그의 “모든” 난제들이 켄터키 주 남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찰하는 동안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수의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신앙을 고백하였고, 모두가 동일하고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나는 목소리를 알았고, 권세를 느꼈다”고 그는 썼다. 스톤이 안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가 느낀 그 “권세”는 복음의 권세였다. 그 복음은 영적이나 “도덕적”인 권세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었다. “믿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혹은 기초였다. 그 믿음은 예수의 증거 혹은 복음이었다. 죄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총과 구원을 받을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혹은 도덕적 자발성을 주신 것과 죄인들은 도덕적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그 메시지를 믿을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받을 정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했다.

도덕적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통해

서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지와 갈망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 속에는 장로 교인들이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새로운 특징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을만한 능력, 곧 그들에게 죄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게 할 성령의 사전(事前) 사역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할 힘이 있다는 것이 스톤의 주장이었다. 스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발전시켰고, 켄터키 주 남부 집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죄인에게 죄의 권세를 깨닫게 할 성령의 사전(事前) 사역 없이 하나님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주신다는 개념이 집회 중에 쓰러지고⁵⁾ 있는 사람들과 시간의 문제일 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회심들이 이뤄지는 대 부흥 집회 중에서 더욱 강요되고 있었다. 스톤과 같은 사람이 겪었던 상당 기간의 “고뇌”는 동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전형적이었다.

3.3 북부 켄터키 주 부흥회 진작과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과의 결혼

스톤은 그가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그가 죄인에게 “지금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켄터키 주 북부로 돌아왔다. 머지않아 켄터키 주 북부 장로교인들 사이에 대부흥회의 뚜렷한 특징들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다. 6월 첫 주일 스톤은 콘코드(Concord)에서 성만찬을 집례 하였다. 그날의 모임은 켄터키 주 북부에서 열린 집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신앙집회였다. 유명한 인디언 전사(戰士)이자 예비군 수장(captain)이었던 로버트 패터슨 대령(Colonel Robert Patterson)은 모인 수를 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26년 후에 쓰인 그 부흥회에 대한 설명에서 스톤은 장로 교

5) 역자 주: 입신과 비슷한 현상.

인들은 물론이고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도 참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집회는 밤낮으로 5일간 계속되었고, 야외에서 이뤄졌다. 콘코드 집회소가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곱 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참석하였다. 적어도 한 명의 감리 교인이 설교하였다. 패터슨은 150명이 쓰러졌고, 250명이 성찬을 받들었다고 전하였다. 그는 또 12 가족들이 식량을 가져왔고, 땅바닥에서 야영하였다고 적었다. “쓰러짐”과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의 참석으로 특징지어진 잘 거행된 성찬들이 6월과 7월 내내 켄터키 북부에서 계속되었다.

한편, 8월 첫 주말에 캐인 리지(Cane Ridge)에서 성만찬식이 있을 것을 광고한 후 6월 마지막 주간동안 28세의 스톤은 켄터키 주 무렌버그(Muhlenberg) 군(郡) 그린빌(Greenville)로 여행을 떠났다. 그린빌은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의 고향이었다. 스톤은 7월 2일 자신보다 11살 아래인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그와 엘리자베스는 캐인 리지에서 거행될 8월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 무렌버그를 떠났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나중에 캐인 리지 집회 혹은 캐인 리지 부흥회로 알려진 캐인 리지의 성만찬집회는 1801년 8월 6일 금요일에 시작하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되었다. 수많은 마차들이 땅바닥에 야영하였고, 그 수가 적어도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125대에서 148대까지 다양하게 추정되었고, 한 목격자는 그 넓이가 네 개의 도시 블록에 맞먹는 것이었다고 전하였다. 게다가 승마장에 거주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이웃 마을들에서 민박한 사람들까지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낮 집회를 위해서 도착하였다. 땅바닥에 선 사람들의 수가 토요일과 주일 1만 명에서 2만 명 또는 그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참석자는 야영장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설교하는 목사가 모두 7명”이었다고 그 수를 헤아렸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루터기들과 마차들을 급한 대로 단상으로 활용하였다. 16명과 아마도 많게는 18명의 장로교 목

사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적어도 4명의 감리교 목사들이 또한 설교하였다. 신원불명의 한 흑인(아프리카인 미국인) 설교가는 침례 교인이었을 것이다. 성찬을 받든 자의 수가 800명에서 1,1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쓰러진 자들의 수는 300명에서 3,000명까지 추정되었다.

3.4 켄터키 주 노회와의 결별

믿음에 관한 스톤의 새로운 빛이 몇 명의 그의 장로교 동료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장로 교인들이 지금 믿고 구원받으라는 죄인들을 향한 스톤의 초청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어떤 사전 사역도 없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가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의 켄터키 주 캐빈 크릭(Cabin Creek) 회중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1801년 11월 3일 캐빈 크릭(Cabin Creek) 회중의 세 명의 장로들이 워싱턴 장로회(Washington Presbytery)에 맥네마르의 교리를 비난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1801년 11월 11일 오하이오 주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서 장로회가 모였을 때, 캐빈 크릭의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다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맥네마르는 워싱턴 장로회를 통해서 오하이오 주 남부 터틀 크릭(Turtle Creek) 회중으로부터 청빙을 받아갔다.

후에 스톤은 장로교 성직자들 사이에서 “정통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스톤과 맥네마르와 다른 목사들이 설교한 교리들에 괴로워 몸부림쳤지만, 이들 교리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강력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견해들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썼다. 1802년 가을에 가서 장로교 목사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입장변화의 이유는, 스톤에 따르면, 감리 교인들과 침례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스톤은 침례 교인들이나 감리

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밝히지 않았지만, 성찬 집회에서 “신앙을 고백”했을 성실은 장로교 가정들에서 자란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다.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매인 자들”이 그것의 교리를 과감하게 설교함으로써 또 “그들을 방어하는데 가장 강력한 주장들을” 씌으로써 “제자들을 끌어가는데” 성공한 침례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에 대응하였다고 전하였다. 여기에 대응하여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의 설교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교리들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고백적 투쟁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매인 자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개하였고, 우리의 진보를 저지하고 우리들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문제들이 1803년 9월 6일 렉싱턴에서 개최된 켄터키 주 총회(Synod of Kentucky) 때 부각되었다. 총회 시작 때부터 총회의 다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톤과 맥네마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리를 나누는 세 명의 다른 목사들, 즉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존 톰프슨(John Thompson), 존 둔라비(John Dunlavy)의 목회사역을 정지 시키기로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9월 10일, 스톤과 맥네마르, 마샬, 톰프슨, 둔라비는 탈퇴하였고, “우리가 그의 결정권을 ‘양심상 인정할’ 수 없는 재판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에 기소되기보다는 총회의 지배권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항의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화해시키려는 노력들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한편 마샬, 둔라비, 맥네마르, 스톤 그리고 톰프슨은 정식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결성하였다. 스프링필드란 이름을 택한 것은 워싱턴 장로회와 그들의 역사에서 오하이오 주 스프링필드와의 긍정적 관련 때문이었다. 1804년 1월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켄터키 주 총회의 지배권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변호, 그것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견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첨부되다』(*An Apology for Renouncing the Jurisdiction of the Synod of*

Kentucky, To Which Is Added a Compendious View of the Gospel and a Few Remarks on the Confession of Faith)는 주제로 100쪽짜리 팸플릿을 출판하였다. 마샬은 팸플릿의 첫 부분인, “변호”를 썼고, 이어지는 두 부분들은 스톤과 톰프슨에 의해서 각각 쓰였다.

스톤의 “복음에 대한 간결한 견해”는 새 장로회의 신학적 성명이었다. 스톤은 인간의 완전타락, 중생,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였다. 반대자들은 죄인들이 복음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⁶⁾을 부인함으로써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그들이 부인한다고 고발하였다. 스톤은 이 고소에 대응하여 주장하기를,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믿음을 갖고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약간의 비밀과 신비스런 방법으로 진리를 보고 시인하기 위해서, 죄인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 전에, 조명되어지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말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마음을 조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인의 교회

4.1 유언서와 그리스도인 이름

1804년 6월 28일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회원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of Springfield Presbytery*)라 이름 붙인 한 문서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고 선포하였다. 해체하기 이전 회원들이 “증인들”로서 서명한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증인들의 제언”(The Witnesses' Address)이란 제목의 부록을 달았는데, 그들

6) 역자 주: 성령의 조명론과 내적증거론.

이 장로회를 해체하게 된 그들의 이유들을 진술하였다. 그들은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들과 당파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들은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배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극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그들은 한 장로회로써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이란 제목의 제언을 공표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치리의 단순성의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창안들과 군주적인 전통들의 제거”를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곧 바로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교회조직들(confederacies), 즉 당회(Church Sessions), 지방노회(Presbyteries), 주(州) 노회(Synods), 전국총회(General Assemblies)와 같은 사례나 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치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인위적인 조직의 이름과 승낙 아래서 벗어나기 버렸을 것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당파의 존재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죽어 가는 죄인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들은 “신선한 마음의 관점에서 멀어지는 소음과 격분의 당파싸움에서 후퇴하여 해체하여 죽기로 기꺼이 합의”하였다.

그들의 장로회 해체에 대한 그 장로회의 이유들 배후에는 천년왕국 즉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멀지 않다는 강한 증거가 부흥이라는 그들의 확신 때문이었다. 천년왕국의 도래와 기독교의 성장과 증가된 영향력의 연관성은 영국 청교도주의를

7) 역자 주: 신약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통해서 16세기까지 거슬러 추적될 수 있다. 18세기에 요나단 에드워즈는 세계복음화와 사회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스런 역사(役事)”인 천년왕국을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그가 가르쳤다.⁸⁾ 교회에서의 분열과 “당파주의”는 천년왕국의 도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써 폭넓게 인식되었다.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포함된 다음의 조항(item)은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증인들의 제언”(The Witnesses' Address)의 결론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연합함으로 종결될 우리의 서부 지역(Western country)⁹⁾에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런 사역 속에 그분의 선하심의 펼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연합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장로회를 해체함에 있어서 서명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役事)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천년왕국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서명자들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려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증인들의 제언”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썼다. 장로회로써는 죽고, “죽을 운명인 틀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고 또 말한다. 그들은 유빌레(jubilee)의 나팔을 불며, 강한 자들(the mighty)에 대항하여 주님의 도움에 자진해서 헌신한다.” 게다가 그들은 1804년 10월 14일 이에 공감하는 자들을 위해 주말에 벤엘교회에서 열린 대중 집회 때 광고함과 동시에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를 소책자로 출판하였다. 그들은 렉싱턴에서 북서방향으로 1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벤엘이 켄터키 주,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에서 모이기에 적합

8) 역자 주: 이런 주장을 일컬어 후천년설이라 부른다.

9) 역자 주: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오하이오 강(Ohio River)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를 말함.

한 중심지란 점을 주목하였다. 서명자들은 그들의 목회자의 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그들 자신의 권위의 힘으로 교회를 위해 “입법할” 그들의 권세와 장로 교회의 *치리형식*에 의해서 명백히 금지된 권세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들” 혹은 목회자들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기보다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목사후보생들을 심사하며, 목사안수를 도울 권리를 존치시켰다.

스톤은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서명하는 것에 추가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이 1804년 6월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로 최초로 주어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취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써 2개월 전 마샬의 벤틀 교회(Marshall's Bethel Church)에서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가 전한 설교에서 장로회에 추천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취함에 있어서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 자신들이 최초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운동, 즉 그들이 믿기를 천년왕국을 안내해 들 일 운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2 대속에 대한 새 빛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이전 장로회의 확신의 영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연합을 위한 노력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자들을 오랫동안 당혹스럽게 했던 신학적 문제들이 천년왕국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804년 겨울 동안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회원들은 켄터키 주노회의 회원들이 목청을 높여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전디기 어려운 압박을” 받았다. 다른 19세기 개신교도들처럼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16세기의 개혁가들로부터 물려받은 구속(救贖)에 대한 “대속의” 교리를 설교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대속자로서 죽었다. 인류는 하나님이 아담과 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와 체결한 계약법을 어겼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를 미워하시고 범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걱정했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화목제물의 선택을 필요로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의로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 혹은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의 “보증인” 또는 대속자였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또 그분은 그들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며, 구약법아래서 동물제물들이 기대했던 것의 모형론적 성취였다.

켄터키 주노회의 회원들이 목청을 높여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던 주장은, 만약,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했던 인류의 한몫 또는 일부를 위한 것만이 아닌, 그가 율법의 요구들과 모든 죄인들을 위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면, 그러면 아무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만인구원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생에서 개심을 했든 안했든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대부분의 장로 교인들과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처럼, 성서는 만인구원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스톤은 그들이 대속에 관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prayerful attention)” 성서로 돌아갔다

고 적었다.

스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보증인 또는 대속자로 언급된 말씀을 찾으려 함으로써 대속에 대한 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놀랍게도 단 한 구절의 성구에서도 그 개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에 그는 “보증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언급된 말씀을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율법과 공의가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과 고난”를 통해서 충족되었다고 언급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뒤졌다. 그러나 다시 그는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다고 언급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아버지를 선포하려는 - 진리를 입증하려는 - 약속들을 확증하려는 -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려는 -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 우리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려는 것이었음을 발견하였다. 1805년 겨울동안 스톤은 그 주제에 관해서 장로교 목사 매튜 휴스턴(Matthew Houston)에게 두 개의 서신들을 보냈고, 1805년 봄에 그 내용을 “대속: 친구에게 쓴 두 개의 서신 내용”(Atonement: The Substance of Two Letters Written to a Friend)이란 제목으로 36쪽 팸플릿을 출판하였다.

스톤의 팸플릿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의 가르침을 반대한 켄터키 주노회 회원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 반대로 그의 서신들의 발행은 기독교 믿음에 대한 그들의 교리와 근본진리들을 공격한 서신들로 검토한 그의 이전 장로교 동료들과의 문서논쟁에 불을 붙였다. 데이비드 라이스(David Rice)는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특히 장로 교인들로 불리거나 불리었던 자들인 켄터키 주민들에게 보내는 서신』(*An Epistle to the Citizens of Kentucky, Professing Christianity; Especially Those That Are or Have Been, Denominated Presbyterians*)에서 스톤의 서신들을 반박하였다. 존 캠벨(John P. Campbell)은 『탄핵, 대속이라 이름 붙여진 발톤 스톤이 출판한

두 서신들에 관하여』(*Strictures, On Two Letters, Published by Barton W. Stone, Entitled Atonement*)로 스톤의 서신들에 반박하였다. 스톤은 라이스 서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스톤이 복음의 “아버지”로 간주한 라이스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톤은 『존 캠벨의 대속에 관한 탄핵에 대한 대답』(*A Reply to John P. Campbell's Strictures on Atonement*)이란 글로 캠벨에 대응하였다. 이에 캠벨은 스톤의 대답에 『방어자: 혹은 스톤의 대답에 반하여 입증된 탄핵 교리들』(*Vindex: Or The Doctrines of the Strictures Vindicated Against the Reply of Mr. Stone*)로 대응하였다.

4.3 이전 동료들과의 결별과 신자들의 침수세례를 채택

스톤이 “대속”(Atonement)을 출판한지 6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로 점철되었다. 캠벨(John P. Campbell)은 그의 『탄핵』(*Strictures*)에서 그가 북 캐럴라이나 주의 신학도로서 아이작 와츠(Isaac Watts)를 읽음으로써 배웠던 견해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스톤의 견해가 비정통적임을 내비쳤다. 스톤은 캠벨이 자신을 삼위일체론의 이단자로 비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내가 믿었던 교리들” 방어하도록 그에게 요구했던 대로이다. 스톤은 자기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결코 쓴 적이 없다고 하였고, 수년간 대중강연들에서 “그 주제에 관해서 침묵”했었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삼위일체론에 관한 스톤의 견해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할지라도 그것들은 내부 불화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1805년 봄에 그리스도인들은 동부에서 온 웨이커(Shaker)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전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창립멤버들이었던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와 존 둔라비(John Dunlavy) 두 사람은 웨이커 교도가 되었다. 스톤은 있는 힘껏 웨이커 교도들을 맞섰다.¹⁰⁾

2년 후 스톤을 포함해서 일부 그리스도인 설교가들은 침례를 믿는 자의 침수세례로 채택하였고 그 자신들도 침례를 받았다. 스톤은 믿는 자의 침수세례에 관하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회의에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아직 그들이 이 성례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섬기는 회중들이(교회들이) 이 성례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그들 목회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회중들(교회들)의 교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의 침수세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성서이외에 다른 어떤 유대와 형제 사랑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들은 우리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고 그것들을 순수하게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충고하기 시작하였다.”고 스톤은 적었다. “규정집”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회자들 사이에는 마샬(Marshall)과 톰프슨(Thompson)이 있었다. 스톤과 다른 사람들은 규정집을 지지하는데 사용된 논쟁들이 “모든 인간 과당의 신조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것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았다. 신조는 일찍이 세상에 부과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위해(危害)하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爲)하여 규정집들을 반대하였다.”고 스톤은 진술하였다. 1810년 8월 벨엘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회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인” 연합체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의 현재의 견해들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지만, 규정집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타협이 이뤄졌다. 스톤, 마샬, 톰프슨 그리고 다른 두 명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명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샬과 톰프슨과

10) 역자 주: 셰이커 교도들은 엄격한 금욕생활을 요구하며,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단의 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똑같이 산출물을 받는 일종의 생활공동체(commune)이다. 이들은 1774년 미국에 도착했으며 1850년경 약 4,000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구성원들이 줄어들었다.

다른 한 명의 목회자가 삼위일체와 대속에 관한 정통교리들을 확언하기를 원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견해들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1811년 3월 다볼(Tabor) 산에서 열린 목회자 모임 회의가, 스톤의 지도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교리적 차이들이 친교를 갈라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 성명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 마샬과 톰프슨은 장로교 교단으로 회귀해버렸다. 그래서 1811년 봄까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다섯 창립멤버들 가운데 스톤만 홀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4.4 『제언』(An Address) 출판, 셸리아 보웬(Celia Bowen)과 재혼, 테네시 주로 이주

1814년 스톤은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오하이오 주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제언.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리에 관하여』(An Address to the Christian Churches in Kentucky, Tennessee and Ohio. On Several Important Doctrines of Religion)를 발표하였다. 『제언』(An Address)에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 성령의 작용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었다. 스톤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존 톰프슨(John Thompson)에 의해 “연결된” 교리 성명서를 쓰는데 실패한 작성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1811년에 쓴 응답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고 적었다. 스톤의 제언이 3년 뒤에 나온 것은 십중팔구 작성 위원회에 임명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의 개인적인 정황들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 때문이었다.

1810년 5월에 엘리자베스가 죽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는 가사와 교인들 그리고 네 딸의 숙식을 돌보지 않았고, 오하이오 주, 켄터키 주, 테네시 주에서 설교와 교회들의 설립에 전념하였다. 1811년 10월 31일, 그는 19살의 엘리자베스의 조카 셸리아 윌슨 보웬(Celia Wilson Bowen)과 결혼하였고, 그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던 켄터키 주 부르본 군(郡) 소재

농장에 가족을 위한 집을 재건하였다. 한 해 말에 그와 셸리아는, 스톤에 따르면, “충고와 심한 설득으로 권유를 받고” 과부인 셸리아의 모친과 가까운 테네시 주로 이사하였다. 보웬 부인은 그들을 좋은 농장에 자리 잡게 하였지만, 안락한 집이 없었다. 그 결과 스톤은 그의 시간 대부분을 농장의 발전과 집을 건축하는데다 전념하였다고 스톤은 적었다. 스톤은 또 1812년과 그 다음해에 각각 얻은 두 아들로 인해 식구가 늘어남으로써 『제언』(*An Address*)을 출판할 마음의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1815년 켄터키 주 멀세르(Mercer) 군(郡) 장로교 목사 토마스 클리랜드(Thomas Cleland)는 『소시니-아리안 간파됨』(*Socina-Arian Detected*)이란 이름을 붙인 100쪽 분량의 책이 스톤의 『제언』(*An Address*)에 대한 응답으로 출판하였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관하여 그의 마지막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7년간 다시 출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제언』(*An Address*)을 출판하고 나서 머지않아 시작된 그의 개인적인 정황들 속에서 생긴 심중팔구 또 다른 연속적인 변화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4.5 켄터키 주로 귀환

스톤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테네시 주에서 그의 장모가 농장의 권리를 그에게 주려고 계획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녀의 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양도하려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집을 짓고 농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도하였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 그녀의 토지들이 켄터키 주법에 따라서 그녀의 자녀들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결정에 대해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장모의 결정을 알자마자 켄터키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셸리아가 그의 결심을 승낙했다고 보도하였다.

켄터키 주로 돌아간 후의 상황은 스톤이 일찍이 상상했을 법

한 것 이상으로 더 어렵게 되었다. 1812년에 그는 부르본(Bourbon) 군(郡)의 농장을 팔았다. 한편 1812년의 전쟁으로 야기된 수요와 더불어 켄터키 주의 통행료징수소와 오하이오 주와 미시시피 주의 증기선 통행의 출범이 농장의 소출가격을 상승시켰고, 켄터키 주에서의 농지가격이 크게 뛰어들었다. 스톤이 켄터키 주에서 농장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가 팔았던 비슷한 토지의 가격이 두 배 이상 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스톤은 보도하였다.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켄터키 주에서 농장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톤은 그의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렉싱턴의 형제들”(the brethren in Lexington) 사이에서 정착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렉싱턴의 형제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조지아(Georgia) 주에서 교사로서 환영을 받았던 스톤은 그의 가족 부양을 위해서 렉싱턴에서 고등학교를 열라는 요청을 받았다.

1819년 스톤은 렉싱턴(Lexington)에서 북쪽으로 19킬로미터 떨어진 조지타운(Georgetown) 소재 리튼하우스 아카데미(Rittenhouse Academy)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해 가을 그는 조지타운 근처에 농장을 사서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1819-20의 가을과 겨울동안 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그의 직무들을 수행하는 한편, 그는 조지타운에서 설교를 하였고, 조지타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곧이어 교인이 2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스톤이 알지 못한 채 북 켄터키 주에 소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회집하여 스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그를 아카데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것과 조지타운 근처의 농장을 구입하면서 생긴 빚을 갚기로 합의하였다. 스톤의 『제언』(*An Address*) 출판이후 또 다른 두 딸과 또 다른 한명의 아들(또 다른 한명의 아들인 스톤의 열 번째 아들은 1824년에 출생하였다.)까지 아홉명으로 스톤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교회들은 실제적인 도움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19년 중대한 경제 불황

에 빠졌고, 농장에 대한 어음 지불 시기가 닳았을 때 약속된 기금은 모아지지 않았다. 스톤은 농장 빚을 갚을 돈을 빌려야 했고, 그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조지타운에 학교를 열어야 했다. 이 수단으로 그는 그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그가 믿기를,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달린” 결과로 나빠졌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고, 거의 50살이 되었지만, 농장의 “힘든 노동으로 돌아갔다.”

4.6 삼위일체론과 대속론에 관한 논쟁을 일신

1821년 스톤은 『제언』(*An Address*)의 재판을 발행하였다. 재판의 서론에서 그는 “진리를 널리 보급하고픈 충정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게 “수정되고 상당히 증보된” 저술을 보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책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렉싱턴에서 가르치는 동안 스톤은 그가 “학식이 많은 유대인”으로 기술한 프로이센(Prussian) 의사와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할 기회를 활용하였다. 클리랜드(Thomas Cleland)는 스톤이 “수박겉핥기식의 헬라어와 심지어 그보다 못한 히브리어 실력을 갖췄다”고 밝히면서 흠정역(KJV) 성경의 어떤 본문들의 번역에 대한 스톤의 비판을 조롱하였다. 대속론 부분에서 스톤은 “내가 나의 『제언』(*An Address*) 초판을 발행한 이후 내가 습득한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밝힌 히브리어로부터 “몇 개의 요점들”을 추가하였다. 모든 수정은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룬 부분들에서 이뤄졌다. 초판에서 스톤은 와츠(Watts)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as the *human* soul of Christ)과 동일한 것으로 분명히 간주하였다. 게다가 그를 태어난 혹은 만들어진 자로 말하였다. 클리랜드는 그가 아들을 단지 피조물로 믿는 아리우스주의(Arianism)라고 비난하였다. 재판에서 스톤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인간(the soul of Christ as human)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들을 “만들어진”(created) 자로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자신으로부터와 그 자신에 의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로 예수님이 불렀다고 제시하였다. 스톤은 『존 모어랜드에게 보낸 서신』(*A Letter to John R. Moreland*)에서 그가 아리우스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톤의 『제언』(*An Address*)의 재판권을 읽었다고 주장한 모어랜드는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서신』(*A Letter to the Church at Mount-Pleasant*)에서 아들은 “만들어진 존재, 변하기 쉽고 변덕스런 피조물”이라는 가르침으로 스톤을 비난하였다. 모어랜드가 가르침으로 그를 비난한 견해는 아리우스의 견해였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스톤의 견해는 “아리우스의 것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들이었다. 아리우스를 정죄한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은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였다”는 것이었다고 스톤은 적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본체(substance)라면, “그는 만들어진 자가 아니며, 아버지로부터 그의 존재가 기원(*derived*)되었다”고 스톤은 말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반대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1822년 토마스 클리랜드는 스톤의 『제언』(*An Address*) 재판 본에 대한 172쪽짜리 리뷰(평론)를 『그의 “제언” 재판 본에서 그가 행한 최근의 공격들에 반(反)하여 주로 삼위일체론, 구세주의 신성론(神性論)과 대속론(代贖論)의 해명을 담은 발췌 W. 스톤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Barton W. Stone Containing a Vindication Principally of the Doctrines of the Trinity, the Divinity and Atonement of the Saviour, Against His Recent Attack in a Second Edition of His "Address"*)이란 제목을 붙여 발행하였다. 매도성(罵倒性)의 『소시나-아리안 간파됨』(*Socina-Arian Detected*)과 클리랜드의 『서신들』(*Letters*) 양자의 어조를 간파한 다음, 1824년 스톤은 클리랜드의 『서신들』(*Letters*)에 『토마스 클리랜드 박사의 논거들에 대한 대담으로 계획된 제임스 블라이스 박사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James Blythe, D.D. Designed as a Reply to the Arguments of Thomas Cleland, D.D.*)이란 제목의 책으로 응대하였

다. 로버트 마샬과 함께 블라이스는 장로회의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스톤이 그에게 1798년 10월 그의 안수식 날에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던 인물이었다. 스톤은 『제언』(*An Address*)의 초판과 재판 모두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인격(persons) 혹은 “존재”(beings)로서 말하였지만, 성령을 존재로서 말한 적은 전혀 없었다. 스톤은 그의 『블라이스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James Blythe*)에서 성령에 관한 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그 인격 자신(the person himself)으로가 아니라 한 인격(a person)으로 이해한다.”고 스톤은 썼다. “우리는 종종 성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읽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나 아들이 한 인격으로서 성령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읽지 않는다.”고 스톤은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사례들과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성서에는 성령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건의 사례나 교훈도 없다.”고 썼다. 1825년 스톤의 재판 『제언』(*An Address*)에 대한 논쟁에서 클리랜드는 『가면을 벗긴 일신론: 펼쳐진 반-기독교적 특징들: 그리고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그것의 기초; 블라이스 박사 목사에게 보낸 발톤 W. 스톤의 서신들에 대한 대답에서』(*Unitarianism Unmasked: Its Anti-Christian Features Displayed: And Its Foundation Shewn to be Untenable in a Reply to Mr. Barton W. Stone's Letters to the Rev. Dr. Blythe*)로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다.

5. 알렉산더 캠벨의 추종자들과 연개

1811년 마샬과 톰프슨이 장로교회로 회귀한 지 20년 이내에 서부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오하이오 주, 인디애나 주에서 교인이 16,000명이 넘게 성장

하였다. 많은 이들이 신앙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가입하였고, 다른 이들은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꽤 많은 수가 침례(자) 교회들의 교인들이었고, 종종 침례(자) 교회 협의회들이 통째로 들어오곤 하였다. 이들은 오직 성서에만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자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였다.

스톤은 1824년 가을에 자기보다 16살이나 아래인 알렉산더 캠벨과 만났다. 그때 캠벨은 두 달간 켄터키 주 소재 렉싱턴, 베어사이(Versailles, 베르사유), 루이빌, 그보다 작은 지역들과 시골 교회들 사이를 순회 집회 중이었다. 51세였던 스톤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가 “종종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그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의 태도와 내용에 기뻐다“고 하였다. 캠벨이 켄터키 주 패리스(Paris)에 있을 때, 캠벨에게 보내진 스톤의 초청에 따라서 캠벨은 조지타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연단에 섰고, 숙식은 스톤의 집에서 하였다. 일 년 전 캠벨은 월간지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의 발행을 시작하였고, 월간지에 실은 기사에서 신앙고백서를 반대하였으며, 교회들이 신약성서에만의 환원 혹은 사도 질서에만 개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캠벨의 견해로 인한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분열이 1825년에 예시(豫示)되었다. 루이빌 소재의 한 침례(자) 교회가 침례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Baptist 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를 반대하고, 성서만을 그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안내자로 삼으며, 켄터키 주에서 캠벨의 개혁에 공식적으로 공감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캠벨의 개혁에 대한 완강한 반대가 곧바로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826년 봄 켄터키 주 블룸필드(Bloomfield)의 침례자 스펜서 클락(Spencer Clack)은 캠벨이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에 실은 글들과 “옛 질서(사도전통)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관한 그의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공

격하면서 그 자신의 신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일 년 이내에 캠벨의 반대자들은 캠벨의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잡지인 『뱍티스트 리코더』(*Baptist Recorder*)를 사용하고 있었고, 협의회들은 캠벨의 개혁들을 주창하는 설교자들을 정직(停職)시키기 시작하였다.

1827년 이후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된 캠벨의 개혁들 가운데 한 가지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였다. 침례자들은 침례의 설계나 목적이 교회의 회원들로서 신자들을 구별하거나 “인치기”(to seal)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쳤다. 침례를 받기 전에 후보자들은 전형적으로는 그들의 회심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 캠벨이 1823년 10월 장로교인 맥칼라(W. L. Maccalla)와 가진 캠벨의 토론회 둘째 날에 “침례의 설계와 취지”의 독특한 관점에 근거해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논의를 끌어들었다. 캠벨은 그 주제에 관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마 침례자들이나 유아세례자들이” 침례의 설계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캠벨이 제안하기를 신약성서에서 침례의 중요성을 지목한 소수의 신약성서의 본문들을 인용한 후에 그는 침례의 설계는 신자들에게 모든 죄로부터 “정화”(cleansing)의 확신 또는 “공식적인 표시”(formal token)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캠벨은 “침례가 신자에게 그가 지은 모든 죄의 공식적 혹은 개인적 사함이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 성례의 성격과 취지를 크게 곡해하고 악용하지 않고서는 유아에게는 시행될 수 없다”고 논하였다.

캠벨의 전기 작가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은 캠벨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론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교리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란 죄 사함과 성령의 내주의 확신을 원하는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하는 것을 리차드슨은 의미하였다. 리차드슨은 침례의 목적에 관한 캠벨의 견해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 캠벨의 동료였던 윌터 스코트

(Walter Scott)였다고 주장하였다. 스코트는 1827년 8월에 마호닝 침례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의 전도자¹¹⁾로 임명되었고, 11월에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826년 봄에 벌써 캠벨의 견해에 정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설교가들은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권하고 있었다. 1827년 1월 스톤은 그 실행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다.

1826년 11월 스톤은 월간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발행을 시작하였다. 스톤은 1827년 7월에 실은 “그리스도인 침례자에게”란 제목의 기사에서 캠벨에게 제안하였다. 그는 캠벨의 재능들과 학식과 캠벨이 따랐던 과정의 “보편적” 찬성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였다. “여러 점에서 귀하의 종교적인 견해들은 우리의 것과 또 우리가 희망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들을 지향했던 한 가지 점에 일치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리를 합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하기를, “우리는 삼손의 팔과 다윗의 용기로 해묵은 파당의 기초를 허무는 귀하를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캠벨과 그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능력의 전쟁,”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캠벨이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년간 교전했다고 그가 주장한 전쟁을 따랐던 것은 “무관심한 구경꾼들로서가 아니었다.”고 관찰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캠벨을 찬양하거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거나 혹은 종교(신앙) 논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 캠벨로부터 “종교에 관한 추측(사색)의 사악함을 좀 더 충분하게”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스톤은 캠벨이 그의 선배들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관하여 추측하고 이론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놀람과 슬픔을 표시하였다. 스톤은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의 5월분 발행

11) 역자 주: 부흥사.

에 실린 삼위일체(the Trinity)에 관한 기사를 말하고 있었다. 다음 해에 걸쳐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 공포된 기사들은 스톤과 캠벨이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톤이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목회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반면, 캠벨은 회중(교회)이 투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다. 주의 만찬에 관하여 캠벨은 성찬을 침수세례자에게 국한해야 한다고 가르친 반면, 스톤은 그 침수세례 하나만을 침례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신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성찬을 침수세례 받은 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개혁가들¹²⁾과 그리스도인들¹³⁾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었다.

10년 말엽까지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분열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아마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4분의 1내지 3분의 1까지 (어쩌면 10,000정도) 캠벨의 편에 섰다.¹⁴⁾ 1829년 9월 스톤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 보도하기를, 최근에 “한 유덕한 침례자 형제가” 왜 그리스도인들(Christians)과 “신약성서 침례자들이”(New Testament Baptists) 하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었다고 하였다. 스톤은 “침례자들 사이에 신약성서 개혁가들이 우리가 인정한 부분을 보편적으로 행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모든 파당의 이름들을 거부하였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취하였으며, 그들은 피차 “성서를 읽고, 그들 스스로 그것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들은 “친교의 시금석으로써 특정한 교리들을 믿도록 피차에 묶지” 않았다. 두 단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방해할

12) 역자 주: 캠벨 측의 호칭.

13) 역자 주: 스톤 측의 호칭.

14) 역자 주: 1800년대 초기 켄터키 주는 변방 개척지였으므로 인구가 많지 않았다.

아무 것도 우리 가운데 없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그것에 반대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마음)으로 하나이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끈들을 튼튼히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덧붙였다.

캠벨은 스톤의 진술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뱀티스트』(*Christian Baptist*)와 그것의 후속지(後續誌)인 『새천년 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아리우스주의(Arianism)와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피력하도록 허락하였다. 스톤은 개혁가들이 그들의 “침수세례에 대한 독특한 견해들”을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1830년 8월 두 번째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개혁가들(Reformers)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의 연합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번에는 캠벨 자신이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응답하였다. 그는 “죄 사함”(Remission of Sins)에 관해서 그가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 기고한 “부록”(Extra)을 스톤이 검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for remission of sins)를 뺀, 어떤 침수세례도 없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킬 것이라는 그의 소망을 피력하였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관해서 그는 그것이 “신성(Deity)의 묘한 견해들”(peculiar views)을 연상시켜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분파”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취한다면, 어떻게 개혁가들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의 준수와 같은 개혁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차별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개혁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이름을 추천하게 되었다.

스톤은 캠벨의 대답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830년 9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매주

일 주의 만찬을 정말 지지하고 나왔다. 캠벨은 1830년 10월호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스톤이 주의 만찬의 매주일 기념을 승인한 것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록 스톤이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스톤이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그가 “얼마 전” 생각해봤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1831년 8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는 관행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의 헌신을 방어하였다.

스톤과 캠벨사이의 주고받기 논쟁은 1831년 12월까지 계속되었지만, 스톤의 입장에서는 연합에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쨌든 간에 스톤은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연합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였다. 그해 초에 그는 개혁가 소속 존 T. 존슨(John T. Johnson)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계를 형성하였다. 변호사요 전 국회의원이었던 존슨은 조지타운 서쪽의 그레이트 크로싱즈(Great Crossings)에 있는 침례자 교회의 교인이었다. 그레이트 크로싱즈 침례자 교회를 캠벨의 개혁으로 이끄는 데 실패한 존슨과 다른 두 사람은 그 교회를 그만두고 1831년 2월에 그레이트 크로싱즈에 제자들의 교회(회중)를 조직하였다. 10월에 조지타운과 그레이트 크로싱즈 일대의 제자들(Disciples, 캠벨 측)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스톤 측)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832년판 책의 설명에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공동 편집인으로 존슨이 스톤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11월 말에 개혁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하여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논의가 조지타운에서 있었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 소속 존 로저스(John Rogers)와 개혁가 소속 존 스미스(John Smith)가 있었다. 스미스와 로저스는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회중들을 절충하여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켄터키 주 전역을 함께 여행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이

노력을 출범시키기 전에 조지타운에서 크리스마스를 끼고 4일간의 집회와 그와 유사한 집회를 신년을 끼고 렉싱턴에서 개최할 것과 주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이 참석하도록 초청할 것을 합의하였다.

조지타운 논의에 의해서 계획된 4일간의 크리스마스와 신년 집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 모두에 의해서 좋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존 스미스의 전기 작가 존 아우구스투스 윌리엄스(John Augustus Williams)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협의하였다.” 비록 집회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들은 없지만, 윌리엄스는 렉싱턴 집회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혁가 소속의 스미스는 개혁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서 위에서만 연합할 것을 요청하였다. 스톤은 스미스의 호소를 지지하는 자신의 소견을 마치면서 “환희와 형제 우애로 전율하는 손”(a hand trembling with rapture and brotherly love)을 스미스에게 내밀었고, 스미스는 “진실한 친교의 징표들이 가득 담긴 손으로”(by a hand full of the honest pledges of fellowship) 스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았고, “한 노래가 일었다.” 주일에 참석자들은 다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다.

1832년 1월호에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선포하였다. “이 연합을 증대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혁가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알려진 존 스미스와 존 로저스가 “함께 말을 타고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기 위해서 또 기술된 양쪽 교회들의 연합된 기부금들의 지원을 동등하게 받기 위해서” 선발되었음을 또한 알렸다.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주들과 지방들에서 그래서 합칠 것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에서 스톤과 그의 새로운 공동편집자는 대답하기를, “만일 그들이 그들의 고백에서 성실하고, 파당심이 없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합칠 것이다.”고 하였다. 공동편집자들은 인디애나 주의 러쉬(Rush) 군(郡)과 테네시 주

의 모리(Maury) 군(郡)에서의 연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연합의 정신(the spirit of union)이 세 개 주(州)들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법에서 동시에 진척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뻐하였다.

스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연합의 열쇠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정신(the spirit)이었다. 1833년 10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연합의 네 종류를 기술하였다. 책 연합(Book union)은 하나의 신조나 신앙고백서 위에 세워졌다. 머리 연합(Head union)은 고백서의 조항들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책 연합과 같다. 물 연합(Water union)은 물에 들어가는 침수세례위에 세워졌다. 불 연합(Fire union)은 “정신의 일치, 즉 진리의 정신위에 세워진 하나의 연합”이었다. 불 또는 정신 연합은, 그가 주장하기를, 홀로 “설”(stand) 것이며, 다른 어떤 연합도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 “이 정신은 기록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인위적인 형식이나 일련의 견해들로 되지 않고, 죄인들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알려진 주님의 모든 명령들을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이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즉 모든 종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이끌어준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불 연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가 말하기를, “잔가지 다발을 한데 묶어서 그것들을 함께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였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이 “어떻게든 상호 연합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살아 있는 줄기에 연합해야 하고, 그것의 수액을 받아야 하며, 정신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정신 안에서 피차 연합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그의 정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킬 많은 계획들을 궁리하였지만, 모두

혔되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오직 한 가지 효과적인 계획,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 안에서 걷는 계획이 있을 뿐이다.“고 그는 충고하였다.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연합을 성취시키려는 스톤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들은 켄터키 주에서 크게 성공적이었다. 캠벨의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르침을 거부한 많은 오하이오 주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인디애나 주 그리스도인들이 개혁가들과 합치는 것을 거절하였다. 스톤은 여생을 그 정신에서 연합에 힘썼다. 그러나 1834년까지 그의 관심의 상당 부분은 그의 가족이 켄터키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이주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 이주는 그의 목회기간 내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전념했던 이슈인 노예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6. 교회와 사회

6.1 노예제도에 대한 초기 반대

스톤은 케인 리지(Cane Ridge)와 콘코드(Concord) 소재 회중들(교회들), 즉 그들의 반노예제도 정서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회중들 사이에 정착한지 얼마 못되어 노예제도의 반대자가 되었다. 이웃 장로교회의 목사 사무엘 렌널즈(Samuel Rennels)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톤은 왜 그가 노예해방에 찬성하는지를 8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편지 가운데 날짜와 첫 세 가지 이유들이 적힌 부분은 분실되었다. 남아 있는 다섯 가지 이유들은 노예제도의 잔인성과 가족 책무들 수행의 상반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스톤은 단언하기를, “노예제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묶는 끈들, 즉 다른 모든 것들의 가장 강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끈들을 풀어버린다. 이들 끈들 가운데 한 가지가 부부애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울며 어찌할 줄 모른 채 포옹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즉 짐승처럼 팔려서 멀리 끌려갈 아내에게서 떼어진

다.... 어떻게 이 사랑하는 부부의 행복이 끊임없이 파괴되어야 하는가! 필경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dear to both' 가 선을 그어 지워짐)...."라고 하였다. "말해보라. 이것이 옳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Or)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우리의 아내들과 결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그는 렌널즈에게 물었다. 스톤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 편지를 끝냈다. "많은 이들이"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는 주시하였다. 그는 계속하기를, 어떤 경우든 "자녀들은 시민 정책이 하나님의 명시된 뜻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800년 스톤은 케인 리지와 콘코드 교회들의 결의안을 서(西) 렉싱턴 장로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의안은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고, 매우 악질적이며, 따라서, 그런 관행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교회의 특권들에서 배제시키기에 충분하다"(consequently sufficient to exclude such as will continue in the practice of it from the privileges of the church)고 주장하였다. 장로회는 노예 소유주들은 교회의 특권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로회의 대다수 의견이지만, 그들은 상위의 심판기구들로부터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그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의안을 버지니아 주 노회와 총회에 보냈다.

다음 해에 스톤은 그의 모친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두 명의 노예들, 네드(Ned)와 루시(Lucy)를 해방하였다. 부르본(Bourbon)군(郡) 법원에 제출한 해방 증서에서 스톤은 노예제도는 시민의 자유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원칙들에 모순" 된다고 단언하였다. 그가 보도하기를 30세쯤이었던 네드와 2년 후 그가 보도하기를 12살가량이었던 루시를 해방하기 위한 그의 준비들은 10년 후 점증하는 노예해방의 철학, 즉 해방하기 전에 노예들이 자유를 누릴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철학과 일치하였다. 스톤은 네드

에게 자유를 주기 전에 기술을 연마시켰다. 그는 루시에게 젊은 여인으로서 자유를 주기 전에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서와 신앙”으로 키웠다.

1808년에 가서 스톤은 교회에서 노예 소유주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바꿨다. 이것은 스톤이 켄터키 주 노회와 결별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갈등들의 결과 때문이었을 것이다. 렉싱턴 근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스톤은 “그의 지식이 미치는 한, 그들 가운데 노예들을 소유하고, 그들의 행위와 품행이 올곧은 어떤 교인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다른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 그들의 상당수가 그날의 짐과 열기를 짊어졌고,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이름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다는 것, 그들에게 단교를 선언하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극도로 잔인하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예 해방론자들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친교 하는 것임을 스톤은 또한 확신했을는지 모른다. 그가 1807년에 신자의 침수세례를 성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20년 이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침수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5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고 그는 나중에 적었다.

6.2 해방 흑인들의 이주 지원 및 일리노이 주로 이사

교회에서 노예 소유주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스톤의 입장은 또한 노예해방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스톤이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 사이에서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사무엘 렌널즈(Samuel Rennels)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렌널즈에게 충고하였지만, 스톤의 전기 작가 존 로저스는 “일반적인 것으로써 해방된 흑인들이 갖는 자유라 부르는 무언가가 그들과 백인 모두에게 불행이다”는 “이어진 관찰”이 스톤을 확신시켰다고 적었다. 그래서

1820년대 기간에 스톤은 미주 이주 단체(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의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그의 진술된 목적은 “미주 대륙에서든 아프리카 대륙에서든 이주민 거류지(a colonial retreat)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해방 유색 국민의 상태(Free People of Colour)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사회집단의 설립자들은 노예 소유주들이 그들의 이동을 확신한다면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자발적인 기구로써 1816년에 설립된 그 사회집단은 국민기금조성을 추구하였다. 1821년 서부 아프리카에 부지를 구입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해방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이주시킬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라이베리아 이주지(the colony of Liberia)를 세웠다.

1834년 9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는 그해 가을 일리노이 주 잭슨빌(Jacksonville)로 이사하려는 스톤의 의도를 담은 통지를 실었다. 비록 스톤은 자신의 이주 결심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오랜 독자들은 그것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의 반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1830년 12월에 스톤은 그가 노예 소유주가 되었다는 루머를 해명하였다. 루머의 근거는 스톤이 조지타운에 있는 그의 집에 한 명의 아프리카 남성과 두 명의 아프리카 여성과 네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스톤은 이 사람들이 고인이 된 장모의 유언, 즉 그들을 수탁자들의 지배아래 놓고 있는 유서에 따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구히 유산으로 남겨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으므로, 그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그들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경향이 심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같은 노예해방은 그의 가족이 자유로운 주(州)로 이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진 노예들은 해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1830년에서 1835년까지 스톤은 일리노이 주 잭슨빌 부근에 네

개의 부지를 구입하였다. 1832년 10월 30일에 광장 남쪽 두 블록 떨어진 잭슨빌에 그의 집터가 될 세 개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1834년 늦은 가을 스톤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다. 4년 후에 스톤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진 아프리카인들에 관한 그의 의도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해하였다. 켄터키어로 여행 중일 때 스톤은 예전의 노예들이 자유인의 한 가족으로서 조지타운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방문하였다.

6.3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지원

스톤은 1830년대 초 내내 계속해서 이주 단체(Colonization Society)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1833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스톤의 일리노이 주(州)로의 이사는, 아프리카인들을 미국에 그대로 남겨둔 채, 이주 계획(colonization scheme)의 포기과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요구의 승인과 동시에 일어났다. 1835년 4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의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가 쓴 (by William Lloyd Garrison's New England Anti-Slavery Society)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노예제도에 관한 제언"(Address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Slavery)의 연재를 시작하였다.

스톤은 3회분을 실은 후에 "제언"의 출판을 그만 두었다. 그 대신에 그는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 7월호에서 바람직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즉각적인 폐지를 옹호하는 두 개의 기사들을 실었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1월호에서 그는 왜 그가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의 제언"의 연재를 6월에 3회째 분을 실고 나서 그만뒀는지를 설명하였다. "제언"을 실기 시작한지 얼마 못해서 "북부에서 극단적인 폐지주의자들의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들었고, 더

이상 신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의 흥분상태에서는 좋게 하기보다는 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가 언급한 나쁜 영향들은 폐지론자들에 *반대한* 소란들이었고 폭력적인 행동들이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모든 노력들에 반대한 노예제도 지지자들의 점증하는 저항이었다. 그는 “이들 몇 회분들의 출판에 대해서 동부와 남부에 사는 나의 오랜 후원자들과 친구들 여러 명이 불쾌한 일을 당했고,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중단을 주문하였다고 적었다. 그는 단언하기를, “나는 거의 40년 동안 노예제도의 양심적 반대자였던 원칙과 실천이 있으나 악행들을 고칠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것이 이뤄져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단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였다.

6.4 노예, 그리스도인 연합, 전 천년설

스톤은 노예제도가 천년왕국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곤 것을 확신하였다. 게다가 그는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였다. *후천년설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동안 영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전천년설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심판 가운데 오실 것이고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개인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스톤은 적어도 1830년대 이후로부터는 *전천년설론*자였다. 스톤의 천년왕국론의 열쇠는 스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두 가지, 즉 “유대인들의 돌아옴(회개)과 구원”과 “들어온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좌우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스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천년이 바뀌는 중심점이었다. 스톤은 하나님께서 19세기에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가까웠고, 또 그것과 더불어 노예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확신하였는데, 1835년에 그가 인정했던 것처럼, 심

지어 그것이 폐지될 수단을 그가 몰랐던 때에도 그랬다.

한편 스톤의 전천년설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의 위협으로 노예 소유주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권고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의 첫 번째 전천년설의 적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라이베리아로 가도록 허락하라는 그의 마지막 호소가 되고 만 것에서 나타났다. “노예들이 그 속에 포함된 바빌론의 상품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지 말라”고 1833년에 그는 충고하였다. “보라. 그가 신속히 오신다.” 스톤은 그가 왜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의 “제언”을 그만 뒀는가를 설명한 후에 그의 전천년설을 1835년 11월에 두 번째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적용하였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원칙과 실천들을 시세에 영합함으로써 그들의 기초인 성서에서 쓸려나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권고하였다. “의로운 심판의 날은 가까웠다. -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육체와 영혼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그날을 준비하라.”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하였다.

6.5 반정부입장 채택 및 평화주의

1820년대 스톤은 의회가 해방 노예들의 이주를 책임지라(to fund)고 요구하는 청원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184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노예제도를 종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톤의 환멸과 나타난 대중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그의 반대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제안하도록 만들었다. 스톤은 이 제안을 1842부터 1844년까지 발행된 네 개의 시리즈 기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소지한 민간과 군(軍)의 직책들”(Civil and Military Offices Sought and Held by Christians), “옛 시대의 반성”(Reflections of Old Age), “T. P.

웨어에게 보낸 답장“(Reply to T. P. Ware)[시리즈의 첫 회분 기사에 대응하여 스톤에게 편지를 보낸 미시시피의 변호사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구(新舊) 설교가 사이의 인터뷰“(An Interview between an Old and Young Preacher)에 관한 두 “그리스도인 형제” 사이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이들 네 개의 기사들에서 스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개의 논의를 발전시켰다. 첫 번째 논의는 정부에의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부정적인 충격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적 통치와 예수님의 법들이 세상을 통치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시민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대화에서 스톤의 견해를 대표한 형제는 시민 정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우리의 왕의 것에 반대 입장에 서지 아니한 그것들과 그것들의 모든 법령들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세를 지불해야 할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지불할 자에게 관세를, 경의를 표해야 할 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4장을 언급 하면서 상충되는 사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단언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정부들을 위해서 또 그들 자신의 정부에서 “매우 활기차고 빛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 정부들보다 그것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어 그것을 받게 하고 구원 얻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관련된 것이 병역의 이슈였다. 1812년 전쟁이후 미국에서는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평화운동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침략과 국방사이에서 무력의 사용을 구분지어 전자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838년에 헨리 클라크 라이트(Henry Clark Wright)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이 이끈 그 운동내의 “극단주의자들”은 비저항 단체(Non-Resistance Society)를 구성하여 정당방위(正當防衛)에

서조차 무력사용에 반대하였다. 라이트와 게리슨은 비저항의 실천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스톤은 1827년 말에 침략에 맞서 그들 자신들을 방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는 논의를 개진하였다. 1844년 7월까지 그는 비저항의 주창자였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국가는, 그러면서도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 그 정부는 반기독교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그들은 불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스톤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교회 안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란 것을 알았다. 1842년 대화에서 스톤의 견해를 대표하는 성격은 그의 견해들이 “광신적 행위 또는 극단주의”로 분류될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주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스톤이 그것을 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견지한 견해들의 연장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T. P. 웨어에게 보낸 답장”(Reply to T. P. Ware)에서 그는 “우리의 형제들은 인위적인 신조들과 교회 통치법들에 반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진행해왔던 것의 적법한 이슈를 보지 못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통치의 토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7. 스톤-캠벨 운동과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후기 성찰

스톤은 1844년에 그리스도인 연합에 대한 전망들이 “어둡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특히 목회자들이 그들의 진리의 관점에 일치하지 않고, 또 그들의 체계들에 완전히 묶여서 그것들에서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고 적었다. 1844년 3월에 그는 그리

스도인의 교회들에 실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기술하기를, 일찍이 그는 "다양한 분파들에서 매우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대하고, 그들 분파의 인위적인 신조들을 배척하며, 그들의 믿음과 삶이 형성되어야 할 규칙으로써 오직 성서만을 취하고, 그들의 분파 이름을 버리며, 좋고 오랜 이름 그리스도인을 고수하였을 때, 그리스도인 연합이 곧 실현되리라는 희망으로 크게 고무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기술하기를, "만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가 시작한대로 성령의 안위 속에서 살고 걸었다면, 틀림없이, 기대했던 그 결과는 실현되었을 것이다. 모든 분파의 정말 좋은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고, 매우 거룩한 목적으로 연합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관대함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데 게을리 하였고," 어떤 이들은 "견해들로 인한 헛된 논쟁에 치우쳤고, 자극하여 반박과 토론과 다툼이 일게 하였으며," 또 많은 이들이 "순수한 기독교어로 영혼들을 회심시키려하기보다는 개종시키려는데 더 열중한다."고 애석해하였다. 3년 전에 그는 "그 비밀은 이렇다. 예수님의 정신(spirit), 이 정신의 결핍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큰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회복된 이 정신은 연합의 큰 원인이 될 것이다."고 단언하였다. "이 정신으로 당파심은 사망할 것이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는 "그것 없는 공언만의 반당파심은 어떤 다른 것만큼 지독한 당파심이 될 것이며, 십중팔구 더욱 편협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곧 성취될 것 이라는 그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1844년 6월에 그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떤 생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역을 통해서 몰아가시거나 이끌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킬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천주교가 득세할는지 모른다. 그러면 경각심을 품은 목자들을 몰아세워 공동 안전을 취하게 하실는지 모른다."는 의향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그들의 무리(양떼)를 연합시킬는지 모르

며, 그것을 전 세계로 번지게 하실는지 모른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로 멈춘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교회를 연합시키실는지 모른다고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연합이 참된 교회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탄압 없이 성취될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의 회복에 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대한 실망을 고백한 1844년 3월 기사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하기를,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배를 조종할만한 현명하고 거룩한 인물들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된 좋은 것들이 아직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1844년 5월에 발행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4권 4호의 서언에서 스톤은 모든 이름의 개신교회들은 “가톨릭의 영향력을 좌절시키거나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반가톨릭 단체들을” 조직했거나 조직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같은 단체들이 “진리의 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반대”의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의 우려를 표시한 후에, 스톤은 그러나 만일 “개신교회들 사이의 모든 분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에 거룩해지고 겸손하여지며 순종하려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기로 동의한다면, 만일 그들이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토론들과 사람들과의 분쟁을 멈추기로 동의한다면, 그리고 지상에서 경건과 형제의 우애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기로 동의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들의 인위적인 조직들과 강령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성서와 오직 성서만으로 바꾼다면,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여지고, 그들의 무리(양떼)와 세계 앞에서 본을 보이며,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을 권고하여 애정이 넘치도록 그들을 따르도록 할 것을 동의한다면, 만약 그들이 열정적이고 엄숙하며 신실한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서 함께 만날 것을 동의한다면, 그러면 가톨릭의 전파가 멈출 것이고, 회의론은, 주님께 개심하지 않는다면, 깨뜨려질 것이고,

침묵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에 근접해야 가톨릭의 철장(鐵杖)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적어도 이쯤은 돼야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일 년쯤 전에 스톤은 오직 성서 위에서, 그가 성서적 연합의 순수한 매력이라고 파악한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그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는 “지금 기독교계에는 커다란 상반되는 권력들, 즉 교부들의 전통들 위에 세운 로마천주교회와 그 같은 모든 전통들을 거부하고 오직 성서위에만 세운 자들이 있을 뿐이다”고 한 가톨릭 사제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가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던 농촌세계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그는 “나는 메마른 초장에 갇힌 채 그들의 울타리의 틈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풍성한 초장에서 풀을 뜯는 한 무리를 보고 있는 양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울타리를 따라 뛰면서 울 밖의 양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열망으로 펼치는 그들의 시위들을 보았다.”라고 썼다. 그는 계속해서 “마침내 한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많은 양들이 뒤따랐다.”고 적었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인 연합이 즉시 이뤄지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에(by the immediate prospects of Christian union) 1844년의 여름에 낙심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조언을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맞물려야(engage)한다. 또 몸집이 크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각자는 본심에서 시작하라”(let each one begin in himself).

8. 죽음과 장사

1844년 10월 2일에 스톤은 그의 유언을 작성하였다. 그다음

날 그는 셀리아(Celia)와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주리 주에 사는 자녀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잭슨빌을 출발하였다. 미주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차 지구 집회가 1844년 10월 18-21일까지 콜롬비아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분(Boone) 군(郡) 소재 베어 크릭 교회(Bear Creek Church)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1일 날 설교 후, 일리노이 주로 출발하기 전 스톤은 미주리 주에서 의사였던 아들과 하루나 이틀을 보냈다. 하니발(Hannibal)에 못 미쳐서 그는 그의 큰 딸의 집에 들렀다. 가족들에 에워싸인 채 그는 1844년 11월 9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그의 일리노이 주 농장에 있는 아카시아 숲에 매장되었다. 농장은 1846년에 팔렸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묘지(the cemetery of the Antioch Christian Church)로 이장되었다. 1847년 그의 유물은 케인 리지(Cane Ridge)로 옮겨졌다.

9. 스톤-캠벨 운동에 관한 스톤의 성향

스톤-캠벨의 운동에서 스톤의 지도력은 그 운동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했던 캠벨의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다. 신자들의 침수세례만이 유일한 침례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만찬에 관한 스톤의 주장은 그 운동의 규범적인 자세가 된 것, 즉 그리스도는 테이블의 주인이요, 교회는 초대하지도 내쫓지도 않는다는 것의 기초였다. 스톤의 평화주의와 반정부 입장은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다른 초기 지도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1930년대에 스톤은 그들의 관심사인 그리스도인의 일치(Christian unity)의 선구자로 스톤을 보았던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 의해서 전용되었다. 좀 더 최근에는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세계를 단정하는 방법들만큼(as the

world-affirming ways of)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 내리는 판단으로 스톤의 전전년설, 평화주의, 반정부주의 자세를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로부터 스톤이 전용되어져왔다.

참고 목록

- Dunnavant, Anthony L. Ed.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1992).
- Hughes, Richard T. *Reviving the Ancient Faith: The Story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96).
- Stone, Barton Warren. *Biography of Elder Barton Warren Stone Written by Himself, with Additions and Reflections by Eld John Rogers* (1847), reprinted in *The Cane Ridge Reader* (1972).
- Ware, Charles C. *Barton Warren Stone, Pathfinder of Christian Union* (1932).
- West, William Garrett. *Barton Warren Stone: Early American Advocate of Christian Unity* (1954).
- Williams, D. Newell. *Barton Stone: A Spiritual Biography* (2000).

알렉산더 캠벨의 업적

글 레스터 G. 맥알리스터¹⁾

번역: 조동호

돌이켜 볼 때,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행동의 사람이었다. 캠벨은 장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캠벨은 기독교 안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설교가로써, 개혁가로써, 출판가로써 혹은 교육가로써, 캠벨은 미국 개척지대에서 기독교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필요한 정력과 재능을 가졌고, 자력사업과 자발행동을 결합하여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토마스 캠벨(1763-1854)은 젊은 시절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대륙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다. 캠벨은 미국에서 태어나 개척지에서 자란 발톤 W. 스톤(1772-1844)과 같지 않았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인격과 개성이 굳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 북아일랜드에서 서부 펜실베니아주 개척지로 옮겨왔다. 그는 영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가장 좋은 점들을 결합할 수 있었다.

캠벨은 1811년 3월 12일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1791-1827)과 결혼한 이후, 그의 부인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워싱턴군(郡)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북서 버지니아주(지금은 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장인의 농장에 보금자리를 정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캠벨은 개척지의 기독교 문제에 관심 하였고,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수없이 많은 일들에 쏟아 부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사회와 교회에 큰

1) Lester G. McAllister ed., *An Alexander Campbell Reader*(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유익을 끼쳤다.

캠벨의 농장개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화젯거리이다. 그가 살던 지역이름이 원래 하 버팔로(Lower Buffalo)였는데, 캠벨은 이름을 베다니로 바꾸었다. 그의 부동산은 300에이커(약 367,264평)와 작은 집 한 채에서 시작하여 1,500에이커(약 1,836,318평) 이상과 방 20개짜리 저택으로 불어났다.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많았다. 따라서 그 수입금으로 목회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고, 후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출판사를 발전시켰고, 대학을 세웠으며, 마을을 세웠다.

감정주의와 부흥이 기독교인의 경험을 지배하던 때에 알렉산더 캠벨은 상식과 이성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이 불필요하며, 구원에로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특별경험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믿음은 성경말씀의 "합리성"(reasonableness)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고, 구원은 복음을 듣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고,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었다. 구원은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하였다. 그의 강조는 개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었고, 그 생각은 개척지의 자립정신과 일치하였다.

1. 새 출발(Beginnings)

발톤 W. 스톤에도 불구하고²⁾ 1909년에 100주년을 기념한 것은 논리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1809년에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이 나왔고, 같은 해에 알렉산더와 그와 가족이 아버지 토마스와의 만남 해였기 때문에 기념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2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으나, 그들은 피차 독립적으로 장로교와 개혁전통과의 관계를 끊고 있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탐구,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새로운 탐구 중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1809년 미국은 헌법제정이후³⁾ 두 번째 10년을 막 끝낸 해였다. 해

2) 역자 주: 「스프링필드 유언서」가 1804년 6월 28일에 나옴.

3) 역자 주: 1788년에 발효하여 1789년에 개최된 제1회 연방의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심의·가결되었고 수정 1조에서 수정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의 여러 조항은,

안지역의 과밀한 인구,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한정된 토지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콰버랜드(Cumberland) 도로를 따라 피츠버그(Pittsburgh)의 앨리게이니(Allegheny)와 모농가헬라(Monongahela) 강이 합류하는 서쪽을 향해 콰버랜드 협곡을 따라 켄터키주 중부 블루그래스(bluegrass) 지대로 옮겨갔다.

유럽의 전통들과 선입견들에 기초하여 동부해안에 세워진 도시들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민들은 새 출발의 꿈을 꾸었다. 교회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바람직한 것 같았다. 공공업무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큰 몫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캠벨 가족이 서 펜실베이니아주의 개척지에 도착했을 때에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신 서부 개척지에서는 전도, 혁신, 종교적 실험에 대한 무제한의 기회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남서부 펜실베이니아주의 레드스톤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감리교회가 가장 늦게(1780년) 그 지역에 들어갔고, 레드스톤 순회구역에서 의사록이 처음 나온 것은 1784년이였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1780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장로교회는 1766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레드스톤 장로회가 1781년에 만들어졌고 서 펜실베이니아주를 섬기는 교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도 컸다.

불행하게도 장로교회는 이민 오기 전 옛 대륙에서 다뤘던 쟁점들을 신대륙으로 옮겨왔다. 예외 없이 레드스톤 지역도 대부분의 장로교 분파교회들이 세워졌다. 분파들은 탈퇴파(Seceder), 반탈퇴파(Anti-Seceder), 개혁파(Reformed) 그리고 1812년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인 “보통” 장로교회와 준 개혁파(Associate Reformed)가 있었다. 이 복잡한 교회분열의 문제가 바로 토마스 캠벨이 교회분열을 막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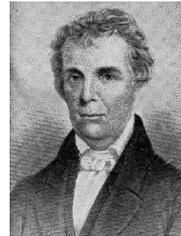
1791년에 발효되었다.

연합할 방법을 찾게된 주된 이유였다.⁴⁾

이것이 토마스와 후에 알렉산더가 기독교인 연합에 필요한 몇 가지 방법들을 주창하게 한 정황이었다. 캠벨 부자는 연합의 기초를 성경말씀이라고 믿었으며, 그 위에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이 제안은 넓고 자유롭고 상식적인 관점을 나타낸 것이었다.

성경말씀에서 발견되는 믿음에의 본질들이 넓게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캠벨 부자는 그들이 모든 사람이 수용하게될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제안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서 펜실베니아주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확실히 연합은 개척지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전도를 도울 것이었다.

칼뱅주의 교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었다. 저항의 토대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전되었고, 그 저항은 많은 복음주의 그룹들이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재발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자유로 인해서 얻어진 한 가지 큰 결과는 종교에 입문하는 신선한 통찰의 원천이 신약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운동들의 탄생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이 서 펜실베니아주에 왔을 즈음에 그와 같은 운동들이 뉴잉글랜드주에서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 1769-1846)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1772-1841)의 지도력아래 나타났고, 남버지니아주와 북 캐롤라이나주에서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1735?-826)의 가르침아래 나타났고, 중앙 켄터키주에서는 발톤 W. 스톤

4) 역자 주: 탈퇴파와 반탈퇴파는 각각 옛 빛과 새 빛파로 다시 나뉘어져 있다.

(Barton W. Stone, 1772-1844)의 설교아래 나타났다. 이들 지도자들은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들은 “신약성경에 기초한 단순한 믿음”이 성서적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채택하는 것이 기독교인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다.

1809년 토마스와 알렉산더 캠벨이 그들의 새로운 고국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미국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결론지은 것은 분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개의 큰 교단들이 있었고, 많은 군소 교단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임무는 대단히 컸다. 기독교의 영향력의 분열은 교단이 교단과 경쟁하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국가 교회의 강제적인 연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기독교인 연합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연구, 교리논의, 설득 그리고 자발적 행동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풀어야 할 분명한 문제였다. 캠벨 부자가 신약성경 기독교 회복(a restoration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의 기초 위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에서 비롯되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16세기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개혁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19세기 교회개혁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2. 떠오르는 지도자로서(As Emerging Leader)

미국에 도착한 후, 알렉산더 캠벨은 목회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기독교인 연합을 진작하는 목적에 투신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토마스의 지도아래 즉시 학업을 시작하였고,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겨울학기 동안에 배운 지식을 불려나갔다. 착실하게 학업을 마친 후에 캠벨은 그의 22번째 생일을 두 달 앞둔 1810년 7월 15일 매주 모이는 이웃 사람들의 집회에서 그의 첫 설교를 하였다.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신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설교나

다른 기독교인의 일을 할 목적으로 워싱턴군(郡) 기독교인 협의회로 조직되었는데 널리 수용되지를 않았다. 1810년 가을까지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가 주창했던 원칙들 위에서 교회들의 개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⁵⁾

다음 해인 1811년 초에 장로 캠벨은 협의회가 그리스도인 친교의 기능들과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1811년 5월 4일에 열린 협의회에서 그 다음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로 알려진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 토마스 캠벨은 장로로 선출되었고, 알렉산더는 복음을 설교할 자격을 얻었다. 독립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중요한 단계를 밟았는데, 그것은, 만일 이전 교회와의 관계들에 긴장이 초래된다면, 지금 그 모임을 해체해 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립자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의 별개의 운동이 되었다.

교회로 조직한 후 첫 주일에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였다. 그로부터 매주일 성도들은 떡과 잔에 참여하였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침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토마스 캠벨은 침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침수라고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이끌었고, 그로부터 침수는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되었다.

1812년 1월 3일 브러시 런 교회는 알렉산더 캠벨을 목사로 인수하였다. 이때가 23세 때였다. 그와 마가렛(Margaret)의 첫 아이 제인(Jane)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출생으로 알렉산더는 침례에 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12년 6월 12일 캠벨과 그의 부인 마가렛, 토마스과 그의 부인 제인(Jane), 그리고 장로 캠벨의 딸 도로티아(Dorothea)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버팔로 개울(Buffalo Creek)에서 침례교 목사에 의해 침수세례를 받았다. 출발한 지 일 년밖에 되지 아니한 이 운동은 이제 침수에 의한 신자의 침례

5) 역자 주: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교단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에 헌신하였다.

침수문제에 있어서 젊은 알렉산더는 선도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환원운동의 지도력은 어느 사이에 토마스 캠벨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년이 흐른 후 알렉산더는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분명한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제자들을 이끌었다. 이 행동의 사람이 1866년 죽을 때까지 참여했던 수많은 활동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것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미국의 종교생활에 강력히 발휘할 수 있었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3. 교회 개혁가로서(As Church Reformer)

“개혁가들”-그들은 곧 이렇게 불리어졌다.-이 침수세례를 채택하자 그들과 다른 교회들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장로교인들이었다. 특히 목사들은 유아세례와 교권에 대한 도전을 받자 바짝 긴장하였다.

1812-13년 겨울 내내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는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침수세례의 채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들과 더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모농가헬라(Monongahela) 강과 엘리게이니(Allegheny)의 산기슭에 다수의 침례교회들이 있었다. 그들은 1776년 친교를 목적으로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를 만들었다. 1812년 당시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33개, 목회자가 20명, 그리고 교인이 1300명이었다.

그 지방 이곳저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은 곧바로 여러 침례교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침례교회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레드스톤 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였다. 캠벨 부자는 망설였다. 협의회가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가 사용하는 칼뱅주의 신앙고백서(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비슷함)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치명적인 결점은 신앙고백서가 친교의 시금석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

다. 신앙고백서를 받아드리지 아니하면 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침례교인들이 신약성경 기독교로 환원하려하는 그들의 계획에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캠벨 부자는 기존의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걱정스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15년 9월에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권을 받아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가입권을 받아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겠다는 그들의 목적을 명시한 진술서를 마련하였다.

1816년 8월에 열린 협의회에 모임이 베다니(Bethany)에서 멀지 아니한 크로스 개울(Cross Creek)에서 열렸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도 침례교 목회자들이 알렉산더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로마서 8장 3절을 근거로 제목을 “율법에 관한 설교”로 정하였고, 그 설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들을 강조하였다. 당시 레드스톤 침례교 목회자들은 신구약 구별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캠벨 부자가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한 해에 그들의 가입을 막는 반대자들이 몇 있었는데, 율법에 관한 알렉산더의 설교가 있고 난 후부터는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후 15년 동안 알렉산더 캠벨과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긴장만 쌓여갔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완전히 침례교단에 합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선교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에 캠벨 부자와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개혁가들”이었을 뿐 아니라, “침례교회를 개혁하는 자들”이었으며, 나중에는 “제자”(Disciples)과로 떨어져 나왔다.

알렉산더는 전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 켄터키주에 산재한 많은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때마다 개혁을 촉구하였으나 개혁은 고사하고 거의 언제나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협의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알렉산더의 견해를 단죄하였고, 그 결과 침례교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분열만 커져갔다. 1830년대 초까지 침례교인들은 알렉산더 캠벨에게 철저하게 환멸을 느꼈

다. 그러나 환멸은 두 가지로 작용하였다. 분열의 과정에서 침례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많은 교회들을 잃었다.

4. 인습타파자로서(As Iconoclast)

1820년대 초, 많은 침례교회들과 협의회들이 알렉산더 캠벨을 받아드리고 있을 무렵, 알렉산더는 “개혁”에 관한 자기 생각을 더 널리 유포하기 위해서 월간지를 발행할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크리스천 뱃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발행되었고, 알렉산더는 이 월간지에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일치와 교회의 평화와 왕국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다.

불행히도, 이것은 추정된 교회의 권력찬탈과 비성경적 실행들의 제거를 요구하였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전통들”(accretions of the centuries)을 제거해야 할 필요는 만약 새롭게 세워야 할 기초가 있다면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캠벨은 인습타파자가 되었다. 그는 열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의 열정은 일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조차 괴로움을 끼쳤고, 자기 자신의 더 성숙한 판단조차 찬성하지 않았던 범위에까지 그를 끌고 갔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f order of things)은 궁극적 목적(ideal)이 되었고,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있어서는 안되었다. 목사들은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하고 설교는 자원해서 해야 한다. 성경을 공급하는 단체들도 존재해야 할지 의심스러웠다. 성경의 권위가 인가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가 실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멈춰야 한다. 후에 그가 교회들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할 때에 그는 이들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5. 토론가로서(As Debater)

알렉산더 캠벨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몇 차례에 걸친 그의 토론

들 즉 그가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공개적인 발표형태에 대한 검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은 개척지대(frontier)에서 인기가 있었다. 토론이 어느 정도 지적인 자극과 재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토론이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개혁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매체임을 알았다.

그의 첫 토론은 1820년 6월에 있었다. 토론의 대상자는 오하이오주 마운트 프레전트(Mt. Pleasant)에 거주하는 탈퇴파 장로교(Seceder Presbyterian) 목사, 존 워커(John Walker)였다. 침례의 문체가 그 날의 쟁점이었다. 이 날의 토론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위적 전통임이 입증된 유아 약식세례: 기독교 침례에 관한 토론내용이 되다』⁶⁾이었다.

캠벨의 두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보통” 장로교인 윌리엄 L. 맥칼라(William L. Maccalla/1788-1859)였다. 그들은 1823년 10월에 켄터키주 메이스빌(Maysville)에서 가까운 워싱턴에서 토론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토론의 결과는 1824년 책으로 출판되었고, 제목은 『침례에 관한 토론』⁷⁾이었다. 이 책은 널리 배포되었다.

세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스코틀랜드 뉴 래나르크(New Lanark)와 미국 인디애나주 뉴 하모니(New Harmony)의 유명한 19세기 사회개혁가 로버트 오웬(Robert Owen/1771-1858)이었다. 토론은 1829년 4월에 신시내티(Cincinnati)에서 열렸고, 동년 베다니(Bethany)에서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 『기독교 증거들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토론에서의 이슈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오웬의 “사회 체제”(Social System)에 관한 것이었다. 캠벨은 이 토론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변호할 기회로 삼았다.

1930년대까지 오하이오 벨리(Ohio Valley)에 산재한 개신교 교인들은 천주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천주교인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많은 이주자들 때문이었다. 캠

6) *Infant Sprinkling Proved to Be A Human Tradition: Being The Substance of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Steubenville, Ohio: printed by James Wilson, 1820)

7)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Buffalo, Va., Campbell and Sala).

벨의 네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신시내티 로마 가톨릭 주교인 존 B. 퍼셀(John B. Purcell/1800-1883)이었다. 토론은 1837년에 있었다. 캠벨은 가톨릭주의에 대항해서 개신교의 유산을 확고하게 방어하였다. 토론의 내용은 신시내티의 J. A. 제임스 앤 주식회사(J. A. James and Company)에 의해서 『천주교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Roman Religion*)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의 대상자는 켄터키주 파리스(Paris) 지방의 장로교 목사 나단 L. 라이스(Nathan L. Rice/1807-1877)였고, 토론내용은 침례의 끝없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은 1843년 11월 켄터키주 렉싱턴(Lexington)에서 개최되었다. 헨리 클레이(Henry Clay)가 의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갔다. 토마스 카터(Thomas Carter)가 1844년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양자의 주장을 모두 실어 『기독교 침례의 행위, 대상, 목적과 관리자에 관한 . . . 토론』⁸⁾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침수와 약식에 관한 문제로 장로교인들과 벌린 토론들은 단순히 시대적인 특징으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 토론들은 더 이상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오웬과 벌린 토론에서 캠벨의 기독교변호와 퍼셀 주교와 벌린 토론에서 개신교 입장변호는 개척지대에서 알렉산더 캠벨을 개신교의 위대한 챔피언으로 위치를 굳혔다. 이들 토론들로 인해서 캠벨은 유명세를 탔고, 그의 명성은 가까운 추종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교회연합의 목표를 좀더 진행시켜 가는 한편, 이 토론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으로 교회들이 환원할 것을 부르짖었던 캠벨의 입장을 널리 유포시켜 주었다.

6. 정치가로서(As Politician)

알렉산더 캠벨은 1829년 버지니아주 헌법을 새로 쓰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 때에 브룩크 군(Brooke county)의 대표로 출마하

8) *A Debate . . .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여 주(州) 대표자들 9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알렉산더는 주(州) 수도 리치몬드(Richmond)에서 3개월 간 속개(續開)된 의사 일정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대표단 가운데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제임스 몬로(James Monroe), 그리고 미합중국 최고재판소의 부장판사를 지낸 존 마샬(John Marshall)도 포함되어 있었다.

캠벨은 버지니아주에서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동부 저지대를 소유한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캠벨의 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이끌었다.

인쇄된 의사록에는 캠벨의 제안 설명들이나 연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대표의 근거 위에서 참정권과 군(郡)재판소제도에 관한 캠벨의 연설들은 그의 분석적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사록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캠벨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동의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7. 편집자와 출판가로서(As Editor and Publisher)

1820년에 열린 캠벨과 위커와의 토론이 책으로 출판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자, 캠벨은 출판의 위력에 눈이 뜨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월간지 『크리스천 뱅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에 시작되었고, 편집자는 캠벨이었다.

잡지발행을 추진시키고 가능하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농장으로 이어지는 다리 가까운 버팔로 개울(Buffalo Creek) 방죽 위에 작은 인쇄소를 짓고, 자기 소유의 인쇄기들을 설치하였으며, 인쇄공을 채용하였다. 이 새로운 사업은 환원운동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이익이 나지는 않았다. 캠벨은 일년에 1,000불 정도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했다.

『크리스천 뱅티스트』지의 발행은 환원운동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알렉산더는 인습타파를 위한 기사들을 실을 수

있었다.

인구가 적고 우편업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월간지의 발행부수가 상당했다. 발행된 잡지는 거의 미국 전역과 캐나다,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보내어졌다. 비판자가 되는 것에서 조직된 기독교의 주창자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캠벨로 하여금 일곱 권을 찍어낸 후 즉 칠 년 만에 『크리스천 배티스트』지를 폐간토록 하였다.

이제 제자들(Disciples)로 불리어지는 개혁가들이 침례교인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또 크리스천 배티스트(Christian Baptist)란 이름으로 그들의 운동이 불려질 것을 우려하면서, 1830년 1월 4일, 알렉산더 캠벨은 새로운 잡지,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를 시작하였다. 이 월간지는 캠벨이 1866년 죽고 난 다음에도 1870년 12월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이 잡지는 폐간되기 전 몇 년 동안만을 제외하고는 40여년 줄곧 환원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월간지였음을 증명하였다.

잡지의 쪽수를 늘리고 다른 인쇄 작업을 겸할 수 있도록, 베다니 마을에 새로운 인쇄소를 짓고, 인쇄기들을 더 주문하여 시설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는 48쪽에서 60쪽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일 년치를 모으면 두터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었다. “엑스트라즈”(Extras)라는 이름의 특별부록은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었는데, 최근의 관심을 단독 주제로 다룬 것이었다.

캠벨의 편집지시 아래 잡지는 다른 신문잡지가 할 수 없는 환원운동이 신약성경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연합하는 것임을 대변하였다.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고, 종종 캠벨이 손실액을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는 환원운동의 안정과 형성에 기여하였다. 책장에 『밀레니얼 하빈저』 전집을 갖고 살았던 제자들 목회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에게 신약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의미였다. 캠벨은 킹 제임스 신약성경에 수정 보완될 곳들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개역판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같은 새 번역성경을 만드는 토대로써 캠벨은 이미 50년 전에 출판된 번역본들을 사용하였는데, 세 명의 스코틀랜드인 학자들

에 의해서 번역된 것들이었다.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이 복음서들을, 제임스 맥나이트(James MacKnight)가 서신들을, 그리고 필립 닷드릿지(Philip Doddridge)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번역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들의 번역본들을 다른 번역본들과 그리고 헬라어 본문과 비교하였다. 한 구절씩 모든 가능한 의미들을 찾아본 다음에 캠벨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택하였다.

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거룩한 글들, 평이한 형식의 신약성경』⁹⁾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알렉산더 역시 초기 작업에서 “여러 가지 교정”을 하였고, 매 부분마다 머리말과 많은 비평각주와 부록을 첨부하였다. 캠벨이 새 번역 성경을 만든 주된 이유들은 근대 본문비평학자들이 더 나은 성경본문을 만들어냈고, 고대언어에 대한 지식이 17세기 때보다 지금이 더 철저하였고, “살아 있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었다.

캠벨은 모든 헬라어 단어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어떤 단어도 단순히 음역(音譯)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 개역성경들에서 헬라어 단어를 단순히 음역하여 "baptize"(침례하다)로 한 것을 "immerse"(침수하다)로 고쳤고, 따라서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을 "침례 요한"(John the Immerser)으로 고쳤다.

캠벨의 새 번역성경은 종종 “살아있는 말씀”(The Living Oracles)이란 호평을 들으면서 추종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따라서 여러쇄를 거듭하여 출판되었다. 그러나 캠벨의 신약성경이 약식세례를 베푸는 교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은 예상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침례교인들조차도 화를 냈고, 여러 장소에서 화난 군중들이 캠벨의 새 번역을 불태웠다.¹⁰⁾

침례교회와 분리된 후 1830년대까지, 환원운동은 성장하였고, 자체 찬송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1835년 캠벨은 『제자들 찬송가』(*The Disciples Hymn Book*)란 제목으로 찬송가를 편집 출판하여 시장에 공

9) *The Sacred Writings of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of Jesus Christ, Commonly Styled New Testament*(Bethany, Brooke Co., Va.: A. Campbell, 1826.

10) 역자 주: 새 번역은 캠벨이 침례교단에서 분리되기 4년 전에 출판되었다.

급하였다. 찬송가는 아마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과 다른 지도자들과도 협동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스톤은 단지 간접적으로 내용에 관해서만 문의를 받았고, 제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결국 스톤의 항의에 부딪쳐 제목이 『그리스도인 찬송가』(*The Christian Hymn Book*)로 바꿨다.

해가 거듭되면서 찬송가는 실질적인 이익을 냈다. 캠벨은 이익금을 찬송가를 구입해준 미국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캠벨은 말년에 저작권을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넘겼다. 그때부터 19세기 말엽 절판될 때까지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협회의 선교사업에 쓰였다.

캠벨은 시시 때때로 다른 책들도 인쇄하였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 시스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초대 기독교에로의 환원에 관해서, 현대개혁에서 간청된 것으로써』¹¹⁾가 있다. 『크리스천 시스템』은 이전에 발행된 것의 수정판이었고, 『크리스천 시스템』과 『크리스천 뱃티즘』 모두는 이전에 출판된 기사들로 만들어졌다.

8. 설교가로서(As Preacher)

알렉산더 캠벨이 1810년 7월 주일에 행한 첫 설교 때에 메시지 전달을 아주 잘해서 많은 교인들이 “왜 그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낫은 설교가인가?”라고 말하게 되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캠벨은 훌륭한 설교가였다. 첫 해에 캠벨은 106번을 설교했는데, 많은 주제와 본문들이 그의 일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의 『여러 주제들에 관한 소년소녀를 위한 에세이』¹²⁾에 실려 있다.

캠벨의 설교들은 본문해설도 아니고, 엄격한 주제설교들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형태에 있어서 논리적이었고, 잘 요약된 것들이었다.

11) *The Christian System, in Reference to the Union of Christians and a Restor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as Plead in the Current Reformation*(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39)와 『크리스천 뱃티즘, 그 전례와 결과』(*Christian Baptism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51).

12) *Juvenile Essays on Various Subjects*(Alexander Campbell at Glasgow University,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71).

캠벨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리차드슨(Richardson)은 캠벨의 능력이 상당부분 주제선택과 성경의 권위와 큰 인기를 모으는 호소력(appeal)을 잘 결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캠벨은 논쟁적인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제스처는 거의 쓰지 않았다. 캠벨의 설교는 단순성이 특징이었고, 대체적으로 청중들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

캠벨의 설교의 효과는 전달을 강조한데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개념들을 하나로 엮음과 사고의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알렉산더 캠벨은 설교가라기보다는 설교가의 설교가였다고 전해져 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기를 원하는 모델이었다.

그랜빌 T. 워커(Granville T. Walker)는 그의 훌륭한 저술, 『알렉산더 캠벨의 설교원리』¹³⁾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미국의 개척지에서 제자들이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설교의 모범을 환원운동에 제공한 것은 캠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복음을 설교할 때에 논증한 신약성경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진술과 기독교의 합리적 개념을 환원운동에 제공하였다. 그것은 단번에 또 동시에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어서 그것의 내포된 뜻들이 무진장하였고, 그러면서도 매우 단순해서 가장 비천한 청중이라도 큰 감화를 받게 될 것이었다.

캠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시하되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은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러므로, 그것이 적절하게만 제시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치 않았다. 이런 형식의 설교는 감정에 호소하던 부흥시대에는 흔치 않았던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었다.

13) *Preaching in the Thought of Alexander Campbell*(Bethany Press, St, Louis, 1954).

9. 교육가로서(As Educator)

교육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초기 관심은 목회를 시작한지 채 십년도 안 된 1818년에 버팔로 신학교(Buffalo Seminary)를 개교한데서 입증되었다. 그의 특별한 목적은 젊은이들을 찾아내서 교육시켜 출범한 운동의 설교가들과 지도자들로 키워내는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부인 마가렛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컸다. 그는 학생들을 그의 집에 기숙시키면서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때로는 아버지 토마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기숙사비는 일주일에 1불 50센트였고, 학비는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강습비를 포함해서 3개월 한 쿼터에 5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신학교는 의도된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1823년에 폐교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교보다는 사업을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짧은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육에 대한 캠벨의 초기 관심을 입증하는 증표로 남게 된다.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캠벨의 집 지하실 방들에는 아주 오래된 벽지가 붙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벽지가 183년(2000년 기준으로) 이상 그곳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벨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하실 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1823년과 1840년 사이에 캠벨은 교육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공립학교들에 대한 국가체계가 그때 형성과정에 있었다. 캠벨은 종종 나라 여러 곳의 교사들 협의회들이나 다른 교육단체들 앞에서 그 주제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캠벨은 1839년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에 “하나의 새로운 교육기관”(A New Institution)이란 제목의 중요한 기사들을 시리즈 형태로 실었는데, 이 때 캠벨은 그의 교육철학을 좀더 충분히 발전시켰다.

드디어 1840년 알렉산더 캠벨은 4년제 베다니(Bethany)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버지니아주 의회로부터 인가를 획득하였다. 샬로츠빌(Charlottesville)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버지니아 대학교를 보고 크게 감탄한 캠벨은 커리큘럼과 학생생활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베다니를 그 교육기관처럼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첫 건물들이 들어설 자

리로 자기 농장의 땅을 내놓았고, 작지만 능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대학을 만들었다. 그는 1841년 실질적인 대학개교 후 20년 이상을 학장으로 봉직하였다.

베다니는 빠르게 제자들 운동의 설교가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평신도를 위한 교육센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학들의 모체”(mother of colleges)가 되었다. 오늘날 몇몇 유명한 최고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시작을 베다니에서 찾고 있다.

캠벨은 기독교 사회를 위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문명사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에 기초한 유일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인위적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a theological school)가 아니며, 성경에 기초한 신학교(a school of divinity)도 아니며, 모든 참된 학문과 참된 학업의 기초가 되는 성경 위에 세워진 인문과학 교육기관이다.

우리는 진실로 성경을 대학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교단이며 백성이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모든 교파가 무시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소중히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가르친다.¹⁴⁾

설립자의 기독교 연합에 대한 관심은 대학 강당(College Hall)이 주일마다 “여러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신앙강좌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개교초기부터 제자들 목회자들과 평신도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베다니에 보내 존경하는 알렉산더 캠벨 밑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베다니 졸업생들의 영향력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상당하였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14) *The Millennial Harbinger*, 1850, p. 291ff.

10. 성경학자로서(As Biblical Scholar)

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직하는 것 말고도 캠벨은 교수로써 정기적으로 일련의 아침 성경강좌와 다른 과목들의 강좌를 맡아 가르쳤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높았다. 그의 학식은 성경연구와 역사 그리고 기독교사상 분야에서 완벽하였다. 캠벨이 미국에서는 물론 영국에서 출판된 관련 과목들에 관한 근간서적들을 대부분 읽었고 또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역사비평의 적용을 통한 성경해석에의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1816년에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설교에서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법칙으로써 신약성경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된 권위들이어야 함을 진술하였다.

캠벨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교과서로써 항상 신약성경을 생각하였고, 열린 마음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성경책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에 독자는 저자, 연대, 장소와 기록시기, 수신자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알렉산더 캠벨이 이렇게 젊은 시기에 그와 같은 방법들을 성경해석에 기꺼이 적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캠벨은 성경을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더 큰 지식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가득한 책으로 보았다.

캠벨은 국내외 성경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활동적이었으나 1850년 한 단체가 떨어져 나와 미국 성경연합(American Bible Union)을 만들었을 때에 캠벨은 이 성경연합에 가입하였다. 캠벨은 1854년 겨울과 1855년 초까지 성경연합이 그에게 맡겨준 사도행전의 개역작업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새 번역 성경의 일부로써 1855년에 출판되었다.

11. 대중연설가로서(As Public Speaker)

종교운동의 지도자로서 또 대학의 학장으로써 캠벨은 그의 남다른 능력 때문에 다른 대학들과 종합대학교들, 그리고 학식 있는 단체들로부터 강연요청을 많이 받았다. 그는 다양한 주제들로 연설하였다. 한 가지는 “앵글로색슨 언어, 그것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운명”(The Anglo-Saxon Language: Its Origin, Character, and Destiny)이었다.¹⁵⁾ 다른 주제들은 “사형제도에 관한 연설,” “사회 상태 개선에 관한 연설,” 그리고 “천재의 책임들”이었다. 언제나 이들 강연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고체계들이었다. 그가 행한 많은 강연들과 연설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기 있는 강연들과 연설들』¹⁶⁾이었다.

12. 조직가로서(As Organizer)

1840년대 초기에 알렉산더의 추종자들은 전국대회와 선교사협회와 같은 조직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다. 그와 같은 조직들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1842년 알렉산더는 『밀렌니얼 하비저』에 전국규모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849년 10월 22-27일 신시내티에서 드디어 전국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알렉산더 캠벨은 참석할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멀리서 보고 싶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어느 행사에서든 그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회장에 재선출되었다.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1866년 캠벨이 사망할 때까지, 전국대회가 만들어낸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국대회들과 선교사협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꾸준히 조직들을 옹호하였다. 실제로 그는 주(州)대회와 전국대회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긴 기사들을 『밀

15) 이 강연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1960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6)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Philadelphia: James Challen and Son, 1863).

렌니얼 하빈저』에 실었다. 그는 전국대회들이 친교와 영감에 필요할 뿐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업무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13. 사회개혁가로서(As Social Reformer)

알렉산더 캠벨은 사회개혁을 교회개혁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신약성경의 기초 위에서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사회불의의 뿌리를 뽑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일의 성공은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믿었다. 요약하면, 연합된 교회는 신약성경 기독교어로 환원할 때 가능할 것이고, 연합된 교회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러나 캠벨은 그러한 변화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연합된 교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당시의 이슈들 가운데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금주, 사형, 공립학교, 노예 제도와 전쟁에 관해서 피력할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첨예한 이슈들이었던 노예제도의 불의와 전쟁의 사악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캠벨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선택이 침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주단체들의 문제와 술 판매금지에 관해서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캠벨은 입장을 바꿔 술 판매금지를 적극 후원하였다. 그는 오직 살인자에 한해서만 사형시키는 것이 주(州)에게 맡겨진 신성한 권위라고 믿었다. 그는 공립학교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후원자였다. 공립학교는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강하고, 배움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민을 키워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840년대까지 많은 미국사람들은 노예제도에 관한 이슈가 국민의 삶에서 점점 더 불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주제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뉘어졌고, 교회들이 찢어졌으며, 주요 교단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긴장들과 더불어 무력

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협이 있었다. 캠벨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들을 용감히 선포하였다.

캠벨은 그가 참석했던 1829년과 1849년 버지니아주 헌법제정의회 때에 그리고 켄터키주에 넓게 배포된 소책자에서 점진적인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지에서도 캠벨은 노예제도에 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사설과 평론을 실었다.

그의 저술들로 볼 때, 캠벨은 신약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도덕성을 동일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끝에 구약에서나 신약성경에서도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캠벨 부자는 노예제도는 부도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 노예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선언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동시에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소유물이 아닌 동료 인간들로 다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실행된 노예제도가 심한 인권침해라고 선포하였다.

캠벨은 또한 노예제도가 미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게다가 그의 의견에 따르면 노예노동은 남부의 경제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캠벨은 자신의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거나 다루었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줌으로써 노예제도에 관한 확신들을 자신의 사생활에서 실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독교 공동체가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캠벨은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이 교회징계의 문제나 친교의 시금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확고히 지켰다. 결국 캠벨은 그 유명한 사설에서 “노예제도는 견해의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노예를 소유하고 안하고는 믿음의 본질이 아님을 밝혔다.

노예제도 문제로 긴장들이 고조되면서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과 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예측불허의 사태를 내다보면서 알렉산더 캠벨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였다. 그는 멕시코 전쟁에 반대했었고, 『밀레니얼 하빈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캠벨이 전쟁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것은 멕시코 전쟁이 끝난 지 3개월이 된 1848년 5월 버지니아주(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 라이시엄(=문화회관), 휠링(Wheeling) 앞에서였다. 반전에 대한 그의 논쟁이 매우 힘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몇 지도자들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이킬 수 없이 말려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주리주 출신 하원의원 조셉 B. 샤논(Joseph B. Shannon)은 1937년 11월 22일자 하원 의사록에 캠벨의 이 연설문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 연설에서 캠벨은 전쟁은 비록 구약성경에서 허락되었고 또 실시되었지만, 신약성경의 문자와 정신 모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금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양심적으로 전쟁을 허락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방어전쟁과 공격전쟁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한다면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캠벨은 궤변가들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전쟁이 정의를 세우는 수단일 수 없으며, 전쟁은 논쟁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결국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평화회담장에서 이므로, 평화회담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비극적으로 잃고 나서 열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열려야한다고 믿었다. 캠벨은 오늘날의 국제연합이나 세계재판소가 하는 것과 비슷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국제연맹과 세계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진실로 타협을 모르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앉아 그들의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과 모든 설득력을 사용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을 오늘날의 사회이슈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서 위

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 시대의 도덕과 정의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과감히 적용하였다.

14. 신학자로서(As Theologian)

캠벨은 신학이 수세기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체계로써 교회를 망쳤다고 믿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으로 교회를 환원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그 말씀들 속에서 배워지는 것을 교리와 실천으로 수용하는 것이 본질적이었다. 소위 신학은 성경말씀의 근거 위에서 캠벨의 연합의 계획 속에 어떠한 직접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캠벨은 자기 자신을 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말씀의 연구 위에 근거해서 교리 질문들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을 강하게 믿었다. 캠벨은 신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이나 사역의 성격으로 봐서 신학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은 그것 자체로써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글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로알 험버트(Royal Humbert)는 수많은 기사들, 논평들, 토론들, 강연들, 그밖에 다른 저술들로부터 캠벨의 사상을 수집하였고, 캠벨의 신학 내용을 두꺼운 책으로 제시하였다. 『알렉산더 캠벨 신학의 요약』¹⁷⁾에서 우리는 캠벨의 믿음과 이성,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계시, 교회, 종말론, 그밖에 많은 신학질문들에 관한 견해들을 발견하게 된다.

15. 나오는 말(A Final Word)

행동의 사람으로서 알렉산더 캠벨의 인상은 다 같은 하루 24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

17) *A Compend of Alexander Campbell's Theology*(St. Louis: Bethany Press, 1961).

음을 던지게 한다. 물론 대답은 철저한 시간관리와 남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규칙적으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일했다. 그의 하루의 일과는 인쇄공들이 일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손님을 접대하고, 책을 읽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언제나 아침과 저녁에 그는 자신과 가족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행하고, 저술하고,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캠벨은 여전히 농장과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알렉산더 캠벨의 두 번째 부인 세리나 캠벨(Selina Campbell)은 그녀가 쓴 책, 『부인이 쓴 알렉산더 캠벨의 가정생활과 회고록』¹⁸⁾에서 자기 남편의 폭넓은 관심사들에 관해서 말하였다. 그녀는 캠벨이 공공복지, 도로개선, 농업경작에 관심을 보였다고 적었다. 그녀는 캠벨이 웰스버그(Wellsburg)에 이르는 도로건설과 지역에서 가장 우수했던 양떼의 품질개선에 보인 노력들을 예로 들었다.

알렉산더의 관심들은 실로 끝이 없었다. 캠벨은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을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에 관계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캠벨의 집은, 나이에 관계없이, 멀고 가까운 곳에 관계없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지가 되었다. 한번은 캠벨이 아이오와(Iowa) 부족의 인디언 소년을 8~9년 동안이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소년은 고향에 돌아가 그의 부족을 도왔다. 또 다른 경우에는 꽤 중요한 인물인 어느 멕시코 장군이 캠벨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 갔는데, 후에 그는 자기의 두 아들들을 베다니 대학에 입학시켰다.¹⁹⁾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생애를 자기 아버지 토마스의 생각들을 실행하고 확대시키는데 헌신하였다. 그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종교독립선언문이었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속에

18) *Home Life and Reminiscences of Alexander Campbell by His Wife*(St. Louis: John Burns, 1882).

19) 역자 주: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 지금도 캠벨의 저택에는 가필드 대통령이 머물렀던 침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었다. 마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몇 년 전에 새 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자치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했던 것처럼, 캠벨 부자는 그들에게 기독교 발전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하였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유럽의 해묵은 다툼의 장애물들을 던져버리고, 사도교회의 일치, 자유,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으로 옮겨가야 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강단과 편집책상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관심사를 심사숙고하였다.

비록 캠벨이 우리 사회의 끝없는 복잡성을 관망했다라도, 그는 실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쉬운 낙관주의를 포기하거나 사회가 교육, 기술, 경제경영과 정부의 힘에 의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재생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에도, 알렉산더는 우리들을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캠벨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의 정복과 우리의 영적 삶의 발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신약성경 약속들에 확고하게 기초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들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목적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많다. 가장 도움이 될만한 책들 가운데는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의 『알렉산더 캠벨의 회고록』²⁰⁾, D. 레이 린드레이(D. Ray Lindley)의 『자유의 사도』²¹⁾, 해롤드 L. 룡거(Harold L. Lunger)의 『알렉산더 캠벨의 정치윤리』²²⁾ 그리고 편집자 페리 E. 그레샴(Perry E. Gresham)의 『베다니의 현자: 광복피륙 속의 개척자』²³⁾가

20)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Philadelphia: J. Lippincott, 1868, 1870).

21) *Apostle of Freedom*(St. Louis: Bethany Press, 1958).

22) *The Political Ethics of Alexander Campbell*(St. Louis: Bethany Press, 1954).

23) *The Sage of Bethany: A Pioneer in Broadcloth*(St. Louis: Bethany Press,

있다. 또 다른 자료는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 『크리스천 스탠더드』(*The Christian Standard*),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The Christian-Evangelists*) 그리고 『제자들』(*The Disciple*)과 같은 잡지들에 가끔씩 실리는 캠벨에 관해 쓴 중요한 기사들 속에서 발견된다.

제3부

한국

그리스도 교회

한국 환원운동사 연표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한국에서의 자생적인 환원운동들

1. 말콤 펜윅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1889년 7월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철물상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배인도자 윌더(Wilder)로부터 사막에서 물을 구하다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선교사가 되었다. 윌더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훌륭한 유리병에 물을 담아와 유리잔에 부어서 그에게 준다면 그는 감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녹슨 찌그러진 깡통 밖에 없어서 그 속에 물을 담아다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 날 것이다.”고 하였다.

펜윅은 침례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신은 교파의식을 떠나서 사역하였으며 그가 관계한 교회들은 ‘대한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펜윅이 1893-95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크라렌든가(街) 침례교회에서 얼마간 지냈는데, 씩(S. B. Thing)이란 집사가 외동딸을 추모하기 위한 뜻으로 선교회를 만들어 1895년에 6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선교사

금 부족으로 1900년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하던 사역을 원산에 있던 펜윅이 넘겨받게 되었다. 펜윅의 노력으로 250여 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만주와 시베리아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1936년 펜윅이 죽은 이후로 1950년까지도 침례교와는 어떤 연관도 없었다. 다음은 펜윅이 쓴 자서전(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의 일부내용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자 감독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였으며,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란 의미였습니다.¹⁾

2. 한석진

한석진 목사는 1868년 평북 의주출생으로써 동향인(同鄉人) 백홍준과 서상륜의 전도를 받고 처음 기독교를 알게 됐고, 1891년 마펫에게 세례 받았다.

한석진은 자주 의식이 강해 마펫의 조사(助事)로 일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하여 그 진리를 내 동족에게 전하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선교사가 주는 봉급을 거절했고, 평양 장대현교회, 서울 안동교회, 마산 문창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한국인의 교회는 한국인의 힘으로 건축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고 한다. 또 1910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신문인 『예수교회보』 사장이 되어서는 신문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한국인들의 현금만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선교부 자금의 유입을 차단시켰다.

한석진은 200년 전 미국에서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이 펼쳤던 운동과 마찬가지로 ‘교파주의’를 극복하려고 한 자생적 환원

1) 허진, 『대한기독교회사: 펜윅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운동가였다.

한석진은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설립할 때에 초교파적인 연합교회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본국교회를 설득하여 “일본에서만큼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연합교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냈다.

한석진은 기회만 있으면 교파구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예로 1915년 자신이 속한 경기충청노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조선기독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하였다. 교단명칭에서 ‘장로’자를 빼고 보편적인 ‘기독교’ 명칭을 사용하자는 그의 헌의는 물론 부결되었다.

한석진은 목회말년에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건립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1926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1930년에 2층짜리 웅장한 돌집 수양관을 건립하였다. 기금은 한석진이 장로교회들을 순방하여 모은 것이었다. 수양관 간판을 달 때,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교 수양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금은 장로교인들이 했지만 공간은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공개하자.”며 ‘기독교 수양관’을 고집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²⁾

3. 최태용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전 1:24)는 목시를 얻었다면, 최태용(1897-1950) 목사는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었다.

10대 후반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기숙사에서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한 최태용은 어느 날 침상에 누우려 할 때에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20대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게 된다. 27살에 박동완, 전

2) 이덕주, “한국교회의 자존심, 한석진 목사.”

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이 동인지처럼 펴내던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하다가 28살에는 스스로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다.³⁾ 그는 이 신앙지에서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딴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십허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랴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창한다.”⁴⁾고 하여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을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한국인 선구자라 할 수 있다. 36살이던 1933년 9월 어느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살이 센 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서 “소(小)하고 순(純)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하였다. 이 때 그가 제창한 표어가 “1)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어여라.”였다.⁵⁾

4. 성낙소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그는 일찍이 구국의 일념으로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여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던 애국지사였다. 이 시기에 처가가 있던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 사랑채에서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

3) 강명석(관서학원과 밴더빌트대학 졸업)과 최상현(연희전문과 협성신학 졸업, 『신학세계』 편집)은 본래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으나 1930년 중반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공헌함.

4) “비교회주의자”, 『天來之聲』 17호, 1926. 10.

5) “우리의 표어”, 『영과 진리』 81호, 1935. 12.

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낙소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성낙소 자신이 기독교계를 시찰한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성서 중 에베소서 4장 3~6절 말씀과 같이 칠종(七種)을 통일하자는 신앙으로, 첫째 몸도 하나요 하였으니, 몸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킴이라(엡 1:23; 골 1:24). 교회의 명칭을 기독교의 교회라고 통일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으로 동민에게 전하였다.⁶⁾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수리에 세워진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는 그 소중한 역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담임자 성낙소 목사가 서울로 옮겨가고, 처가도 세도면 해촌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성낙소의 처가가 이사 간 다음, 화수장로교회(기장)의 조용희 장로가 그 집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헐리고 공터로 남아 있다.

B.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준비기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명칭

-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성낙소) : 1932.06.11.-1936.07.08. (요츠야선교회).
-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이인범, 신신근) : 1936.07.08.-1946.12.10. (요츠야선교회).
- 3) 기독교회(J. 마이클 쉘리, 존 T. 채이스, 김요한) : 1935.04.25.-1944.06.26. (협의회, 총회) - 해방 후 복원.

6) 성낙소, 『자서전』 제2장.

4)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동석기) : 1937.05.12.-? (교역자회) - 해방 후 복원.

1,2,3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유약기)의 소속이고, 4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Churches of Christ, 무약기)의 소속이다.

1. '동경사곡선교회'(William D. Cunningham/1864-1936)

1901년 10월 1일. 커닝햄 가족 일본 도착

1907년 커닝햄과 M. B. 매든(Madden) '평양 대부흥운동'의 절정기 목격.

1923년 아이오와(Iowa) 주민이 한국선교 위해 2천달러 현금 약속. 6백 달러 입금.

1923년 9월말 커닝햄, 한국 방문 계획. 1923년 9월 1일 동경과 요코하마 일대 대지진 발생으로 입국지연.

1924년 3월 중순 동경 유학생 박제곤이 선교기지 물색을 위해 입국.

1924년 3월 25일 커닝햄 부부 입국. 서울선교기지(포교소) 설립.

1930년 4월 27일 서울 제1교회(요츠야선교회 제13번째 교회) 조직.

1931년 9월 하순 성낙소 목사 포교책임자 입국. 채이스 한국 시찰.

성낙소 목사 약력 및 업적: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15.11-1916.08 구세군사관학교 수학. 부여, 익산, 영동에서 사역.

1919년 충북 영동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도.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계 계출.

1920.08-22.03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수학.

1922년 3월 구세군 하사관으로 백의종군하여 정사관으로 복직.

1926년 1월 구세군 사관직 사임.
1927년 정월 향촌인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교교회' 설립.
1930년 5월 '횡빈조선인기독교교회'에 부임. 11월부터 1931년 9월
까지 주임목사로 섬김.
1931년 9월 하순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입국.
1932년 서울 제1교회를 계동 127번지에서 송4동 4번지로 이전.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1932년 말 경성기독교회를 수창동으로 옮기고 12월 17일 및 12
월 24일 아현기독교회(김문화)와 1933년 2월 1일 기독교회 인천교
회(성낙소)를 조선총독부에 계출.

서울 제1교회인 경성기독교회 담임, 인천 난도(남동)교회 감독목회
(요츠야선교회 제15번째 교회로 승격, 침례 52명), 서울 송4동 주일
학교(유치원) 설립(1932년 3월 14일), 기독교회 인천교회 감독목회
(침례 18명,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로 승격).

성낙소의 전임자들은 조선총독부에 포교계를 계출하지 않고 불법
으로 전도활동.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승인으로 착
각. 따라서 1924.05-1932.05까지 8년간의 흔적이 국가기록원에 남
아있지 않음.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 부부는 커
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 이원균이 평북 구성군 호젠(방현)에 파
송되어 1937년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사역.

1933년 6월 5일 동경 심천조선기독교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
범이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피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기독교

회 인천교회에 부임하였으나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활동. 마이클 쉘리가 이 사실을 1935년 5월 25일 문제 삼음으로써 커닝햄과 분쟁.

1936년 1월 10일 커닝햄의 집요한 노력 끝에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에 제출.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후로도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사직서를 쓰기까지 4년 3개월 정도 합법적 포교관리자 신분을 유지.

1935년 4월 커닝햄 4번째 한국 방문.

1936년 3월 커닝햄 5번째 한국 방문. 커닝햄은 포교관리자변경계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감.

1936년 6월 24일 20시 45분 커닝햄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 암으로 사망.

경제대공황, 후원금 감소, 1934-36년 채이스, 쉘리, 성낙소와의 분쟁. 부흥사(popularist) 기질의 이인범에의 지나친 의존이 분쟁의 한 축이었다. 채이스, 쉘리, 성낙소가 theorists였다면, 커닝햄, 이인범, 이원균은 populism에 의존하는 popularists였다.

1936년 6월 24일까지 한국(12개)과 일본(3개)에 조선인기독교회 설립. 인천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 3개, 평북 구성군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 2개(용포동, 근담동), 황북 중화군 대류리 1개, 경남 마산 1개, 일본 동경 2개(삼하도, 심천), 횡빈 1개(요츠야선교회로부터 독립).

커닝햄 사망시 한국에 12명, 일본 조선교회들과 유치원 및 일요(주일)학교들에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커닝햄 사망시까지 합법적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성낙소가 제출한 3개가 전부였다(경성교회, 아현교회, 송현동 인천교회).

이인범 목사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1936.01.10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변경계 계출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

1936.07.08 교파명변경계('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계출.

1943.09.17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이인범을 평
산 무웅으로) 계출.

1943.09.30 평산 무웅,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

'요츠야선교회' 의 조선포교관리자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들

제1대 성낙소 목사 1932.06.11-1936.01.10
교회 3개, 교인 130명 계출: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 기독교
회 아현교회(김문화), 기독교회 인천교회(성낙소).

제2대 이인범 목사 1936.01.10-07.08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들

제1대 이인범 목사 1936.07.08-1943.09.17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교
계 및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계출.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것을 이인범 명으로
계출.

1937.05.10.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방현기독교회(김성산).

1937.05.12. 김상익(마장정기독교회),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
 기독교회(최성진).
 1937.06.21. 정삼선(금곡정기독교회).
 1937.10.31. 유정기독교회 '화정'으로 포교소명칭변경계 제출.
 1937.11.04. 김태희(마산기독교회), 이난기(염리기독교회).
 1938.08.22. 윤낙영(영등포기독교회) 제출.
 1939.01.31. 김태희(대구부 덕산정기독교회).
 1940.03.09. 송기준(마산기독교회).
 1940.03.11. 임준식(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
 기독교회.
 1940.08.19. 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임공철).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제출.

제2대 평산 무웅(신신근) 1943.09.17.-1946년 12월 2일까지
 1943.09.30.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이인범을 송산 의
 웅으로) 제출.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이난기를 유지욱
 으로) 제출.

1941년 4월 1일 종교법 시행이후 외국인 선교 및 후원 중단, 요츠야
 선교부 한국선교 포기, 일본 주재 선교사들 본국 철수.

1941년 3월말까지 17년간 한국에 교회 17(19)개, 선교기지(포교소)
 30개, Bible Training School 운영, 한국인 사역자 13명과 여전도사들
 후원. 인천 4개, 서울 5개, 평북 구성군 2(3)개(방현면, 오봉면, 평지
 동), 평북 정주군 3(4)개(용포동, 문인동, 약수포, 근담동), 신의주 1개,
 마산 1개, 대구 1개 교회, 일본 동경 2개(삼하도, 심천) 교회와 유치원
 및 일요학교들이 있었다. 1941년 4월 1일 이후에 1개 교회 추가: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제출(기독교회 조선

선교회).

2. '기독교회'(마이클 셸리 선교사)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 1935년 3월 20일경 입국.

1935년 3월 24일 기독교회 인천교회 방문.

1935년 4월 2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1935년 5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 미국교회들에 고발. 커닝햄 즉각 반박. 셸리 가족 영구 귀국 결심. 귀국할 때 이인범의 불법성을 입증할 공증서류 지참 .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 회장 1936년 5월 25일 조선총독부에 조 회서 발송. 조선총독부 1936년 7월 29일 최초 회신.

이 내용이 <환원 전령> 9월호에 실리자 셸리는 1936년 9월 24일 리온 마이어즈 회장에게 보낸 반박글에서 존 채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호소하였다.

J. 마이클 셸리의 공헌

1935년 3월 20일경 입국하여 동년 10월 28일 귀국 (만 7개월 체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남대문동)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존 채이스(John T. Chase)를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후원자들에게 호소.

이인범의 부정직과 비기독교적 행위들("dishonest and unchristian practices") 고발.

3. '기독교회'(존 채이스 선교사)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 1936년 11월 7일 서울 도착.

1936년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설립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 변경계 제출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기독교회' 의 포교관리자들

제1대 J. 마이클 웰리 선교사: 1935.4.25.-1937.02.25.

제2대 존 T. 채이스 선교사: 1937.02.25-1941.03

1937.09.06. 채이스 선교사 포교계 제출,

1937.06.23.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김요한) 제출,

1937.10.10.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최상현) 제출,

1939.03.29. 기독교회 경성 내수정 교회(성낙소) 제출(성낙소 목사가 1937년에 설립).

1940.01.23.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김문화) 제출,

1940.05.17. 기독교회 정릉리 교회(박판조) 제출,

1940.10.26.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백낙중) 제출.

제3대 김요한 목사: 1941.03-1944.06.26

1940.09.17. 기독교회 초도리 교회(송암 승웅) 제출,

1944.06.26. 포교관리자폐지계 제출

1944.06.30 '기독교회'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 제출. 포교자: 김요한, 존 T. 채이스, 김문화, 산천룡, 송암 승웅. 포교소: 신당정 교회, 왕십리 교회, 돈암 제2교회, 정릉리 교회, 초도리 교회.

1940년 3월 25일 김요한(金約輪/與範), 최상현(崔相鉉), 김문화(金文和), 성낙소(成樂紹), 박판조(朴判祚) 5명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을 졸업하다.

1940년 3월 인천에 「송림 교회」, 6월에 경북에 「동방 교회」가 설립되다(강명석, 교역자회).

1940년 가을, 일제가 모든 신교 교파들을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아래 통합시키려고 교파 수뇌들을 경성 서대문 2정목(현 신문로 2가) 「피어선 성경신학교」 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로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다.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들은 끝까지 가입을 반대함으로 포교계를 취소당하고 고등형사실에 두 차례나 불려가 심문을 받고 구타당하다.

1940년 가을. 힐 요한이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무허가를 이유로 폐쇄조치하다.

1941년 채이스가 일제에 추방되면서 선교부 소유지를 난로공장 사장 전항섭에게 임대하다.

4.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 동석기 전도자)

1930.11 미국에서 귀국, 고향 북청에서 '기독의 교회' 개척.
1937.05.12.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경기도 경성부 다육정 48번지).
1937.07.06 다육정 기독의 교회(동석기) 제출.
1937.07.06 동교 기독의 교회(강문석) 제출(경기도 경성부 동교정 59번지).
1937.09.23 경주 기독의 교회(강문석) 제출(경북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77번지).
1937.10.27 대현 기독의 교회(이용주) 제출(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
1938.04.04 서흥 기독의 교회, 함전 기독의 교회, 빙애 기독의 교회, 만경 기독의 교회 제출.
1938.05.07 수동 기독의 교회, 죽평 기독의 교회, 수서리 기독의 교회 제출.

1930년 11월 29일 함경남도 북청에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다.

1931년 5월 14일 함경남도 북청에 「시흥리 교회」 설립가 되다.

1931년 5월 22일 일본에 있던 메칼렘 선교사가 내한하여 동석기 전도자를 도와 일하다. 31명에게 침수세례를 베풀다.

1932년 5월 22일 함경남도 북청에 「수동리 교회」가 설립되다.

1936년 10월 11일 함경남도 북청에 「임자동 교회」가 설립되다.

기독교 교회(基督の教會, 강명석 전도자)

1936년 12월 강명석 전도자의 장모되시는 전난 성도의 집에서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되다. (지금의 예배당부지는 1951년 12월 전난 성도가 자신의 사유 여관 10칸을 울산교회에 헌납하여 형성되다).

1937년 5월 서울에 「동교 교회」, 10월에 「경주 교회」와 서울 「대현교회」가 설립되다.

1937년 4월 14일자 [기독신보]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다.

1938년 3월 경남 진양에 「반성 교회」가 설립되다.

1940년 3월 인천에 「송림 교회」, 6월에 경북에 「동방 교회」가 설립되다.

1944년 5월 28일 강명석 전도자 47세의 나이로 소천

태평양전쟁 전후 상황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형편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선교사들 철수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체이스 선교사 방한. 박해상황 목격 및 청취.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선교사들 철수.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 발발. 이날 아침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미군기지 기습공격.

1942년치부터 후원금 중단.

체이스는 1941년 후반기에 교회들이 폐쇄당하거나 지하로 잠복했다는 보고를 최상현으로부터 받음. 일제, 송월동재산 몰수(42년) 및 매각(43년).

동방요배, 신사참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반대 목회자들 체포, 구금 및 고문당함(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

북한의 교회들 생사불명. 유동교회와 금곡동교회, 송현기독교교회와 통합.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체이스 선교사 방한. 약 4년 반 동안 한국과 연락두절.

1947년 2월 14일 오웬 스틸 일본 재입국. 약 5-6년간 일본 및 한국과 연락두절.

1947년 6월 14일 에밀리 커닝햄 일본 재입국.

1948년 10월 17일-1949년 2월 중순까지 체이스 선교사 한국 재방문.

1949년 2월 18일 힐 선교사 재입국.

이인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 부임. 1951년 금산에서 별세.

이원균,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고,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

요츠야선교부가 고용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요츠야선교부와 관계를 맺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김문화(산 돈암정교회), 성낙소(내수정교회),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정교회) 등이 체이스 선교사와 협력.

C.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착기

1945년 9월 동석기 전도자 내수동교회를 시작하였다.

1945년 김은석 목사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다. 곧 이어 김교인 장로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김은석 목사와 함께 부강교회에서 나와 김규상 목사의 모친 구집사의 집으로 옮겼고, 수개월 후 옛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터로 옮기다. 1946-1955년 초까지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된 「성경연구원」에서 공부하였던 목회자들로는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심영진, 박점상, 김규상, 이원로, 김정만, 함창현, 김동렬 등이 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 전도사의 아들이자, 김은석 목사의 수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도 6.25 때 광주에서 김은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신학자겸 목사이다.

1946년 8월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선언문」을 발표하다(성낙소).

1949년 2월 18일 힐 요한 선교사 재입국하여 서울 연지동에 거주하다.

1949년 3월 15일 힐 요한 선교사는 중단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연지동 자신의 집에서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Korea Christian Bible Seminary)로 개교하다. (일제말 선교사들의 추방으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이 채이스에 의해서 난로공장 사장 전항섭에게 임대되었고, 일본은 전항섭에게 강제 매각한 상태에서 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 힐 요한,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이 교수로 섬겼고, 동년에 학생들이 7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필운동 교회」로 옮겼다. 이종만, 강병천, 설하운, 성수경, 최순국, 김규상, 조충연, 김종기 등이 당시의 학생들이었다.)

1950년 11월 동란으로 중단되었던 신학교를 장충동 임대 건물에서 개교하다. (선교부 건물에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 당시 교회 수는 42개였다.

1951년 2월 제주시 삼도리 해변가에 「제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다(김광수).

1951년 2월 4일 부산 용두산 일대에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다(교역자회). (이 즈음에 울산읍 「태극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헌당예배를 드린다.)

1951년 봄.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에 김은석 목사를 선출하다. 이 때 김재순(金在順), 창현 함태영(唱泫 咸泰英), 장주열(張周悅), 최요한(崔要漢), 이신(李信) 등이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다.

1951년 함태영(창현) 목사가 사재를 들여 광주 사직동 공원입구(KBS방송국 앞, 2000년 1월 현재 치과병원이 들어 있음)에 일본의 적산가옥 2층집 을 매입하여 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고 시무하다. 같은 교회건물에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를 개설하여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김태수 목사 등이 협력하여 환원운동 신학강좌를 실시하다. 함태영 목사의 3제 함태중의 재정적 후원으로 신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다.

1951년 가을 함태영(창현) 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주하여 충곡리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 시무하다. 같은 시기에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 시무하다. 11월 15일, 신교리의 마을회관을 빌어 복음중학교(후일 후배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칭)를 설립, 피폐한 농촌 2세들을 교육하다. 3제 함태중과 계제 함태욱이 교회와 학교 일에 적극 협력하다. 복음중학교교사들의 식사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거소를 충곡리교회에서 신교리교회로 옮기다.

1951년 7월 전항섭으로부터 만 10년 만에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을 되찾다.

1951년 8월 4일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으로 불린 첫 고아원을 선교부에서 시작하다. (1953년 이후에 부평으로 옮겨갔다.)

1951년 6.25동란 중에 대전 판암동(백청현)과 대구에 고아원

(1954년에 폐쇄)이 설립되다.

1952년 2월 20일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김광수).

1952년 4월 20일 부산 「염주동 그리스도의 교회」 헌당식을 갖다(교역자회).

1952년 7월 13일 강순명 전도자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다(교역자회).

1952년 8월 1일 이종만 목사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인천보육원을 설립하다.

1952년 이신 목사는 부여 합송리로 이주하여 합송리그리스도의 교회에 시무하며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이곳에 옮겨와 김은석 목사, 함태영 목사 등과 함께 신학강좌를 하며 기독교환원운동을 전개하다. 김확실 전도사, 정찬성 목사 등 많은 환원신학도를 배출하다.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에서는 <로고스(Λογος)>라는 환원운동신학잡지를 간행 전국 환원교회에 배포하다. 신학교는 1954년 전남 목포로 잠시 옮겨갔다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서 개원되었다.

1953년 울산에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현,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교역자회).

1953년 9월 16일 힐 요한 선교사가 돌아와 장충동에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재개교하다. 학생으로는 김종기, 최홍철, 김규상, 최순국 등 24명이었다.

1953년 가을 「도마기독교회」(대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손중심씨 집 안방에서 개척되다.

1953년 9월 13일 김광수 등이 목사 안수를 받다.

1953년 영주동 그리스도의교회 부설 「승리모자원」이 부산에 설립되다(교역자회).

1953년 폴 잉그램(Paul Ingram)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5년 귀국하다.

1953년 로버트 웨스트(Robert West) 선교사가 장충동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로 입국하다.

1953년 제인 키넛(Jane Kinnett) 선교사가 장충동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로 입국하여 1955년에 귀국하였다가 1959년 힐 요한 선교사와 결혼한 후 재입국하다.

1953년 하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s) 선교사가 신학교육을 위해 입국하다.

1953년 리라 힐러(Lila Hille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6년에 귀국하다.

1954년 메리 루이즈 반힐(Marry Louise Barnhill)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5년에 귀국하다.

1954년 5월 데일 리차드슨(Dale Richardson)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최초 선교사).

1954년 6월 25일 성낙소 교감이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휴교조치하다. (1953년 5월경에 힐 요한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하면서 폴 잉그람 선교사에게 제반업무를 인계하였는데,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잉그람은 힐 선교사 부인의 비행과 힐 선교사 개인의 결점까지 채이스에게 발설함으로써 분쟁이 일었고, 1954년 9월 하순 채이스 선교사가 내한하여 두 선교사 모두를 귀국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폴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 힐 선교사는 1955년 7월 5일에 각각 귀국 길에 올랐다.)

1954년 6월 14일 유·무악기파의 연합 추진 모임이 개최되다(성낙소, 김진영).

1954년 후반기에 송월동 선교부 건물 옆에 신학교 건물이 3층으로 건축되다(힐 요한).

1954년 10월 헤스켈 체시어(L. Haskell Chesshir, 한국명 최수열)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54-1955년 배도은(Gorden & Sharon Patten)이 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하다.

1955년 조국형, 성수경, 이종균, 함창현, 정희건, 최병권, 김태수, 김현숙이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5년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서울 성서 신학교」로 개명하다. 교장에 힐 요한, 교수에 조국형(趙國衡), 이신(李信),

김동렬(金東烈), 김동수(金東洙), 김태수(金台洙), 김은석(金銀石) 등이 섬기다.

1955년 말 테일러 선교사(Harold & Ada Taylor)가 헐 요한 선교사를 대신해서 입국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송월동 재산을 처분하여 신사동(구 역촌동)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서울성서신학교」를 계속했으나 교사(校舍)문제로 1959년에는 휴교 조치하였다.

1955년 테일러가 미국에 보고한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교회가 65개, 교수가 1명, 고아원이 3개(서울, 대전, 부평)로 나타나 있다.

1955 「그리스도의교역자회」(유약기)가 조직되고 매년 「그리스도인대회」를 열다.

1955년 11월 20일 「광주 교회」(강순명 전도자)가 신축기념예배를 드리다(교역자회).

1956년 알렉스 빌즈(Alex & Betty Bills) 부부가 입국하여 부산에 라디오 방송국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허가취득실패와 선교사들간의 내분으로 귀국하다. 비록 방송국설립은 실패했으나 방송시간을 사서하는 선교방송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1956년 [기독교연감]에 실린 유약기 그리스도의 교회 수는 51개, 교역자 38명, 신도 1,905명이다.

1957년 래쉬 선교사(Richard & Melba Lash)가 입국하여 강릉과 부산지역(장성만 목사)에서 사역하다가 1971년 귀국하다.

1957년 4월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다(테일러).

1957년 플로라 매 구른시(Flora Mae Guernsey)가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을 위해서 입국하다.

1957년 설하운, 채원석, 강순덕이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8. 4. 19 체시어(L. Haskell Chesshir)가 「그리스도 신학 대학교」의 전신인 「한국기독교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에 홀톤(A. R. Holton) 선교사를 취임시키다. 신학과, 기독교사회사업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를 두고 학생 19명을 선발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 신학 대학의 학장이 된 하딩 박사(Dr. Harding)가 내한하여 체시어와 더불어 신학대학의 설립에 공헌하였다(교역자회).

1958년 주한 미국 중위였던 이철선은 최수열(체시어) 선교사의 설득으로 동년 8월 31일 가족들을 입국시켜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한국기독교학원」의 발전에 전념하다(교역자회).

1958년 박형후, 이성학, 신성우, 김정희, 강경자, 조춘자가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8년 조 세겔케(Joe & Maxine Seggelke), 버어트 엘리스(Bert & Marjorie Ellis), 레이 굿드맨(Ray Goodman), 로버트 클레멘스(Robert Clemens)가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을 위해서 부산에 입국하다.

1959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축되다.

1959년 조충연, 김규상, 김진문, 박재관이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9년 「서울 성서 신학교」가 임시휴교하다(태일러).

1959년 12월 1일 「대전신학교」가 개교되다(힐 요한). 1962년 9월 3일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개명되었다. 이 당시 이 신학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였다. 역대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시, 이신, 김찬영,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희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 등이었다.

1959년 부산 성광원(홍경채), 연무대의 에덴 보육원(노봉옥, 10월 15일 설립)이 설립되다.

D.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기

1960. 4. 체시어 선교사가 6.25사변 직후의 어려운 한국사정을 직시하고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5만여평의 학교법인 직영 목장을 설립하여 젖소 141마리를 도입하였다. 알렌이 낙농선교사

로 입국하였다(교역자회).

1960년 10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와 「구호소」의 일을 했던 말콤 이 파수리(Malcolm E. Parsley)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61년 빌 램지(Bill Ramsey,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61년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함태영).

1962년 5월 25일 배도은(Gorden & Sharon Patten)가족이 선교사로 입국하다. 영문서적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에 힘을 썼다.

1963년 3월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04번지에 교지 6만 4천평 매입하다(교역자회).

1963년 8월 23일 재단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명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개명하다(교역자회).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가 재개교하다. 태일라, 최윤권, 배도은, 박두진 등이 교수로 수교하다.

1964년 김연신, 함명덕, 오덕근, 유봉현, 김수자 등이 「서울성서신학교」를 졸업하다.

1964년 재단법인 「크리스찬 밋손」이 설립인가를 받다(힐 요한).

1964년 7월 15일 「성경통신교육원」(Bible Correspondence Center)이 설립되다(교역자회).

1964년 6월 「지은 보육원」이 설립되다(최윤권, 민지은).

1964년 8월 1일 월간 [참빛]이 창간되다(발행인 겸 편집인 이영진). 1966년 2월 16일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었다. 언론통폐합으로 몇 년간 정간되었다가 1988년 5월 17일에 복간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교역자회).

1965년 2월 5일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다(교역자회).

1965년 2월 1일 장성만 목사가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선

교사와 더불어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동서 기독교 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키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임대하여 이층건물 「알과 흙」(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다. 1970년 5월 28일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를,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부산실업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내다. 이렇게 해서 「부산실업전문학교」가 1971년 3월 1일 정식 개교되었다. 이후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9년 1월 1일 「경남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91년 11월 15일에는 4년제 「동서공과대학」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1992년 3월 3일 개교하다.

1965년 3월 18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되다(최윤권). 통신신학개설하다. 교장에 최윤권, 교수로는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환, 김규상 등이 섬기다.

1965년 월간 [환원]지를 발간하다(최윤권).

1966년 [깨어진 십자가](최윤권)가 출판되다.

1966년 3월 23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다(교역자회).

1966년 힐 요한 선교사의 딸 버지니아(Virginia Bendure)가 힐 선교사의 일곱 번째인 「버지니아의 고아원」를 운영하다가 1969년에 귀국하다.

1967년 메리 하딩(Mary Harding) 선교사가 입국하여 동년에 귀국하다(교역자회).

1967년 조 가맨(Joe Garman) 목사가 입국하여 1968년 초까지 김희영 통역과 함께 한국에서 많은 부흥집회를 열다. 1969년에 그의 새 부인 린다와 친구 폴 코모(Paul Comeaux)가 한국에 재입국하다.

1968년부터 매년 1월에 「BCC 동계대학」을 개설하다(교역자회).

1969 기독교방송, 극동방송을 통하여 대북방송시작하다.

1970년 11월 15일 김찬영 패츄리사(Patricia A. Kim) 부부가

입국하여 1972년 1월 21일 이후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과 선교사의 일을 하다.

1971년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 Ellie Hoffman) 부부가 내한하여 「한국 크리스천 미션」에서 일하다.

동석기 전도자는 은퇴 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1972년 90세의 고령으로 소천하였다.

1972년 12월 22일 「대한기독교신학교」가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다.

1973년 12월 29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인가받다(교역자회).

1973년 이신 목사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뜻있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규합하다(김태수, 김정만, 김철수, 김용웅, 김길홍 등).

1974년 1월 8일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으로 변경하다(교역자회).

1974년 클라우디아 라쩌레쉬(Claudia Lazzereschi)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8년 귀국하다.

1973 「그리스도의 교역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로 확대조직하다.

1974년 3월 25일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선포하다.

1974년 김찬영, 김규상목사 등이 대전에서 연합 총회를 구성하다.

1975년 3월 4일 김찬영, 김규상목사의 연합 총회와 이신 목사의 연합회가 통합하여 「한국 그리스도 의 교회 총회」로 발족하다.

1975년 3월 5일 「대한기독교신학교」 졸업생들로 「한국 그리스도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다.

1975년 「이광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다.

1977년 밥 워릭(Bob & Joyce Warrick)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8년에 귀국하다.

1978년 찰스 배어(Charles Bae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9년에 귀국하다.

1978년 10월 분열의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재통합하다.

1978년 데보라 햄(Deborah Ham)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79년 델로이 브라운(Delroy Brown)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2년에 귀국하다.

1979년 데이브 워너(David & Loretta Warner) 가족이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0 「태광 출판사」가 설립되다(배도은).

1980년 클레런스 리태너(Clarence Rittenou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1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통합하다.

1981년 2월 16일 「한국 성서 신학교」가 이름을 「한성 신학교」로 개명하고, 학교법인 「성령학원」으로 각종학교의 인가를 득하다.

1981년 케리 옥스버그(Keri Augsburg)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3년에 귀국하다.

1982년 마이크 노엘(Mike & Joan Loel)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3년 비키 존스(Vicki Jones)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3년 티모띠 체임버스(Timothy Chambers)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3년 3월 「유·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울 유스호텔에서 통합을 선언하다.

1983년 6월 27일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가 「유·무악기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다.

1983년 10월 5일 「한성 신학교」가 학력인정 대학으로 지정되다.

1984년 배도은 선교사의 선교부 건물이 완공되다.

1984년 11월 26일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서울 지방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쇄신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다.

1985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286개에 이른다.

1985년 2월 2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학력인정 대학으로 지정되다.

1987년 짐 몽고메리(Jim & Suzy Montgomery)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9년 귀국하다.

1987년 코리 프리(Kori Frye)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9년에 귀국하다.

1989년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54차 총회에서 「기독교회」와 「한성교역자회」 간의 갈등이 표출하다.

1989년 「한성신학교」가 대전 가장동에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로 이전하다.

1990년 캐런 터르훈(Karen Terhune) 선교사가 입국하여 1992년에 귀국하다.

1990년 2월 5일 「한성교역자회」를 주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창립총회를 열다.

1990년 7월 12일 총회측 임직원회의에서 「한성신학연구원」 개설을 가결하다.

1992년 4월 3일 협의회측 심의위원회 가결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가입회원들을 제명처리하다.

1992년 4월 30일 [환원]지에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가 분리되었음을 공고하다.

1992년 9월 1일 「한성 신학교」 출신 일부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재통합하다.

1992년 3월 3일 「동서대학교」 개교 및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다.

1993년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다.

1994년 8월 9일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일교단 3체제 통합추진을 가결하다.

1997년 2월 5일 「그리스도 신학 대학」이 「그리스도 신학 대학교」로 개명하다(교역자회).

1997년 12월 5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대한 기독교 대학교」로 승인받다.

1998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364개에 이른다.

1999년 12월 28일 「대한 기독교 대학교」가 「서울 기독 대학교」로 승인받다.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한민족학원」으로, 「한성신학교」에서 「한민학교」로 개명되다.

2003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405개에 이른다.

2005년 12월 「그리스도 신학대학교」가 「그리스도대학교」로 승인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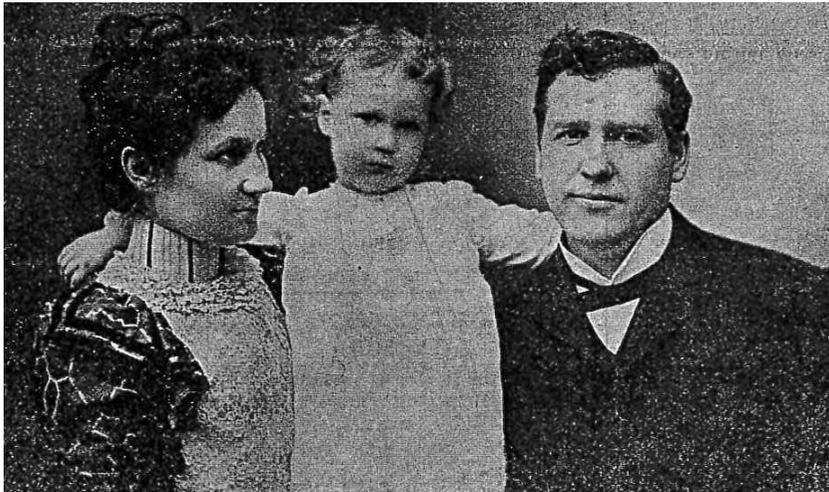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 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1901-1923)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은 1864년 7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티론 타운십(Tyrone Township)에서 태어났다. 1887년 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일하다가 1891년 9월 21일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 2학년에 편입하여 신학을 마쳤으며, 1894년 7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 토마스(St. Thomas)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커닝햄은 베다니대학에 재학 중이던 1893년 여름에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생설교가로 섬기던 중에 그 교회 청년이었던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를 만났고,



우측부터 윌리엄, 엘리자,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1898년 6월 2일 결혼하였다.¹⁾

커닝햄 부부는 신행여행 기간에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창립)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일본 선교를 제안 받고 준비하였으나 커닝햄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결과적으로 선교사 불가관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커닝햄 부부는 총 4년에 걸쳐 네 차례 더 지원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번번이 불가관정을 받았다. 결국 커닝햄 부부는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작은 인쇄기를 들고, 1901년 9월 12일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차이나(China) 호에 승선하여 10월 1일 일본 요코하마(횡빈) 항에 도착하였다. 커닝햄 부부는 도쿄(동경)에서 생계와 선교를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쳤고, 귀족대학에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주택과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일본어도 배웠다. 본국에서 후원이 이뤄지면서부터는 영어강사직을 그만두고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커닝햄은 도쿄에 도착한지 한 달 만인 1901년 11월 1일,

“빛을 보내고(send the light), 진리를 외치며(sound out the truth),

그리스도를 드높이기(uptlift the Christ)”

위한 목적으로 월간 <도쿄 그리스도

인>(Tokyo Christian) 제1호를 발행하였다.

1902년에는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선교회를

인수받아 요츠야선교회(Yotsuya

Mission)를 설립하였다. 선교회는 도쿄중

심부에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고, 나중에

길 건너편에 일왕의 궁전이 세워졌다.²⁾

커닝햄이 일본에 도착한 1901년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되기 이전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서 갈라선 것은



1) "A Bit of History,"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0, p. 3; Emily Boyd Cunningham, "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October 1936, pp. 2-4.

2) Emily B. and W. D. Cunningham, "Our Fourth Anniversary" and Kate V. Johnson, "Not Sick But Working," *Tokyo Christian*, November 1905, p. 2; "Our Sixteenth Anniversary," *Tokyo Christian*, November 1917, p. 2.

그로부터 5년 후인 1906년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이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서 하나 둘씩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과반세기가 지난 192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열린 구성원제와 중앙집권제의 폐해에 실망하여 탈퇴한 독립교회들, 곧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몽치기 시작하면서 직접후원선교(Direct-Support Missions)의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커닝햄의 요츠야선교회는 이들로부터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요츠야선교회 산하의 60-70여명에 이르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받았던 사례비가 바로 이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방식이였다.

커닝햄은 요츠야선교회(Yotsuya Mission)가 자리를 잡자 “수확을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황금들판”으로 회자되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중국 상해에서 개신교선교일백주년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가 1907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어서 커닝햄은 M. B. 매든(Madden)과 함께 한국을 거쳐 상해로 갈 계획을 세웠다.³⁾ 19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절정기에 이른 시점이어서 그들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09년에 요츠야선교회의 일본기독교회에 출석하던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서울 YMCA 총무로 재직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신약성서기독교에 의한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커닝햄은 자신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미국 성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으며,⁴⁾ 그 결실을 1923년에 보게 되었다. 아이오와(Iowa) 주에서 한 성도가 한국선교를 위해서 2천 달러의 헌금을 약속하였고, 착수금으로 6백 달러를 보냈기 때문이다. 커닝햄은 즉시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울 계획을 세

3) "Trip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24, p. 2.

4) "Our Sixteenth Anniversary," *Tokyo Christian*, November 1917, p. 2; "Mr. Kwong Choon Kim," *Tokyo Christian*, July 1927, p. 1.

우고, 그해 9월말에 방한하고자했으나 9월 1일에 동경과 요코하마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림으로써 방한 계획은 이듬해로 늦춰지게 되었다.⁵⁾

2)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선교 출범과 발전(1924-1936)

지진피해수습이 끝나자 커닝햄은 1924년 3월 중순에 일본기독교회에 출석하는 박제곤을 서울에 보내 선교기지를 물색토록 하였고, 3월 25일에 커닝햄 부부가 직접 방한하여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웠다.⁶⁾ 그리고 동년 5월에 박제곤을,⁷⁾ 10월에는 부친의 반대로 사임한 박제곤을 대신하여 이원균을 파송하였다. 1927년 중반에 이원균이 중단했던 신학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사임하자, 김광춘을 파송하였고, 1929년 3월 26일에는 동경 삼하도 조선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 박흥순을 포교책임자로 서울에 파송하였다.⁸⁾ 이 무렵 박



서울조선인기독교회(1924-45)를 섬긴 포교소선교부의 사역자들
상좌부터 이원균(1924.10-27, 박제곤의 뒤를 이임), 김광춘(1927중반-29.03)
박흥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시킴),
이성득(1930.04-31), 성낙소(1931.09-33.05,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1933.06-43,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5) "Tokyo Smitten," *Tokyo Christian*, September-October 1923, p. 4;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March 1924, pp. 2-3.

6) "Trip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24, p. 2.

7) "Mr. Kwong Choon Kim," *Tokyo Christian*, July 1927, p. 1.

홍순은 추가로 투입된 이성록, 이동혁과 함께 6개의 선교기지를 운영하여, 그 가운데 한 곳을 1930년 4월 27일 서울 제1교회(요츠야선교회 제13번째 교회)로 조직하였다.⁹⁾ 커닝햄이 서울에 선교기지를 세운지 만 6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1931년 9월 하순에는 박홍순을 대신하여 횡빈조선인기독교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를 포교책임자로 파송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요츠야선교회의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다녀갔으며, 일본 와세다대학교(학사)와 상해 성요한대학교(석사)를 졸업한 공립학교 교사였던 김영배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였다.¹⁰⁾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¹¹⁾ 시작하였다.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를 섬기는 한편, 인천 남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¹²⁾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기독교회인천교회(송현기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¹³⁾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남도교회 52명, 송현교회 18명) 침례를 베풀었고 평북 구성에까지¹⁴⁾ 기독교회를 설립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1932년 3월 14일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하였고,¹⁵⁾

8) "About People" and "Yotsuya Mission Workers," *Tokyo Christian*, November 1929, pp. 1-2.

9)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une 1930, pp. 2-3.

10) "Tokyo Notes," *Tokyo Christian*, November 1931, p. 1 and December 1931, p. 2;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May 1932, p. 1; "Back from Korea Facts in a Nut Shell," *Tokyo Christian*, December 1936, p. 1.

11)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엮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 21.

12)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2, p. 2; "Growing," *Tokyo Christian*, June 1932, p. 4.

13)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1;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une 1933, pp. 1-2.

14)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포교 관리자를 성낙소로 기재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¹⁶⁾ 이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리사무소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¹⁷⁾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으로 주소를 옮겼고,¹⁸⁾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가 이인범 목사로 바뀐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의 6번지에 있었다. ¹⁹⁾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소를 뒤야했기 때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²⁰⁾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고는 성낙소에 의해서 최초로 이뤄졌고, 1932년 12월에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와²¹⁾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²²⁾ 1933년 2월에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에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를²³⁾ 위해 포교소 설치계가 제출되었다. 비록 커닝햄이 1936년 초까지 조선에 12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또 이들 교회들을 직접 눈으로 확

15) "Korean Kindergarten & Bible School," *Tokyo Christian*, July 1932, p. 1.

16)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692호 6면, 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1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1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257호 6면, 소화 9년 7월 19일).

1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20)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자작)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인물로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 종교계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정책을 펼쳤고,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으로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교계예양(Comity Agreements)을 들어 타교단의 선교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2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2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2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82호 9-10면, 소화 8년 4월 20일).

인하였지만, 1924년 5월부터 1936년 1월 10일까지 성낙소가 제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²⁴⁾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되었다.²⁵⁾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고,²⁶⁾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²⁷⁾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제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⁸⁾

한편 이원균이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학업을 마치는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요츠야선교회는 학업을 마친 이원균을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에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파송하였고,²⁹⁾ 1933년 6월 5일에는 커닝햄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던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을 성낙소 대신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선임하여 동년 9월에 파송하였다.³⁰⁾ 이인범은 입국 후

24)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Honest, Unbiased Investigation Welcomed,"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2.

25) 국사편찬위원회,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272-276쪽; '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102-103쪽.

2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257호 6면, 소화 9년 7월 19일).

27) *Ibid*

28)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29) "W. K. Lee Says," *Tokyo Christian*, February 1936, p. 3.

인천 기독교회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다. 이인범은 이때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로 바꿨다.³¹⁾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과명변경계를 제출하고,³²⁾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다.³³⁾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³⁴⁾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



컸녕함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헛던 인천송현리기독교회(1936년 3월)

30) "A Venture of Faith,"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2; William. D. Cunningham, "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August 1933, p. 1.

3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752호 12면, 소화 11년 3월 18일).

3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883호 6면, 소화 11년 8월 21일).

3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3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42호 6면, 소화 12년 3월 9일).

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³⁵⁾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유정기독교회는 1937년에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이전하였다.³⁶⁾ 따라서 커닝햄이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이던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그리스도인>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실제로 포교관리자 이인범은 1937년 한 해 동안 7개 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이들 교회들은 오봉기독교회(장신주, 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와 방현기독교회(김성산,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³⁷⁾ 용포동기독교회(류 W. K,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와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³⁸⁾ 금곡정교회(정삼선,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³⁹⁾ 그리고 마산(김태희, 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⁴⁰⁾과 서울(이난기,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에⁴¹⁾ 세워진 교회들이

3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43호 9면, 소화 12년 7월 8일).

3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277호 5면, 소화 12년 12월 16일).

3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12호 9-10면, 소화 12년 6월 2일).

3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26호 9면, 소화 12년 6월 18일).

3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4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69호 4면, 소화 12년 4월 10일).

었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아현정기독교회 한 곳만 남았고, <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에 따르면,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에 제2교회가 개척되었다. 평안북도 구성군에 평지동기독교회와 정주군에 약수포기독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교회들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북 방현기독교회 1935년 4월 21일

한편 1935년 3월 20일경에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셸리는 목회자로서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였고, 커닝햄이 모집한 한국선교사에 지원하여 파송받기 직전까지 1-2년간 동경 요츠야선교회의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셸리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 달쯤 후인 4월 25일 커닝햄이 1935년 4월 네 번째 방한을⁴²⁾ 마치고 동경에 돌아간 직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등록한 '동경 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총독부가 어떤 연유로 또 한 하나의 '기독교회'를 등록시켜주었는지는

4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19호 5면, 소화 12년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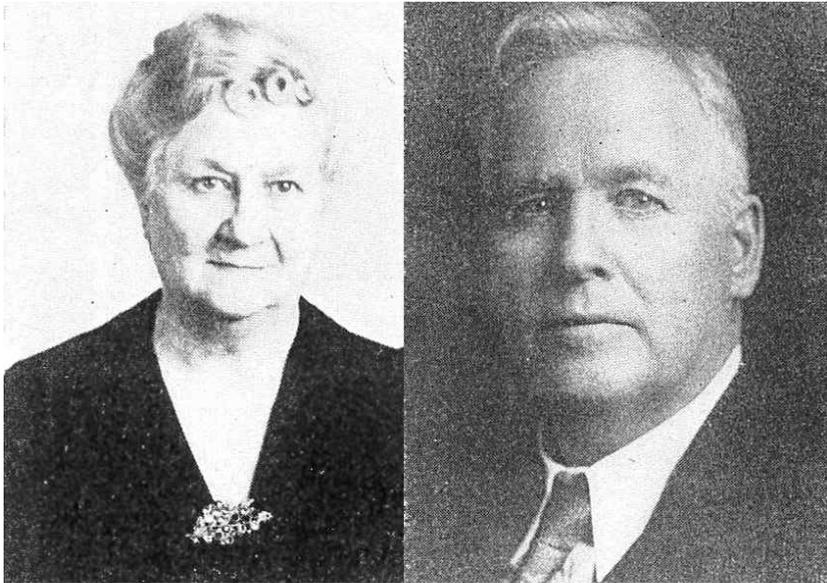
42) "A visit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35, p. 3.

알 수 없지만,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남대문통)'으로 표기하였다.⁴³⁾ 쉘리가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성낙소가 이미 1933년 5월 20일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인범 목사가 포교규칙을 위반하고 포교계도 없이, 포교담임자선임계도 없이, 무엇보다도 포교관리자의 법적자격도 없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성낙소가 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쉘리 자신의 포교계를 계출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도의 선교를 펼칠 계획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쉘리는 이인범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동경 요즈야선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실을 5월 25일 미국교회들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⁴⁴⁾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는 이미 1934년 말부터 자신이 파면한 존 T. 채이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파면에 항의하여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상황에서 1935-36년 사이에 또 다시 J. 마이클 쉘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쉽지 않던 때였다. 커닝햄은 아마도 이런 문제들의 수습을 위해서 1936년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에서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고, 5월 14일부터 선교여행을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한 뒷날인 5월 23일 커닝햄은 암 진단을 받고 때늦은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6월

43)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44)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24일 저녁 8시 45분, 향년 72세로 일본을 떠나온 지 꼭 두 달 만에 소천하였다. 시신은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졌다. 이로써 윌리엄 D. 커닝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몸 바쳤던 모든 지역, 곧 일본에서 한국, 다시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미 서부,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마지막 순회를 온전히 다 마치고 그가 처음 선교의 꿈을 품고 사랑하는 아내 에밀리 보이드와 함께 일본을 향해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영면하였다.⁴⁵⁾



에밀리 보이드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부

또 커닝햄은 동일한 목적으로 미국여행 직전인 1936년 3월 19일부터 요츠야선교회에 갓 부임해온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 더불어 다섯 번째로 한국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는데⁴⁶⁾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한이 되었다. J. 마이클 쉘리 가족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45) "Illness of Our Director," *Tokyo Christian*, August 1936, pp. 2-3; "Faithful unto Death,"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6, pp. 1-2; "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October 1936, pp. 2-3.

46) "About People" and "Impressions of the Work in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6, pp. 1-3.

건강문제로 인해서 동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아주 돌아갔다.⁴⁷⁾

3) 태평양전쟁 전후 한국 기독교(그리스도의)교회들의 상황

1938년 2월 18일 일본을 떠나 서울에 상주한 토마스 G. 히치는 입국하자마자 이인범과 함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서울성서훈련원(Seoul Bible Training School)을 개원하여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훈련원은 제1교회에서 개원되었으나 곧이어 아현정에 소재한 제1,2교회들에서 가까운 2층 임대교실에서 지속되었다.⁴⁸⁾ 여기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김상익(경성부 마장정기독교회),⁴⁹⁾ 임공철(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⁵⁰⁾ 정삼선(인천부 금곡정기독교회),⁵¹⁾ 임준식(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⁵²⁾ 등이었고, 여전도사들은 임화순(서울 아현정 제1교회), 이권신(서울 영등포 제4교회), 평화일(서울 대흥정 제5교회) 등이었다.

이인범은 1938년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정기독교회(윤낙영, 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염리정기독교회(이난기, 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정기독교회(김상익, 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를,⁵³⁾ 1939년에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정기독교회(김태희, 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⁵⁴⁾ 1941년에는 대화정기독교회(임준식, 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⁵⁵⁾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경

47)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48)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The Hitches Go to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8, p. 1;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4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50)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3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5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5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5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5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645호 2-3면, 소화 14년 3월 16일).

5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⁵⁶⁾ 대홍정기독교교회(임공칠, 경기도 경성부 대홍정 36의 19번지)⁵⁷⁾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현천기독교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⁵⁸⁾ 이로써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된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은 서울에 5개, 인천에 4개, 경기도 고양에 1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문인동), 마산(창원)에 3개, 대구에 1개, 총 18개가 되었다. 이와 별개로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이 내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운 '기독교회들'과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석기와 강명석이 세운 '기독교회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제출)된 기독교회들이 총 7개, 기독교회들이 총 11개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로는 1942년 2월 1일까지 총 36개의 교회들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1년 4월 1일 일제의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 선교 및 후원이 중단되었고, 요츠야선교회는 한국 선교를 포기하였으며,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과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들이 철수하였고,⁵⁹⁾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 주재한 선교사들도 모두 철수하였다. 이 무렵 일제의 박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⁶⁰⁾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회로부터 1941년 치의

5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54호 3면, 소화 15년 7월 26일).

5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5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520호 2면, 소화 17년 2월 23일).

5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60) 채이스 선교사는 1941년 2월 24일 입국하여 3월말까지 머문 한 달간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하였다. 채이스가 최상현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1941년 후반기에 이미 교회들은 폐쇄당하거나 지하로 잠복하였으며, 1942년 경 일제는 선교부의 재산을 적산으로 간주하여 몰수하였다. 실제로 일제는 송월동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몰수하여 세 들어 살고 있던 전항섭에게 1943년에 매도하였

후원금을 한 뭇에 받았지만,⁶¹⁾ 후원이 중단된 상태였고,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약 5-6년간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어야 했다.⁶²⁾ 이 기간에 요츠야선교회의 교회들과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은 동방요배, 신사참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에 반대함으로써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의 목회자들이 체포당하여 심하게 매를 맞거나 구금당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을 평산 무용(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⁶³⁾ 평산 무용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이인범의 포교 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⁶⁴⁾ 아현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담임자도 이인범에서 송산 의웅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⁶⁵⁾ 또 평산 무용은 1944년 9월 30일 염리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포교담임자도 이난기에서 유지욱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⁶⁶⁾ 이해보건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폐쇄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다("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and "Gospel Headquarters in Seoul,"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3-4).

61) 요츠야선교회는 이 돈을 '커닝햄 한국기념기금'에서 충당하였고, 기독교회 선교부의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방한하여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한 후, 힐과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 1941년 초 후원금을 남겨놓았으며, 송월동 건물을 세놓아 수입을 얻도록 조치하였다.

62) 요츠야선교회는 1941년 4월 이후 한국선교를 포기하였고, 1947년 2월 14일 오웬 스틸 및 동년 6월 14일 에밀리 커닝햄이 일본에 재입국하여 요츠야선교회를 재건하였으나 한국선교를 재건할 의사가 없었다. 반면에 기독교회선교부는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와 1948년 10월 17일부터 1949년 2월 중순까지 채이스의 두 차례의 단기 방한 및 1949년 2월 18일 힐 선교사 가족 재입국으로 한국선교를 재건하였다.

6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6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6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6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3호 2면, 소화 19년 12월 7일); <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소화 19년 12월 9일).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1944년 6월 26일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⁶⁷⁾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고⁶⁸⁾ 나흘 뒤인 6월 30일 목회자들의 포교폐지계와⁶⁹⁾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⁷⁰⁾

남북분단으로 북한의 기독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인천의 화정(유정)기독교회와 금곡정기독교회는 1943년 5월에 송현기독교회와 통합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소천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송현기독교회(인천 제1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⁷¹⁾ 요츠야선교회가 고용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이었고, 1941년 이후로 요츠야선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요츠야선교회가 많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요츠야선교회와 관계를 맺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해방 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했거나 남아 있었던 목회자들은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뿐이었으며, 교회들로는 이난기의 용산교회, 윤낙영의 아현동교회, 성낙소의 내수정(동석기와 무관한)교회가 있었다. 김문화 목사는 채이스의 도움으로 새로 개척된 돈암정 제2교회를 섬겼고, 다른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아현동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에 선교부(힐 요한)가 만리동에 85달러를 주고 매입해준 구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⁷²⁾ 반면에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 17일까지 만 10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던 이인범은 장로교회로 이적하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 금산에서 별세하였

6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6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6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7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71) 인천송현성결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72)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p. 405.

고,⁷³⁾ 평북 구성군에 파송 받아⁷⁴⁾ 1937년 초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를 맡아 전근하기까지 요츠야선교회에서 가장 큰 방현기독교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교회들과 선교기지들을 세우는 큰 성과를 거뒀던 이원균은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으며,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하였다.⁷⁵⁾

4) 한국에서 활동한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사들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은 1927년 3월 4일 일본에 도착하였다.⁷⁶⁾ 요츠야선교회의 조선인기독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하였고, 1931년 9월 하순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시찰하였



요츠야선교회 선교사들

앞줄 좌측부터 슈노버(Ruth Schoonover), 커닝햄(W. D. Cunningham) 부부, 번햄(Farnham) 뒷줄 좌측부터 존 채이스(John T. Chase) 부부, 레몬(Vivian Lemmon),

73) 금산제일장로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74)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uly 1933, p. 1; "Opportunity in Korea," *Tokyo Christian*, February 1934, p. 2.

75) 김갑수, '성직자 양성의 사명자, 이원균 목사' <한국침례교 인물사>(요단출판사, 2007).

76)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27, p. 1.

으며, 한국에 신약성서기독교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다. 1934년 10월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파면당하여⁷⁷⁾ 11월 2일 귀국하였으며,⁷⁸⁾ 1936년 11월 7일 독립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⁷⁹⁾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는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로서 실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던 중 요츠야선교회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 입국 준비를 하였다.⁸⁰⁾ 셸리 가족은 1935년 3월 10일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여 18일까지 요츠야선교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1935년)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하였으며,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이었다.

회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⁸¹⁾ 1935년 3월 20일쯤 한국에 입국하여 24일(주일)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으며, 요츠야선교회(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아닌 별개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인범의 "부정직과 비기독교인

77)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인터넷홈페이지).

78) "Depleted Staff," *Tokyo Christian*, December 1934, p. 3.

79)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80)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Tokyo Christian*, January, 1934, p. 2; William D. Cunningham, "Recruits for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4, p. 1.

81)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35, p. 1; "Entering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5, p. 3.



히치 선교사 부부와 딸 애니
Mr. & Mrs. T. G. Hitch and Miss Annie

다운 행위들,"⁸²⁾ 곧 조선총독부에 포교계, 포교담임자선임계,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목회활동, 그로 인해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5월 25일 미국교회들에게 알림으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⁸³⁾ 셸리 가족은 이 분열과 자신 및 자신의 딸의 건강문제(이질)로 인해서 동년 10월 28일에 아주 귀국하였다. 셸리는 채이스 선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썼으며,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권유하였다.⁸⁴⁾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는 딸 애니(Annie)와 함께 1936년 3월 3일 호주에서 요츠야선교회에 도착하여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하였다.⁸⁵⁾ 1937년 3월 2일 부인 E. 히치와 딸 앨리스(Alice)가 일본에 합류하였고, 1938년 2월 18일 토마스, 3월 24일 부인 E.와 딸 애니가 한국에 상주하기 위해 일본을 출국하였다.⁸⁶⁾ 동년에 또 다른 딸 에밀리(Emilie)가 호주를 떠나서

82) J. 마이클 셸리 선교사가 1963년 1월 23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83)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84)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 117;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9 February 1936, p. 209; "The Chases Will Go to Korea," *Christian Standard*, 28 March 1936, p. 303.

85)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36, p. 1.

86)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The Hitches Go to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8, p. 1.

울에 도착하였다. 서울에 모인 히치 가족은 동년에 서울 제1교회(아현정)에서 담임목사 이인범과 함께 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을 개교한 후, 장소를 아현정 소재의 건물 2층으로 옮겼다.⁸⁷⁾

토마스(영국인)와 부인 E.(독일출생) 히치는 티베트 국경지대와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들이었으나 토마스가 티베트에서 두 아들을 잃고 신경쇠약증에 걸린 상태였다. 이후 히치 가족



오웬과 셸리 스틸(Owen &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요즈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감독했던 스틸은 본인의 건강
악화로 1950년 5월 3일 미국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겼다.

은 요즈야선교회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8년간 딸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⁸⁸⁾ 히치는 요즈야선교회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도교 그리스도인>의 편집과 임시 회계를 맡아보면서 한국 선교지를 감독하기 위해 일년에 1-2차례씩 시찰하였으며, 1938년 2월부터 한국에 상주하였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증이 재발하자 1939년 8월말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돌아갔다.⁸⁹⁾

오웬 스틸(Owen Still) 가족은 1937년 10월 24일 일본 요즈야선교회에 도착하였고,⁹⁰⁾ 히치 가족이 한국을 떠난 1939년 9월부터 1941년 3월까지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하였다. 오웬 스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복귀하여 요즈야선교회의 재건에 힘썼으나 부인 셸리의 건강 악화로 1949년 5월경에 요즈야선교회를 사임하였다.⁹¹⁾ 스틸은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87)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88)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4;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89) "Workers Leaving,"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9, p. 2.

90) *Tokyo Christian*, December 1937, p. 1.

피력하였다. 첫째, 열정, 온 맘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은 것에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을 안고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섰다.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⁹²⁾

5) 요츠야선교회의 한국기독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들

첫째, 요츠야선교회는 세계경제대공황으로 후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내내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회 소속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모두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종교법과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신념이나 교리 또는 박해보다 더 무거운 짐은 가난과 배고픔이었다.

둘째, 커닝햄 선교사는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목회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내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성결교 출신의 목회자들이었다. 커닝햄은 이들 사역자들이 신약성서 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를 바랐고 교육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의 방(H. C. Pang) 목사 같은 분은 신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가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또 심천조선인기독교회의 채호 전도자는 신약성서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한 타 교단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회들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례를 목사뿐 아니라 평신들도 할 수 있었는데, 채호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 전도자였다.

셋째, 요츠야선교회는 일본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

91) Eva Green, "Best Wishes to Stills," *Tokyo Christian*, May-June 1950, p. 4.

92) "Things I Like About Korea," *Tokyo Christian*, January 1940, p. 3.

월 1일부터 한국선교를 포기하였고, 많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남북분단으로 북한의 기독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인천의 화정(유정)기독교회와 금곡정기독교회는 1943년 5월에 송현기독교회와 통합하였다. 자체 건물을 소유했던 송현기독교회는 해방 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소천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⁹³⁾

넷째, 일제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매를 맞거나 투옥되었으며, 상당수의 교회들이 폐쇄당하거나 흩어졌다. 1941년 6월 24일 일본에서 '일본기독교단'이 창립되고, 전교회가 강제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창립되고,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여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교단통합, 신사참배, 기미가요합창, 동방요배(궁성요배), 전사장병목도, 황국신민서사낭독, 천황폐하만세삼창의 강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⁹⁴⁾ 기독교회들(조선선교회 및 기독교회선교부)에서는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이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성낙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40년 가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고, 기독교선교부에서도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모진 매를 맞았다.⁹⁵⁾ 결과적으로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포교관리자와 포교자들 및 포교소들은 1944년 6월 30일까지 모두 폐지 및 폐쇄 당하였다.⁹⁶⁾

다섯째,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는 포교관리자가 1944년 9월 30일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폐쇄당하

93) 인천송현성결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94) "Mission News," *Tokyo Christian*, September 1940, p. 1.

95) 성낙소,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pp. 31-34.

96)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2-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해방 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했거나 남아 있었던 목회자들은 성낙소(내수정교회), 김문화,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동교회) 뿐이었다. 포교책임자로 섬겼던 이인범은 장로교회로 이적하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51년 금산에서 별세하였고,⁹⁷⁾ 이원균은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으며,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하였다.⁹⁸⁾

97) 금산제일장로교회 교회연혁 (인터넷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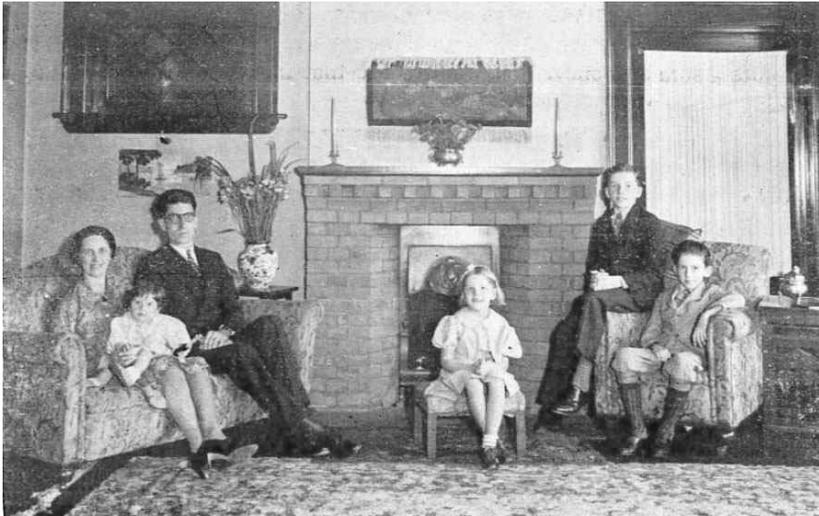
98) 김갑수, '성직자 양성의 사명자, 이원균 목사,' *op. cit.*

존 채이스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존 채이스의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1927-36)

존 T. 채이스(John T. Chase)는 1905년 9월 17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출생하였고, 만 6세 때부터 LA에 거주하는 이모(Mr. and Mrs. A. D. Shipp)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테네시 주 녹스빌(Knoxville)에 소재한 현재의 존슨대학교(Johnson University)에서 수학하던 중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맥가비성서학교(McGarvey Bible Institute)로 옮겼으며, 이 학교가 1924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신시내티성서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Cincinnati



1939년 송철동자택,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ta Smith)와 로이스(Lois),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네이딘(Nadine), 케네스(Kenneth), 로버트(Robert)

Christian University)와 성서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을 1926년에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래쿤 존 스미스(Racoon John Smith)의 후손이자 성서대학원생이던 와네타 스미스(Wahnetta Smith) 양을 만났다. 스미스는 채이스보다 일 년 먼저 졸업하였다.¹⁾

와네타 스미스는 테네시 주 출신으로서 밀리건대학을 나온 후 신시내티로 옮겨 성서대학원을 제1회로 졸업하였다. 채이스는 1926년 졸업직후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Baton Rouge)로 내려가 목회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7월에 스미스와 결혼하였다.²⁾

채이스 부부는 신시내티성서대학원 졸업생들로서는 최초로 부부 선교사가 되었다. 1927년에 동경으로 건너가 1934년 10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선교회에서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참고로 요츠야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역자들은 선교회에 고용된 직원들이었다.

커닝햄 선교사는 1923년을 시작으로 동경과 횡빈(요코하마)에 조선기독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성낙소 목사가 커닝햄의 초청으로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가 채이스의 감독아래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 횡빈조선기독교회를 맡아 사역한 바가 있어서, 채이스는 일찍부터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았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에 시작한 한국선교에 대해서 모두 꿰고 있었다. 또 채이스는 1931년 9월 하순에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바가 있었다.³⁾ 이 무렵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을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on earth today)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채이스는 한국방문 후 일본에 돌아와 한국은 반드시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라고 피력하였다. 또 채이스는 재일본 조선기독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하였다. 이런 연유로 채이스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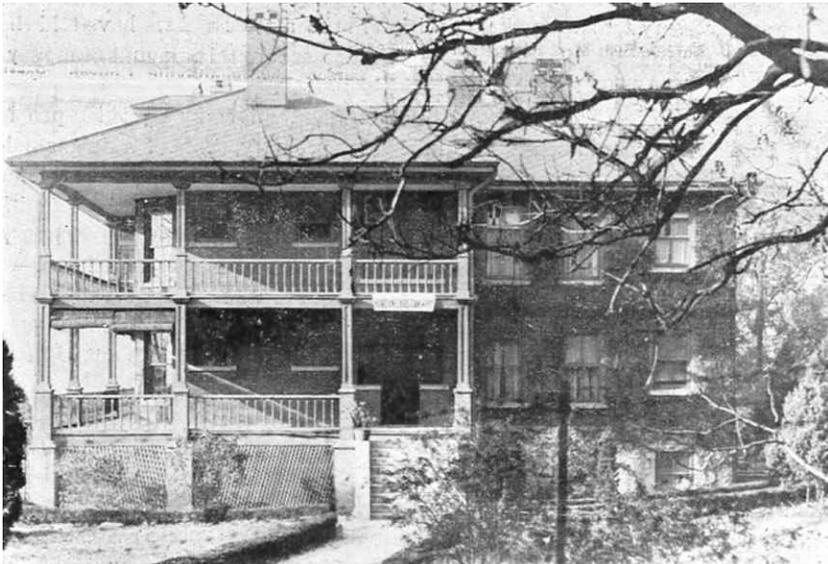
1) John T. Chase,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March 1933, pp. 1-3.

2) "Your Missionaries,"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August 1937, p. 4.

3) "Tokyo Notes," *Tokyo Christian*, November 1931, p. 1; "Korean Work," *Tokyo Christian*, February 1932, p. 2.

본 선교 7년만인 1934년 10월에 커닝햄과 결별하고 11월 2일 미국에 돌아가⁴⁾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으며, 독립선교사로서 1936년 11월 7일 서울로 돌아왔다.⁵⁾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채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에서 목회를 하였으나 1936년 3월에 사임하고 기금모금에 돌입하였으며, 그해 10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가족이 한국행 배에 승선하였다. 그의 꿈은 인구 2천만이 사는 은둔의 왕국에 신약성서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채이스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케네스(Kenneth)는 10살, 로버트(Robert)는 7살로써 둘 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네이딘(Nadine)은 4살로써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로이스(Lois)가 한국에서 태어났다.⁶⁾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벙커 매임을 추진하였다.

4) "Depleted Staff," *Tokyo Christian*, December 1934, p. 3.

5)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6) "Your Missionaries,"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August 1937, p. 4.

2) 존 채이스의 한국 입국 후 선교활동(1937-45)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가 만 1년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계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⁸⁾ 채이스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에 동경에서 7년 8개월간 사역하였기 때문에⁹⁾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장점으로 채이스는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에 돌입하여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격월간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및 '한국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고, 1940년 5월말까지 3년 5개월간 5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같은 사역은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셸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시작되었다. 채이스는 셸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셸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¹⁰⁾ 채이스는 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하였

7)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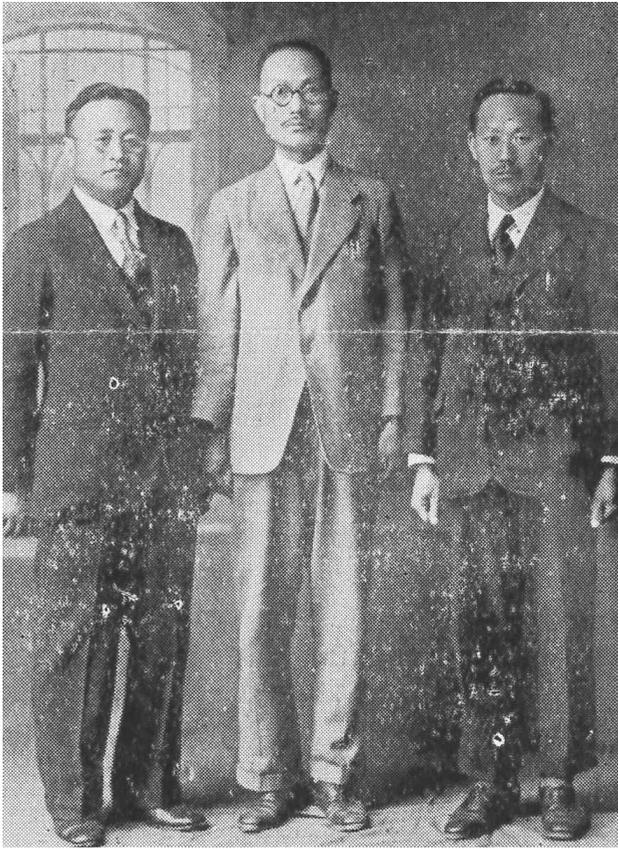
8)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9)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27, p. 1.

1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87호 9면, 소화 12년 5월 4일);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526호 7면, 소화 10년 6월 15일);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다.11)

채이스 부부는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그를 한국인성서훈련원 제1호 학생과 제1호 개척교회(기독교회 신당정교회, 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사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김요한 목사로서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마친 감리교 목사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인성서훈련원 제2호 학생과 제2호 개척교회(기독교회 돈암정교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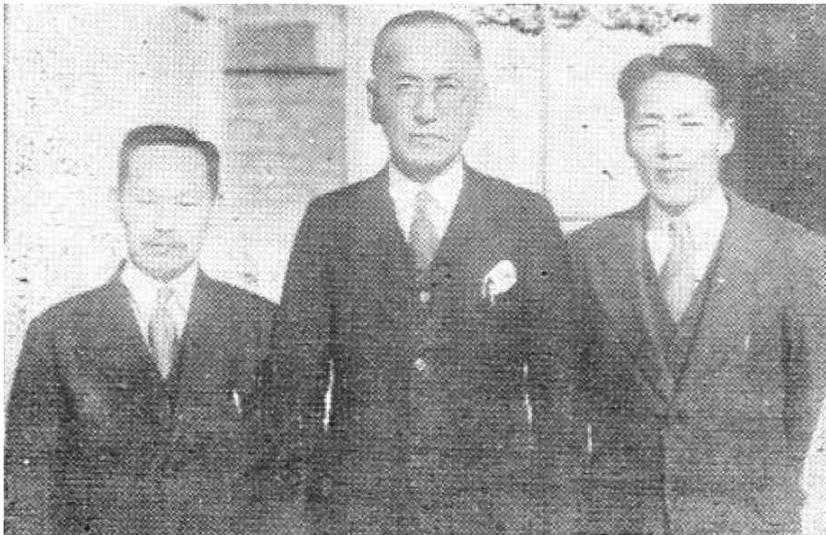
채이스 선교사의 제2호 신당정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1937년), 제2호 돈암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2호 내수정교회 담임 성약소 목사(1939년)

400번지) 사역자로 만든 인물은 최상현이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 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냈던 감리교 목사였다. 최상현은 성서공회에서 총무업무를¹²⁾ 보던 중 자신이 주석한 계시록 12장에 관한 소책자를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왔다

1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221호 4면, 소화 12년 10월 9일).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문화인쇄, 2003), pp. 30-31.

가 포섭되었다.¹³⁾ 채이스의 제3교회는 1939년 초에 편입된 성낙소 목사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1번지)였다. 구세군사관 출신이었던 성낙소는 채이스의 감독을 받으며 황빈(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긴바가 있어서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도 역시 1937년 4월 무렵에 한국인성서훈련원에 학생으로 등록하였다.¹⁴⁾ 채이스의 제4교회는 박판조 목사(당시 전도사)가 1939년에 개척만 하고, 담임은 김문화 목사가 맡았던 기독교회 경성돈암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였다. 김문화는 장로교 출신으로써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 성낙소에게 포섭되어 1932년에 이미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36년 9월 4일 성낙소와 함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에 의



1940년초, 좌측부터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도암정교회(박판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판조 목사

13) John T. Chase,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hristian Standard*, 19 June 1937, p. 553.

14)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John T. Chase, "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hristian Standard*, 17 June 1939, p. 594; "After Two Years," *Christian Standard*, 18 March 1939, p. 262.

해서 포교폐지를 당할 때까지 요츠야선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였다. 채이스는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0월과 11월호에서 김문화(M. W. Kim)의 한국에서의 목회사역을 소개한바가 있기 때문에 김문화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채이스의 제5교회는 박관조가 1939년에 개척한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였다. 박관조는 채이스가 총애한 젊고 유능한 전도자였다.

채이스는 1939년 초에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의 선교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인 5천 달러를 갚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인 1940년 말에 모두 처리하였다.¹⁵⁾ 채이스 가족은 잔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1940년 6월 1일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¹⁶⁾ 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선교부의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그해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이에 힐 가족은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Mariposa) 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¹⁸⁾

전쟁이 임박한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가족들의 입국은 불허하였다. 채이스로서는 애써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두고 온 가재도구들 그리고 5명의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와 선교부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채

15) "Almost Finished," *Christian Standard*, 16 November 1940, p. 1160.

16) "Some Accomplishment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0, p. 1.

17) John J. Hill, "A News Letter," *The Korean Messenger*, August 1939. See also John J. Hill, "New Missionaries, Mr. and Mrs. John J. Hill, Arrive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 September 1939, p. 858.

1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이스가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형사들이 붙어 다녔고,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일제가 스파이로 의심하는 선교사와 나눈 교제 때문에 매를 맞고 선교사와 만나 나눈 모든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채이스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체류기간을 겨우 한 달만 채우고 3월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채 목회자들과 헤어져야 했다.

그러나 채이스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선교부 건물을 그 곳에 난로 공장을 세운 전항섭에게 임대 놓았고,¹⁹⁾ 임대료를 받아 목회자들의 활동비에 보태도록 하였으며, 두 선교사가 사용하던 가구와 은제식기류, 침대보, 재봉틀 등을 모두 팔아서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였다.²⁰⁾ 채이스가 전쟁 전에 이들 목회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1941년 10월이었다. 이후 1946년 5월호 <한국인 전령>이 발간되기까지 근 4년 반 동안 한국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1940년 6월 1일 모금을 위한 안식년으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7개월간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들 다섯 명의 사역자들과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었다. 이들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 가입과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와 폐쇄조치²¹⁾에도 불구하고,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내

19)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 32.

20) John T. Chase, "The Situation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May 1941, pp. 1-3.

21)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한 채이스는 자신이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이들에게 신약성서 기독교를 철저히 교육한 결실이라고 확신하였다.²²⁾ 이후의 선교는 살아남은 이 두 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확장되어나갔다.

3) 존 채이스 선교사가 남긴 업적

채이스는 선교사로서 포교관리자변경계 계출,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발행,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설립, 송월동 선교부 건물 매입, '한국인성서훈련원' 개교, 5개 교회 설립, 선교사들 모집, '한국에 예배당울'(Chapels for Korea) 건축하기 위해서 5만 62달러 90센트를 모금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1) 선교부 건물의 매입, 몰수, 환원까지(1939-51)

선교부 건물은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에 위치한 대지 225평 위에 세워진 2층 반 건물이었다. 화장실 2개와 방들이 있는 지하실(건물 바닥의 3분의 2크기)과 난방설비가 갖춰진 건물이었다. 1939년 초에 건물의 소유주였던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선교차원에서 싼값에 매도할 의향을 비치자 채이스는 이를 크게 반기며 매입을 추진하였고, 액면가격 1만7천 달러짜리 이 건물을 1만 달러에 넘겨받는데, 매입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939년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 채이스는 1939년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을 갚고, 나머지 잔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22)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1, 3; "Here Is the Proof,"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 1.

금은 1년 뒤인 1940년 말에 모두 처리하였다. 채이스는 영국해외성서공회에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1940년 6월 1일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 1940년 11월 16일자에 따르면, 잔금 5,000달러 가운데 부족금액이 150달러뿐이었다.²³⁾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이 재산을 몰수하여 1943년에 이곳에 난로공장을 차렸던 전항섭에게 팔아넘겼다.²⁴⁾

해방 후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고, 그 청구가 법무부 청구국(Claim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되었다.²⁵⁾ 또 채이스는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때와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미군정과 대사관에 수차례 호소하였다. 채이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부 재산이 환수된 것은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인 1952년경이었다.²⁶⁾

(2) 한국인 성서 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채이스는 선교부 지하실에 한국인성서훈련원을 개설하고 14명의 학생으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서기독교를 강의하였다. 최초의 학생은 김요한 목사였고, 곧 이어서 최상현 목사, 김문화 목사, 성낙소 목사, 백낙중, 박관조가 합류하여 이곳에서 공부하였다.²⁷⁾ 백낙중을 빼고 나머지 다섯 명은 1940년 3월 25일에 졸업하였다.

최초의 교재는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 짜리 전도 책자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23) "Almost Finished," *Christian Standard*, 16 November 1940, p. 1160.

24)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and "Gospel Headquarters in Seoul,"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3-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힐 요한 선교사> 조동호 지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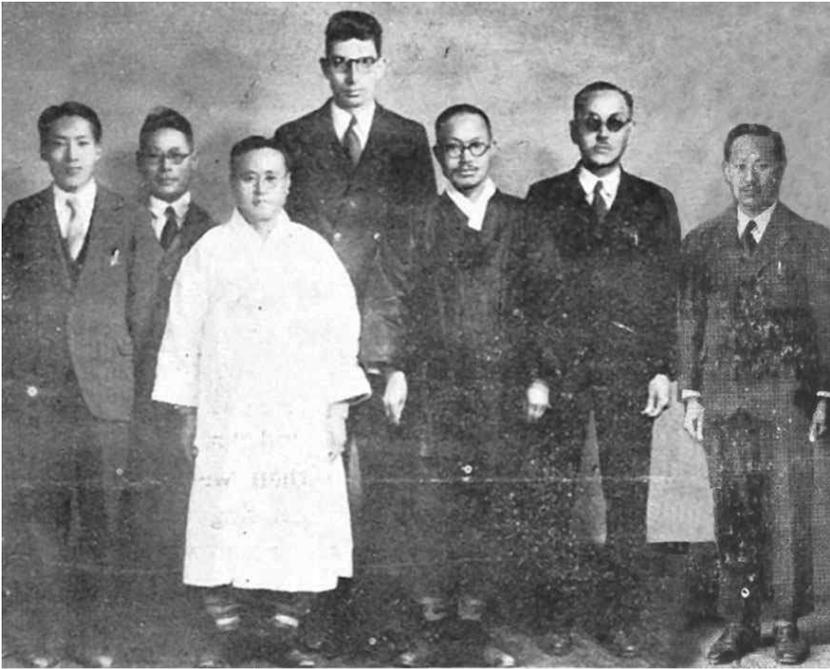
25) "Concerning the Property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46, p. 5.

2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33; <힐 요한 선교사> p. 75.

27) "Investment Returns," *The Korean Messenger*, April 1937, p. 3.

Testament Church)이었다. 김요한 목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후 훈련원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영문서적들이 쌓여갔다.

채이스는 이들 목회자들에게 수년씩 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신약 성서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자부하였다.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이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들이 폐쇄를 당한 후에도 2-3개의 교회들이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만찬을 빠뜨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지한 이유라고 믿었다. 이것은 채이스 자신이 7년간이나 고용 선교사가 되어 일하다가 결별했던 W. D. 커닝햄이 교파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신학교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자기 일군을 키우지 아니한 결과와 비교가 되었다.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박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도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도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3) 격월간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채이스 선교사는 선교지인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을 1937년 2월부터 격월간으로 서울에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과 6.25동란으로 한국에 나오지 못한 근 10년간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발간하였으나 격월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4)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채이스는 1937년에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에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1930년대 초 불어 닥친 대공황의 격랑기에 급여문제로 커닝햄과 갈라섰던 채이스는 기독교회선교부의 정체성을 독립(independent)과 협력(co-operative)의 원칙에 두었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상호의존성(dependent upon God and His people)에 두었다.²⁸⁾ 채이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한국'(Korea for Christ)에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역을 펼쳐나갔다.



채이스 선교사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채이스는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에도 힘썼는데, 그가 존슨성서대학을 방문하여 졸업을 수개월 앞둔 우등생 힐 요한을 한국의 선교사로 모집한 것은 그가 남긴 업적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그는 또 클라이드와 테사 아담스(Clyde and Tessa Adams) 부부를 선교사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올 준비를 하면서 미국

28)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Is,"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9, p. 3.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중에 클라이드가 1946년 5월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아담스 가족은 선교사가 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끝내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는 헐 요한 가족으로서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아담스가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모금한 금액은 3천 1백 2달러 97센트로써 전액 기독교회선교부 재건을 위해서 쓰였다.²⁹⁾

4) 요츠야 선교부 사역자들과의 관계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 이후 펼친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채이스가 한국에 도착했을 무렵에 요츠야선교회가 세운 교회가 인천(제물포)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5개, 마산에 1개, 총 12개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1936년 10월까지 “한국에는 선교사 가족도 없고, 설교 사역자 양성소도 없고, 내국인의 교회도 없고, 내국인 전도자도 없고, 선교소식지도 없었다.”고 적었다. 또 지금은 선교사 한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인성서훈련원이 제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와 두 명의 전도자들과 다수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인 전령>이 2,250부씩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³⁰⁾ 이 보도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사역에 대해서 열광하던 현실에서 채이스 선교사가 설불리 미국에 왜곡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있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의 기독교회들을 신약성서기독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채이스는 이원균과 이인범하고는 교제하지 않았다. 이원균은 1937년부터 삼해도 조선기독교교회를 맡아 동경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이

29) John T. Chase, “Concerning Adams’ Korean Fund,” *Christian Standard*, 13 July, 1946, p. 472.

30) “A Suggestion,”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7, p. 1: “No Missionary Family in Korea; No Preacher Training School; No Native Congregation; No Native Evangelist; No Missionary Paper.”

인범은 부정직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인범도 커닝햄을 궁지로 몬 채이스를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말에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용산교회의 이난기 목사와 아현동교회의 윤낙영 목사가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것을 기뻐하였고 그들을 기꺼이 도왔다.

채이스와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한국에 '기독교의 교회'(교역자회)를 세운 동석기 전도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강명석 전도자에게는 기독교회 신당정교회 제1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맡겼으며, 요츠야선교회의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 오웬 스틸(Owen Still)과도 교제하였다. 그밖에도 독립선교사로서 동경에서 사역하는 뻘함(Farnham)과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오사카성서대학에서 사역하는 해롤드 콜(Harold Cole) 등과도 교제를 나눴다.

5) 은퇴 후 생활

채이스는 목회에도 성공적이어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사무한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채이스는 은퇴 후 필리핀 체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전미선교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의 창립이사였고,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였으며,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올해의 목회자'상과 1984년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에서 '저명한 동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우니(Downey)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시의원직에도 당선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신약성서기독교의 참 선교사였던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 하였고,³¹⁾ 부인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

31) 존 T. 채이스 목사의 활동내용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Wahneta Irene Smith Chase) 여사의 출생지인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의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와네타는 1901년 10



월 28일에 출생하여 2002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레몬 그로브(Lemon Grove San Diego County)에서 100세로 소천하여 남편 채이스와 합장되었다.³²⁾

존 T. 채이스 부부의 무덤비

Standard)에 풍성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p. 119-124.

32) Poplar Ridge Cemetery in 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Wahneta Irene Smith-Chase," *Local News-Sentinel*, 23 July 2002, p. 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유약기)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신약성서기독교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돈암 제2교회(김문화 목사, 애국지사) 및 정릉리교회(박관조 목사)는 모두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낙소는 모진 매를 맞았으며,¹⁾ 김요한도 세 차례나 투옥되었고, 김문화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1948년 말 또는 1949년 초에 사망하였다. 박관조는 북한에서 남하하지 않았고, 최상현은 6.25동란 때 납북되었으며, 백낙중은 공산군에게 피살됨으로써 채이스의 사역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목회자는 환갑을 갓 넘긴 성낙소 뿐이었다.²⁾

1) 성낙소,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엮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31-34.

2) 부강교회의 김양선 목사와 왕십리교회의 최추민 목사도 6.25동란 때 납북되

1944년 6월 30일까지 기독교회선교부의 기독교회들이 모두 폐쇄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³⁾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한의사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한의사였던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는 1919년에 장로교회로 개척했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폐쇄 당했던 자신의 교회를 해방 직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원하였다. 애국지사로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천 직전 30년간을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말년에는 '맨발의 천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1) 김요한 목사

김요한(金約翰/與範)은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한 감리교 목사로서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채이스와 매일 만나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행 8:38)에 이르렀을 때,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피력하였고, 1937년 1월 23일(토) 공중목욕탕을 임대하여 채이스로부

었고, 최상현, 백낙중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피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John T. Chase, "First Letter Received from J. J. Hill After His Return to Korea,"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50, p. 738; John J. Hill,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hristian Standard*, 19 May 1951, p. 309.

3)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1, 3.

터 침례를 받았다.⁴⁾ 김요한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5월 22일(토) 한강에서 자신의 19살 된 아들을 포함해서 5명에게 최초로 침례를 베풀었다.⁵⁾

김요한은 채이스가 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개설한 한국인성서훈련원의 제1호 학생이 되었고, 약 4년간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 김요한은 채이스가 성서훈련원에서 사용한 제1호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짜리 전도용 소책자로서 책 제목은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었다.



김요한 목사, 1937년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았다.

김요한 목사는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 1937년 2월 교회가 없는 신당동 지역에 가정집을 임대하였고, 가족이 그곳에 이사하여 살면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가 개척되었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⁶⁾

김요한은 선교사들의 한국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J. 마이클 쉘

4) "An Opportunity" and "Investment Returns," *The Korean Messenger*, April 1937, pp. 1, 3; John T. Chase, "Brother Chase Has His First Korean Convert," *Christian Standard*, 27 February 1937, p. 166; "Language Teacher Baptized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0 March 1937, p. 237.

5) John T. Chase, "Another Victory in Korea," *Christian Standard*, 3 July 1937, p. 602.

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리(J. Michael Shelley)와 존 T. 채이스(John T. Chase)에 이어서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로 섬겼다.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채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 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⁷⁾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⁸⁾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⁹⁾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¹⁰⁾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서 김요한은 세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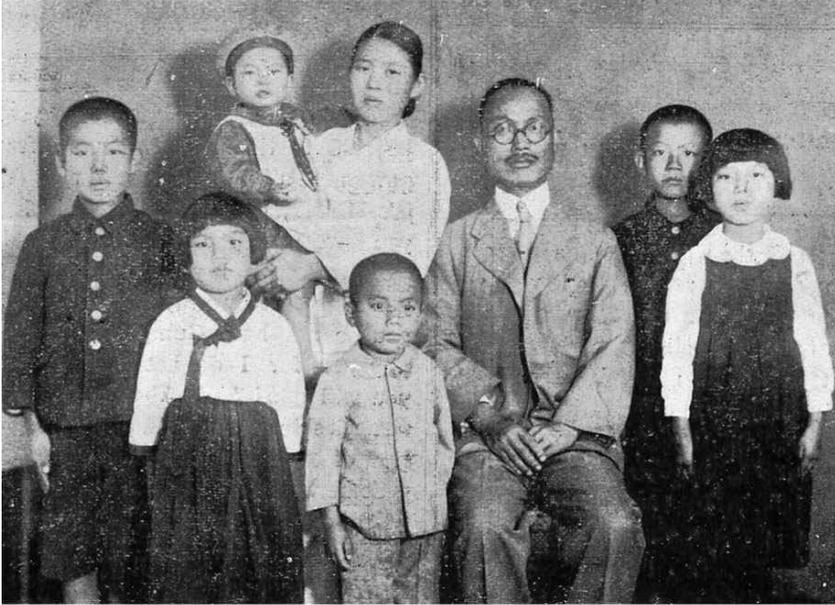
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1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2) 최상현 목사(1891-1950?)



최상현 목사 가족, 1937년

최상현은 1891년 12월 27일에 출생하여 진남포의 삼숭(三崇)학교를 거쳐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19년 3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독립선언서 영역에 관여한 일로 잠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북경의 연경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였다.

최상현은 문필가였다. 1921년 3월부터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을 연재하였고, 3권으로 된 <세계위인전>을 펴냈다. 또 최상현은 협성신학교에 재학시절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아보면서 신앙과 역사 및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23년부터는 시와 소설들을 발표함으로써 최남선, 방인근, 전영택, 이은상, 임영빈 등과 함께 1920년대 기독교문학운동을 주도하였고, 강명석(일본 관서학원 신학부 및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졸업, '기독교의 교회'),

11)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hristian Standard*, May 1947, p. 9.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채필근과 함께 <신생명(新生命)>을 펴내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최상현은 목회자였다. 협성신학교 졸업 후 1929년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겼으며,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서 총무업무를 보았다. 이때 서적판매도 겸하였는데,¹²⁾ 자신이 주석한 계시록 12장에 관한 소책자를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가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학습하였으며,¹³⁾ 곧이어 칠편을 받겠다고 자청하였다. 최상현은 채이스로부터 제2학기 개강일이었던 1937년 9월 1일 한강에서 칠편을 받고,¹⁴⁾ 임대건물에 입주하여 10월 17일 채이스의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였다.¹⁵⁾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¹⁶⁾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폐쇄조치를 당하였으나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빠트리지 않고 있다가,¹⁷⁾ 해방 후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원되었다.

1946-47년 기간에 돈암동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집 2층에서 난방도 없이 40여명이 모이고 있었다. 채이스가 1946년 봄에 최상현으로부터 미군정에 소속되어 연락책을 맡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¹⁸⁾ 1947년 1월 중순경에 입국하여 주일날 돈암동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 참석한 다수가 채이스가 1936-41년 사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문화인쇄, 2003), pp. 30-31.

13) John T. Chase,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hristian Standard*, 19 June 1937, p. 553.

14) "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7, p. 1; John T. Chase,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hristian Standard*, 9 October 1937, p. 937.

15) "Korean Mustard Seed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37, p. 2.

1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304호 4면, 소화 13년 1월 24일).

17)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op. cit.*

18)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 3.

이에 침례를 베푸는 성도들이었다. 채이스로서는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제의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약성서교회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이로부터 2년쯤 후인 1948년 12월 12일에 채이스는 돈암동교회의 집회소인 개인주택 2층이 너무 협소함으로 70-80명이 앉을 수 있는 꽤 큰 널찍한 집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후원하였다.¹⁹⁾

최상현은 미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채이스가 1947년 1월 중순에 입국하여 2월말까지만 머물고 3월 1일 떠난 수개월 후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던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인 할 마틴이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1947-48년 사이에 채이스의 공백을 메워주었다.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의 결과로 채이스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돈암동교회(최상현 목사, 침례 14명)와 필운동교회(성낙소 목사, 침례 30명)뿐 아니라, 위동교회(성수경 목사, 침례 8명), 공덕교회(백낙중 목사, 침례 19명), 용산교회(이난기 목사, 침례 28명), 아현동교회(윤낙영 목사, 침례 17명)로 발전해 있었다.²⁰⁾

최상현 목사는 9명의 자녀를 남겨 놓은 채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때 공산군에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²¹⁾

3) 성낙소 목사(1890-1964)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호적은 1893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본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이고, 1900년 3월부터 1912년 11월까지 한문을 수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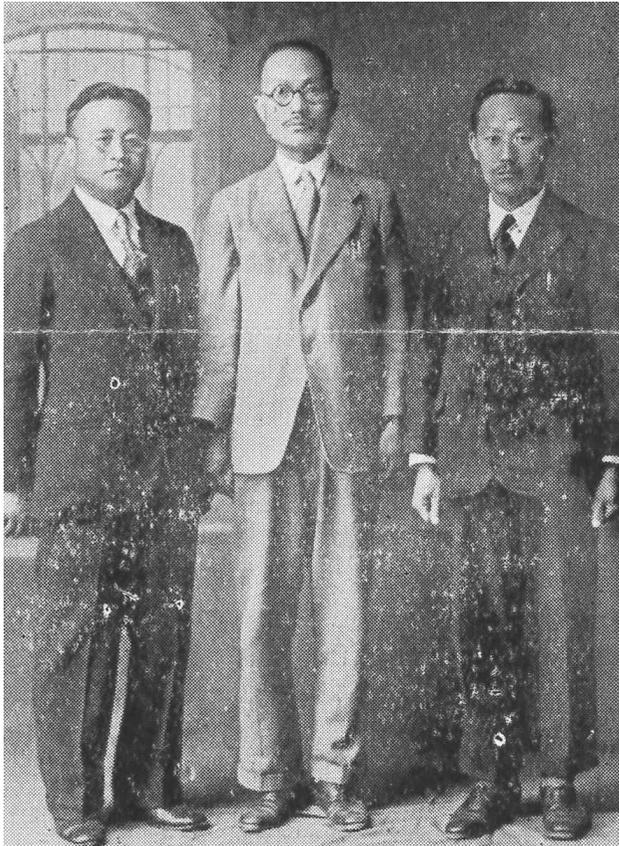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

19) "Come with Me,"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3.

20) "The Year 1948,"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1.

21) 최윤권, *op cit*, p. 32.

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참위로 임관되어 1917년 3월 부위, 1918년 4월 정위로 승진되었고,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왜경에게 쫓기게 되자, 구세군은 1920년 7월 30일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체이스 선교사의 제교회 신양정교회 담임 김보한 목사(1937년), 제교회 동양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1939년)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²²⁾ 포교 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성결교회 광재근 목사의 추천을 받아 1920년 8월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구세군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되었으나 1926년 1월에 스스로 구세군 사관직을 사임하였다.²³⁾

2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438호 2면, 대정 9년 9월 25일).

사관직 사임 후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배삯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고,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존 T. 채이스의 감독아래 횡빈조선인기독교회(橫濱市 宮田町 朝鮮人教會)를 병으로 입원한 담임자 탁영록을 대신하여 1930년 11월에 임시로 담임을 맡았다가 1931년 1월부터 정식 담임자가 되어 9월 사임할 때까지 사역하였다.²⁴⁾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 하순에 박홍순 목사를 대신하여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귀국하여 서울 제1교회, 인천 난도(남동)교회,²⁵⁾ 기독교회인천교회(송현기독교회)를 섬겼고,²⁶⁾ 평북 구성에까지²⁷⁾ 기독교회를 설립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포교관리자로서 성낙소가 이룬 업적은 1932년 6월 11일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23)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성낙소,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 *op cit.*, pp. 9-12.

24)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횡빈조선인기독교회 주임목사로 임명받은 날짜를 소화 5년(1930년) 11월로 기재하였다.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op cit.*; “Tokyo Notes,” *Tokyo Christian*, December 1930, p. 3; “Tokyo Notes,” *Tokyo Christian*, January 1931, p. 2; 성낙소, ‘제2장 자각적으로 신약교회의 명칭을 사용,’ *op cit.*, pp. 13-14.

25)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2, p. 2; “Growing,” *Tokyo Christian*, June 1932, p. 4.

26)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1;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une 1933, pp. 1-2.

27)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설치계를 제출한 것과²⁸⁾ 1932년 12월에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²⁹⁾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³⁰⁾ 1933년 2월에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에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를³¹⁾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것이었다.³²⁾

요츠야선교회는 커닝햄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던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을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할 목적으로 1933년 5월 20일 성낙소를 해임하고, 이인범을 6월 5일 포교관리자로 선임하였다. 이인범 목사는 9월에 입국하여³³⁾ 인천 기독교회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다.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³⁴⁾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성

28)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692호 6면, 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2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3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3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82호 9-10면, 소화 8년 4월 20일).

32)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관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관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Honest, Unbiased Investigation Welcomed,"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2.

33) "A Venture of Faith,"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2; William. D. Cunningham, "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August 1933, p. 1.

3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낙소 목사의 포교계,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³⁵⁾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계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기독교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경성내수정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경성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는 강제폐쇄를 당한 후에도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 직후 재건되었다.

성낙소 목사는 1936년 9월 4일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한 후 1937년 4월경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할 당시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다. 성낙소는 포교폐지를 당할 무렵 적선정에 있던 자신의 경성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경성내수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자신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목회사역을 합법적으로 지속시켜나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줄 어떤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³⁶⁾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³⁷⁾ 채이스도 1939년 4월 20일에 쓴 글에서 성낙소는 기독교회 선교부에 가입하기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동일 장소에서 '조선예수

3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726호 9-10면, 소화 14년 6월 23일).

3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24호 3면, 소화 15년 6월 21일).

3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8호 45면, 소화 15년 7월 8일).

교회(the Korean Jesus Church)로 사역하였으나 그의 교회가 기독교 회신교부의 제3교회가 된 것은 그가 3년째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신약성서교회를 학습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 채이스는 성낙소가 이 교회를 1939년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로 바꾸기 전부터 신약성서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전하였다.³⁸⁾

채이스 선교사가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촬영한 3월 10일자 사진에 “내수정교회 제2주년”이란 설명이 있는 것을 보아서³⁹⁾ 성낙소 목사가 조선예수교회를 떠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9년 초가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운동교회가 창립 연도를 1937년으로 잡은 것은 성낙소가 1937년에 채이스와 재회한 직후부터 조선예수교회의 간판만 늦게 내렸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68년 1월 7일자, 28일자, 2월 4일자 필운동 교회 주보(담임 최순국 목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성낙소 목사의 사진과 함께 연속해서 실렸던 이유도 이런 정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성낙소 목사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대 목사 중의 한 분으로서 필운동교회에서 1937년도부터 별세하신 해 1964년도까지 시무하신 제1대 목사님이십니다.”

오수장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⁴⁰⁾ 성낙소 목사는 1943년에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 해방 직후 그곳에서 내수정교회를 복원하였고, 이듬해 1946년에 개명하여 본격적으로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연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가 1947년 2월에 촬영한 사진은 필운동교회로 알려진 건물이었다. 그리고 이 필운동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기 건물을 가진 유일한 교

38)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John T. Chase, "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hristian Standard*, 17 June 1939, p. 594; "After Two Years," *Christian Standard*, 18 March 1939, p. 262.

39) 오수장,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p. 6.

40) <주간 기독교> 제1285호, 1998년 3월 22일자; 오수장,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p. 202.

회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연지동의 임대주택에서 개교한 신학교를 이곳 필운동교회로 옮겨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동석기 전도자는 성낙소 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1939년 9월에 3,000원에 매입하여 성낙소에게 무상 임대하였다. 동석기는 이 건물을 1945년 해방 직후 회수하여 동년 9월에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⁴¹⁾ 또 동석기는 성낙소가 교회로 사용한 내수동 106-1번지 건물을 1970년대에 추가로 매입하여 이 두 개의 번지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성낙소 목사와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46년부터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히 신약성서교회를 실천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채이스와 힐이 미국의 형제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성낙소 목사와 필운동교회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다.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1957년 말) 및 <신약교회 목회학>(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출판부, 1953) 등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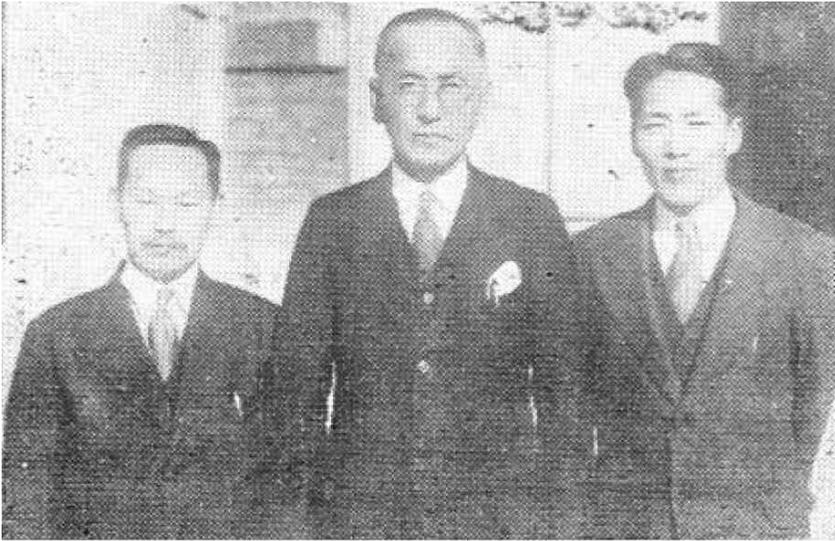
4) 김문화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제출하였다.⁴²⁾ 존 T. 채이스는 김문화(M. W. Kim)가 요츠야선교회에 고용된 목회자란 것과 1933년 8월에 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0월과 11월호에 소개하였다.⁴³⁾

41) 박규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약사,' <그리스도의 교회> 2권(1962), pp. 19-20.

4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43) "Cunningham Notes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October, 1933, p. 1;



1940년초, 좌측부터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동암정교회(박판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판조 목사

김문화는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⁴⁴⁾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채이스로부터 1937년 6월 7일(월) 박판조와 함께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고,⁴⁵⁾ 1937년 말에 촬영된 한국인성서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었으며, 1937년 4월에 채이스가 찾는다는 소식을 성낙소에게 전한 사람이기도 하다. 채이스는 1939년경에 박판조가 개척한 경성 돈암 제2교회(제4교회)를 김문화가 맡게 하였으며,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소집한 각 교단 대표들의 모임에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참여하여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⁴⁶⁾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⁴⁷⁾

op. cit., November 1933, p. 2.

4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45) John T. Chase,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hristian Standard* 17 July 1937, p. 6.

4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43호 3면, 소화 15년 3월 14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⁴⁸⁾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⁴⁹⁾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⁵⁰⁾ 김문화 목사가 만일 목포교회의 증언대로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 것이 확실하다면,⁵¹⁾ 그는 일제 말에 치른 옥고의 후유증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던 부강교회 혹은 김동렬 목사의 신탄진 집에서 소천하신 분과 동일인이 된다.⁵²⁾ 채이스는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김문화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장례는 그의 아들의 집(신탄진교회)에서 치러졌고, 성낙소 목사가 주관하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보조하였다.⁵³⁾ 김문화 목사는 사망하기 한 주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성서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였다고 전한다.

5) 박판조 목사

박판조 목사는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는 29살 때인 1937년 6월 7일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고,⁵⁴⁾ 1937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박판조는 채이스가 자신의 디모테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채이스가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군이였다.⁵⁵⁾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였다.⁵⁶⁾

4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46호 2면, 소화 15년 3월 18일).

4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6면, 소화 15년 3월 30일).

4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5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5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289.

52) 지철휘, '내가 보고 알고들은 김동열 목사님'(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

53) John J. Chase, "Workers Contacted,"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54) John T. Chase,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op. cit.*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관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⁵⁷⁾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관조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⁵⁸⁾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승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그들의 주소지로 미뤄볼 때, 송암 승웅은 박관조 목사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송암 승웅이 박관조의 창씨개명이었다면, 그는 1940년 전반기에 기독교회 정릉리교회를 맡았다가 채이스 가족이 모금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암 승웅(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 거주)의 포교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⁵⁹⁾

박관조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⁶⁰⁾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⁶¹⁾ 채이스는 해방 후 박관조 목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남아한의 엽(아마도 약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당시 북한을 장악한 소련군들은 주둔기간 내내 강간, 폭행,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상황이 일제치하보다 더 나빴다.

55) "Korean Mustard Seed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37, pp. 3-4; John T. Chase,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hristian Standard*, 11 December 1937, p. 1154.

56) *The Korean Messenger*, June 1938, p. 1; John T. Chase, "For This Cause," *Christian Standard*, 2 July 1938, p. 657.

5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7호 12면, 소화 15년 7월 6일).

5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5호 2-3면, 소화 15년 7월 4일).

5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130호 4면, 소화 15년 10월 28일).

6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6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6) 백낙중 목사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힐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남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백낙중 목사는 외국 어학교를 졸업하였고, 부부가 모두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관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약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⁶²⁾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를⁶³⁾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⁶⁴⁾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채이스는 1941년부터 48년까지 그에 대해서

62)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췌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6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162호 5면, 소화 15년 12월 5일).

6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1948년 가을 선교사의 입국소식을 듣고 백낙중이 찾아옴으로써 재회하였다. 광복 직후 백낙중 목사는 미육군에 통역관으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부인의 도움으로 공민 학교를 세워 매일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쳤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덕교회를 세워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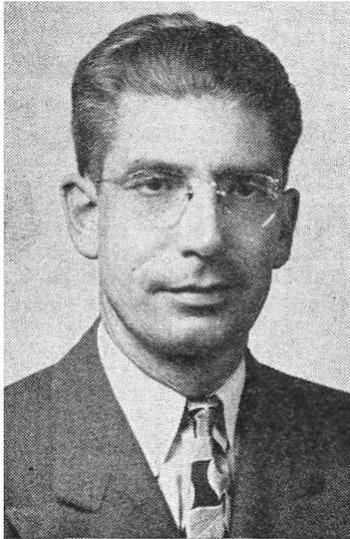
백낙중은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힐 요한이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하여 연지동에서 개교했다가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긴 선교부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 이때의 학생들 중에는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훗날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애국지사 최춘선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체이스가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하고 협조하여 신약성서교회를 개척하게 한 사람들이고,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중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피살되었다. 최상현은 미군정 때 연락관을 지낸 인물이었고, 백낙중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통역관으로 일한 교육가이자 목회자였다. 그런 그들의 경력 때문에 납북되어 피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5) John T. Chase, "Church Established During War by Korean Christians," *Christian Standard*, 23 July 1949, p. 46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재건(1945-6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재건 노력



1946년경
MR. J. T. C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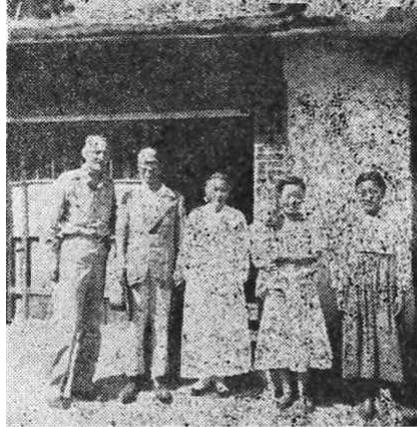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시점은 1956년 1월 3일이었다.¹⁾ 해방은 되었으나 미국정부가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고, 퍼시픽성서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매주 하루씩 강의하면서 거의 매일 강연을 다녔으며, 모금과 선교사 모집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모금액이 1,402달러 7센트에 달하였다.²⁾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채이스는 드디어 1946년 12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머린 펠컨'(Marine Falcon)호에 승선할 수 있었고, 심한 폭풍과 거친 파도와 뱃멀미에 시달리며(배 안에서 2명이 사망) 예정보다 많이 늦은 1947년 1월 7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에서는 큐슈에서 근무하던 할

1)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hristian Standard*, 28 January, 1956, p. 60.

2) "Finance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 1.

마틴(Hal Martin) 군목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마틴은 수개월 후에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되어 1947-48년 사이에 선교사의 부재를 메웠다. 채이스는 1941년에 다녀간 지 꼭 6년 만에 서울에 도착하여 군부대 숙소에 여장을 풀었고,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후 1947년 3월 1일 인천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미육군 수송선 '캡스 제독'(Admiral W. L. Capps)호에 승선하여 3월 5일 배안에서 '선교사의 발자취'(Missionary Footsteps)란 글을 썼다. 그 글에 보면,³⁾ 채이스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하였고, 교회들을 방문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였으며, 매주 힘닿는 대로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다.



좌측부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근을 명 받고 가족
(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기독교회선교부 소속으로써 일제의 모진 압제와 탄압이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 그리

3) John T. Chase,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p. 7-8.

스도의 교회와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채이스에게 남다른 감회와 깊은 감명을 주었고, 자신의 희생을 값지게 한 보람찬 열매들이었다. 따라서 채이스는 예전의 사역자들을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목회를 쉬고 있었고, 김문화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여러 해 동안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신탄진에 머물고 있었으며, 박관조 목사는 소련군정이 통치하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 업에 종사한다는 소문만 들었다. 채이스는 북한에서 남하한 동석기 전도자도 만났다. 동석기는 전 재산을 소련군에게 몰수당하였고,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다. 채이스는 미국에 돌아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구호물자를 한국에 보내는 일에 힘썼다.

채이스는 1948년 10월 17일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힐 요한 선교사 가족도 1949년 2월 18일 서울로 돌아왔다.⁴⁾ 채이스는 한국인성서 훈련원의 운영을 힐에게 맡기고, 2월 중순경에 미국으로 돌아가 1949년 9월 1일까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캠페인을 펼치며 5만 달러 기금조성에 힘썼다. 이 모금액이 달성되면, 채이스 가족은 동년 9월에 한국으로 아주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해 7월경까지 모금액수가 대략 17,500달러에 그쳤고, 목표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⁵⁾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프로그램(Armed Services Aid Program)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요한 가족과 폴 잉그람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나중에 이 돈은 환수되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⁶⁾ 채이스는 1956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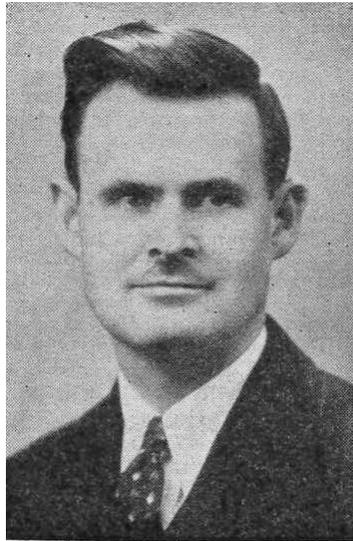
4) "The Year 1948," "Personnel Transfers" and "An Announcement,"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p. 1, 3, 4.

5) John T. Chase, "Proposed Goal Reached in 'Chapels for Korea' Campaign," *Christian Standard*, 8 July, 1950, p. 420.

월 3일 테일러 선교사의 후원교회인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의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잔액 18,424달러 88센트를 송금함으로써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⁷⁾

2) 힐 요한(John J. Hill)의 재건 노력

힐 요한이 한국 선교사에 지원한 것은 졸업을 앞둔 1936년 봄에 채이스가 존슨성서대학을 방문하였을 때이다.⁸⁾ 힐이 부인 에스더(Esther Beavans)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것은 1939년 6월 21일이었다. 그러나 힐 가족은 이듬해인 1940년 11월 16일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그해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채류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기 때문이다.⁹⁾ 결국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터지고 말았다.



1946년경
MR. J. J. HILL

한국에서 철수한 힐은 미시건 주 스테르گی스(Sturgis)에서 1941년 1월부터 1943년 4월경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이던 시티에서 1944년 9월까지 목회하였다. 그리고 1944년 10월 5일 미육군 군목으로 입대하여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총 19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1946

6) John T. Chase, "Chapels to Be Built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March, 1954, p. 201.

7)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hristian Standard*, 28 January, 1956, p. 60.

8) "Another Missionary for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8, p. 1.

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김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납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이듬해 1947년 8월 8일에 M.A. 학위를 받았다.¹¹⁾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재입국한 것은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이었다. 이 무렵 브루스(Bruce)가 일곱 살, 버지니아(Virginia)가 다섯 살, 수잔(Susan)이 4살이었다.¹²⁾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재건사역은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이어졌다. 힐 가족은 연지동에 있는 건물, 곧 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사이즈가 비슷한 건물을 남장로교회로부터 월 75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 힐 가족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년 5월 14일 제대하였다. 힐은 제대 후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1946년 7월부터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onward)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하였다.¹⁰⁾ 9월 9일부터는 제대군인지원법(Army G. I Bill of Rights)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School of Religion, Butler University)에 입학하여

10)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46, p. 2.

11) John J. Hill,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7, pp. 1, 3-4.

12) John J. Hill,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2.

3월 15일 한국인성서훈련원을 개교하였다. 또 이 연지동 건물에 침례당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던 김포교회의 최춘선 목사의 부인이 힐이 구입한 천으로 5일간에 걸쳐 꽤맨 여섯 벌의 침례복이 사용되었다.¹³⁾

힐은 학생이 많아지자 신학교를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로 옮겨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불행하게도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¹⁴⁾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린다(Linda)를 출산하였고, 태어난 지 6일된 갓난아기를 안고 2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동경에 도착하였으며, 요츠야선교부의 헤롤드 심즈 선교사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심즈 가족은 7월 11일부터 6주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¹⁵⁾

힐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는 동시에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인기독교회와 일본인기독교회들을 도왔다. 9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 5일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11월 28일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¹⁶⁾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후 선교부에 제휴된 여러 보육원들(인천, 대전 판암동 및 대구)의 설립

13) *Ibid* See also John J. Hill,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hristian Standard*, 27 August 1949, p. 549.

14) 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5 July, 1950, p. 436.

15)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pp. 2-3.

16) John J. Hill,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16 December 1950, p. 787; "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January 1951, p. 51.

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¹⁷⁾

3) 채이스와 힐의 재건 노력의 결과

채이스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송월동에 선교부 재산을 만든 것이고, 또 1942년경에 일제에 몰수당했던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각고의 노력 끝에 10여년만인 1952년경에 되찾은 것이었다.¹⁸⁾ 이 재산을 기반으로 오늘의 서울기독교대학교가 세워졌다.

채이스와 힐의 또 다른 큰 업적은 불어난 교회의 숫자에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방직후 두 개(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던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 숫자가 채이스와 힐이 동시에 사임한 1955년에는 75개로 늘어나 있었다.¹⁹⁾

해방 후 서울지역에 몇 개의 교회들이 추가되었다. 요즈야선교부의 서울 제2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이난기(협성신학교 졸업)와 용산교회, 서울 제4교회 담임목사였던 윤낙영(경성성서학원 졸업)과 아현동교회가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으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하였고, 최상현 목사의 오랜 친구 백낙중(외국어학교 및 한국인성서훈련원 졸업)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민학교에 공덕교회를 세웠다. 또 백낙중은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힐, 성낙소, 최상현과 더불어 교수로 섬기던 1949-50년 사이에 왕십리 교회를 세워 시무하였다. 이밖에도 성낙소 목사의 아들 성수경(한의사, 단국대, 경희대,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목사가 위동교회를 개척하여 부자가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를 번갈아가며 섬겼다.

채이스와 힐 선교사의 재건 노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였다.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따르면, 전쟁 중에 2개(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

1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책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18) *Ibid*

19)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회)뿐이었던²⁰⁾ 교회가 1949년에는 19개가 되었고,²¹⁾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1950년 말에 42개가 되었다.²²⁾ 힐은 그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 박점상 목사와 최상현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 장로교회 목사였던 김은석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것은 1946년이였다. 1947-48년 기간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한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 최상현, 성낙소 등이 김은석 목사의 초청으로 부장을 왕래하였다. 1955년 11월에 채이스와 힐을 대신해서 한국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²³⁾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²⁴⁾



김은석 목사
(1902.05.14음력-1963.01.21)

최요한(용환) 목사는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집회 때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공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 전남

20) <한국종교사>(김득중)에서는 1943년에 6개(교역자 6명, 교인 909명)로 보고되었다. 이들 교회들이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 혹은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21)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2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291.

23)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24)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최효한(송환) 목사(1923.01.20-1998.03.28)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는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²⁵⁾

4)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1950년대 초에 이르러 몇몇 선교사들이 더 입국하였다. 폴 잉그람(Paul Ingram)은 가족과 함께 힐의 한국선교를 돕기 위해서 1952년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고, 힐의 가족과 함께 잉그람의 가족도 19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다. 이 기간에 힐과 잉그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둔 채 한국에 들어가 사역하였다. 힐의 가족은 1953년 5월경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갔고, 잉그람이 힐을 대신하였다. 힐이 안식년을 마치고 1954년에 돌아왔을 때 잉그람은 추가로 매입한 선교부에 붙은 땅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고, 1954년에 입국한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1953년에 입국한 리라 톰슨(Lila Thompson)은 선교부보육원(부평으로 이전)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보육원을 돌보는 일에 관여하였다.²⁶⁾

그러나 선교사들은 모두 1955년에 한국을 떠나야 했다. 1955년에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Lila Thompson)은 둘 다 간염에 걸렸다. 이 때문에 반힐은 10월에 한국을 떠났고, 같은 10월에 톰

25)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548-550.

26)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앞줄 우측부터 성낙소 목사, 김동수 동역, 폴 잉그람(1953년경)

슨은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하였다. 해롤드 테일러가 1955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서울에 남아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는 한 달 전에 결혼한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 뿐이었다. 힐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²⁷⁾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한국인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진 일을 잉그람이 채이스에게 보고한 일로 힐과 잉그람, 힐과 채이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에스더가 가출함으로써 선교사역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교감이었던 성낙소 목사는 1954년 6월 25일 신학교를 휴교조치하고, 채이스에게 내한을 요청하였다. 동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람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²⁸⁾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테일러는 1953-55년 기간에 채이스와 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

27) *Ibid.*,

28)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약 기파 합동 건',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편집 및 부록(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해럴드 테일러 선교사(1959년경)

차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임자로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에게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은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테일러는 일본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1955년 11월에 가족과 함께 입국하여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람, 메리 반힐, 리라 톰슨 힐러가 일궈놓은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과 재산을 인수받았다. 게다가 1949년 이후 채이스가 모아놓은 거액의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까지 인수받음으로써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얻은 셈이었다. 테일러는 이 기금으로 11개의 새 예배당을 건축시켰고, 1개의 구 건물을 장로교회로부터 매입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34개의 교회들을 신축 또는 수리토록 하였다.²⁹⁾ 또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³⁰⁾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의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³¹⁾ 1963년에 개교시켰다.

29)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30)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1)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김은석 목사의 부흥운동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충청이남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은 1946년 장로교회에서 신약성서기독교교회로 환원하여 1963년 1월 21일 소천 때까지 17년간 사역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존 T. 채이스 선교사는 한국에 10개의 교회와 7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보고한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1949년 7월호를 발송할 때, 타이프라이터로 작성한 별지를 1매 첨부하였는데, 한국의 교회를 19개로 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이는 채이스가 김은석 목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수도권의 10개 교회를 7월호에 실고 인쇄까지 마친 직후에 김은석 목사가 주도하는 충청이남지역의 부흥소식을 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19개는 이듬해인 1950년 말에 42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라도지방의 교회들이 추가된 때문으로 추정된다.²⁾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5년에 전국에 75개의 교회가 조사되었고, 그 절반가량인 36개가, <기독교 연감(1957)>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의 영향권인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이었다(충북 13, 충남 6, 전남 17).³⁾ 그로부터 다시 7-8년 뒤, 곧 김은석 목사가 1963년에 소천하고,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에는 충청이남지역에만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로 보았다.⁴⁾ 힐 선

1) "Korean Messenger Supplement,"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3.

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291.

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4) '김은석 목사와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

교사와 테일러 선교사도 이 괄목할만한 부흥성과의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⁵⁾ 특히 테일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⁶⁾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⁷⁾ 이들 증언들은 1950년대 후반기에 김은석 목사가 자신의 성경책에 삽입시킨 주소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⁸⁾ 김은석이 관계한 교회들은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나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6곳 정도만 타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었다.

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김은석은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1902년 5월 14일(음력)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쥘 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이 되었다. 소천하기 3년 전에 위수술을 받았던 터라 그게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날 월요일(21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2구 최봉석 장로택(고 명달재 목사 장인)에서 소천하여 충곡2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⁹⁾

김은석은 일본으로 건너가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그의 일본 이름은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고, 별명은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으며, 시모노새끼(하관), 아사(김성철의

회 50년사> pp. 324-5쪽.

5)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6)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pp. 3-4.

7)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298-99.

9)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pp. 33, 87-89.



김은석 목사
(1902.05.14음력-1963.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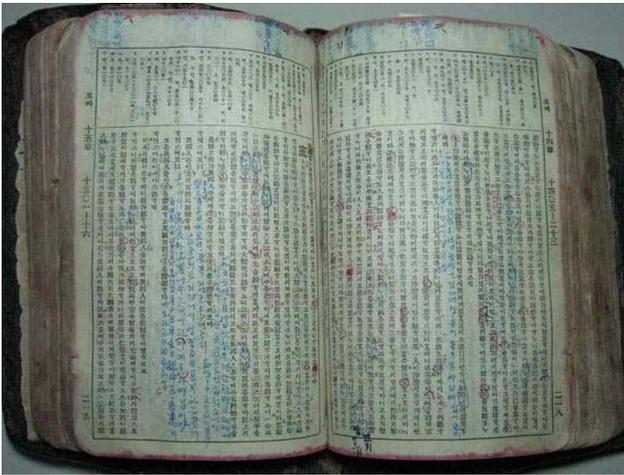
친부 김명석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은 해방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여 전도생활에 전념하면서 서울 역전의 빨간 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큰 술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기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에는 여관도 없던 때라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때 함께 활동하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¹⁰⁾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1801년 미국 켄터키 주 케인 리지(Cane Ridge)에서 대부흥회를 주도하였다가 노회로부터 제명당하여 1804년에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장로교 목사 발톤 스톤에게 닥친 동일한 상황이 한국의 발톤 스톤이라 부를 수 있는 김은석에게 닥친 것이었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하여,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은, 마치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부터 63년까지 신화신학 성

10) *Ibid*, p. 35.

경연구회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이남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충청이남지역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요람이요, 이동 신학교였다.

2) 김은석 목사의 전도인의 삶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 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 성경을 옮기wa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꺾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것이다.

김은석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마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¹²⁾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김은석 목사는 자신의 유일한 유품인 성경에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대략 5년간의 성경통독일지를 메모로 남겼다. ‘김은석의 전도인의 삶’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관한 아래의 글은 이 성경통독 메모¹¹⁾에 근거한

11)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59-168.

12) 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것이다. 또 김은석은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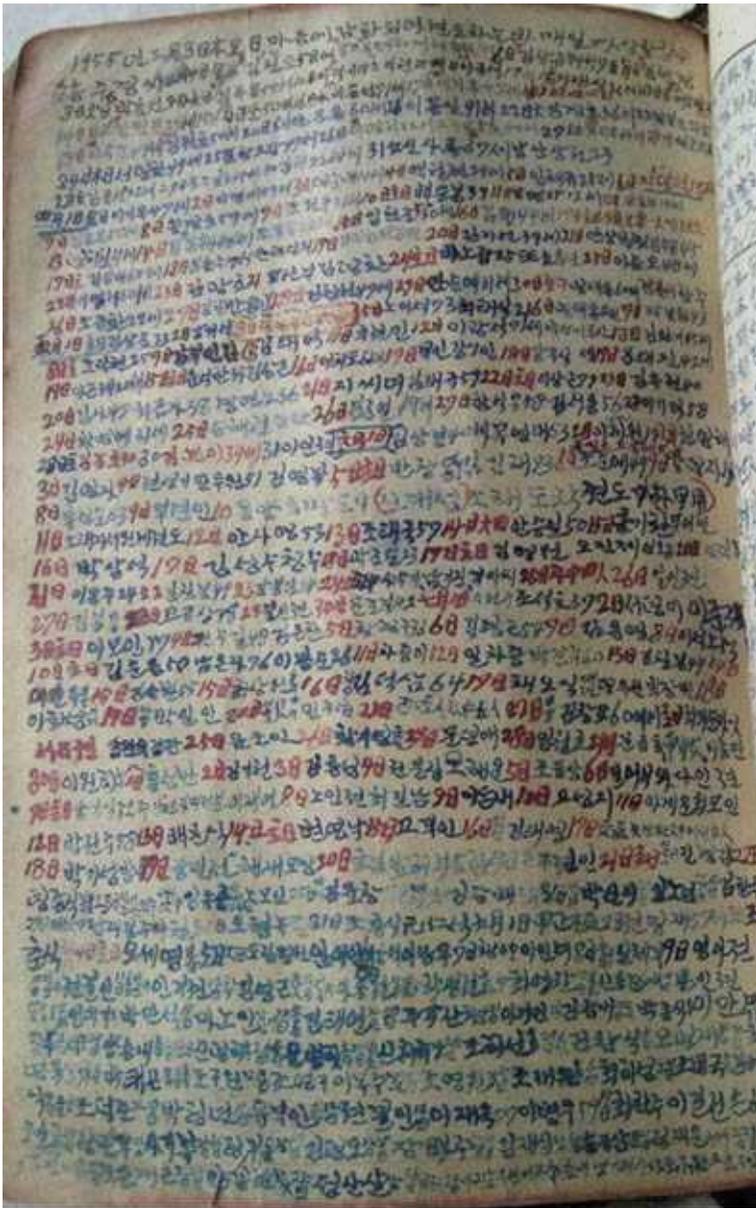
김은석의 일상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김은석은 성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그리고 김은석은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김은석의 성서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서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한 사실을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기여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전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김은석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전혀 구분이 없었다.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一人계 전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전도 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이었다. 김은석은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서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전인” 혹은 “전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전인”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교회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활동과 성서강의였다. 그가 남긴 메모는 주로 성서를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신으로서 한성신학교(한민학교)에서 33년간 가르쳤던 최용호 교수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김은석 목사가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출신인 사모 박정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

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



뒷줄: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목사)
앞줄: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

김은석은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룻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를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천)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며,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김은석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목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을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마 10:34-39). 따라

서 김은석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통독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릉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되었다.¹³⁾



박점상 목사

13) '신화신학과 제자 양육'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10.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 (화)자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 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희,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김은석은 일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은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셋째, 성서통독강의와 전도실습이었다.

넷째, 성령 충만함이었다.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¹⁴⁾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희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⁵⁾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¹⁶⁾

4) 신약성서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은 자신이 직접 1946년에 부강교회(충북 청원군 부용면)와 1951년 늦은 가을에 선화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를 설립하고 건축하였다. 김은석은 힐 요한이 1959년부터 대전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동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던 대전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 이때의 교수진은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였고,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이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학교를 자신이 세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캠퍼스부지에 건물

1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07.

15)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15.

16)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320-322.

이 들어서기까지 수업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김은석은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한국에서 60쌍, 총 70쌍에게 결혼식 주례를 하였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문원섭, 이원노, 김태수, 최요열, 김은성, 김규상, 박점상, 최순국, 김은영 등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그들 가운데 강순명(천혜 경로원), 강신규, 고광석, 김교인(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 김동열,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김상호(순복음으로 이적), 김숙명, 김은영,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정만, 김태수(김교인 장로의 아들), 박점상, 박종예, 신현창(의사), 심영진, 이신, 이원노, 이혜순, 임남규, 장성만, 장주열(최요한의 큰 동서), 전도회, 정찬성(순복음으로 이적), 최요한, 최춘선(김포교회, 사회사업가. 맨발의 천사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 또는 동량교회 설립), 함태영 등의 많은 목사들과

여전도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김은석의 동료들이었을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자주 함께 했던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팔목할만한 부흥의 결과로 1951년 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김은석의 주례로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1959년에 개최되었다. 이 모임



이신 박사(신학자, 화가, 1927.12.25-1981.12.17)

에 성낙소, 심영진, 장성만, 최요열(순복음으로 이적), 이신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신약교회로의 환원'이었다. 이 모임에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심영진,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운 등이 참석하였다. 1962년에는 신탄진 천막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고, 60년대 중반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덕 래시, 힐 요한, 최용호, 힐 제인, 김중현, 고광석, 천명화(감리교회로 이적), 장주열, 노봉욱, 임춘봉, 장성만, 최요한, 조규석, 이종만, 안일승 등이 참석하였다.¹⁷⁾ 그러나 이들 여러 집회들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참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7)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p. 90-9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성장(1945-6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해방직후 두 개(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던¹⁾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 숫자가 1950년 6.25동란직전까지 42개가 되었다. 1949년에 22개, 1950년 전반기에 13개, 총 35개 교회가 추가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춘선 목사가 부여(Poo Yaw)에 세운 교회였다. 최춘선은 1950년 6월 부여에서 2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²⁾ 그리고 존 T. 채이스와 존(요한) J. 힐이 동반 사임한 1955년 말에는 75개의 교회로 불어나 있었고,³⁾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 같은 열매는 여러 내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1) 수도권 지역의 교회 성장

서울지역에서의 교회성장은 최상현과 성낙소 및 채이스와 힐의 헌신 때문이었다. 해방 직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용산교회, 협성신학교 졸업)와 윤낙영 목사(아현

1) <한국종교사>(김득중)에서는 1943년에 6개(교역자 6명, 교인 909명)로 보고 되었다. 이들 교회들이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 혹은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2) John J. Hill, "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6 September 1950, p. 581;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hristian Standard*, 9 September 1950, p. 564;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hristian Standard*, 19 May 1951, p. 309.

3)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동교회, 경성성서학원 졸업)가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으로 기독교회



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하였고, 백낙중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공민학교에 공덕교회를 세웠다. 또 백낙중은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힐, 성낙소, 최상현과 더불어 교수로 섬

기던 1949-50년 사이에 왕십리교회를 세워 시무하였다. 이밖에도 성낙소 목사의 아들 성수경(한의사, 단국대, 경희대 및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목사가 위동교회를 개척하여 부자가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를 번갈아가며 섬겼다. 이밖에도 1950년대에 애국지사 최춘선 목사가 개척한 김포교회가 있었고, 우이동, 미아리, 도원동에도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으며, 신갈에는 이기구 목사(안식일교회로 이적)가 개척한 교회가 있었다. 인천에는 이종만 목사가 세운 보육원에 숭의교회가 있었고, 부평에는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한 보육원에 교회(설하운 목사가 있었다).⁴⁾

2) 충청과 전라지역의 교회 성장

충청이남지역에서의 교회성장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의 헌신 때문이었다.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따르면, 전쟁 중 또는 해방직후에 2개(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회)뿐이었던 교회가 1949년에는 19개가 되었고,⁵⁾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1950년 말에 42개가 되었다.⁶⁾ 또

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췌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5) "Korean Messenger Supplement,"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3.

<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에 충청이남지역에만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3, 충남 6, 전남 17).⁷⁾ 이로부터 7-8년 뒤, 곧 김은석 목사가 1963년에 소천하고,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에는 충청이남지역에만 총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⁸⁾

1955년 11월에 채이스와 힐을 대신해서 한국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⁹⁾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¹⁰⁾ 힐 선교사도 그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 장로교회 목사였던 김은석이 박점상과 함께 194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자, 이듬해 1947-48년 기간에 최상현, 성낙소,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한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부장을 왕래하며 김은석 목사를 도왔다.

최요한(용환) 목사는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집회 때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공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는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

6)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291.

7)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8) ‘김은석 목사와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324-5쪽.

9)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10)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¹¹⁾

3) 영동, 영남, 제주지역의 교회 성장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 의하면, 1950년대 영동지방에 삼척교회와 주문진교회가 있었다. 필요한 선교사에 의하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도 교회가 있었다.¹²⁾ 삼척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는 박병호 형제가 개척한 곳이었고, 주문진교회는 서울성신학교에서 일 년간 공부한 여전도자에 의해서 개척된 곳이었다.¹³⁾ 리처드 래쉬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세워진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의 추모비

가족이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사역지를 옮길 당시 강릉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다.¹⁴⁾ 래쉬가 강릉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영동(탄광)교회, 강릉교회, 평산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다.¹⁵⁾

영남지방에도 1950년대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오현팔 목사가 1945년에 개척한 영양교회가 있었고, 장성만 목사가 1953년 1월 3일 개척한 대교 교회가 있었으며, 1956년에는 울산교회가 ‘한국에

1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548-550.

12)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op. cit.*

13)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14) Flashes from the Lashes, 24 April 1958.

15) Flashes from the Lashes, 25 November 1959; 11 February 19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494-500.

예배당을' 기금에서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1956년 3월 31일에는 대구교회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지원받아 예배당을 짓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경북 김천에도 교회가 있었고, 제주도에 2개 교회가 있었다.¹⁶⁾

4) 1950년대 후반기 교회들과 신학교의 정황

해롤드 테일러는 1955년 11월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로 부임하여 추락된 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1956년 2월에 전국 75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답장을 보내온 교회들 가운데 침례 교인이 1,37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명 미만인 교회가 9개, 20명 미만인 교회가 22개, 50명 이상인 교회가 4개였다. 출석교인들은 이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만이 적절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¹⁷⁾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시골에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으나 교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체류하는 목회자를 두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5개 정도만 도시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이나 도시들의 공유지를 점유한 판자촌 또는 피난민촌에 있었다고 전하였다.¹⁸⁾ 그리고 1958년 초에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

16) "Our First Chapel,"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1; "Training Preachers,"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7, p. 3;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17)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2.

18)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였다.¹⁹⁾

테일러 선교사가 1957년 전반기까지 도움을 준 교회는 39개였다. 아직 돕지 못한 교회들까지 다 후원하려면 5천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점까지 테일러가 받은 기금은 총 28,857달러 83센트였다. 이 가운데 존 T. 채이스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18,424달러 88센트였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776달러 51센트였고, 송금료 22달 41센트, 환전료 10달러 11센트, 기타(순회 및 국내 송금료) 119달러 12센트였으며, 잔액은 1,929달러 79센트였다.²⁰⁾ 그로부터 1년 후인 1958년 초에 테일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면서, 이 1만 달러가 추가 되면 총 5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지만, 이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예배당 하나 짓는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의 교파교단들의 큰 교회 예배당 두 개 정도를 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적었다.²¹⁾ 그로부터 다시 1년 반쯤 지난 1959년 10월경까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총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의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²²⁾

테일러 선교사는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초부터 전국의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였다.²³⁾ 요츠야선교부와 기독교회선교부를 통틀어 한국에 체류했거나 시찰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남한 전역을 순회한 선교사는 테일러가 처음이었다. 테일러는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로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신목사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였다. 이 무렵 전남에는 김은석과 최요한의 영향력아래 19개²⁴⁾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김은석의 100일 저녁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마을 교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영광교회, 115명의 아이들이

19)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2.

20)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2.

21)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2.

22)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2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221-27.

24) 1956년 연감에는 17개로 되어 있다.

수용된 보육원,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유달교회(순복음), 대전시 관암동의 애생원 등 다섯 곳을 방문하였다. 동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테일러는 최순국(통역)과 함께 새 예배당을 짓고 부흥회 마지막 날 입당예배를 드린 대구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김천교회, 김동렬 목사의 신탄진교회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가 열리고 있던 부강교회를 방문하여 5시간 동안 강의하였다.²⁵⁾

테일러는 1957년 초 신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을 이용하여 광주와 목포, 제주(2개 교회가 있었음),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제2차 남부순회전도여행을 계획하였고, 동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최순국과 함께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도와 강원도지역 교회들의 방문길에 나섰다. 부산에서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선교사 가족을 만났고,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한 울산교회, 한의사였던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가 시무하던 영양교회, 삼척교회, 주문진교회를 방문하였으며, 38선 이북 고성까지 갔다.²⁶⁾ 동년 4월 29일에는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의 연합집회를 개최하여 40여명이 모였고, 인천교회에서의 모임도 계획하였다. 또 테일러는 1957년 6월 3일에 충청도, 5일과 7일에 전남, 9일에 제주도에서 연합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들 집회들을 통해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절반 이상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였고, 7월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 테일러는 가능하다면 전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²⁷⁾

테일러 선교사는 1958년에도 한길사 직원 방 아무개(통역) 씨와 동행하여 5월 18일 주일부터 부강교회, 송조순 형제가 운영하던 판암동 애생원, 전라남도 광주,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 강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교회,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하의도교회(임해숙 전도사)를 방문하고 25일(주일) 오후에 귀경하였다.²⁸⁾ 테일러는 1959년 6

25) "Our First Chapel,"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1.

26)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27) "Report of Progres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1-2.

월 8-10일에도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였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전국 순회 일정들을 볼 때, 교회들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의 이 후원정책은 채이스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조성할 때 세웠던 계획, 곧 꽤 훌륭한 예배당을 10여 채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정책은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그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각각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여 보다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는 일에 채이스가 남긴 선교기금과 자신이 추가로 모금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테일러는 힘 요한 선교사가 1959년에 재입국하여 대전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950년대 후반기 5년간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테일러 선교사가 수도권에서, 힘 선교사가 충청이남권에서 영향력을 나눠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은 신학교운영자요 내국인 사역자들의 후원자였을 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장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장을 주도한 인물들은 수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었다.

테일러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개의 확연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70여개의 어린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들 대부분이 2-3명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떼를 제대로 돌볼 훈련된 목회자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교회들이 시골이나 피난민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교회들

28) "Daily Doings from Our Diary-May,"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2.

을 세워야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10개의 대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지 6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이 한 명의 장로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단지 몇 개만이 상태가 좋은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1958년 5월 22일에 방문했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는 80여명의 성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보냄으로써 그 목회자가 인근지역의 타교단으로 갔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작은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만형교회들이 대도시에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 정부로부터 인가가 난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²⁹⁾

이 확신을 가지고 테일러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의 입국 당시 서울성서신학교 학생들은 40여명이었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은 과목당 6주씩 집중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29) "Working with HIm,"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1.

되고 있었다.³⁰⁾ 테일러는 1956년 문교부에 신청한 인가가 부지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부되자, 신학생들이 늘어나 장소가 협소하면서 송월동 부지와 건물을 팔고 더 싸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여 선교부와 신학교를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들이 병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¹⁾ 결국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3층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³²⁾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³³⁾ 1963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개교시켰다. 그 때문에 신학교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힐 선교사 가족이 입국하여 1959년 12월부터 대전에서 신학교를 열어 목회자교육을 시작함으로써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었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한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였다.³⁴⁾ 또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관암동)하였으며, 세 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³⁵⁾ 또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가족은 1957년 6

30)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31) "Seminary Registration,"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4.

32)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3)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34) "Report of Progress," *op. cit.*

35)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p. 1-2, 4;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3-5;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3-4.

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³⁶⁾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적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공부를 마친 후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³⁷⁾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최순국 목사, 최윤권 목사, 김진문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다.

36) "First Word from the Lashes," *For Christ in Korea*, September 1957, pp. 1-2.

37) "A Place for the Patter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의 사역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60년대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은 서울, 대전, 강릉, 부산을 기지로 하여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1955년 11월 13일부터 존 채이스(John T. Chase)와 힐요한(John J. Hill)의 서울성서신학교(한국인성서훈련원)와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사역을 이어받아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였고, 1974년까지 19년간 사역하였으며, 최윤권 목사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여 대한기독교신학교(Korea Christian Seminary)와 대한기독교복음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를 세워 2010년대까지 사역하였다. 테일러의 서울성서신학교와 기독교회선교부는 1962년 5월 25일에 입국한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이어받아 1990년대까지 발전시켜나갔다.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울기독교대학교로 발전되었다.

대전에서는 존 J. 힐이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과 함께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여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밋손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3년간 사역하였다. 힐의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밋손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한 김찬영 목사가 이어받아 1998년까지 발전시켜나갔다.

강릉에서는 1957년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한 리처드 래쉬(Richard Rash)가 1958년 5월 10일부터 1964년 부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사역하였다. 래쉬가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긴 것은 장성만 목

사와 함께 대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에서는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을 설립한 알렉스 빌즈가 1956년 12월 13일 입국하여 1961년까지, 조 세겔키(Joshop Seggelki, 1958-1961), 버트 엘리스(Bert Ellis, 1958-1983) 등과 함께 부산에서 라디오방송선교와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힘썼다.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64년 늦은 여름에 귀국한 장성만은 래쉬와 함께 1965년부터 대학교회와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그들이 세운 대학은 오늘날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동서사이버대학교로 발전되었다.

이상 소개되었거나 추가로 소개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유약기)의 선교부(선교회)들은 교단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아니다. 유약기에서는 개교회들이나 개인들이 각자가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들이나 기구들에 직접후원선교(Direct-Support Missions) 또는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될 선교부(선교회)들은 후원을 받아 행한 사역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감독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선교부(선교회)들은 국내에서 펼치는 사역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의 명칭이거나 혹은 모금과 사용처에 대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하는 법인의 명칭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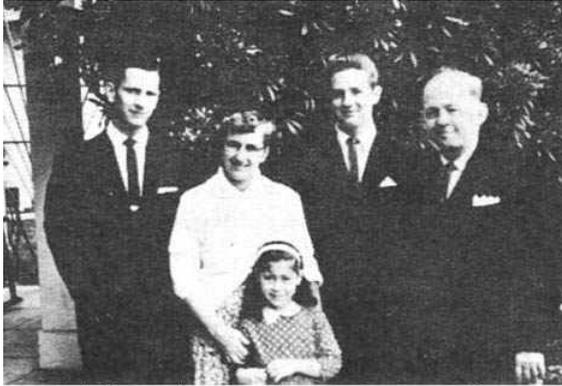
1)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

(1) 해롤드 테일러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55년 11월 13일 입국 이후 내국인 사역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혁명, 1972년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격동기 20여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테일러 선교사는 입국직후부터, 선교사들 간의 분열로 인해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치유를 위해 노력하였고, 1956년 2월부터 실시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현황파악과 전국

순회 및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59년 10월경까지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을 신축 또는 수리토록 하였다.¹⁾ 또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조각부터 러랜드(Leland), 에이더(Ada), 페니
루(Penny Lou), 글렌(Glenn), 해롤드(Harold)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²⁾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³⁾ 1963년에 개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택한 후원계획과 방식, 곧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이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견과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테일러는 내국인들과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한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목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교파교회들, 학교들,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⁴⁾

1)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2)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또 테일러는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으며, 세 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⁵⁾ 또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가족은 1957년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⁶⁾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질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공부를 마친 후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⁷⁾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최순국 목사, 최윤권 목사, 김진문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차례 발행하였고,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신약성서교회 조직에 힘썼으며, 여성들의 친교모임을 조직하여 월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테일러 자신은 이런 노력들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내국인 사역자들의 반발은 내국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인정도 많은 힐 요한으로 하여금 재입국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또

4) "Report of Progres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1-2.

5)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p. 1-2, 4;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3-5;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3-4.

6) "First Word from the Lashes," *For Christ in Korea*, September 1957, pp. 1-2.

7)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한성신학교, 1991), pp. 151-53.

자신이 신뢰했던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 등의 젊은 지도자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⁸⁾ 반면에 일방적이고 하나뿐이던 리더십에 다변화가 이뤄지게 되었고, 발전과 성장에 대한 동력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토마스 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 Ellen Sayer)와 1924년경에 결혼하였다. 에이더는 1906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테일러는 에이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러랜드(Leland)와 글렌(Glenn)을 두었고, 한국에서 딸 페니 류(Penny Lou)를 입양하였다. 테일러는 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배도은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디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72세로 별세하였고, 에이더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74세로 영면하였다.⁹⁾

(2) 배도은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은 6.25동란 직후인 1954년에 군인으로서 일 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였다. 동란직후인지라 한국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때였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때였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이러한 사정을 체험으로 안 배도은은 제대 후 곧바로 산호세 신학교에 입학하여 선교사가 되는 수업을 쌓기 시작했고, 1960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배도은 선교사 내외는 두 딸과 함께 1962년 5월 25일 군인이 아닌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게 되었다.¹⁰⁾

8)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p. 56, 132.

9) 인터넷검색: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10)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



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좌측부터 레이철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과
고든 패턴(Gorden Patten) 부부, 레베카 루스(Rebekah Ruth)

배도은 선교사는 입국하여 서울성서신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테일러 선교사를 도우며 한국말 공부에 주력하였고, 1963년에 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한길>

발행과 부평보육원을 보조하였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부산을 왕래하였다. 1964년에는 가정에서 영어성경반을 시작하였고,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1966년에 첫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후부터 성경 공부 교과서 출판에 헌신하였으며, 1968년에는 교도소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과 <반석 위에>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1970년에 30여 종류의 전도지를 50만장 찍어 교도소 전도용으로 활용하거나 교회에 보냈고, 1971년에는 복음영화를 교도소, 군부대, 교회, 고아원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에 큰 효과를 보았다. 배도은은 테일러가 은퇴한 1974년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의 이사장과 서울성서신학교 교장으로 선임되었고, 1975년에 이광 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으며, 태광출판사(1975년 5월 26일 등록)를 세워 1977년까지 23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와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는 직접 저술하였다. 1979년에는 신학교 이전을 위해서 안양에 부지를 매입하였다.

1980년에 부인이 소천하였고, 장녀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에 합의하여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통합신학교(대한기독교신

학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32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4권의 책과 10만장의 전도지를 발간하였으며, 1983년에 선교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두 권의 새로운 책을 발간하였으며, 선교부 건물을 완공시켰다.¹¹⁾

배도는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신조광 목사가 이어받았다. 신조광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태광 출판사 대표, 월간 <한길> 발행인 겸 편집인, 보람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목사, 보람유치원 설립자,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2)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

(1) 최윤권



1956년 12월 31일 부산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 11월에 귀국한 최윤권 목사

최윤권 목사는 최상현 목사의 둘째 아들이자 군에서 연락장교로 복무한 후에 제대하여 서울 성서신학교에서 영어강사, 통역, <한길> 편집 등의 일을 하다가 1956년 미국 산호세 성서대학으로 유학하였고, 1960년에 졸업하였으며, 링컨기독교대학원을 1961년에 졸업하고,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였다.

최윤권은 귀국 후 도원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환원>지를 창간하였다. 최윤권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1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

대한기독교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환,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에는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¹²⁾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 2일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최윤권은 이곳에서 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윤권은 1966년에 지온보육원을 설립하였다. 결혼 후 빈민동네였던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의 네 명의 자녀들을 돌본 것이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소천한 민지온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로 옮겼다.¹³⁾

최윤권은 방송선교와 출판에도 열정을 보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김일엽과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속의 성경'이라는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도 방송하였다.¹⁴⁾ 저서로는 <깨어진 십자가> 1, 2, 3권과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등이 있다.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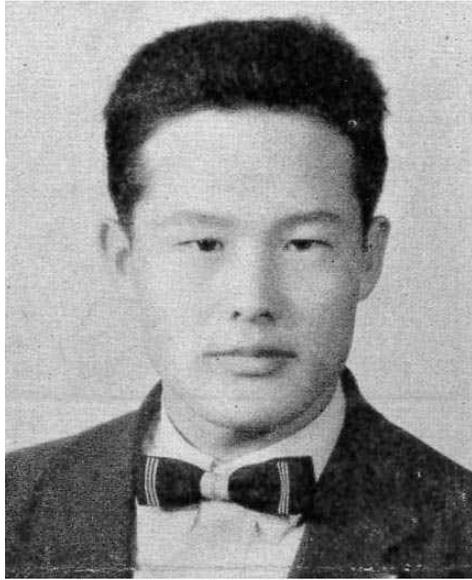
13)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3.

1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5.

3) 한국 복음전도 협의회(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1) 최순국

최순국 목사는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6.25전쟁 중에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일본 한인 34명으로 구성된 의용군(학도병)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미군부대에 편입되어 미 공군사병이었던 테일 브라운(Dale Brown)을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브라운은 나중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 목사가 되었다.¹⁵⁾ 최순국은 전후 한국에 남아 힐 요한 선교사가 운영한 서울성서신학교를 다니면서 힐의 통역을 겸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그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섰다.



미국으로 유학가기 직전의 최순국 목사(1959년)

최순국은 선교사들의 분열 당시 현장에서 지켜본 젊은이로서 1954년 6월 25일 신학교가 휴교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의 동경성서신학교(1948년 4월 10일 개교¹⁶⁾)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테일러 가족이 사역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최순국은 테일러를 찾아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입국하여 테일러와 래쉬의 통역을 맡았

15) Timothy Lee, "Soongook Choi: Our taesonbae," Fall/Winter 2002-03 Bulletin(Vol. 72, No 2) of the Disciples Divinity Hous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View of Existing Conditions: A Brief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1891-2010," *Discipliana*, Spring 2012, p. 6.

16) "Bible College Opens in April," *Tokyo Christian*, March-April 1948, p. 1.

다.17) 20대 초반의 최순국은 테일러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테일러가 직면했던 초기의 난관들을 놀랍도록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18)

최순국은 1957년 4월 20일 입대하여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제대하였으며,19) 1959년에 미국에 유학하여 1961년에 링컨기독교대학에서 문학사(A.B), 1962년에 신약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학위(MA)를 받고, 동년에 목사안수도 받았다. 이어 1965년에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고 1966년 9월 1일경에 귀국하였다.20) 귀국하여 1969년까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면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21) 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교수, 목회자, 방송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하였다.

최순국은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하여 10월 20일에 시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22) 1997년 3월 은퇴 때까지 섬겼다. 최순국 목사는 1989년에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시카고 파크리지(Park Ridge)에 소재한 루터교종합병원(Lutheran General Hospital)의 정규직 원목으로도 사역하였다.

이밖에도 최순국은 한국인제자들교회협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를 설립하였고, 북미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을 조직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단 총괄 이사회의 회원,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의 이사(1989-97), 아시아계 미국인 제자들(American-Asian Disciples, AAD)의 회장,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인 목회자회(Disciples of Christ Korean Fellowship)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교단에서 평가한 지난 1백년간 가장 많은 업적을

17) "Chueh Soog Gook,"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7, p. 1.

18) "To the Army,"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1.

19) *Ibid*

20) 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29 Mar 1966.

21)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leaflets), November 1965.

22) 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September 1974.

남긴 36명의 사역자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되었고, 교단의 100대 목사에도 선정되었다.

최순국 목사는 2002년 4월 14일 서울기독교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수개월 후인 9월 16일 소천 하였다.²³⁾

4) 한국 크리스찬 밋손(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1) 힐 요한



JOHN AND JANE HILL
Pioneer missionaries
to Korea, with mis-
sionary daughter Miss
Virginia Hill and
children Danny and
Tina. Adopted Kor-
ean boys are "Line"
and "Doug".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Taejon, Korea
September 1968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는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인해서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났다가, 일본 오사카에서 건너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힐의 선교업무를 도왔던 제인 키넛트(Jane Kinnett) 선교사와 1956년 5월 25일 재혼하였고, 3

2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pp. 250-258.

년 후인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²⁴⁾ 대전으로 옮겨온 후 곧바로 신학교를 시작하였고, 노봉욱 장로의 헌신으로 1964년 4월 17일 교육부 사회교육과로부터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설립을 허가 받았다.²⁵⁾

1960년대는 힐의 나이 50대로써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절정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없었고, 6.25와 같은 전쟁도 더 이상 없었다. 그의 한국체류기간에 4.19혁명과 5.16군사혁명이 있었으나 선교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힐은 한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1972년 6월 은퇴할 때까지 13년 동안 성낙소, 이신, 최요한, 심영진, 정인소, 장성만, 이종만, 노봉욱 등의 내국인 지도자들, 특히 충청이남지역의 목회자들로부터 테일러보다는 훨씬 큰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 힐이 1939년부터 배출한 목회자들이 교단의 주역들이었던 반면에 테일러가 배출한 목회자들은 갓 목회를 시작한 신출내기들이었다. 둘째, 힐은 커닝햄과 채이스가 취한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을 고수한 반면, 테일러는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이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목회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셋째, 힐이 김은석 목사의 권유에 따라 대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의 영향권아래 있었던 충청이남지역의 목회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테일러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힐과 테일러가 은퇴한 1970년대 이후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출신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상황이 역전되었다. 따라서 김찬영 목사의 '한국 크리스찬 미션'의 영향력은 최윤권 목사의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부'와 배도은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마침내는 '한국 크리스찬 미션'이 대전에서 서울로 넘어갔고, 1999년 10월 13일에는 그 이름마

24)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p. 24-26.

25)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5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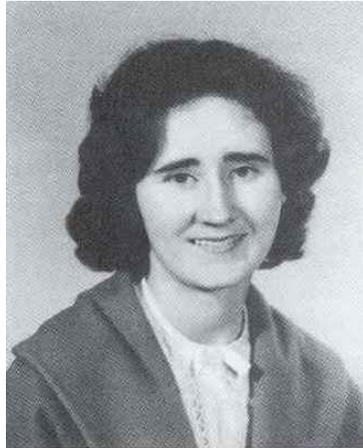
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변경되었다.²⁶⁾ 현재 32개의 교회들이 이 재단에 가입되어 있다.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 나이로 60세 때에 은퇴하였다. 그의 은퇴가 빨랐던 이유는 모금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힐이 1964년에 짓기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 최초의 교사 1-2층을 완공시킨 것은 김찬영 목사와 조 가맨(Joe Garman) 선교사였다. 힐은 제인이 소천한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을 만나 재혼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만 96세로 소천 때까지 에덴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러시아 단기전도사역에도 참여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산 증인이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 자체였다.

(2) 버지니아 힐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은 힐 요한 선교사의 딸로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후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선교사로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3년만인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26)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59.

하였고, 선교사 자녀들, 의사들, 직업군인들, 간호실습생들,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영아들, 고아들, 복음중학교 학생들,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흥만 목사의 기독교중학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운영기금, 목회자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현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궤도, 성경, 카메라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²⁷⁾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들과 당진에서 온 두 명의 남자 아이들로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²⁸⁾ 버지니아는 안식년을 가진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여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었다. 힐 가족을 대신해서 조 가맨(Joe R. & Linda Garman) 부부가 10개월 체류 예정으로 내한하여 9월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²⁹⁾

(3) 김찬영

김찬영 목사는 193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김찬영은 부산에 내려가 장성만 목사가 세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며 세족회 회원이 되었다. 1959년 8월에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을 때, 통역이 되어 힐의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야간에 다니며 1962년까지 힐 선교사의 사역들을 돕다가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1965년 9월 5일

27)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20 July-20 November 1966; 14 October 1967.

28)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January-June 1968.

29)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30 April 196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12, 100.

힐과 장성만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존슨성서대학(현 존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같은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패츄리사(Patricia A.)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결혼하였다. 존슨성서



김찬영 박사(중국 혼춘)

대학 졸업 후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성서대학원에 입학하여 1969년 5월 10일 졸업하였다. 이후 신시내티 대학교와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후, 부인 패츄리사와 자녀들을 데리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김찬영은 1972년 6월에 힐 요한 선교사가 퇴임함에 따라, 1972년 1월 21일 한국성서신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98년까지 교단과 한성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다. 1998년 이후로는 CRAM(Christ Reaching Asia Mission Worldwide)을 조직하여 베트남과 중국 및 북한선교에 진력하였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혼춘에 특수교육학교, 희망외국어학교, 복음식품유한회사(장애자 제빵기술교육 및 간식용 제빵공장), 희망농목개발유한회사(장애아동 재활승마 목장, 가축 목장, 옥수수 콩 경작지)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국 양포에 장애인, 고아원 및 양로원을 개원하였다. 또한 북한 나진시에 진료소 3곳(신해, 유현, 비파)과 120명을 수용하는 나선고아원을 헌당하였고(2006년 5월 17일), 선봉시에 빵공장을 건립하여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콩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해 목장과 유치원 2곳 및 탁아소 2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모 없는 북한 청소년수용기술학교와 비즈니스텔을 건설하였다.

김찬영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 <예배학>, 설교집 등을 저술하였고, <예수의 마지막 주간>을 번역 출간하였다. 대전에 체류하는 동안 4년제 대학학력인 정교 학장협의회 회장, 대전 외국어 학교 이사장,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재단 이사장 및 대표회장,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미션 이사장, 대전 기독교 연합회 회장, 충청남도 도정자문 위원, 대전직할시 시정자문 위원, 대전 YMCA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전 생명의 전화 설립 이사장, 충남 경찰국 교목, 국제 와이즈멘 한국서부 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부인 김 패츄리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신학교 영내에 있었던 보육원에서 2남 2녀, 월남에서 온 남자아이 1명을 입양하여 미국에 보내는 등 큰 도움을 주었으며, 논산 연무읍의 에덴 보육원과 대전 자양동에 있는 피얼스 영아원을 도왔다. 또 패츄리사는 고아들의 외국 입양과 병든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수술을 받도록



좌측부터 Becca, Betty, Brian,
Kathleen, Verlen Alex Bills, Guy Don

주선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1982년 대전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1989년 5월 5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1991년 5월 5일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³⁰⁾

5)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

(1) 알렉스 빌즈와 플로라 매이 구른지

30)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446-451.

1950년대 후반기에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다수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부산에서 활동하였다.³¹⁾ 알렉스 빌즈(Alex Verlen Alex Bills)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여³²⁾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웠고,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폴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다.³³⁾ 그녀는 1953년 4월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선교방송을 이어갔고, <파장>을 1959년 2월(47번)호까지 발행하였다.³⁴⁾ 이후 폴츠는 1959년 6월 8일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³⁵⁾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였다.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라디오선교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빌즈는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고,³⁶⁾ 1956년 9월 24일 법인(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³⁷⁾ 전 가족이 동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³⁸⁾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 Guernsey)

3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500-525.

32)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인터넷홈페이지).

33) "Exie Arrives,"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December 1952.

34) A New Work to Begin in Kobe, Japan, 1953.

35) New,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36)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ave Lengths*, March 1955.

37) "C.R.M. Incorporated," *Wave Lengths*, October-November 1956.

38)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ave Lengths*, January 1957.

방송국설립이 무산되자 1961년에 CRM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귀국하였다.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양은 CRM의 업무비서, 음악보조, 성서강의를 위해서 1957년 10월에 입국하여 빌즈를 도왔으며, 1959년 2월 25일 귀국하였다. 빌즈를 도와 사역한 내국인들에는 김홍균(매니저), 장성만(설교담당, 대교교회 목사), 김히영(방송프로제작, 음악 편집, 설교 통역) 등이 있었다.³⁹⁾

6) 한국 방송 선교회(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

(1) 조 세걸키와 버트 엘리스



조 세걸키 가족
좌측부터 에디(Eddie), 보니 조(Bonnie Jo), 조와 맥심, 토미(Tommy), 마크(Mark)

알렉스 빌즈 가족의 동역자로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는 구른지 양말고도 조 세걸키(Joshep Seggelki) 가족과 버트 엘리스(Bert Ellis) 가족이 있었다. 세걸키는 CRM의 업무추진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 입국하여⁴⁰⁾ 1961년 7월 안식년을 가졌으나 선교부의 책임자였던 테일러 선교사의 반대로 한국정부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지 못함으로써 예약해 놓은 1962년 7월 29일 배를 타지 못하였

39) "Workers Arrive," *Wave Lengths*, November 1957; "Ground Breaking," *Wave Lengths*, February 1958; "Kim," *Wave Lengths*, March 1958; 노봉욱 편저, <필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51.

40) "New Workers Arrive," *Wave Lengths*, March 1958.

다.⁴¹⁾ 엘리스는 CRM의 프로그램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 부산을 통해 입국하여⁴²⁾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부산에서의 사역은 1983년까지 25년간 이어졌다.⁴³⁾

CRM의 사역에 먹구름이 낀 것은 이상주의자였던 빌즈와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세걸키와 엘리스 사이의 충돌 때문이었다. 빌즈의 말만 믿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입국한 세걸키와 엘리스는 빌즈의 이상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일을 엉망으로 만든 믿을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다. 빌즈의 이상이 실현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빌즈에게 실망한 구른지는 1959년 2월 25일 귀국하였고, 세걸키와 엘리스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1959년 초부터 합심하여 '한국방송선교'(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를 설립하고 동년 4월 16일부터 3년간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방송하였으며, 부산문화방송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KBM은 1959년부터 계간으로 <킬로사이클>(Kilocycles)이란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그들을 도와 KBM에서 사역한 내국인들에는 이신 목사와 고재천 목사가 있었다.⁴⁴⁾ 이신은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 1980년에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펴냈다.



좌측부터 버트(Bert), 존(John), 마조리 엘리스(Marjory Ellis)

세걸키와 엘리스는 방송선교와는 별도로 각각 별도의 성경공부반을 운영하였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세걸키 가족은 1961년 7월 자신들의 안식년을 갖기에 앞서 1960년 6월부터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운

41) Flashes from the Lashes, 3 October 1962.

42) "Ellis Family Arrives," *Wave Lengths*, June 1958.

43) "Bert Ellis Report Letter," June 1983.

44) *Kilocycles*, July 1959.

테일러 가족을 대신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겨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일들을 관리하였다. 엘리스는 전파선교가 무산된 후에도 1982년 6월까지 한국에 4-5개의 성경클럽과 통신강좌를 운영하였고, 동광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산에 개척하였다.⁴⁵⁾

7) 장성만의 재미 재단이사회

(1) 리처드 래쉬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돈, 도로시, 멜바, 1957이전)

래쉬(Richard Lash) 가족은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옮겨갔다. 래쉬가 강릉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테일러가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학교 운영을 중단하였고, 강릉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⁴⁶⁾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

45) Korean Broadcasting Mission, May-June 1966.

46) Flashes from the Lashes, 24 April 1958.

도를 시작하였다. 이때 김은석 목사가 잠시 강릉에 내려와 집회들을 통해서 래쉬를 도왔다. 1963년 11월 20일자 서신에 의하면, 래쉬는 강릉에서의 사역의 제한성, 두 딸의 교육문제, 부산에서 함께 일하는 장성만 목사의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서⁴⁷⁾ 1964년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래쉬는 부산에서 장성만 목사와 함께 대학설립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기간에 대전까지 한국성서신학교에 출강하였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래쉬는 그 이유를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다”고 적었다.⁴⁸⁾

래쉬 가족이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대학교정에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부터 강릉지역을 방문하여 성장하고 있는 다섯 개 교회들을 기쁨으로 둘러본 후 8월 31일 한국을 떠났다.⁴⁹⁾

(2) 장성만

장성만 목사는 1932년 11월 2일(음력)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장성만은 원래 장로교 교인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온 백발의 동석기 전도자(목사)가 미국 문화원 강당을 빌려 행한 기독교 강연회에 자주 참석하여 새로운 기독교 교리를 들었고, 동석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게 되었다. 장성만은 서울에

47)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48)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49)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희망을 믿는 民石張聖萬博士

서 피난 온 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다가 낙동강 전투 때 국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제대 후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1953년 1월 3일 자신의 집 2층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수년 후부터는 라디오방송선교를 위해서 부산에 온 선교사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하였고, 일본에 주재하는 마크 맥시(Mark Maxey), 데이비드(David), 심즈(Sims), 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 클라크

(Clark) 등이 자주 찾아와 격려하였다.

장성만은 이후 맥시 선교사의 주선으로 오사카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약혼녀 박동순(이화여대 영문과 졸업)과 함께 미국에 유학하여 신시내티성서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64년 늦은 여름 귀국하여 래쉬와 함께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경남정보대학의 전신인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장성만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차남은 제18대, 20대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장성만은 1950년대에 부산기독교문인협회를 창설하였고, 1963년 7월 수필동인회를 발족시켜 동인지 <隨筆>과 1960년대에 계간지 <基督教文藝>를 발행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월간 <아가페>를 프린트 판으로 발행하다가 후에 월간 <로고스>에 기독교사상과 생활지라는 부제를 부쳐 발행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그는 10권 이상의 책을 펴냈다. 그는 정치에도 입문하여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부산시 지부위원장(2회), 민정당 집행위원,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제4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부의장(12대)을 역임하였다.⁵⁰⁾ 2015년 12월 6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8) 1992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선교사들

J. Michael & Martha Shelley(1935), T. G. Hitch(1938-39), John T. & Wahneta Chase(1936-40), John J. & Esther Hill(1939-55), Paul & Joan Ingram(1953-55), Robert West(1953-?), Jane Kinnett(1955), Howard Davis(1953-54), Lila Hiler(1953-56), Marry Barnhill(1954-55), Harold & Ada Taylor(1955-74), Alex & Betty Bills(1956-61), Flora Mae Guernsey(1957-59), Joshep & Maxine Seggelki(1958-61), Bert & Marjorie Ellis(1958-83), Richard & Melba Lash(1957-71), John & Jane Hill(1959-1972), Gorden & Sharon Patten(1962-?), Virginia Bendure(1966-69), Mary Harding(1967-67), Joe & Linda Garman (1969-70), Paul Comeaux(1969-70), Fred & Ellie Hoffman(1970-73), Patricia Kim(1970-98), Claudia Lazzereschi(1974-78), Bob & Joyce Warrick(1977-78), Charles Baer(1978-79), Debbie Ham(1978-84), Delroy Brown(1979-82), David & Loretta Warner(1979-84), Clarence Rittenour(1980-84), Keri Augsburg(1981-83), Mike & Joan Noel (1982-84), Vicki Jones(1983-84), Timothy Chambers(1983-84), Jim & Suzy Montgomery(1987-89), Kori Frye(1987-89), Karen Terhune (1990-92).⁵¹⁾

50) 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민석 장성만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민석 장성만 박사 회갑기념논문편집위원회);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2009년 4월 5일-5월 22일.

5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5-156.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1960년 이후 복음전도/교회개혁)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24년부터 해방 전까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이 윌리엄 D.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가 파송한 내국인 사역자들과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 가족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를 설립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 가족 등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이뤄졌으나 일제의 탄압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5-6년간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단됨으로써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살아남았으며, 채이스와 존 J. 힐(John J. Hill)이 재입국하여 생존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기반으로 신학교를 개교하는 등 사역을 재개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채이스와 힐 요한의 재건 노력과 폴 잉그람(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Lila Thompson),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등, 선교사들의 헌신과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 김은석, 최요한, 이신 등, 내국인 지도자들과 서울성서신학교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2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950년대 말에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실린 72개의 교회숫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¹⁾ 부산에서 방송선교를 전개하고 있던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도 1958년에 전국에 80여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언급하였고,²⁾ 힐 요한 선교사는 1960년대에

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298-300.

총 82개의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을 자필로 작성하여 남겼는데,³⁾ 이는 1970년도 <기독교연감>에 실린 총 92개 유약기 교회 숫자와도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1976년도 <기독교연감>에는 유약기교회가 106개로 나타났다.⁴⁾ 이후 1985년도 전국주소록에는 286개 유약기교회가 실렸다.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무려 180개의 교회가 증가한 것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기와 한국경제부흥기에 때맞춰 3개 신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목회자들이 공격적으로 교회들을 개척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 협의회가 분열된 이후 2003년 전국통계에서는 협의회가 237개, 총회가 61개, 도합 298개에 그치고 있다. 1985년 이후 2003년까지 18년간 교회가 12개의 증가에 그친 것은 많은 수의 개척교회들이 공격적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총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은 대부분 일정한 성서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인성서훈련원이 채이스에 의해서 1937년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고, 요츠야선교부가 파송한 토마스 히치가 1938년에 설립한 서울성서훈련원, 김은석이 1946년에 시작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한성신학교의 전신인 한국성서신학교가 힐에 의해서 1959년 12월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으며, 1981년 3월 2일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예배를 드린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최윤권에 의해서 1965년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교회개척과 성장은 1981년 2월 16일 한성신학교로 교명을 바꾼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와 1963년 서울 역촌동 캠퍼스에서 재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

2) "Pastor Chung at the Pulpit of the Dia Kyo Church in Downtown Pusan,"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July 1958, p. 3. 빌즈는 부산 시내에 소재한 장성만 목사의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가 80여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의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387-90.

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문화인쇄, 2003), pp. 69-70.

1965년 서울 효창동에서 개교한 대한기독교신학교, 그리고 1981년 초 서울의 두 신학교가 통합하여 거듭난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이뤄졌다. 이밖에도 협의회와 총회가 실시하고 인준한 목회신학원들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전도가 이뤄졌다.

1) 서울 및 수도권



신앙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이후 기독교 회 선교부 (Korean Christian Mission)의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의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

들과 또 각각의 선교부에서 이뤄진 복음전도와 개척교회후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발전되어져갔으나 전국 교회숫자만 있을 뿐, 각각의 선교부와 신학교출신들이 세운 교회숫자에 대한 개별통계는 조사된바가 없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1959년 6월 3일까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선교부의 전 재산을 팔고, 1962년 말까지 휴교상태에서, 서울성서신학교의 새 캠퍼스 구성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배출된 목회자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전념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1955년 입국이후 착수한 교회방문과 후원사역을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시켜나갔다. 그 단적인 예를 캠퍼스 조성이 한창이던 1962년 2월과 3월에 단행한 선교여행과 집회들에서 볼 수 있다. 테일러는 2월 7-8일 홍성으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동월 16-23일에도 홍성, 목포, 전주, 군산으로 다니며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다. 3월 중에도 전주를 거쳐 목포에서 열리는 일주일간 개최된 성경공부

에 참석하여 강의하였다.⁵⁾

테일러는 문서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1957년 3월에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여 수많은 교회와 학교 및 군목들에게도 발송하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고, 평신도들에게는 신약성서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행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묵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구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제대로 된 신약성서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수정관이 포함된 정관(조직플랜)을 만들었다.⁶⁾

테일러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는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 운영, 월간 <한길>의 출판이외에도 자신만의 문서선교에 주력하였다. 배도은은 수십 종류의 전도지를 수십만 부씩 찍어 전도용으로 활용하였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태광출판사(1975년 5월 26일 등록)를 세워 수십 권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와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는 직접 저술하였다. 이밖에도 복음전도용 영화필름을 구입하여 교회, 교도소, 군부대, 고아원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에 큰 효과를 보았다.⁷⁾

최윤권 목사는 미국유학 후 도원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환원>지를 창간하였으며, 1965년부터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힘썼다. 1975년 3월 5일에는 대한기독교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조직하였다. 이밖에도 최윤권 목사는 방송선교와 출판을 통해서도 신약성서교회를 홍보하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목사, 김일엽 목사와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

5) "To the Villages and Citie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1.

6) "Ton Am Dong,"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60, p. 1.

7)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p. 151-53.

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⁸⁾

2) 대전 및 충청권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대전 및 충청권 교회들의 발전은 1959년에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한 힐 요한(John J. Hill)이 세운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 시기는 힐 요한 선교사의 생애 절정기였다. 힐과 한국성서신학교는 1950년대 충청권과 전

라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대를 잇고 있어서 이 시기에 힐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른 선교사들과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컸다. 한편 힐은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모금의 어려움으로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에 조기 은퇴하였다.

1957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충청도에 19개(충북 13개, 충남 6개) 교회가 있었다. 이 숫자는 1950년대 말에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한 주소록에 실린 24개(충북 14, 충남 10)와는 5개의 차이가 있다. 1965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충청도에 35개(충북 16개, 충남 19개) 교회가 있었다.⁹⁾ 이 숫자는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 실린 35개(충북14, 충남21)와도 거의 일치한다. 또 1957년 충남에서 6개뿐이

8)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 p. 65.

9)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324.

던 교회가 힐의 주소록에 15개가 증가한 21개로 나타난 것은 1960-71년까지 힐이 운영한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충북에서 1개만 증가한 것은 졸업생들에 의해서 꾸준히 교회들이 개척되었으나 다수의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이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로부터 1990년대까지 대전 및 충청권에서의 교회발전은 김찬영 목사가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운영하는 한성신학교(전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생들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한 가지 예로써, 한성신학교를 1982년에 졸업한 정일호 목사는 총회장직을 13차례 수행하는 동안 총 7개의 교회(상삼교회, 충주중앙교회, 창동중앙교회, 당우리교회, 팔봉교회, 원평교회, 은혜로운교회)를 개척하였고, 현 총회회관 마련에 공헌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수면아래에 있던 대기신교역자회와 한성교역자회의 갈등이 1989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54차 협의회 총회 때 수면위로 드러남으로써 이듬해인 1990년 2월 유성 경하장에 모인 한성교역자회가 총회를 창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편 한성신학교에서는 조동호 교수의 제안으로 김찬영 학장, 조동호 교수, 김상호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87년 12월에 한성신학교 교회개척후원회를 조직하여 졸업생들의 개척을 지원하였다. 이 후원회는 한성신학교가 1989년 8월 연산캠페스로 이전한 이후로 10여 년간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조동호 목사가 미력하지만 지속시켜나갔다.

후원회를 운영해온 조동호의 개인 기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회보 내용을 종합해볼 때,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한성신학교(한민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62개이고, 확보 가능한 총회회보에 실린 개척교회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54개이다. 총회회보에 실린 54개 가운데 29개는 비한성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세운 개척교회 숫자이다. 그러나 29개의 숫자는 총 8년 치의 누락된 회보들에 실렸을 비한성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설립한 교회들을 추가하면 4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4년간 총 100여개의 개척교회가 총회 소속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0여개 개척교회들 가운데 총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수가 실패했거나 타 교단으로 이적한 때문이다. 2009년 총회회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총 73개의 교회들 가운데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이 22개 정도, 기존교회들이 13곳 정도, 나머지가 총회신학원에서 공부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들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 총 62개 가운데 40여 개가 생존에 실패 또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였고, 35퍼센트인 22개 정도만 남았다는 뜻이 된다. 반면에 총회신학원을 통해서 총회에 가입한, 다수의 여성들을 포함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총회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3) 목포, 광주 및 전라권

목포 및 전라권의 교회들은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내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1957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전남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17개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1956년 6월에 19개 교회가 있다고 하였다.¹¹⁾ 최요한 목사가 1957년 10월 1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1946년부터 7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4개 교회를 환원시킨

10)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457-60.

11) "To the Far Corner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결과이자, 김은석 목사의 헌신에 의한 열매들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0년대 말 자신의 성경에 전라남도 교회 주소 29(30)개를 적어놓았다. 전라남도에서 이뤄진 이 팔목할 성장은 1965년도 <기독교연감>에서 25개(전남 24, 전북 1)로 소개되었는데,¹²⁾ 이 숫자는 훗 선교사의 주소록에 실린 28개(전남26, 전북2)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후 최요한 목사는 1963년부터 1973년까지 6개 교회를 더 개척하였고, 1980년대까지 3개 교회의 개척을 지원하였

으며, 또 다른 3개 교회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태로 하여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7개의 교회들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으로 환원했거나 개척되었다.¹³⁾

광주에서는 김동열 목사가 1960년대부터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오해하여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¹⁴⁾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는 한 때 15개 교회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김동열 목사의 두 자제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를 포함하여 5개 교회 정도만 남아있다.

1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1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548-550.

1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81.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4) 부산 및 영동과 영남권

리처드 래쉬 선교사는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장성만 목사를 돕기 위해서 1964년 강릉을 떠나 부산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1971년 8월까지 영동지역의 교회들, 곧 삼척교회, 주문진교회, 영동(탄광)교회, 강릉교회, 평산교회를 돌보고 후원하였다.¹⁵⁾ 주문진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여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고,¹⁶⁾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어 1967년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건축비용은 래쉬가 1963년에 설립한 '한국인 교회 지원자 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기금에서 충당되었다.¹⁷⁾ 강릉교회는 1969년에 헌금액수가 늘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¹⁸⁾ 평산교회는 1964년 초에 대다수가 초신자들인 250여명이 출석하고 있었다.¹⁹⁾ 래쉬 가족은 한국을 떠나기 2-3주전인 1981년 8월 둘째 주간에 이들 다섯 개의 교회

15)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16)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17) Flashes from the Lashes, 25 September 1967.

18) Flashes from the Lashes, 25 November 1959; 25 August 1969.

19) Flashes from the Lashes, 11 February 1964.



부산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대학교회

들을 기쁨으로 순방하였다.²⁰⁾

장성만 목사는 자신의 대교교회를 1964년 1월에 부산 YMCA 3층 강당으로 옮겼다가 리처드 래쉬 선교사가 1966년 ‘동서기독교실업학교’ 강당에서 시작한 대학교회와 1970년 3월에 통합하여 명칭을 부산기독교교회로 개명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연건평 800여 평, 600여 석의 본당을 비롯한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회를 신축한 후 부산기독교교회를 학교법인 동서학원 대학교회로 개칭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상남북도에 양정식 목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및 안동 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희 전도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한의사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가 1945년에 개척한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 1970-8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로는 성결교회에서 환원한 이병우 목사가 시무한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와 강나루 목사가 시무한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진영

20)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그리스도의 교회는 장성만에 의해서 1975년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462번지에 세워졌고,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100-2번지에 장성만의 제자로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졸업한 강나루(본명 강병기)에 의해서 1983년에 세워졌다. 이밖에도 버트 엘리스(Bert Ellis) 선교사가 세운 동광교회와 동아교회가 있었고,²¹⁾ 울산교회가 있었다. 울산교회는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현 예배당을 매입한 곳이었다.²²⁾

21) Korean Broadcasting Mission, May-June 1966.

22)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육사업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발전은 신학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학교가 있는 곳에 목회지망생들이 몰렸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선교사들의 격려와 후원이 내국인 사역자들의 헌신을 지탱시키는 동력이었다. 교회성장의 열쇠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을 양육하여 배출시키는 곳은 신학교들이었다.

1) 요츠야선교부의 서울성서훈련원(1938-41)



서울성경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한국선교가 초기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산을 남기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커닝햄의 내국인 사역자들이 타교단 출신들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족이 1938년에 서울성서훈련원(Seoul Bible Training School)을 시작하여 3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교회들을 개척시켰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1941년에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선교를 중단하였고, 선교사들은 철수하였으며, 성서훈련원은 문을 닫아야했으므로 교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성서훈련원은 1938년 2월 서울 제1교회(아현정)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에 아현정 소재 2층을 임대하여 옮겨갔다. 당시 주간예 남자 7명, 여자 5명이 수업을 받았고, 야간에 남자 11명, 여자 2명이 수업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현직 목회자와 여전도자들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파송을 받았다.¹⁾ 인천 송현기독교교회와 금곡동기독교교회를 세운 정삼선과 서울 제3교회 담임 김상익이 1940년에 졸업하였고, 인천 제4교회 담임 임준식, 서울 제5교회 임공철, 여전도사들인 임화순과 평화일 등이 공부하였다. 이인범 목사와 히치 부부, 그들의 두 딸, 에밀리(Emilie)와 애니(Annie)가 가르쳤고, 홍종숙 목사가 1939년에 교수와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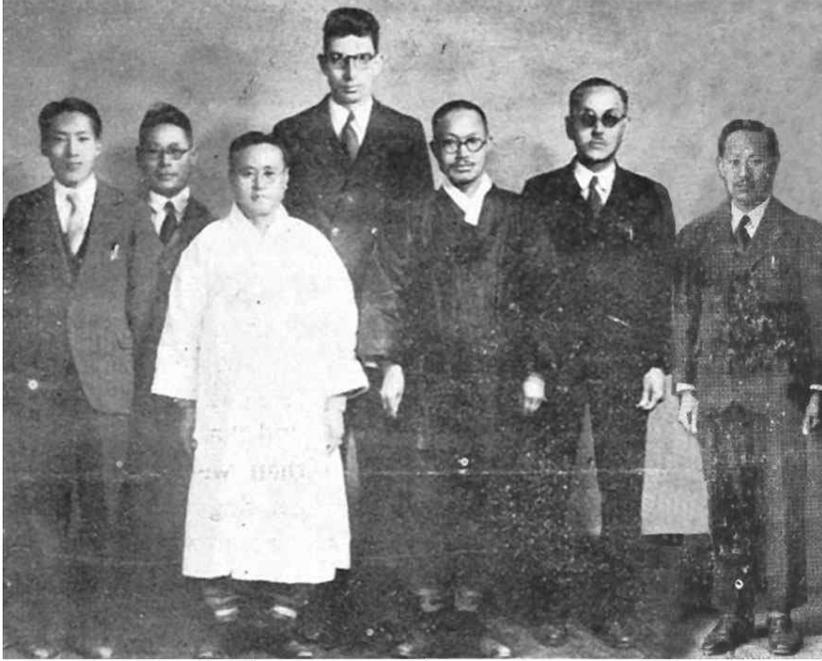
2) 서울기독교대학교

(1)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서훈련원(1937-40)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은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에 의해서 1937년 4월에 시작되어 1940년 말까지 4년간 지속되었다. 성서훈련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 선교부 지하실에서 일주일에 4일씩 강의가 이뤄졌다.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성낙소, 박판조, 백낙중 등이 초기 학생들이었고, 1940년 3월 25일 졸업하였다.²⁾ 그러나 한국인성서훈련원은

1)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Korean Training School," *Tokyo Christian*, November 1940, p. 3.

1940년 6월 1일 안식년을 맞아 채이스 가족이 미국으로 떠났고, 힐요한(John J. Hill) 선교사 가족마저 전쟁의 위협 속에서 1940년 11월 16일 철수하였으며, 이듬해 12월 7일 기어코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국성서훈련원은 폐쇄된 상태로 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백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동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2)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의 서울성서신학교(1949-80)

전후 존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1월 중순경에 입경하여 3월 1일 출국하였다. 이때 채이스의 가장 큰 관심은 선교부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고, 교회와 목회자들의 근황을 살피는 것이었다.³⁾ 다시 입경한

2) 성낙소, '제7장 기독의 교회 선교사와 신학교 시작,'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3)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 7-8.

때는 1948년 10월 17일이었고, 힐 요한 가족이 1949년 2월 18일 입국하자,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쳐서 5만 불을 모금할 목적으로 2월 중순경에 재차 출국하였다.⁴⁾ 출국 전에 채이스는 전쟁으로 8년간이나 폐쇄된 한국인성서훈련원의 후신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개교시켰고,⁵⁾ 그 운영을 재입국한 힐에게 맡겨놓고 동년 9월에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출국하였다.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한 힐 요한은 자신의 연지동 임대주택에서 3월 15일부터 봄 학기를 시작하였고, 학생들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겼으나 이듬해 6.25동란이 터짐으로써 또 다시 문을 닫아야 했다. 일본으로 피신했던 힐은 9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 5일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이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11



송철동 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55년 3월 3일)

앞줄 좌측부터 이신, 김동철, 존 힐, 김동수, 동역. 졸업생(무순): 함태영(좌측 세 번째), 김현숙(뒷줄 끝), 최병식, 김태수, 송찬현, 조국현, 성수경, 정희진, 이종훈, 김봉석, 유현성, 변승택

4) "The Year 1948," "Personnel Transfers" and "An Announcement,"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p. 1, 3, 4.

5) "The Korea Bible Institute,"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1. 1955년까지 힐을 도와 신학교에서 교수와 교감을 지낸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와 <신약교회 목회학>에서 이 신학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라고 불렀다.

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⁶⁾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다시 신학교의 문을 열었다.⁷⁾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동일시되어 1949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1955년 3월 3일의 졸업식을 서울성서신학교 제1회로, 1960년 4월 1일 졸업식을 제4회로 표기하였으나 이것은 바른 표기가 아니었다고 본다. 서울성서신학교가 한국인 성서훈련원과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의 연장이었고, 또 송월동 선교부가 팔릴 때까지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성서신학교의 시작은 1949년이 아니라, 1937년이라야 옳다. 서울기독교대학의 연역은 이 점을 반영하여 개교연도를 1937년으로 잡고 있다.

한편 1955년 11월에 입국하여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서울성서신학교 건물)을 인수받고, 제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6) John J. Hill,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16 December 1950, p. 787; "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January 1951, p. 51.

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1대 교장 존 채이스, 제2대 교장 힐 요한에 이어서 서울성서신학교 제3대 교장에 취임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1959년 6월 3일까지 선교부의 전 재산을 모두 팔고,⁸⁾ 7,087평의 역촌동 땅을 매입하여 새 캠퍼스를 조성하여⁹⁾ 1963년 봄 학기를 시작하였다.

테일러는 교명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변경하였고,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신학교의 전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켰다.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는 1963년에 교명을 다시 서울성서신학교로 바꿨고, 1966년에는 서울성서신학원의 인가를 받았다.

테일러의 서울성서신학교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은 1962년 5월 25일에 입국한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이어받아 1990년대까지 발전시켜나갔다. 배도은은 1975년 서울성서신학교 제4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는 1981년 3월 2일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통합감사에배를 드림으로써 서울기독교대학교로 발전되었다.¹⁰⁾

(3) 대한기독교신학교(1965-80)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미국의 링컨기독교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최순국 목사는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상임위원회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 위촉되었

8)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9)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10)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p. 74, 104;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 152.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원효로 임시교사, 1965년경)
 교수진: 좌측부터 김진문 목사, 성수경 목사, 최윤권 목사, 김규상 목사

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가 위촉되었다.¹¹⁾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개교되었고,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으며,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 회장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환,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에는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¹²⁾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는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의 대를 이어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여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

11)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leaflets), November 1965.

12)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1.

대학교로 개명하였다.

(4) 서울기독교대학교(1981-현재)

1981년 두 신학교가 통합될 당시 서울성서신학교는 신사동에 대지 2,400여 평, 교사 1동(449.5평), 식당 및 기숙사 1동(50평), 남자기숙사 1동(51.33평), 사택 1동(13.7평),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임야 5만9,010평을 소유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용산구 효창동에 토지(328평), 교사 1동(481.3평),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에 임야와 전(田) 27만 9천여 평을 소유하였다.



Seoul Christian University

대한기독교신학교(통합)는 1985년 4년제 대학학력 인정교로 지정받은 이후 1987년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1990년 교사 1동(최상현 기념관)을 신축하였다. 1996년 3월 초대총장으로 문언식목사가 취임하였고, 이듬해 가을 본관 건물(환원 교육관)이 준공되었다.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격되었다. 1998년 9월 최윤권 목사가 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한기독교대학교는 1999년 11월 제3대 총장에 취임한 이강평 목사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이강평 목사는 취임 후 교명을 서울기독교대학교로 바꾸고,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동시에 기존 기숙사를 허문 자리에 기숙사 및 교사 1동(채이스 기념관)을 신축하였다. 또 일반대학원(신학과, 사회복지과, 2000), 전문대학원(신학과, 사회복지과, 2001), 특수대학원(치유상담대학원, 2002)을 개설하고, 학부에 무용학과(2000), 전자상거래학과(2001. 2003년에 국제경영학과로 개명), 음악학과(2002)를 증설하여, 학교를 현재의 종합대학교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2015년까지 서울기독교대학교는 학부 5개 학과(신학과, 사회복지과, 무용학과, 국제경영학과, 음악과)에 660여명의 학생, 2개 일반대학원 신학 석·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 전문대학원 목회학 석·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 특수대학원(치유상담 석사과정)에 250여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성인교육과정(평생연구원) 5개 학과(신학, 사회복지, 무용, 음악, 교양)와 몇 개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다.¹³⁾

3) 한성신학교

(1) 한국성서신학교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개교되었다. 첫 수업은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당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1958년에 신축된 20평 흙벽돌집)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며,¹⁴⁾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 목사가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대전역에서 가까운

13) 정남수 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스톤-캠벨 운동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2015), pp. 311-312, s.v. ‘서울기독교대학교.’

14) 교수진은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 등이었다.

선화교회(고광석 시무)로 옮겼다가 1961년에 가장동으로 옮겼다.¹⁵⁾

힐은 가정문제로 1955년에 한국을 떠나 있다가 중국, 미얀마, 일본, 한국에서 사역했던 제인 키넛트(Jane Kinnett)와 재혼 후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0년대 말까지 부강교회와 선화교회를 설립하는 등 충청과 전라권에서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 양성과 교회개척에 힘을 쏟으며, 수십여 개 교회들을 자신의 영향권아래 두었던 김은석 목사와 논산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장로가 대전 정착에 큰 힘을 보탤다.

힐은 1961년에 가장동 유등천변의 큰 부지를 매입하여 천막교회를 시작하였고, 선교사 주택, 예배당, 학생숙소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 장학 명목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가장동 캠퍼스시대가 열리면서 1962년 3월에 교명을 1949년 서울에서 잠시 사용했던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바꿨고, 이 명칭은 20년간 사용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1963년 1월 21일 소천)의 신화신학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 영향권 아래 있었던 충청과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성서신학교와 힐 요한 선교사의 지도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¹⁶⁾ 그의 지도력으로 1960년대에 9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들을 섬김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고,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힐이 재임했던 1960년대 기간에 가장동 캠퍼스에는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위한 2층 저택과 단층 주택(소실), 학생들이 만든 시멘트블록 교회당과 기숙사와 몇 채의 작은 직원 숙소들 및 고아들을 위한 단

15) 이신은 1959년과 60년 초에 조 세걸키와 버트 엘리스가 설립한 '한국방송 선교회'(Korean Broadcasting Mission)에 고용되어 부산문화방송에서 방송설교를 하였고,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6) 이때의 교수들은 힐 요한과 제인,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 이신, 최요열, 김찬영(통역), 소교민(통역), 리처드 래시(Richard Lash), 김희영(통역), 임춘봉, 이은수, 김치연, 박태규(통역),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Fred Hoffman), 힐 버지니아(Virginia Hill) 등이었다.

층 벽돌슬래브주택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회당은 교사가 건축될 때까지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신학교 원룸강의실로 쓰였다. 힐은 1964년에 최초의 교사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현관이 딸린 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이었다. 선교사역 30주년이 되던 1969년 봄에 본관을 2층으로 올리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연되다가 선교사 조 가맨(Joe Garman)과 김찬영 목사의 도움으로 1972년 초여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6월에 힐과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과 패츄리샤



1972년 6월 힐 선교사 가족 송별 단체 사진.

(Patricia) 선교사 부부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때로부터 90년대 말까지 근 30년간 충청과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김은석과 힐요한에 이어 김찬영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조 가맨은 1967년 가을과 힐 가족의 안식년 기간이었던 1969-70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고, 큰 액수의 자금을 모금하여 본관증축공사에 도움을 주었다. 김찬영은 1959년부터 힐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충남대학교 야간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 도미하여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으며, 1972년 1월 21일 제2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김찬영은 힐이 시작한 본관2층의 완공공사뿐 아니라, 3층 증축을 시작으로 70년대와 80년대 내내 부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건축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80년대에는 등록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했고, 캠퍼스 이전과 대학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졌다.

(2) 한성신학교

1981년 2월 16일 학교법인 성령학원과 한성신학교(Hansun Theological College)란 교명으로 모집정원 70명(신학교 40명, 기독교 육과 30명)의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문교 1041.4-133)를 받았다. 교명을 '한국성서'의 줄임말인 '한성'으로 바꾼 이유는 서울 노원구에 이미 같은 이름의 4년제 각종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학교 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캠퍼스 내에서 보육원(1968년 설립)과 한성고등기술학교(1978년 설립) 및 한성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1983년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인가(문교 1020-1646)와 모집정원 60명(야간부 신학교 30명, 기독교육과 30명)이 증원됨으로써 한성고등기술학교가 폐교되고, 유치원만 유지되었다. 1986년 말에 학과증원(주간부 종교음악과, 야간부 사회복지과)과 1987년 말에 모집인원증원으로 입학정원이 총 180명이 되었다. 1998년 9월 8일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¹⁷⁾



1986년 대전시 가장동 한성신학교 캠퍼스(배구대항)

증원증과로 포화 상태에 이른 한성신학교는 1986년 말에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에 12만평 교지를 확보하고, 1988년 4월 30일에 기공식예배를 드렸으며, 1989년 8월까지 본관 4층, 별관 4층, 기숙사 3층,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갖춘 새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교롭게도 동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54차 총회 때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듬해인 1990년 2월 한성교역자들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발족되었다. 출신학교별 친목단체인 기목회와 한성교역자회 사이의 갈등

17) 이 무렵 그리스도의 교회(총회) 소속 신학과 교수들로는 최용호, 장성우, 김상호, 조동호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과 후진양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동년 4월 3일에 협의회 심의위원회가 총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제명하였고, 4월 30일 <환원>지가 분리를 발표함으로써 분열이 고착되었으며, 여러 번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찬영 박사의 영향력아래서 30년간 배출된 수백 명의 졸업생들은 교회성장의 봄을 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개척후원회'가 김찬영, 조동호, 김상호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또 정부의 복지시책에 따라 충남권 최초로 배출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각 기관에 진출하였다. 음악학과 졸업생들 역시 각자의 지역에 음악학원을 개설하여 학원장으로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하였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몇 사람은 정규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다.¹⁸⁾



2000년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한민학교(전 한성신학교) 캠퍼스

학교가 새 캠퍼스로 이전한 1990년대는 대학개편의 기회이자 위기였다. 캠퍼스 이전 초기 수년간은 입학정원 180명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캠퍼스가 대전권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데다가 무리하게 충원된 교수진과 교직원, 노조설립, 대학개편을 바라는 학생들의 잦은 시위, 대학개편에 필요한 재원부족, 무

18) 김찬영 박사 체제에서 교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김진문(1982-84), 김찬영(1985-91), 문원섭(1991-94), 이충구(전 공주교육대 학장, 1994-95), 박영배(직무대리, 1995-96), 최찬규(직무대리, 1996-97), 백형린(1997-99) 순이었다.

엇보다도 캠퍼스 이전직후에 터진 내부 갈등은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20여개 이상의 각종대학들 가운데 대학개편 1순위로 꼽히던 학교를 수렁에 빠지게 하였고, 장로교 목사 조준상이 1999년 9월 30일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세기가 바뀐 2000년대는 2013년 8월 폐교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이로써 30여 년간 한성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던 김찬영 박사 및 패츄리사 선교사 부부는 내부갈등이 빚은 법적제약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다.

조준상에 의해서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성령학원 및 학교명 한성신학교가 각각 한민족학원 및 한민학교로 변경되면서 한성신학교로써 20년간 쌓아온 명성을 잃게 되었고, 학생수 감소와 부실운영 등으로 재정난은 날로 커져갔으며, 학과와 정원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하였다.¹⁹⁾ 2012년 한민학교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검사가 이뤄졌고, 2013년 5월 2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한민학교 폐교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8월 31일 자로 폐교하였고, 재학생은 타 대학교 유사 학과에 특별 편입학하였다.²⁰⁾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한성신학교를 잃은 아픔을 딛고, 학교의 54년 전통과 뿌리를 잇고, 목회자 수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법인과 교명이 변경된 때로부터 총회직영 한성신학교를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총회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회 소속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이 총회직영 한성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었다.²¹⁾

19) 2001년 1월 4일에 국제사회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다시 변경되었고, 2003년 6월 12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가 신설되었으며, 2005년 10월 20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 레저스포츠경영학전공이 스포츠경영학과로, 경찰경호행정학전공이 경찰행정학과로 변경되었다.

20) 조준상 체제에서 총장을 역임한 인물들로는 원동연(2000-01), 장성우(직무대리, 2001), 심태섭(2001-05), 최찬규(직무대리, 2005), 김병우(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2006-2008), 조준상(2008-12), 박영술(직무대리, 2013) 순이었다. 학교설립이후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밋슨 이사장으로는 힐 요한(64-75년), 김 패츄리사(75-76년), 힐 요한(76-77년), 밥 워터(78-81년), 김찬영(81-89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는 성완용, 김 패츄리사, 김찬영, 전영권, 조준상, 심정지(폐교 결정) 등이었다. 이 시절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교수로 남았던 조동호는 김병우 총장과 조준상 총장 재임 때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말에 희망퇴직하였다.

4) 학교법인 동서학원

(1) 경남정보대학



1965년 11월 래쉬 선교사 부부와 장성만 목사 부부(오른쪽)가 학교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육사업의 첫 출발이었다.

1950년대 이후 부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개의 원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인 장성만 목사가 펼친 교육 100년 대계(大計)의 성공한 꿈이었다. 그의 꿈은 오늘날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로 실현되었다. 또 하나는 알렉스 빌즈가 펼친 실패한 기독교 라디오극동방송국에의 꿈이었다. 비록 자금 부족으로 알렉스의 꿈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의 충만한 도전 정신은 꿈을 가진 젊은 장성만 목사에게 큰 에너지로 작용하였다.

경남정보대학은 장성만 목사 부부가 유학을 마치고 1964년 늦여름에 돌아와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부부와 함께 동래 온천장에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2년제 대학과정으로 출범시킨 영남기독교실업학교가 모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강릉과 부산을 오가며 대학설립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무렵 래쉬는 강릉사역의 제한성과 두 딸의 교육문제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았던 때였다.²¹⁾ 래쉬는 장성만 목사의 대학설립의 꿈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고, 장성만은 증원군을 얻은 셈이었다. 이에 래쉬 가족은 1964년부터 부산으로 옮겨 장성만 부부의 귀국을 기다리는 동

2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박대순 저, <간추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오늘의문학사, 1998); 조동호 지음,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22)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안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에 출강하였다. 장성만 부부도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의 학업과 교회순방을 마치고 1964년 늦여름에 귀국하였다.

래쉬와 장성만은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를 출범시켰다. 래쉬에 의하면,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개강예배가 있었다. 강의는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과 유사한 과목들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이었다.²³⁾

영남기독교실업학교는 1965년 11월 20일 부산시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알과 흙'(2층, 래쉬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교명이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되었다. 초대 교장에 장성만, 교감에 래쉬가 취임하였다.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해 장성만 목사는 서울과 부산을 무려 36번이나 왕복하였다. 1967년 첫 졸업식 때, 입학생 19명 가운데 14명이 졸업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1969년 8월 5일 미국에 들어가 20개 주를 6개월간 순방하면서 도움을 호소한 결과 1969년 12월 1일 재미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1970년 5월 28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를, 12월 16일 부산실업전문학교의 정식인가를 받아냈다.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1년 3월 1일 정식 개교되었고,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7년 8월 26일 경남공업전문학교, 1979년 1월 1일 경남공업전문대학, 오늘의 경남정보대학으로 개편되었다.²⁴⁾

(2) 동서대학교

23) Flashes from the Lashes, 2 February 1965.

24)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2009년 4·5일부터 5월 22일자.

동서대학교는 장성만 목사가 12년간 드린 기도의 열매이다. 장성만은 재미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에 설립신청을 하였고, 1991년 11월 15일 4년제 동서공과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2년 3월 3일 개교하였다. 이후 동서공과대학은 동서대학교로 개편되었다.

장성만 목사는 1995년 동서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과 신앙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다. 장성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작사하고 김병율이 작곡한 ‘일터는 삼천리’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즐겨 불렀다.

반만년 묵혀놓은/삼천리 내 강토/피땀 흘려 파헤쳐서/파종해보세/
심은 뜻 귀하다면/알찬 열매 맺으리/아 수확의 그날 바라며/쉬임없이
나가네/한삼 두삼 우리 살림/불어난다/한손에 성경/또 한손엔 보습/
우리의 일터는/옥토 삼천리

장성만은 총장재임시절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20여 국가 78개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대학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캠퍼스를 교육존, 연구존, 스포츠존으로 분류해 공원화시켰다. 강의실에 최첨단 시설을 갖춰 화상강의가 가능토록 하였고, 교수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ABC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업적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교수에게는 ‘브랜드 교수’라는 칭호와 함께 연구비 지급, 정년보장, 강의시간 조정 등의 특혜를 주었다.

장성만은 학부에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 5개 학과를 만들어 2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국내 여러 기업과 산학협정을 맺었으며, 일본 나가오카 조형대학, 독일 바이센제 예술대학,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 상하이 공정대학, 홍콩 폴리텍대학 등과 교류 협정을 체결해 교수 및 학생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동서대에서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미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장성만 총장은 교육세계화에 힘을 기우렸다. 외국인 교수를 50명 넘게 채용하였고, 유학생들의 유치는 물론이고 재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

는 일에도 힘썼다. 또 장성만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대학교와 국립 사할린대학, 미국의 호프대학교와 페리디킨슨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와 조사이국제대학, 스웨덴의 왕립대학, 독일의 베를린 공과대학, 핀란드의 오울루대학, 중국의 중산대학교와 산둥대학교와 북경 이공대학교와 중남재경대학교와 상해공정기술대학, 말레이시아의 엠엠유(MMU) 등 20여국의 78개 대학과 연구소간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대학과 교수 및 학생의 교류는 물론 복수학위 수여까지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에 분교들도 설립하였다. 캠퍼스에는 다국적 교수와 학생들로 넘쳐났고, 2006년에 세계총장회의를 유치하여 12개 국가에서 21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학간 상호 학점인정, 복수학위 수여, 유학생 교류, 세계봉사단 결성 등을 담은 '부산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서대학교는 국제 규모의 수영장과 학생 복지 시설을 갖춘 1만평 규모의 엄광문화관을 건축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또 캠퍼스 내에 대학교회를 건축하여 매주 일반예배, 학생채플예배, 매일 학부기도회, 토요일 월례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에는 현재 동서대학교에 1만여 명, 경남정보대학에 8천여 명, 부산디지털대학교에 4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교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²⁵⁾

5) 기타 초중등학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기독교들은 요츠야선교부의 김영배 전도자가 1930년대에 인천에 세운 초등학교가 최초였다. 1937년 당시 학생이 149명이었고, 교사가 3명이었다.²⁶⁾ 1940년대 말에는 백낙중 목사가 공덕동에 공민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 공덕교회도 있었다.²⁷⁾ 1952년 11월 15일에는 창현 함태영 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에서 복음공민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춘식 목사가 이 학교를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발전시켰다. 함태영의 셋째 사위인 순동식은 이 학교가 배출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이다. 대명중학교는 1974년 설립 20주년 기념식 때 설립자 함태영 목사에게 공로표창과 황금메달을 수여하였다.²⁸⁾ 1954년 8월 7일에는 김광수 목사(장로)가 피난민촌이었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신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성실고등공민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5명의 목회자가 이곳에서 배출되었다.²⁹⁾

1950년대 후반기에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세 개의 중학교에 도움을 주었다.³⁰⁾ 두 학교는 필요한 도움을 줬고, 한 곳은 매월 75달러씩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교사들 봉급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액수였다. 매월 지원했던 학교는 영광농축기술학교로써 38선 근처 포천에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자였고, 박혁 목사가 교장이었다. 그곳에 박혁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 이 학교는

25) *Ibid*

26) "A Visit to Korea (Concluded)," *Tokyo Christian*, July 1937, p. 2.

27) John T. Chase, "Church Established During War by Korean Christians," *Christian Standard*, 23 July 1949, p. 467;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2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337-345.

2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352-356.

30)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4;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4;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2, 4.

학생 17명으로 시작되어 62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 농업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써 매일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공민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다. 신갈에도 이기구 목사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었다.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교사를 건축하였지만,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 서울 근교에 또 하나의 학교가 운영되었는데, 300여명의 학생 대부분이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의 자녀들이었다. 난로도 없는 세계의 천막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졌다.

1960년대에도 힐 요한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들이 있었다. 논산시 연무읍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옥 장로가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논산 순의도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임홍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 등이 힐의 도움을 받았던 학교들이었다.³¹⁾ 이들 가운데 두 곳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았지만, 1965년의 힐의 선교소식지와 버지니아 힐의 편지에 의하면,³²⁾ 이들 선교사들은 수백 명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1975년에는 배도은 선교사가 이광 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였고, 현재 서울기독교대학교 부설 자동차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1978년에는 김찬영 목사가 한성신학교 부설 한성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한성신학교가 1983년 10월 5일 대학학력인정교로 승격되면서 건물의 협소함 때문에 폐교되었다. 한성고등기술학교 출신들 중에서도 목사와 사모가 배출되었다.

31)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 pp. 18-19, 131-133.

32)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20 July-20 November 1966; 14 October 196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복지사업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선교사들에게뿐 아니라, 내국인 사역자들에게도 지상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에 전쟁 중에 또는 전후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내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보육과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제말엽과 해방직후에 존 T. 채이스는, 보육 사업은 아니었는지라도, 극빈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물자 공급에 힘을 기우렸다. 자신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가 구호물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또 미국의 성도와 교회들이 그들에게 바로 구호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주소를 자신의 선교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공개하였다.¹⁾

중공군의 개입으로 재차 일본으로 피신했던 힐 요한은 1951년 6월 18일 입국하여 부산에 2주간 체류하는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을 찾아내 6월 24일과 7월 1일에 나무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힐은 부산에서 보육원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로부터 서울서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경을 결심하였다. 힐은 부산을 떠나기 전에 큰 천막을 구입하여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주어 그들의 거처와 예배장소로 삼게 한 후에 최춘선, 성수경과 함께 부산을 출발한지 이틀 만인 7월 5일 서울에 도착하여 8월 4일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설립하였다. 이 무렵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후 힐은 장소문제로 보육원을 부평으로 옮겼고, 자신의 사역을 해

1) "We Are Doing What We Can,"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7, p. 4.

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넘기고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날 때까지 부평 선교부 보육원,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²⁾

1955년 11월에 입국하여 존 T. 채이스와 힐 요한 선교사가 하던 선교 사업을 이어받은 해롤드 테일러는 부평보육원의 운영경비 모두를 책임졌고, 대전 애생원도 직접 관리하였다. 애생원과 인천 보육원의 경우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부평보육원을 제외한, 이들 보육원들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선교부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힐 요한은 재입국한 1959년 이후에도 1959년 3월에 흥경채(홍응수)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자신의 맏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밖에도 1950년대 전반기에 충남 부여군 합송리교회에 구애보육원³⁾ 1966년에 최윤권 목사가 서울 도원동에 세운 지온보육원이 있었다.⁴⁾

선교사들이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행한 사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원을 세워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였다.

둘째, 내국인들의 보육원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이 경우 운영비,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하였다.

2) John J. Hill,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hristian Standard*, 4 August 1951, p. 483; "Korean Officials Make Change in Orphanage Regulations," *Christian Standard*, 15 September 1951, p. 581;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쎄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참고: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p. 71-82.

3)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 63.

셋째,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힘썼다.

넷째, 구호물자를 지원하였다. 힐이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에 의하면, 도날드 캠프스라는 공군병사가 송월동 선교부의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방문한 직후, 관련 기사를 써서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기고하였고, 그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기관들 또는 시민들로부터 원생들을 위한 헌옷과 새 옷 보따리 1천개 이상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힐은 이들 보따리를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틈틈이 분류하여 보육원들에 보내주었다. 또 성인용 의류들인 경우,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눠주었다. 힐이 한국을 떠난 1955년 말에는 테일러가 남은 옷 보따리를 물려받아 처리하였다. 테일러는 보육원들에 보낼 헌옷들을 1956년 여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10월과 4월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형제들에게도 이 시기에 맞춰서 구호물품을 보내줄 것을 매년 요청하였다. 10월에는 보내줘야 보육원들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⁵⁾ 테일러는 이 옷들을 수선할 재봉틀도 보내 줄 것을 미국 교회들에 요청하였는데, 원생들의 숫자만큼 수선해야 할 옷이 많다보니까 재봉틀의 수명이 짧았던 것이다.⁶⁾

다섯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원생들의 신앙교육에 있었다. 테일러는 이들 보육원생들에게 매주 1회 예배와 연 2회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⁷⁾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퇴원하는 원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성서신학교에는 보육원 출신의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⁸⁾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김은석은 구애보육원, 대전 판암동 애생원, 부평보육원, 인천보육원 등을 방문 설교하였고, 종종 부흥집회도 인도하였다.⁹⁾

5) "Clothing,"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1.

6) "Needed: A Sewing Machine,"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61, p. 4.

7)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8) "All About Orphans,"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4.

1) 부평보육원

부평보육원은 힐 요한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에서 1951년 8월 4일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으로써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부평으로 옮긴 것이어서 기독교회선교부가 모든 살림을 책임졌다.

송월동 선교부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은 19명의 고아들로 시작하였는데, 곧이어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힐은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었던 성수경과 최윤권 목사의 누이를 불러 돕도록 하였고, 나중에 대전 관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낸시홍, 안나, 안 여사, 김동수, 한길자, 요리사 신 여사 등이 동역하였다.

이 무렵 1953년에 리라 톰슨(Lila Thompson, 1953-56)과 1954년 메리 반힐(Mary Barnhill, 1954-55)이 입국하여 선교부가 운영하는 보육원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리라 톰슨은 보육원을 부평으로 옮긴 후 1956년까지 그곳에서 먹고 자며 헌신하였다.¹⁰⁾ 톰슨은 미군 중사



부평 보육원(1957년)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1955년 10월에 결혼한 후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6년 평택이전을 앞둔 부평미군 기지의 미군 병사들은 1950-60년대에 인천, 부평, 부천에 세워진 보육원 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테일러에 의하면, 1958년 10월에 부평보육원의 원생들이 원장에 반대하여 데모를 일으켰고, 그 수습책으로 설하운 목사가 원장으로

9)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103, 124-125, 166.

10)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임명되었다. 이후 설하운은 이 보육원을 도내 최고 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¹¹⁾ 설하운은 신학생 때 선교부신학교 관리과장으로 섬겼고, 구호의류를 보육원들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57년 3월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후 도원동교회를 시무하던 중 부평보육원 원장 및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로 취임하였다.

2) 부여 합송리교회 구애보육원

선교사들이 합송리교회의 구애보육원을 후원했거나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충남 부여군 합송리교회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석은 구애보육원 원아실과 식당에서 1954년 3월 29일과 1955년 2월 17-18일(박근영군과 김순식 자매 결혼식 주례)에 각각 성서를 통독하였다.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으므로 구애보육원은 이신 목사가 시무하고 있을 때 이곳 피난민촌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 힐 요한 선교사의 글과 주소록에 합송리교회와 구애보육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은석 목사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이곳이 교역자회 소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대전 판암동 애생원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애생원은 1950년대 초 설립되었다.¹³⁾ 설립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겼다. 이후 박중현이 테일러 선교사의 초빙으로 원장에 취임하였다. 힐 요한에 의하면, 메리 반힐(Mary Barnhill, 1954-55) 선교사가 1954년에 입국하여 애생원에서 먹고 자며 헌신하였다. 그녀는 이곳 애생원에서 전염성 간염에

11)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12)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p. 63, 85.

13)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p. 103, 124-125, 166.



대전 탄양동 애생원(1960년대)

걸렸고, 송월동 선교부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톱슨이 부평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고, 그해 선교부의 일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제

인 키넬트(Jane Kinnett, 1955)도 반힐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¹⁴⁾

1955년 말에 기독교회선교부를 인수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이신 목사와 함께 1956년 1월 27일(금)일 애생원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¹⁵⁾ 1958년 5월 18일 주일에도 애생원을 방문하여 설교하였다.¹⁶⁾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는 애생원을 종종 방문하여 예배와 부흥집회 때 설교하였다.

애생원은 기독교회선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육원이었다. 1958년 12월에 애생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고, 법적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테일러 선교사는 그 해결책으로 전에 부평보육원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사임하고, 서울에서 전에 했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훈 형제를 불러 원장에 취임시켰다. 테일러가 1960년 1월 11일에 애생원을 다시 찾았을 때, 애생원은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이 풀렸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원장과 새 이름을 갖게 되어 마치 새로운 장소 같았다고 전하였다.¹⁷⁾

1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15) "To the Far Corner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2.

16) "Daily Doings,"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2.

17)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Taejon Orphanage,"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60, p. 4.

4)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은 1952년 8월 1일 이종만 목사에 의해서 인천시 남구 학익동 377번지에서 시작되어 1954년 10월 15일 ‘인천보육원’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시설설립인가와 1958년 1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인천보육원 인가를 각각 받았다. 이후 인천보육원은 1976년 현재의 자리인 인천시 학익동 99-1번지로 이전하였고, 1980년 10월 13일 김영길 이사장에게 무상 양도되었으며, 동년 12월 31일 김영길 원장이 취임하였다.¹⁸⁾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1955년)

힐 요한 선교사에 의하면, 이종만은 힐이 선교부에 보육원을 시작한 이듬해에 힐을 찾아가 인천에 보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종만은 그 무렵 이미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현 인하대학교 운동장)에 수용한 상태였다. 힐 선교사가 은퇴한 1972년에는 90여명의 원생이 인천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김은석은 1957년 한 해 동안에만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는 인천 학익동의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대해서 두 차례 이상 언급하였고, 1957년 3월 23-24일(토-일)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삼 아(兒)를 인천 학익동 이종만 보육원에 입원 차” 방문하였다.¹⁹⁾

이종만 목사는 이 보육원뿐 아니라, 승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

18) 사회복지법인 일현 인천보육원 및 관련기사(인터넷 홈페이지).

19)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 142.

한 1950-70년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산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종만은 힐 요한 선교사가 세운 한국성서신학교의 이사를 오랜 기간 역임하였고,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위원회 한 사람이었으며, 교단의 중진이었다. 이종만 목사는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이민하여 한인교회를 담임하였다.

이종만 목사가 인천보육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후임을 물색할 당시, 인천시 담당교육원이 타 보육원의 총무로 있던 김영길의 청렴성, 정직성, 운영능력을 보고 인천보육원의 인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영길 총무는 보육원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만은 김영길 총무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여 1980년 10월 13일 인천보육원을 무상양도 하였고, 김영길은 동년 12월 31일 원장에 취임하였다.

원장취임 후 김영길은 과거 외국의 원조와 후원활동에 의존하던 경영 기법을 탈피하고자 1984년 9월 28일 인천후원회, 1993년 1월 19일 서울후원회, 1994년 11월 1일 개별후원회를 각각 발족하였고, 1500여명의 후원회로 발전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육원의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점차 교육, 건강, 취업, 결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3월 10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천보육원이 사회복지법인 일현으로 변경되었다.²⁰⁾

5) 논산 에덴보육원

논산(연무) 에덴 보육원은 1959년 10월 15일 노봉옥 장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1963년 11월 12일 재단법인 에덴영아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4년 2월 14일 영아시설인 에덴영아원이 설립되었고, 1973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으로 법인명칭과 정관(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영아시설을 해체하고 육아시설인 에덴보육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3년 2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정관을 변경하여, 동년

20) 사회복지법인 일현 인천보육원 및 관련기사(인터넷 홈페이지).



에덴보육원(1960년대)

3월 12일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설치인가를 받
았고, 1998년 2월 2일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부설 연무어린이집 설
립 인가를 받았다. 1999
년 10월 15일 에덴보육
원 시설장이 노봉욱에
서 노동익으로 바뀌었

다. 2000년 3월 13일 연무경로식당을 설치하였다. 2001년 4월 19일 정원을 68명에서 74명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에덴보육원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 880번지에 대지 3,946㎡ (1,194평), 건물 연면적 1,925㎡(6개동 총582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소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 지도, 진학, 취업 상담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및 다양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소식지 <꿈과 사랑이 숨 쉬는 에덴동산>을 펴내고 있다. 이외에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연무어린이집, 논산기초푸드뱅크, 연무경로식당을 꾸리고 있다.

에덴보육원은 원내에 자체건물인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고 있고, 교회의 담임목회자를 통해서 원생들의 신앙지도에 힘쓰고 있다. 설립자 노봉욱 장로는 세광고등공민학교 및 순의도 여자(연무여자) 중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크리스찬 밋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7월 6일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²¹⁾ 순의도 여자 중학교는 설립기금의 3분의 2를 지원한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성을 따서 '순의도'(스나이더)라 정하였다.

21) 사회복지법인 에덴보육원 및 인터넷 관련기사(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p. 103-106.

6)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1960년대말)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들과 당진에서 온 두 명의 남자 아이들로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Taeje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²²⁾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은 힐 요한 선교사의 딸로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후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선교사로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3년만인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였다. 보육원을 설립한 지 일 년 만에 원생이 23명으로 늘었다. 보육원은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머미 세 들어 거주하던 선교센터의 1층에서 시작되어 로버트 스나이더 박사의 기금으로 한국성서신학교 교정에 건축된 단층 슬래브벽돌 건물에 입주하였다.

안식년을 가진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1969년 5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간 버지니아는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세 명의 딸을 키우면서 한동안 대전 보육원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수고하였다.

버지니아의 후임으로 힐 가족을 대신해서 10개월 체류 예정으로 내한하여 1969년 9월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 부흥목사 조 가맨(Joe R. & Linda Garman)의 부인 린다가 수고하였고, 폴 코모(Paul Comeaux, 1969-70)가 그들을 도왔으며,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와 1972년 은퇴할 때까지 그들을 이어서 관리하였다. 이후 김찬영 목사(1970-78)와 부인 패츄리샤(Patricia Kim, 1970-98)가 원장을 맡았고, 클라우디아 라자라쉬(Claudia Lazzereschi, 1974-78)가 내

22)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January-June 1968.

한하여 이들 부부를 도왔다. 1972년까지 남은 원생이 14명이었는데, 6명이 미국에 입양되었고, 4명(2남 2녀)은 가출하였으며, 나머지 4명(2남 2녀)은 김찬영 박사 부부가 입양하였다.²³⁾

7) 대구 배성보육원



대구 배성 보육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힐 요한 선교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후속 이야기를 찾을 수 없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8) 부산 성광원



부산성광원(1960년대)

부산 성광원은 홍응수(홍경채) 여사에 의해서 1959년 3월에 설립되어 1960년 12월 7일 재단법인 성광원 설립 허가를 취득하였고, 1961년 6월 육아시설 성광원

23)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30 April 1969;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12, 100-101.

의 시설허가를 취득하였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하였으며, 1972년 2월에 원사를 부산시 북구 금곡동 1192번지(대지 600평, 건평 200평)로 이전하였다. 성광원은 이 기간에 힐 요한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로버트 스나이더 박사가 성광원의 법인설립을 지원하였다.

이어 1988년 6월 사회복지법인 성광복지개발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9년 2월 사회복지법인 동서사회문화원으로 다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동년 3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인가를 받았으며, 1989년 12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관 부관을 준공하였다. 이로써 홍응수(홍경채) 여사는 1929년 경북 군위군에서 출생하여 6.25전쟁으로 가정을 잃은 고아들과 30년간 동고동락하다가 1992년 1월 11일 소천하였다.²⁴⁾

9) 서울 지온보육원



지온보육원(2010년경)

지온보육원은 최윤권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전 총장)에 의해서 1966년에 설립되었다. 최윤권 목사가 미국에서 귀국 후 결혼하여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곳은 빈민동네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네 명의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이 지온보육원의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소천한 민지은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

지온보육원은 최윤권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전 총장)에 의해서 1966년에 설립되었다. 최윤권 목사가 미국에서 귀국 후 결

24) 사회복지법인 인천(仁泉)사회사업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처음 시작되어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에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지온보육원의 자리는 행주대교 근교로써 수풀이 많은 곳이라 그곳에서 수차례 교역자회와 청소년 캠프가 개최되었다. 설립이후 소천 때까지 민지온여사가 원장을 맡았고, 민 여사 소천 직후 최윤권 목사가 원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박국자 여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부원장으로는 최윤모 장로, 총무로는 김병복 목사, 한호창 전도사, 한준희 목사, 김상영 목사, 이수영 목사 등이 수고 하였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 집이 설립되어 최윤권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²⁵⁾

25)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3.